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4차 국제학술대회

목 차

세계 속의 한류

[초청 특강 I]

세계 속의 한류: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전파

..... Jiang Baoyou (중국 Fudan University)

[초청 특강 II]

문화강국 한국을 위한 한류전략

..... 신승일 (한류전략연구소장)

[주제 특강 I]

터키에서의 한류와 한국어 교육 현황

..... S. Göksel Türközü (터키 Erciyes University)

토론: 김성주 (서울대)

[주제 특강 II]

Possibility of the Korean Cultural Wave in India in India

..... Kim Do-young (인도 Delhi University)

토론: 김왕식 (이화여대)

[주제 특강 III]

고대 한류로서 복식문화의 국제적 위상

..... 박선희 (상명대)

토론: 임재해 (안동대)

[주제 발표]

제1분과 지역별 한류 문화

Korean Wave in Russia: Reality or Just Dream

..... Sergey O. Kurbanov (러시아 The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토론: 전태현 (한국외대)

일본의 한류: 한류가 남긴 것

..... Hasegawa Yukiko (일본 Kyushu Sangyo University)
토론: 최권진 (경희대)

베트남에서 한류의 영향력과 미래

..... Le Dang Hoan (베트남 Hanoi National University)
토론: Ly Kinh Hien (Hanoi National University)

제2분과 한류의 분야별 현황

한국 향토 문화의 세계화 방향

..... 박동준 (한국학중앙연구원)

태국에서의 한류 현상

..... Prajuab Yinsen (태국 Songkla University)
토론: 최윤곤 (동국대)

카자흐스탄의 한류: 한국 드라마와 한국어 열풍

..... German Kim, Ibrayeva Zhanna (카자흐스탄 Kazakh National University)
.....
토론: 이지영 (상명대)

제3분과 한국언어문화교육과 한류

‘한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 연구

..... 방성원 (경희사이버대)
..... 토론: 정혜경 (세종대)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자습 소프트웨어의 개발

Hye-Jin Kim(일본 Kurume University), Ui-Jin Kim(일본 Tohoku-Gakuin University)
토론: 선홍남 (동국대)

미국에서의 한국언어문화교육과 한류

..... Hye-Sook Wang (미국 Brown University)
토론: Eun-Hee Shin (미국 Simpson College)

초청 특강

I

사 회: 박정운 (한국외대)

발 표: Jiang Baoyou

(중국 Fudan University)

세계 속의 한류

—중국에서의 한류와 한국어 교육 그리고 한국문화 전파—

姜 宝 有

(中國·夏旦大學)

1. 서론

2007년 1월 1일, 중국 국가주석 胡錦濤와 한국 대통령 노무현이 서로 축전을 보내 “중한교류의 해(中韓交流年)”의 시작을 선포하였다. 중한 양국은 수교 15주년을 맞아 단계 높은 문화교류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3월의 개막식에 이어 8월 24일 하이라이트를 연출하면서 양국 정부는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교육 등 영역에서 90여 가지 다양한 문화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런 문화교류 활성화는 상호 문화 수입과 문화 전파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장기간 같은 한자문화권에서 서로 자양분을 섭취하면서 자기 고유한 전통문화를 키워왔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韓流, 한국에서는 漢流의 열풍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학습 열기가 고조되면서 상호 문화 전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공영하는 21세기 문화의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韓流와 漢流를 대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중국에서의 한류 확산과 한국어 교육의 극대화로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중국에서의 한류 수용과 중국 문화의 부흥

중국의 개혁개방은 경제교류와 문화교류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중국 대륙에서는 해외 문화 붐이 일기 시작했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구미문화의 유행으로부터 홍콩, 대만 문화의 유행이 이어지고 1990년대 중기, 후기에는 일본 문화가 유행되었다. 2000년대에는 한국 문화(한류)가 유행되기 시작한 후로 지금까지 줄곧 이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류를 잠깐 불었다 살아질 것이라는 관망적 태도를 보였지만 한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중국은 물론 동남아, 남미 등지로 확산되면서 팔목상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류(韓流)”란 중국을 비롯한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대만, 홍콩, 베트남 그리고 최근에는 태국, 필리핀, 몽골, 일본 등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유행 현상을 말한다.

“한국 유행문화”를 축약한 “韓流”라는 신조어는 중국에서 처음 사용되면서 “韓風”, “韓潮”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한류”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또 열광적인 한국문화 유행 현상을 “韓流熱風”이라고 표현하고 한국의 유행을 따르는 젊은이들을 하한(哈韓) 또는 하한족(哈韓族)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한류”를 한국 TV드라마, 한국 음악, 한국 영화, 한국 게임(혹은 문학) 그리고 기타 등 5가지로 분류하고 기타에 성형, 축구, 휴대폰, 현대 자동차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면서도 한류의 핵심으로 그래도 한국 TV 드라마를 꼽고 있다. 『-|方朝報』가 지난 해 중한 수교 14주년을 맞아 “2006 중국 속 한류”라는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사람들은 “한류”하면 생각나는 한류 대표 상품으로 한국 음악그룹, 한류 드라마, 한국어, 서울, 한복, 김치, TV종합예술회사, 삼성전자, 성형, 길거리 댄스 등을 꼽고 있었다.

한류는 현재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유행을 표시하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매김하면서 한국문화의 전파에 기여하고 있다.

한류 열풍이 중국에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한 양국 간의 경제 교류는 문화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2006년 대중국 투자액이 2005년보다 27.9% 성장한 45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또 올해에 일본을 제치고 최대 대한민국 수출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경제, 문화 교류 활성화는 정보화에 따른 문화 개방을 불가피하게 한다. 한국의 문화콘텐츠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한류 문화상품들이 개발되어 중국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류는 중국에서 문화적 동질성과 근접성에 따른 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은 한류의 핵심을 유교문화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 TV드라마에는 동양문화 뿌리에 대한 친화력이 스며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더 쉽게 수용하고 있다. 한류는 또 동질의 이질화로 관중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셋째, 한류 문화상품의 우수성이 중국에서 대안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 TV 드라마는 정치 설교가 아닌 연인 간의 정, 혈육 간의 정, 친구 간의 정을 주제로 한 소박한 일상을 다루기 때문에 부담없이 볼 수 있고 중노년층들은 그로부터 대리만족을 얻고 있다. 한국 현대 음악은 빠른 절주로 10대 젊은이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어 젊은이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한몫하고 있다.

넷째, 한류는 또 중국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 “和諧社會” 구축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和爲貴”를 주장하고 “和諧”를 숭상하는 중화문명의 바탕 위에 새로운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한류에서 섭취할 자양분이 많은 것이다. 한류와 “조화로운 사회” 핵심이 바로 유교문화의 부흥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류는 중국 문화와 상보 상생하면서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류의 진원지 중국에서 한류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와 학계는 한류 수용 과정에서 한류 확산에 대해 방관하던 데로부터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항한류(抗韓流)”로 거부하고 고민하던 데로부터 “신한류(新韓流)”로 자기반성을 하기 시작했고 “친한류(親韓流)”로 중국 문화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中國國家廣播總局과 중국 CCTV는 2006년 초부터 한국 드라마 수입과 방송규제를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다. 광전총국은 하루 방영하는 드라마 프로그램 중 외국 드라마는 25% 이내로 제한하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의 황금시간대에는 외국 드라마를 방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중국 정부는 ‘한류’의 일방통행에 따른 무역 불균형을 문제삼고 방송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드라마는 대중의 문화 상승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文匯報』(2007.2.7)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는 국산 TV드라마가 1만 3800회를 초과했지만 방영된 TV드라마는 7000회로 거의 절반 프로가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고 제작 프로의 20%만이 흑자를 낸 상태라고 한다. 중국 TV드라마의 질적 향상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文匯報』(2005.11.14)에서는 중국에서 “한류”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원인은 바로 “漢流” 즉 중국 전통문화의 잠시적인 상실 때문이라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漢流”(儒家文化)가 “韓流”(韓國文化)에 영향 주었다면 오늘날에는 “韓流”(韓國電視劇)가 “漢流”(儒家文化)로 돌아왔다고 “자기 위안”을 하기도 한다.

『人民日報』(2005.1.20)에서는 “한류”의 핵심은 유교문화이다. 한국은 우리의 문화 유산인 유학을 우리들에 비해 더 잘 간직하고 있으며 잘 발전시켰다. 우리들은 반드시 각성해야 한다.”고 했고 『中國青年報』(2005.6.17)에서는 “한국 TV드라마는 일반적으로 仁, 義, 禮, 廉 등과 같은 전통문화의 긍정적인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 중국이 포기한 것을 드라마에 담고 있다.”고 한다.

『四川日報』(2005.6.15)는 “한국 드라마의 ‘침입’이 가져온 압력을 중국 드라마의 수준 향상의 동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하고 『亞洲週刊』(2005.10.16)은 “한국 드라마의 힘을 중국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것은 질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한류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한류를 통해 자기반성을 하면서 “主流文化” 구축으로 문화 강국으로서의 정체성 재구성을 설계하고 있다.

중국은 “5.4 운동”으로부터 “문화대혁명”에 이르기까지 57년 간 전통문화에 대한 비판이 난무한 가운데 많은 전통을 잃어버렸다. 개혁개방 후로는 외국문화에 대한 숭배로 자기 우수한 전통문화마저 격하시키기도 했다. 그로 하여 중국은 현

재 다문화 교류를 통한 주류문화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시점에서 중국은 한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주류문화 구축 과정에서 한류를 통해 중화문화의 정수를 다시 한번 인식하기에 이르렀고 중국문화의 부흥으로부터 중국문화의 해외 수출에 이르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한류와 동반하여 거세게 일고 있는 “漢流”이다.

“한류”에 상대하여 “漢流”, “漢潮”, “漢風”, “華流”, “中國流” 등 여러 가지 명칭들이 쓰이고 있다. 중국이 다민족 국가임을 염두에 두고 “中國風”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중국에서는 “漢流”의 구성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사람은 없지만 그 핵심을 “漢語”로 많이 이해하고 있다. 한류는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이해되지만 漢流는 漢語熱로 인식되는 것은 중국이 아직 문화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요즘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中國風”이 일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는 “漢語”에 국한된 “漢流”를 유교문화를 핵심으로 하는 “漢流” 즉 “國學熱”로 승화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 중국에서의 한류와 한국문화 전파

문화를 대하는 태도는 문화 국수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국은 몇 천 년 간 문화 국수주의로 커왔고 한국은 문화 사대주의로 자신을 길들여 왔었다. 문화의 세계화에서 문화 국수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자기 문화를 고립시키고 멸망시킴은 자명한 일이다. 문화 상대주의만이 자기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한류와 漢流를 대해야 할 것이다.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를 알리고 한국 문화산업을 추진시킴으로써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李双龍(2003:302)에서는 2001년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호감도가 43.6%로 나타났고 한국 KOTRA의 조사에서는 2004년의 47.1%에서 2006년에는 82.25%로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문화정책 차원에서 한류 확산을 통한 한국문화 전파에 가세하고 있다.

2006년 7월 5일, 김명곤 한국 문화관광부 장관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류 범위 확대와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한류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존 한류가 대중문화 산업에만 치중되어 있고 경제적 측면으로만 접근해 일부 국가에서 반감을 사고 있다”며 “한류 정책 분야를 전통문화와 순수 예술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즉 대중문화 일색 한류는 그만하고 한국문화를 수출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를 위해 한글, 한복, 한식, 한옥, 한지, 한국 음악 등 6개 전통문화를 “한브랜드(6H)”

로 지정하고 이같은 전통문화 자원을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외 한국문화원 확대와 코리아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체험 공간인 한국문화원 개원과 코리아센터 설립이 크게 기대된다.

한국 정부는 또 한류 세계화를 위해 2006년 11월 29일부터 2007년 3월 10일까지 4개월 간 제주도에서 “아시아 한류 박람회”를 개최하여 한국 TV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음악, 한국 음식 등 다양한 한류 문화상품 홍보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한국정부가 한류 확산과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중국 상해에서도 다양한 한류문화 행사가 펼쳐지기도 했다. 2006년을 기준으로 상해에서 펼쳐진 한류문화 행사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원판 드라마가 상해 디지털 유료 채널에 뜨기 시작하면서 한류가 상해 안방으로 더 깊이 파고 들었다. CJ CGV는 상해영화그룹회사와 손잡고 상해에 CGV를 개관하여 중국에서 멀티플렉스 사업을 시작했는데 10월 22일에는 上影CGV 영화성 오픈식과 함께 10월 29일까지 8일 간 “2006년 한국영화전”이 개최되었다. 그에 따라 해마다 열리는 한국영화주간으로 해서 영화를 통한 한류 열풍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2006년 9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상해에서 사상 처음으로 “2006년 상해 한국문화 콘텐츠 축제”가 열려 한국영화제와 한국문화 콘텐츠 전시회, 한국가요 콘서트, 중한문화 콘텐츠 세미나 등이 개최되어 상해에서의 한류를 격조 높였다. 10월 2일에는 상해 홍구체육관에서 “2006년 한류열풍 상해 콘서트”가 한류 가수 장나라를 비롯한 강타, 바다, 하리수 등 유명 가수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10월 7일과 8일에는 “2006년 한국 전통음식 문화축제”가 중화 제일의 변화가이자 관광명소인 남경로에서 열리면서 한국 전통음식이 대환영을 받았다 『상하이저널』(2005. 8.20)에 따르면,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2005년 6~7월에 중국 베이징과 상해 지역 소비자 5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8.5%의 사람들이 한국과 관련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김치”라고 답했는데 응답자의90%가 한국 김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불고기”(20.6%), “한류”(18.2%), “비빔밥”(11.1%) 순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소비자에게는 김치와 불고기가 한류보다 더 강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4.1%가 한류열풍이 한국식품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디자인 코리아 2006년 상해”가 개최되었다. 이런 한류 관련 행사가 있을 때마다 풍물공연, 음식제, 패션쇼 등 색다른 한국문화 이벤트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문화의 다양성으로 축제의 열기를 한층 더 높여 주었다.

2006년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전세계를 감동시킨 뮤지컬 “명성황후”가 상해대극장에서 공연하면서 한국적인 섬세한 여성적 감수성과 외유내강의 아름다

음을 선보였고 7월 8일에는 한국 국립국악원이 상해에서 여민동락(與民同樂) 궁중 무용과 대금 독주, 민속무용 등 공연으로 한국 전통예술의 진미를 보여주었다.

12월 12일에는 “2006년 SOREA 공연”이 있었는데, “뉴 웨이브 소리아”는 한국 전통예술의 대중화와 현대화 그리고 세계화라는 큰 명제 아래 다양하고 독창적인 레포토리 개발을 통해 한국 전통음악을 대중음악으로 생활화하면서 중국 관객들을 또 한번 놀라게 했다. 한국의 전통음악을 아리랑이나 판소리와 같은 느린 곡조로만 알고 있었던 중국 사람들에게 전통과 현대의 접목으로 인한 재창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07년 1월 30일과 31일에는 한국 유니버설 창작 발레 “심청”이 상해대극장 무대에 올라 한국 전통 춤사위와 서양의 발레 테크닉이 어우러진 동서양 문화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연출했다. .

2006년에 들어서면서 대중문화로 포장된 단순 한류로부터 한국의 전통문화는 물론 대중문화와 전통문화가 접목된 다양한 형식의 한국 현대성 문화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文匯報』(2007.2.7)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국의 태권도(跆拳道)가 청소년들의 인기를 끌면서 중국 무술계는 흥분하고 비애에 젖어 있다. 중국 四川省 成都市가 심신건강에 좋은 태권도를 초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면서 태권도가 중국 전통 무술(武術)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중국 무술계는 國術의 보호와 개량에 전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한류가 다문화 차원에서 중국 전통문화에 충격을 주고 중국 사람들을 매혹시키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지만 중국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아직 역부족(力不足)인 것으로 보인다.

복단대학교 사회학과 于海 교수가 상해에서 1152명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민족정신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절반 이상이 국적을 다시 선택한다면 중국인이 되지 않고 미국인(36.9%), 일본인(14.9%)이 되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었다. 중학생들 가운데서도 30% 이상이 외국인이 되겠다고 답했는데, 13.1%가 미국을, 6.8%가 일본을 선택하고 11.5%가 기타 나라들을 선택하고 있었다. 한류가 중국 청소년들을 그렇게 매혹시켰음에도 경제가 발달한 미국이나 일본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이 문화보다 경제를 더 앞세우는 것 같았다. 또 구미문화가 줄곧 중국에 영향 미치고 있고 일본문화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한류가 중국에서 자리 잡은 지 아직 10년에도 못 미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파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한류가 중국 청소년들의 마음을 꼭 잡으려면 자기만의 독특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질성으로 인한 대안문화라든가 대리만족은 어느 한 시기에는 신선함을 잃게 된다. 한국문화에 심취하게 하려면 한류를 대중문화에 귀속시키지 말

로 전통문화에까지 확산시켜야 하며 한류를 한국어 붐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에서 한류의 지속이 어느 때까지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은 중한 양국 정부의 입장과 전략 그리고 경제 성장에 따른 한국 문화상품의 질에 관계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도 한류전략을 본받아 중국 문화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문화 동질성 개발에만 전력할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문화 상품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한류는 한국어 교육에 기대어아만이 생명력을 가지고 장기간 지속,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전파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은 한국문화 상품 선호로부터 한국 관광, 한국 유학으로 이어지면서 新韓流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은 해마다 60만 명 이상이 한국 관광의 길에 나서고 있고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이 2만 명 이상으로 재한국 유학생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10월 24일 공포한데 의하면, 2006년 4월 1일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3만 2557명 중 61.7%를 점한 2만 80명이 중국 유학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每周韓國』(2006.38期) 참조.

중국에서의 신한류는 또 한국어 학습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으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류 열풍이 일기 전에 중국에는 벌써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과 함께 한국어 붐이 일기 시작했다. 2006년 9월 24일,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제10회 “한국어능력시험(KPT)”에 응시한 중국 사람도합 1만 2813명으로 세계 28개 국 응시자(3만 3973명) 전체의 1/3을 넘어서고 있었다.

『東方朝報』의 설문조사나 “한브랜드(6H)”에서 보다시피 흔히 한글과 한국어를 한류의 한 요소로 이해하는 경향이 짙다. “한브랜드(6H)”에서 한글을 문화상품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인데, 어떻게 육성하는가 하는 것이 주목된다. 한글 디자인을 상품화한다고 하는 것보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류와 한국어를 구태여 비교를 한다면, 한류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소비적이고 단기적이며 감상적이다. 한국어는 학습자의 입장에 볼 때, 주기적이고 장기적이며 학구적이다. 그리고 한국어는 취업과 직결됨으로써 실용적이다. 수용 국가 차원에서 한류 확산은 물리적으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의 취업과 직결되는 한국어에 대한 학구적인 욕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한류 문화콘텐츠 개발 뿐만 아니라 한글의 세계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영국은 대외 영어 교육으로 GDP 성장에서 단맛을 본 지 오래고 중국 또한 대외 중국어 교육의 GDP 성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어교육을 통한 문화전파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도 상품화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한류 문화 상품 수출이 한국어 수출로 이어져야 함을 말해준다. 그래서 박영순(2006:85)에서도 “한국어”의 수출이 그 어떤 문화 상품 수출보다도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했을 것이다. 한류 열풍을 한국어 붐으로 끌어들이야 하며 한국어 교육으로 한국문화를 수출하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한류 열풍이 한국어 학습 열기를 고조시켰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한국어 교육계 일각에서는 한국어 그 자체가 한류의 핵심 내용이고 한국어가 한류의 원조 강철근(2006:161) 참조라고 한다.

한류와 한국어는 결국에는 한국문화를 전파하게 마련이지만 한국문화를 전파함에 있어서 그 역할과 심도가 다르다. 한류에 열광한다고 해서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꼭 배우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영화를 즐긴다고 해서 꼭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은 아니다. 한류를 통해서 한국문화에 대한 피상적 인상에 머무를 수 있지만 한국어를 배우면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접하게 되고 한국문화를 깊이 연구하게 된다. 그로 인해 한국문화는 또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

한류가 한국문화의 홍보대사라고 한다면 한국어는 한국문화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한류로 한국을 홍보하고 한국어 교육으로 한국문화를 심어주는 한국문화 세계화 방안을 고안해 본다.

중국은 한국과는 달리 문화 상품 수출이 아닌 漢語를 통한 중국문화 수출 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어 붐이 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한국어 붐이 일면서 漢語 교육을 통한 중국문화 수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123개 대학교와 56개 전과대학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중국어 학과를 개설하고 있고 260개 고등학교들에서 중국어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漢語水平考試(HSK)” 응시자를 보면 2004년에 한국에서만 2만 2000여 명으로 해외 응시자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漢語熱을 고조시키고 있다 『文匯報』(2005.11.14) 참조..

2004년 11월에 세계 첫번째의 孔子學院이 서울에서 정식 오픈했다. 공자학원은 공자사상 전파를 위해 개설한 학교가 아니라 공자의 이름을 빌어 전세계에 漢語를 보급하고 中國語言文化 전파를 기본 임무로 하는 비영리성 사회공익 단체이다 『文匯報』(2005.7.19) 참조.

『文匯報』(2007.2.24)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화문화를 집대성한 대표적인 도시인 “中華文化標志城”을 중국 산둥성 濟寧市에 신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단대학교 復旦規劃建築設計研究院이 설계한 中華文化標志城은 전체 부지면

적이 300km²에 달한다. 이 문화 신도시는 標志性建築物, 中華偉人堂(國家紀念堂 포함), 歷史展示館, 文物展示館, 華厦廣場 등을 핵심구역으로 하고 그 주변으로 國家講堂, 中國國學院, 世界孔子學院 本부, 國家行政學院(中央黨校, 團校, 社會主義學院) 분원, 中國科技展示館, 中國世界文化遺產展示館, 非物質文化遺產展示館, 中華百戲堂 등 건축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의 漢語 학습자가 3000만 명 『文匯報』(2005.7.27)에 따르면, “2005년 통계로 볼 때, 세계적으로 100개 나라의 2500여 개 대학교들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중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이 3000만을 돌파하고 있다.”를 초과하고 있는 가운데 漢語熱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있다. 중국은 또 새로운 한어세계화보급(漢語國際推广) 전략 목표를 세웠는데, 2020년까지 漢語를 세계 각국 정규 교육시스템에 들도록 하여 국제교류에서의 통용어로 만들 계획이고 전세계에 공자학원 1000개를 세워 세계적 문화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文匯報』(2005.11.28) 참조.

대의 漢語 교육을 돌파구로 중국문화의 세계화 방안을 추진하는 중국의 전략은 대외 한국어 교육에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 한국문화 전파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오늘의 한국어 교육은 단순 언어교육으로부터 한국어에 담긴 한국문화까지 가르치는 한국어문화 교육으로 승화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접근이 한층 쉬워지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피상적 인식 차원을 넘어서 한류를 장기화시키고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실현하자면 한국문화 전파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많이 길러 내야 한다.

인재양성은 정규 대학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재 중국에서 1700여 개 대학교 『文匯報』(2005.3.2)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일반대학교(普通高校)가 1731개에 달하는데, 대학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 한국어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는 2006말 현재 57개에 달하고 있다. 대학교에서의 학과 신설과 컬리큘럼 개설은 정치, 경제, 문화 교류와 정비례하게 된다. 중국 사정상 학과 신설보다 대학교마다 한국학 관련 컬리큘럼 개설을 활발히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문화를 알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교양과목 신설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게 하고 다양한 한국학 관련 컬리큘럼 개설로 한류에 대한 열망을 한국문화 학습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한다.

아쉽게도 중국에서 교양과목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는 대학교는 몇 안 되고 있으며 학부생을 상대로 한 교양과목 개설에서도 한국학은 구미문화권이나 일본학에 비해 많이 뒤지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에서 한국문화 전파와 한국학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복단대학교만 보더라도

도 한국학 관련 교양과목으로 “기초한국어(상, 하)” 복단대학교 한국어학부는 대학교 내 한국어 보급을 위해 전교생을 상대로 한 교양과목으로 기초한국어(상, 하)를 개설하여 2003년부터 두 캠퍼스에서 동시에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진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있어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한국학개론”,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외교”, “중국과 조선반도관계사”가 고작이다. 그외에 역사학부생을 상대로 개설한 “한국사”, “근현대중한관계사”가 있을 뿐이다. 같은 동양문화권에 속하는 일본학 관련 교육과정을 보면 비교가 된다. 일본학 관련 교양과목으로 “일본어(상, 하)”, “기초일본어(상, 하)”, “일본문학문화”, “일본경제개론”, “현대일본금융”, “동서방문화와 일본현대화”, “중일교류 표준일본어” 등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역사학부생을 상대로 한 과목으로는 “일본사(상, 하)”, “일본외교사”, “전공일본어(1, 2)”, “중일관계사”, “일본근현대사” 등 과목들이 있고 국제정치학부생을 상대로 한 과목으로는 “일본정치와 대외관계”, “일본정치와 행정”, “일본어(상, 하)” 등 과목들이 있다. 교육과정 설정에서도 “힘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대학교마다 한국학을 전공한 교육자가 부족한 관계로 한국학 관련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들이 한국문화를 배우고 접하려고 해도 그럴만 한 공간이 없는 관계로 중국에서는 한류 열풍에 비해 한국어 붐은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다양한 한국학 관련 컬리큘럼 개설을 적극 권장하여 한국학 연구와 한국문화 전파에 가세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5. 결론

한류 확산이나 한국어 수요 확대가 곧바로 한국학 발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강철근(2006:227) 참조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과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접목할 수 있고 한국문화 전파를 중국에서 어떻게 하면 더 폭넓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본고의 과제였다.

중국에서의 한류 확산과 한국어 교육의 극대화는 상호 보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를 통해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류와 한국어는 한국문화 전파에 기여하게 되지만 그 역할이 다르다. 한류를 한국문화의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한국어를 한국문화의 전도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한류로 한국을 홍보하고 한국어 교육으로 한국문화를 심어주는 한국문화 세계화 방안을 제안한다. 한국문화 세계화를 위해서는 먼저 한류를 확산하고 한국어 교육의 극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류 확산을 위해서는 한류 문화상품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류를 단순 대중문화 현상으로부터 전통문화를 포함하는 한류문화로 승화

시켜야 한다.

한국어 교육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한국어 교양과목과 한국학 관련 컬리큘럼 개설 그리고 교육자료 공동 개발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과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중한 양국은 자국 문화의 세계화 방안을 구축함에 있어서 전략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한류를 돌파구로 한국문화 전파를 설계하고 있다면 중국은 대외 漢語 교육을 돌파구로 중국문화 전파를 설계하고 있다. 양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중한 양국은 “和爲貴”, “和而不同”의 환경에서 상호 문화 교류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보유(2005), “중국의 한국어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론』 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문화사.
- 강철근(2006), 『한류 이야기』, 도서출판 이채.
- 박영순(2006),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교육”, 『새국어생활』 제16권 제2호, 국립국어원.
- 백원담(2005), 『동아시아의 문화선택 한류』, 도서출판 펜타그램.
- 신윤환.이한우 외(2006), 『동아시아의 한류』, 도서출판 정예원.
- 윤경우(2006), “중국의 ‘한류’ 수용과 저항: 중국 문화정체성의 국제문화관계학적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제3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정철현(2004), 『문화정책론』, 도서출판 서울경제경영.
- 紀連海(2007), “儒家文化的破坏与重建”, 『文匯報』(2007.2.4)
- 金信同(2003), “東亞各國的文化容受: 對於媒体評論‘韓流’現象的批判研究”, 『韓國研究論叢』第十輯,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李双龍(2003), “中韓相互形象形成的背景分析-‘韓流’和‘漢潮’現象給我們的啓示”, 『韓國研究論叢』第十輯,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錢乘旦(2006), “《大國崛起》的啓示”, 『文匯報』(2006.12.18)
- 沈 林(2005), “韓劇靠眞情感動外國”, 『環球時報』(2005.10.28)
- 孫 遜(2005), “‘韓流’与‘漢流’的內涵解讀”, 『文匯報』(2005.11.14)
- 孫 遜(2006), “‘漢語熱’与中文系的使命”, 『文匯報』(2006.9.21)
- 童世駿(2006), “和諧文化: 不僅是傳統的, 更是現代的”, 『文匯報』(2006.10.10)
- 王華超(2005), “韓劇的‘熱播’与‘冷思’”, 『文匯報』(2005.9.22)
- 王榮華(2004), “‘和而不同’, 尊重文化多樣性”, 『文匯報』(2004.8.24)
- 吳 炫 (2005), “中國影視藝術缺失了什么-韓劇 《大長今》 帶來的啓示”, 『文匯報』(2005.10.23)
- 吳建民(2006), “如何看待中國的復興”, 『文匯報』(2006.9.24)
- 吳建民(2007), “跨文化交流与主流文化构建”, 『文匯報』(2007.1.4)
- 吳建中(2005), “帶着中國文化‘走出去’”, 『文匯報』(2005.7.28)
- 要 英 (2003), “‘韓流’產業在中國的市場運作”, 『韓國研究論叢』第十輯,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姜 宝 有

- 要 英(2005), “漢語熱不等于‘軟實力’”, 『文匯報』(2005.7.27)
- 俞新天(2006), “文化与当代國際關係”, 『文匯報』(2006.12.24)
- 張宏杰(2004), 『中國人比韓國人少什麼』, 中國文史出版社
- 朱 芹(2006), “‘韓流’与文化軟實力--以《大長今》等韓劇爲中心”, 『韓國研究論叢』第十三輯,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상하이저널』(2005.8.20)
- 『每周韓國』(2006.1期-46期), 韓國駐華大使館新聞處.
- 『每周韓國』(2007.1期-5期), 韓國駐華大使館新聞處.
- 『人民日報』(2005.1.20)
- 『四川日報』(2005.6.15)
- 『文匯報』(2005年版, 2006年版, 2007年1月-2月)
- 『亞洲週刊』(2005.10.16)
- 『中國青年報』(2005.6.17)

초청 특강

II

사 회: 김혜숙 (동국대)

발 표: 신승일 (한류전략연구소장)

문화강국 한국의 한류 전략

— 전통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

신 승 일

(한류전략연구소장)

1. 21세기 한반도 문예 부흥

- A. 한반도 문예 부흥의 주기: 한반도에는 대략 3세기마다 문예 부흥의 주기가 있었다. 12세기 고려시대에는 금속활자, 상감청자, 팔만대장경 등 중국과 차별화된 찬란한 문화를 일구었으며, 15세기 세종 조에는 훈민정음 창제, 과학 기술 분야의 많은 발명, 음률정비 등으로 조선 초 문예부흥을 이루었다. 18세기 영정조 때에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진경산수화, 판소리, 탈춤, 문학 등이 찬란하게 문예부흥의 꽃을 피웠다. 다시 3세기 후, 우리는 21세기의 초입에 서있다.
- B. 세계사적인 문명의 이동 경로: 한편, 문명의 변천사는 그리스 로마문명의 지중해를 거쳐 16-17세기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제국으로, 다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이동하였고 역사학자들은 이제 태평양을 건너 극동에서 신문명이 탄생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생명문화사상이 주목받고 있다. 노련한 세계의 상인들은 “아메리카를 팔아서 아시아를 사라”라는 얘기를 한다.
- C.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 폴 케네디는 “오래된 정신문화 유산과 유서 깊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국가들은 흥망의 깊은 수렁에 빠지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라고 했다. 그리고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은 누구냐?”는 질문에 미국은 청교도 정신, 개척자 정신, 정신적 지도력을 잃었다고 했으며 “Never Japan, never China, maybe Korea”라고 했다. (동경대 강연)
- D. 녹색운동의 창시자이며 신비주의자인 루돌프 슈타이너는 “인류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인간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결정할 원형(原型 Archetype)을 제시하는 성배(聖杯)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난다. 이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깊은 영성을 지니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지만 거둬

는 외침(外侵)과 폭정(暴政)에 억압되고 훼손되어 그 이상을 쓰라린 내상(內傷)으로만 간직한 민족이다. 지중해 문명의 전환기에 나타난 그 민족은 이스라엘이지만 오늘날은… 한국이다”라고 했다.

E.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한 나라가 세계무대에서

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때에는 경제력, 군사력의 성장과 함께 반드시 문화의 융성이 이루어 졌다.”라고 그의 대표적 저서인 ‘강대국의 흥망’에서 갈파했다. 루이 14세의 프랑스, 메이지 유신 때의 일본 등이 비근한 예라 할 수 있다.

F. 한국의 현실: 작금 한국의 현실은 샌드위치이다. 동아시아만 보더라도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한국은 제조업의 추격으로 ‘중국의 변방국’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일본은 정교한 기술을 전통과 결합한 신일본양식(네오 재패니스크: Neo Japanesque)으로써 한국을 따돌리려고 한다.

최근 이견희 삼성 회장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고 경고했다. 무적함대 처럼 느껴졌던 ‘삼성호’에 대한 경고도 동시에 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5-6년 후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게 될 것이란 발언은 이 회장의 발언이기에 예상치 않다.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도 유사한 발언을 했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행은 지난 3월 12일 ‘IT가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아니다’는 청천벽력 같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수출의 35%정도를 차지하는 IT분야는 원천기술을 아직까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데다 핵심 부품과 소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등 구조적인 취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IT 시설 투자 비중마저 줄고 있다.

G. 정치 경제 문화 3족정 (三足鼎): 백범 김구 선생님은 ‘아름다운 조국’을 원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문화 강국’을 말한다. 30년이란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한국의 다음 과업은 문화강국 입국이다. 정치 경제 문화가 균형을 이루어 골고루 발전할 때에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 3만 불을 달성한들, 문화강국이 되지 못하면 선진문화국으로 대접받지 못할 것이다.

H. 한류와 문화발신국: 위의 A와 B에서처럼, 시공간적 문명의 솟구침이 21세기

한반도에서 교차하게 된 시점에 한류의 물결이 더해져 상승추세의 골든크로스를 형성하며 한국 주도의 신르네상스 문예부흥의 시대를 예감케 한다.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를 향한 문화발신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신한류(新韓流)란 무엇인가?

A. 한류의 현황: 대중문화로 시작한 한류는 다양한 장르로 확산되고 있으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다. 봄이 식었다지만 ‘연애는 끝났고 결혼만 남았다’는 지적처럼 일본 중국 등에서의 한류에 대한 사랑은 굳어지고 있다. 황진이, 궁, 태왕사신기 등이 인기리에 수출되고, ‘주몽’의 아시아 8개국 수출이 이를 방증한다. ‘비’의 월드투어 역시 한류의 비를 세계에 뿌리고 있다. 드라마, 대중가요, 영화의 삼두마차로 시작한 한류는 한국 전통문화와 예술, 한국인의 삶, 한국어 학습 등 제반 문화 예술분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처음 한류가 시작한 중화권과 일본은 물론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까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이집트 등 중동, 멕시코 등 중남미를 비롯하여 미국에도 상륙하여 맹위를 떨치고 있다.

B. 이러한 차제에 최근 ‘신한류’의 기류가 넓게 형성되고 있다. ‘한국 1등=세계 1등’이 공식화된 브레이크댄스는 세계 젊은이들의 문화코드가 되었다. 세계 최초로 프로그래밍단을 탄생시킨 한국은 e-스포츠 강국이다. 프로게이머들의 국위 선양은 월드컵 국가 대표선수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못지않다. 비언어극인 난타와 점프, 비보이 관람은 외국인의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 잡았으며 퓨전 국악의 다양한 장르들이 탄생되어 젊은이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윤동주의 ‘별헤는 밤’을 한글 문양으로 새긴 LG샤인폰은 인기리에 작년 말 전 세계에 출시했다¹⁾. 이는 한류와 IT가 결합한 ‘디지털 한류’의 대표적인 예이며, ‘데카르트’(Tech+Art: 기술과 예술의 결합)의 모범적 케이스다. 31년 만에 디지털로 복원된 ‘로봇 태권V’와 최근 개봉한 ‘천년여우 여우비’는 일본에 뒤떨어지지 않는 애니메이션 신한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스타일의 육성과 세계화 사업은 한식, 한복, 한지, 한글, 한옥, 한국음악 등 전통문화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신한류 코드의 핵심재료라고 할 수 있다.

C. 대중문화 위주의 한류가 1기 한류였다면, 전통문화, 고급문화 예술, 퓨전문화,

1) 2007년 2월 영국에서 첫 출시된 이후, 4주 만에 20만대 이상 판매 (서울경제, 2007. 3. 13)

제도와 운동 (새마을 운동,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운동 등) 등 제반 문화를 포괄하는 것을 제2기 한류, 포스트 한류, 또는 신한류²⁾ 라고 일컫는다.

3. 한류는 '전통'을 먹고 자란다

A. 전통은 계승하는 자의 것이다: 2006년 도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찾기 힘들었다. 개막식에서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보여 주는 영상 이미지는 눈을 씻고 봐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회 기간에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낮아서다.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이지만 국가 브랜드 순위는 25위이다. 아시안게임 2회 개최국이며, 아시아 2위의 체육 강국이면서도, 도하에서 한국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국력보다는 소프트파워 문화의 힘에서 타 국가에 밀렸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 중국, 인도, 중동국가 등은 화려한 전통의상과 무용으로 고유한 전통문화를 맘껏 뽐냈다.

역사와 전통은 계승하는 자의 것이다. 자국의 언어와 전통문화를 소홀히 하면 대가는 후손이 치른다. 예를 들면 1100만 만주족은 청나라를 세워 300년간 대륙을 지배했다. 그 이전 어떤 왕조보다 넓은 지역을 개척하고 다스렸건만, 청왕조는 자국어인 만주어를 황실에서만 쓰고 나머지 국민은 중국어를 쓰게 했다. 그 결과 만주어는 사어(死語)가 됐고 그들의 문화와 민족마저 희미하게 사라져 갔다. 전 세계 6800여 언어 중 가장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언어가 바로 만주어로 지금 80세 이상의 노인 18명이 겨우 맥을 잇고 있다.

B. 온돌 공정: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 선조가 사용했던 온돌은 과학적인 축열 난방과 두한족열(頭寒足熱) 방식의 자연친화적인 구조이다. '불을 깔고 자고 덮고 자는' 우리 민족의 온돌은 대영백과사전에 'ondol'로 등재돼 우리의 문화유산임이 분명하지만, 최근 중국학자들은 온돌이 중국 북방에서 발생해 한반도에서 명맥을 유지했으며 상하이(上海) 등에서는 중국 문화로 되살아나는 중이라고 주장한다. 온돌을 접한 중국 상류층과 일부 미국인은 침대를 걷어내고 온돌을 사용한다. 온돌에다가 인체에 이로운 기를 뿜어내는 황토벽과 채광을 살린 전통 한옥을 현대화하면 세계인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게다가 정보기술(IT) 강국의 홈 네트워크를 장착한다면 세계인이 열광할 '한(한류) 스타일'의 주택이 될 것이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우리가 계승하지 않으면 중국의 '온돌 공정'에 밀리게 될 것이다.

2) 제2기 한류, 포스트 한류, 신한류라는 용어는 필자가 처음 사용했던 것으로 지금 한류를 얘기하는 분들은 대체로 '신한류'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참고: 동아일보, 2006년 5월 10일자 칼럼 '2기 한류 시대 열자'; '포스트 한류의 바람', 국회 한류연구회 '포스트 한류 발전방안 토론회', 2006년 7월 6일; '신한류, 한류를 넘어서라', 주간한국, 2006년 연말 특집)

C. 전통은 전승과 다르다: 싱가포르항공을 타 본 사람은 승무원의 유니폼이 싱가포르 고유의 스타일과 무늬를 전승한 복장임을 알게 된다. 태국, 필리핀과 몽골항공의 승무원 유니폼도 고유의 전통의상이다. 그러나 한국 항공사 승무원의 복장에서는 한국의 정체성을 찾아내기 힘들다. 일본 전통의상인 유카타는 원래 목욕 후에 입는 옷이었지만 현대적으로 개량해 요즘은 젊은이들이 애용한다. 베트남에서는 아오자이를 입고 자전거를 타는 소녀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한국의 한복은 어떨까? 명절에나 꺼내 입는 불편한 의복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가? 주몽 등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고구려인이나 부여인의 복식을 보면 활동하기 편한 디자인에 기능성을 갖추고 있다. 무용총 벽화에 나오는 고구려 무희의 복식은 화려하지만 다이내믹한 활동성을 보장한다. 전통의상을 간편하고 맵시 있게 현대화하면 우리 젊은이들도 즐겨 입을 것이다.

진정한 전통이란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옛것에 바탕을 두되 근본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대와의 퓨전을 이루어 내야 한다. 옛 것을 있는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전승'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전승도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통은, 시대성을 함유하고 타 문화와의 교류 접목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D. 한국이 세계 경제 속의 위상만큼이나 세계에 알려지기 위해서는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국가 브랜드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 브랜드는 외교력이나 경제력보다 문화의 전파를 통해 강력하게 형성된다.³⁾ 최근 몇 년 사이에 대중문화 위주의 한류를 통해 아시아인이 한국을 알기 시작했다. 진정한 문화의 힘은 전통을 바탕으로 재창조돼야 한다. 전통문화 콘텐츠가 한류문화의 주역이 될 때 한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E. 우리의 전통문화에는 세계인이 원하는 생명 평화 사상이 깃들여 있고, 환경에 찌들고 경쟁에 지친 현대인의 웰빙, 건강, 친환경적 요구에 부응하는 요소가 충만히 잠재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아끼고 사랑할 때, 이러한 가치 있는 전통문화는 세계인의 요청에 부응하여 세계화 될 수 있다. 고 박동진 명창의 말따마나,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전통문화인 것이다. 온돌, 한

3)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자포니즘(Japonism)' 전략으로 일본의 우수한 문화에 대해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기모노, 후지산, 가부끼, 스모, 분재 등의 일본 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1990년대 프랑크푸르트 Book Fair 주빈국이 되었을 때,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스시'와 일식집이 크게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그 전에는 '날 것 먹는 사람'으로 비하하던 독일인들이 '스시'를 즐겨 먹게 된 것이다.

옥, 김치, 된장, 옹기, 채화칠기, 한지, 한복, 한글, 할머니의 자장가...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더군다나,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보편적 문법으로 세계화한다면 세계인이 원하는 콘텐츠와 문화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한류의 세계화이며, 문화강국 입국의 길이요, 기업들이나 예술인들에게는 블루오션을 발견하게 되는 첩경이다.

F. 프랑스의 문화비평가인 기 소르망은 “자신들의 가치 체계에 대한 대안을 심각하게 모색하고 있는 서구인들에게 한국이 서구를 열심히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뜻밖이다”라고 했다. 깨어있는 서구인들은 극동, 특히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의 것에서 대박을 터트리자.

4. 한류의 핵심 소재인 한말글4)

A. 한류가 우리 민족 최대의 기회라고 한다면, 한글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다.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한다면, 한글은 ‘한류의 쌀’이라고 비유해 볼 수도 있다.

B. 전 세계적인 한국어 배우기 열풍으로 인해 한말글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문화적 상품으로서 중요한 국가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말글은 이제 국내 소비기반은 물론 향후 글로벌 마케팅에 의한 한말글 경영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한말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문화상품이며, 언어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산업 및 경영정책 차원에서도 다루어야 하며, 전 세계에 유통될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언어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언어는 권력이고 자원이며 무기이다. 국경의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언어가 국경을 대신한다. 한말글을 한류전략의 중핵으로 삼아 한글의 이미지화와 산업화를 촉진하고, 한류지역의 대표적 외국어로서 또한 세계어로서 재인식되고 도약할 방안을 백년대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C. 한말글 세계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3가지 분야 (블루오션 은하수)

1) 한국어 보급: 2005년 현재 국외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대학은 47개국 643곳이며, 한국학교 · 한국교육원 · 한글학교 수는 96개국 2100여 곳에 이른다.

4) 한말글은 문자로서의 한글 (Written) 과 언어로서의 한국어 (Verbal)을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다. 사용자 순위로 볼 때 한국어는 프랑스어보다 한 단계 앞선 세계 12위. 제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약 50만 명이고 한류로 말미암은 잠재 수요는 수백만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조만간 세계 10대 언어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한국어가 독일어를 제치고 인기 있는 외국어 반열에 올랐다. 타이에서는 작년 처음 시행된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에 2만3천여 명이 응시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몽골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1만 명이 넘고, 홍콩에선 작년부터 한국어 응변대회를 열고 있다.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스페인의 ‘세르반테스 인스티튜트’ 등은 일찍부터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한국은 올해부터 세계 100여 곳에 ‘세종학당’을 개설하는 일을 시작했다. 규모와 예산 면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한류열풍을 이용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면 상승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

국력의 신장은 언어의 확산을 가져온다. 한국어 배우기 열풍에 맞추어 외국인 한말글 학습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시스템적 언어정책과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장금> 등 한류 드라마를 한글자막에 현지어 더빙으로 방영하는 것이 좋을지, 한국어 더빙에 현지어 자막이 좋을지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칠 교원의 체계적 육성, 현지어로 된 현지 사정에 맞는 교재 개발 등이 그것이다.

- 2) 디자인: 한글은 본질적인 조형미와 예술성으로 인해 세계 문화상품 시장과 디자인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이렌은 “한글은 현대적이면서도 기하학적인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며 세계 디자인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펜디, 구찌, 페라가모, 루이비통과 비교하여도 손색없는 한글 디자인 제품은 온갖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서예, 서각, 전각, 한글춤, 도자기, 의상, 넥타이, 스카프, 가방, 지갑 등 액세서리, 패션소품, 생활용품, 손전화, 자전제품 등에 적용되고 있는 한글 디자인은 생활과 산업의 제반 분야에 확산되어 조용한 디자인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한류전략연구소는 지난 4월 20-27일에 일본 동경과 후쿠오카에서 ‘한국주간’ 행사로 열린 ‘한스타일 전시회’에 한글을 소재로 한 디자인, 문화상품, 예술 작품 30여 점을 전시 홍보하였다. 또한 5월 15일 세종탄신일에 세종호텔에서 세종이 만든 한글을 주제로 한 ‘한글 한류전’을 개최하고, 5월 말에는 중동의 두바이/아부다비에서 ‘신 실크로드전’의 일환으로 한글문화전을 주관한다.

한글은 완성형 문자수가 11,176자로 세계 어떤 언어보다 많은 문자수를 조합해 낸다. 그 중 일반적으로 쓰이는 완성형 문자수는 2350자 이다. 이 많은 음절형 문자수는 로마 알파벳의 26자, 일본어의 104자 (가타카나와 히라가나)보다 월등히 많아 디자인 측면에서 소재가 상대적으로 소재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⁵⁾ 태생적으로 현대적이고 디자인적 소재가 다양한 한글은 우리의 상상력을 기다리고 있다.

- 3) 유비쿼터스 시대의 글로벌 중간 언어 (middle language): 과학적이면서도 단순하여 문자의 입력·전송·검색 속도가 다른 언어보다 빠른 한글은 지식 정보화 시대에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중국어, 일본어, 로마자와와의 입력, 전송 속도를 비교한 결과 한글은 중국어와 일본어에 비해 7배가량 입력 속도가 빠르고, 로마 알파벳과 비교하여도 40%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던 시대였으나, 지금은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이다. 문자의 입력과 검색 속도는 개인과, 조직,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한다.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를 급속히 이룬 것도 배우기 쉽고 소통이 쉬운 한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한글 정보화의 과제가 남았다. 이것이 한글이 세계어를 넘어서 국제어로 될 수 있는 관건이다. 음성인식 측면에서도 ‘일음일자 일자일음’ 원칙의 한글은 정보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로봇에 가장 적합한 중간언어로서 국제어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별 문자 입력속도 비교와 음성인식 효율 비교 실험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실험이 제대로 검증된다면 유네스코는 한글을 세계 중간언어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D. 한글은 우민(愚民)만을 위한 문자가 아니다. 세계인을 위한 홍익(弘益) 문자이다. 시공간이 축소된 지구촌 시대, 정보통신의 시대에 빛을 발하게 될 한글은 시대를 앞선 문자이다. 6800여 언어 중 절반이 21세기에 사라질 운명이라고 한다. 그러한 민족 언어의 소리글로 한글이 채택된다면 그 민족의 사라질 운명의 구비문학이나 전래동화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기록될 수 있다.

중국 초대 총통 위안스카이는 한자를 표기할 소리글자로 한글을 채택하려 한 적이 있다. 터키 건국의 아버지인 케말 파샤도 그러한 고민을 심각하게

-
- 5) 한자는 4만자 이상의 뜻글자를 가지고 있지만, 평생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한다. 이에 비해 한글은 빠르면 한나절 미련한 사람도 일주일이면 글자를 깨칠 수 있다. 실제,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이 읽는 수준의 텍스트를 중국에서는 초등학교 오륙학년이 되어야 읽는다는 보고도 있다.

했다고 한다. 오늘날도 동티모르 고유어 '떼똌'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안이 제기되거나, 중국 오지 소수민족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여 가르치는 선교사들이 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한국의 새마을 운동(Village Prohect)을 전수한다고 한다. 새마을 운동과 함께 '한글'을 그 나라의 소리글자로 채택하게 하는 외교적 역량을 기울인다면 그 파급효과는 핵폭탄보다 더 할 것이다.

- E. 한국이 세계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과거 두 번 있었다. 첫째가 활판인쇄술의 발명이었고 둘째가 한글의 발명이었다. 구텐베르크보다 2세기나 빠른 활판인쇄술의 발명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융성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였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할 당시에는 성경의 보급 등 수요가 있었다. 그러나 활자가 만들어질 당시 한반도에는 인쇄혁명을 일으킬만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활판인쇄술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⁶⁾.

한편, 로마 알파벳이 만들어질 때는 그리스 문명이 개화하고 있었기에 로마 알파벳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훈민정음이 만들어져도 양반들의 기득권과 정보독점 욕심으로 한글의 보급은 한반도 내에서도 제한되고 좌절되었다. 이는 고대 이집트의 권력 계층이 상형문자를 독점한 것과 비교된다. 그나마 한글이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은 배우기 쉽기 때문이다. 몽골의 칭기즈칸은 위구르 문자를 참고한 몽골문자를 창제했고 세종대왕도 신홍국가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 몽골 문자는 사멸했다. 한글이 살아남아 번성하게 된 이유는 한글의 본질적인 과학성과 단순성 때문이다.

과거 두 번의 기회를 놓친 한국은 '삼세번' 째 기회를 맞고 있다. 바로 '정보화의 혁명'이다. 로봇, 컴퓨터, 통신기기, 홈네트워크 등에 음성 명령을 내리는 음성인식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될 때 한글이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제중간 언어로서 통신과 정보의 중심언어로 작동한다면, 한글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진 언어를 지식정보화 시대에 이르러 재통합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 F.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국경이 사라지고 언어가 이를 대신한다. 언어는 자원이면서 무기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어의 특성이 국가 경쟁력에 직결하는 시

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한글, 김미경, 자우출판사 (2006년 10월)

대라는 가정 하에 ‘한글’이라는 전략적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세계어로서 한반도발 문예부흥과 신 르네상스를 이루는 준거를 마련할 것이다.

- G. 주시경 선생은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고 했다. 한말글 세계화를 이루려면 한국어를 민족어로만 여기는 배타적 사고를 얼른 버리고 열린 세계어로서의 한말글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이미 세계어로 도약할 준비가 된 한말글에 대해, 동포사회가 아니라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교육투자가 필요하다. 또 영어가 한국어의 발전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어에 목맨 비정상적이고 무차별적인 과잉투자가 문제이다. 영어에 투자하는 돈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에 투자하도록 하자. 경기도 영어마을 두 곳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수백억 원인데, 국어정책을 관장하는 국립국어원의 연간 예산은 백억 원도 못 된다.

5. 문화강국, 어떻게 할 것인가?

- A. 시대의 변천에 맞는 개념을 갖추고, 비전과 전략 수립 필요: 부국강병의 하드파워시대에서 소프트파워 문화의 시대로 이행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문화전쟁의 시대기에 정치 경제 논리에 버금가는 문화 논리를 펴야 한다. ‘문명충돌론의 저자’ 새뮤얼 헌팅턴은 “공산권의 몰락으로 냉전체제가 무너진 뒤 세계 정치의 핵심적 갈등요소는 이데올로기도, 경제도 아닌 문화”라고 갈파했다.
- B. 21세기 한반도에 찾아올 신르네상스 문예 부흥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소모적 이념대립과 정쟁을 초월하여, 국가이미지의 비약적 개선,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경쟁력 향상, IT강국의 ‘디지털한류’ 전략, 동아시아 생명평화사상과 한류의 접목, 한류의 상수원인 전통문화 원형복원 등 총체적인 ‘신한류 국가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 C. 방법론으로는 이러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옛 것에 바탕을 두되 현대에 맞게 변화시키는 범고창신⁸⁾의 정신으로 재창조하고, 한국적 독창성과 세계적 보편

7)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2006년 현재 1500조원 규모이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신자유주의의 가치를 내걸고 햄버거와 코카콜라, 블록버스터 영화와 엘비스 프레슬리를 앞장세워 단기간에 유럽문화 시장을 휩쓸었다. 그 결과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미국은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8) 法古創新,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온고이지신(溫古以知新)과 유사한 개념임.

성을 퓨전화해 새로운 문화융합상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문화의 세계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편성으로 승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는 한국의 문화전략을 위해 헐리웃이나 외국의 보편성을 수입하되 그것을 소화해서 한국 전통문화를 보편성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심수관(일본 가고시마, 조선 도공의 15대 후예)은 “전통이란 과거의 기술로써 새로운 것을 만들어 현대의 욕구에 답변할 수 있어야한다”라고 했다. 글로컬(Glocal: 世邦化)이란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 한국문화 특수성의 보편화)과 로컬리제이션(Localization, 세계적 보편성의 한국화)의 쌍방향적이고 자유로운 경계 이동이다⁹⁾.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의 문화전략을 위해 외국의 보편성을 수입하되, 그것을 소화해서 ‘한국적 보편성’으로 승화시켜 가는 것이다. 율곡의 이통기국론에 근거하여 보면, 외국의 보편성을 직수입하여(理通) 우리나라의 현실에 잘 적용하지 못하면(氣局) 그 기질이 기운으로 승화되지 못하는데, 같은 원리로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즉, 아름다움이란 보편성인 理를 상호교류하지 않으면 氣가 갇힌다(제한적)는 뜻이다.

6. 요약

대중문화로 촉발된 한류는 이제 전통문화, 고급문화, 고급예술로 전이되고 있고 새로운 퓨전 문화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신한류 콘텐츠는 대중문화가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 위로 달려 나가야 한다. 시공간적 문명의 숫구침이 21세기 한반도에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데, 한류가 그 촉발점이 되어 전지구적 르네상스의 시발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신한류의 핵심은 전통문화 콘텐츠이고 그 중 가장 소중한 것이 한글인데, 한글이 일으킬 혁명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은 한글 정보화의 혁명이다. 이것은 신르네상스 문예부흥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21세기 초에 우리가 이루어 내야 할 혁명이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민족적인 것과 탈민족적인 것,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접목,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통섭(統攝)을 통해 신한류를 만들어 내고, 한류가 뚝은 길 위로 이러한 신한류가 달려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촉발되고, 건전한 담론이 형성되어 한반도발 문예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가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9) 손대현, “한류현상에 대한 한 생각,” CERI 엔터테인먼트연구, 통권 5호 (2006년 8월)

주제 I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사 회: 이미혜 (이화여대)

발 표: S. Göksel Türközü

(터키 Erciyes University)

토 론: 김성주 (서울대)

터키에서의 한류와 한국어 교육 현황

픽셀 튀르키췌주
(터키 에르지예스대학교)

1. 서론

「한류」라는 개념은 처음으로 2000년쯤에 한국에 있을 때 들어본 것이다. 그 때 한국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가요 등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과 동아시아 나라에서 유행이 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을 때였다.

백원담(2005)에 의하면 한류란 원래 21세기를 넘어서면서 한국의 상업주의 대중 문화가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에 돌연 두드러지게 유통되며 반향을 일으킨 문화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한류는 처음에는 중국과 동남아에서 일고 있는 한국 대중 문화 열기를 뜻했지만 이제는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한국 문화의 열기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한류라는 개념은 처음에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권에서 한국의 드라마,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와 한국 자체를 배우려고 하는 문화현상을 일컫었는데 최근에는 좀 더 확대된 의미로 미국, 유럽, 터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터키에서는 한류가 한국 자동차와 전자 제품 그리고 휴대폰과 이들 제품의 광고 등으로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제품이 터키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리고 그 제품의 광고가 터키인의 생활에 들어오면서 터키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들어 터키에서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영화관과 TV를 통해 들어오면서 한국 문화가 서서히 보급되고 있다. 대중문화만이 아니라 김치·라면·가전제품 등 한국 관련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포괄적인 의미로는 한국 관련 제품의 선호현상까지 포함하고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 것이다.

한국이 개발도상국가에서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한 나라라는 사실과 그에 따른 터키인들의 문화적 욕구가 터키에서도 자리 잡고 있고, 따라서 터키인이 한국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터키가 정치 경제적 변화로 이제 눈을 동양으로 특히 한국으로 돌렸고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여기고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터키인이 늘어났고

2002년 월드컵 이후로 한국의 위상이 터키에서도 점점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터키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고 있고, 종교와 문화적으로 한국에서는 생소한 이슬람 문화와 서구 문화를 잇고 있다. 터키의 한류 열풍이 비단 터키만의 문제는 아니라 터키를 통해 유럽과 중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여러 문화가 어우러진 이스탄불¹⁾은 세계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라서 한국 문화 소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이다.

이 논문은 터키에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의 현황과 그 중요성 그리고 한류의 영향을 점검하고 터키 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터키에서의 한류와 양국간의 교류

터키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같은 대륙에 속해 있으나 수세기 동안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국과의 교류가 거의 전무했던 나라이다. 그러나 이 두 나라는 문화적, 역사적, 언어적 관점에서 보면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터키와 한국의 두 민족이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은 터키 공화국이 1948년에 수립된 신생 대한민국 정부를 1949년에 인정하고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에 터키 군을 파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57년에 서울에 터키 대사관이, 앙카라에 한국 대사관이 개설되어 터키 민족과 한민족이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관계를 맺게 된 이후로, 1972년에 문화 협정이 체결되었고, 1973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터키어학과'가, 1989년에는 앙카라대학교 문과대학에 '한국어문학과'와 2000년에는 앙카라 동남쪽에 위치한 카이세리에 있는 예르지예스대학교 인문대학에 '한국어문학과' 신설되었다.

2007년은 한국과 터키가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관계를 맺게 된 지 50주년이다. 2007년에 양국간에 여러 행사나 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한국과 터키의 경제적·문화적 교류가 점차로 증대함에 따라 한국어에 대한 터키인의 관심 또한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과거 한국 전쟁과 같은 불행한 사건 이외에는 한국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던 터키인들은 1980년대에 들어서자 조금씩 한국을 알기 시작하여, 서울 올림픽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터키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터키 내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양국의 교역량이 증가하였고, 터키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많아졌다. 이것은 터키인들에게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과 터키의 경제적·문화적 교류가 점차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에 대한 터

1) 이스탄불은 2010년 유럽의 문화 수도로 뽑혔다.

키인의 관심이 높아져 터키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나날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실은 2006년에 앙카라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와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 수를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앙카라 대학교 한국어문학과는 학생수가 총 55명이고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생 수는 4학년까지 총 107명이다.

한국에서 직접 한국어를 배우는 터키인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은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터키에서 문화적인 한류가 2002년 월드컵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2005년 4월에 이루어진 노무현 대통령의 터키 공식 방문이 터키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높이었다.

한국 문화의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에르지예스 대학 한국어 문학과는 해마다 ‘한국의 날’ 행사를 주최함으로써 터키인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영화 축제’, ‘한국 무용 공연’ 등을 하며 많은 터키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앙카라대학 한국어문학과에서도 이러한 ‘한국의 날’ 행사와 몇 번 한국어 응변 대회가 이루어졌다.

터키 여러 도시와 한국 도시간의 자매 결연이 많이 맺어졌다. 특히 1997년 터키 지진 이후 많은 자매 결연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수원시와 얄로와(Yalova)시(1999), 서울 특별시와 앙카라(Ankara) 특별시, 울산시와 코자엘리(Kocaeli)시, 용인시와 카이세리(Kayseri)시, 광진구와 에레일리(Ereğli)구, 평창시과 네브세히르(Nevşehir)시 등이다.

또한 앙카라 대학교는 한국 외국어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에르지예스 대학교는 한국 목원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었다. 앙카라 대학교와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생들은 터키인에게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 김소월의 여러 시와 ‘진달래꽃’ 시집, 이광수의 ‘무정’,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이 최근에 번역되어 터키인 독자들에게 알려져 있다. 또한 Korece Dilbilgisi(한국어문법)와 터키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KORECE 1, KORECE 2, KORECE 3이 출판되었고 터키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습자들에 의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영화가 터키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제일 인기를 얻었던 영화는 김기덕 감독의 ‘올드 보이’와 ‘빈집’이다. 터키에서 이루어진 여러 국제 영화 축제에서도 한국 영화들이 터키인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터키에서 지금까지 상영된 영화나 방송된 드라마, 알려진 한국 가수와 한국 음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 영화: ‘나쁜 남자(김기덕 2001)’,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김기덕

2004)', '올드 보이(박찬욱 2003)', '빈집(김기덕 2004)', '사마리아(김기덕 2004)', '활(김기덕 2005)', '시간(김기덕 2006)', '장화, 홍련(김지운 2002)', '분홍신(김용균 2005)', '달콤한 인생(김지운 2005)', '복수는 나의 것(박찬욱 2002)', '섬(김기덕 2000)', '첼로(이우철 2005)', '태극기 휘날리며(강제규 2004)', '살인의 추억(봉준호 2003)', 'R 포인트(공수창 2004)', '실미도(강우석 2003)', '오아시스(이창동 2002)', '질투는 나의 힘(박찬욱 2003)', '해피 엔드(정지우 1999)', '무사(김성수 2001)', '아카시아(박기형 2003)', '엽기적인 그녀(곽재용 2001)', 클래식(곽재용 2003).

- 한국 드라마: 터키 국영 방영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 '해신(강일수-강병택 2004)'이 많은 터키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태이다. 그 외에 몇몇 민영 방송에서는 '올 인(All in 강신호 2003)', '겨울 연가(이형민-윤석호 2002)' 등이 방송되었다. 이 외에 터키 방송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허진호 1998)'와 '쉬리(강제규 1999)' 등의 영화가 방송된 적이 있다.
- 음식 문화: 한국 식당이 터키에서 많아지면서 터키인이 한국 요리를 알게 된다. 특히 라면이 노동자나 공무원들과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터키의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에 삼양 라면사의 라면공장이 있다.
- 한국 가수: 김상민, 미나, 박영하 등이 터키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몇 명의 한국 가수가 터키에서 뮤직 비디오를 찍은 적이 있다.

한국 문화를 터키에서 알리는 여러 무용 공연과 같은 문화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재만 무용단이 터키에서 두 번 공연을 하였다.

스포츠 교류에 있어서는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양국간에 교류가 여러 측면에서 많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터키 국가 대표팀 감독이었던 세놀 귀네시(Şenol Güneş) 감독이 한국 FC 서울 축구 팀 감독을 맡았다.

한국 터키 수교 50주년인 금년에 여러 행사와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행사의 시작은 3월 8일에 이스탄불과 앙카라에서 이루어질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 공연이다.

3.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원활한 의사 소통 능력이며,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정한 언어 집단의 사고 및 행동 양식을 익히는 것은 그 언어 집단에서의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화는 그 개념이 매우 다양해서 간단하게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언어 교육에서

문화는 인류학, 사회학 등의 관점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인간의 삶의 방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국어교육학 사전²⁾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및 인간이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획득한 어떤 다른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총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거시적 관점에서 문화는 한 공동체의 행동 양식, 예술, 신념, 제도, 종교, 가치관, 언어 등 모든 산물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인간의 생활 양식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언어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문화 교류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터키에서 한류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의사소통 능력은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언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언어 속에 문화적 요소가 깊이 스며든 한국어의 경우 문화 교육의 비중이 더욱 더 높아야 한다.

외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주장해 왔다. Byram(1999)은 언어는 그 세계의 지식과 자각, 문화의 개념, 문화 학습을 지칭하기 때문에 언어 교육 및 교수에서 문화를 다루지 않을 수 없음을 근거로 하여, 'Hidden curriculum(내포된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여 언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은 비록 밖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꼭 다루어야 할 항목으로 간주하였다. Kramersch(1993)는 "언어 교수는 곧 문화 교수(Teaching language is teaching culture)"라며 언어 교수 및 학습에 있어서의 문화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정 사회집단에서 통용되는 언어에는 바로 그 집단의 문화가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할 때 언어와 문화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터키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한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으려면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문화 교육은 문화 충격의 극복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한국어가 한국인의 세계관과 생활 양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은 단계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단계마다 꼭 다루어져야 할 문화적 내용의 목록을 만들어서 계획적인 문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터키 문화와 한국 문화의 대조 분석은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보다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터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향은 언어 교육과 함께 통합된 형태 속에서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며 한국어 학습에 흥미

2) 국어교육학 사전(199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대교 출판(p.314).

를 느낄 수 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에 있어서 한류의 영향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은 이전에 비해 많은 관심과 노력 속에서 커다란 발전이 있어 왔다. 최근에는 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연구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

터키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989년에 시작되었다. 현재 터키의 실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한국어 교수진의 절대 부족이며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수단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한국 문화의 터키 보급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류는 터키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 좋은 수단이고 제대로 활용되어야 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 소통 능력 신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곧 그 나라의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 학습에서 그 문화에 관한 흥미 없이는 학습자의 주의를 끌 수 없으며 바람직한 학습을 기대할 수도 없다. 한국 문화의 보급은 한국어를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흥미 있는 학습을 유도한다.

터키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한류의 역할이 아주 높다. 한류 열풍을 통해 터키 학습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여줄 수 있고 또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이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 등의 한국 문화가 터키에 많이 들어올수록 터키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인의 생활 양식을 제대로 알릴 수 있다.

5. 결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 소통 능력 신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곧 그 나라의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 학습에서 그 문화에 관한 흥미 없이는 학습자의 주의를 끌 수 없으며 바람직한 학습을 기대할 수도 없다.

터키에서 한국어 교육은 1989년에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한국어 교육에서 터키인 학습자들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와 주의를 끌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한류를 통해서 학습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터키인들은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있어서는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1세기에 터키에서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즉 한국 문화가 이제 터키에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터키에서 한류의 전파를 위해서 한국인의 터키에 대한 관심 또한 높여야 할 것이다. 경제나 문화면에서 한국인이 터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양국간에 교류가 더 많아질 수 있고 한류의 열풍이 더 세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류를 이야기할 때에 문화 교류의 측면을 부각시키는 면이 있지만 한류의 일방적 전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의 상호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터키 문화 또한 한국에 제대로 전달되는 것을 기원할 뿐이다.

터키인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터키의 교수진과 한국의 관계자들은 다양하고도 흥미로운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어교육학 사전(199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대교 출판.
- 백원담(2005), 동아시아의 문화 선택 한류, 펜타그램.
- 장경은(2001),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단계별 문화 내용과 교수 방법”, 전남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조항록(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제9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 강승혜(2001),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수 요목 개발(1)”, 한국어 교육, (미국한국어교사협회·국제한국어교육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요지모음집).
- 튀르코쥬, 픽셀(1999), “터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말하기·듣기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_____ (2003), “언어·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어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16호. 국어교육학회.
- _____ (2004), “한국어 쓰기 교육 내용 구성 연구: -터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튀르코쥬 픽셀, 김성주(2007), KORECE 1, 2, 3, Lotus Kitabevi, Ankara.
- 황적륜(1999), 「사회언어학과 한국어 교육」,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Byram M.(1999), ‘Standar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the teaching of culture’, Language Learning Journal vol 19.
- Kramsch C.J.(1993), Context and Cul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 Kransnick, H.(1984), “From Communicative Competence to Cultural Competence”, On Tesol, Washington D.C. TESOL.

픽셀 튀르키즈

Lado, R.(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인터넷

<http://search.naver.com>

<http://search.daum.net>

<http://hellohallyu.com>

<터키에서의 한류와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한 토론

김 성 주
(서울대학교)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한류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한 것이다.

먼저 전자에 대해 토론해 보자. 발표자도 백원담(2005)를 거론하면서 한류를 논의할 수 있는 지역을 동아시아를 거론했듯이, 일반적으로 한류라고 하면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을 연상하게 된다. 발표자는 한류의 확대된 의미로 '미국, 유럽, 터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는데, 과연 한류를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 터키처럼 한국의 자동차와 휴대폰 광고를 흔히 볼 수 있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영화관이나 TV를 통해서 방영되면 한류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열기가 일어나야 한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토론자가 이 점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국에서도 중국 영화나 중국 드라마, 일본 영화나 일본 드라마가 방영되는데, 이렇다고 해서 이 현상을 특별히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 같지는 않다.

무엇을 한류라고 할 수 있는지 한류의 개념에 대한 규정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한류에 대한 규정을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 아무튼 한류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것이 이 글의 주제, 나아가서 이번 발표회의 주제에 부합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둘째로 필자는 한국어 교육 특히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외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 Kramsh(1999)의 견해대로 언어는 그 세계의 지식과 자각, 문화의 개념, 문화 학습을 지칭하기 때문에 언어 교육 및 교수에서 문화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 모두가 토론자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다. 특히, 필자도 언급했지만, “터키 학생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칠 때 터키 문화와 한국 문화의 대조 분석은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조 언어학은 한국어 교육에서 응용 언어학의 한 부문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한국어 교육의 현장(학부 과정, 대학원 과정, 교원 양성 과정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국어기본법에서 별첨으로 제시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제13조제1항관련)을 보아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발표자와 같이 두 문화의 대조 분석에 대해서는 설혹 그 필요성은 언급하는 경우는 있어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토론자는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두 문화의 대조적 분석이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터키에서의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과 한류의 영향을 언급했다. 그러나 '터키에서는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터키에 한류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체로 한류는 눈으로 직접 보고 피부로 직접 느껴 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토론자가 터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던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는 한류라고 느낄 정도의 현상은 없었던 것 같다. 지금의 터키가 그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는지, 최근의 터키 현황을 듣고 싶다.

..... 주제 II

한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 회: 김창룡 (한성대)

발표 2: Kim Do-Young

(인도 Delhi University)

3: 박선희(상명대)

토론 2: 김왕식 (이화여대)

3: 임재해 (안동대)

Possibility of the Korean Cultural Wave in India

Kim Do-young
(University of Delhi)

Korea was primarily known to India because of the Korean war and forgotten. It managed to revived its image with the Olympic games. However, its images were instilled in India with its demonstration of industrial prowess. In one of the most astounding stories of economic development in recent times, Korea's GNI (current US \$) increased from \$8 billion in 1970 to \$922 billion in 2005, an increase of almost 115 times. 1995 onwards, logos of Korean gigantic companies became household names all over India. Now some Indians are hearing the new word, hallyu, the Korean cultural wave. Still there is a long way to go to develop the image of Korea from the economic wave to the cultural wave, hallyu.

Indo-Korean trade relationship has been developed tremendously from 570 million USD in 1991 to the size of 9.2 billion dollars in 2006. The names of LG, Samsung, Hyundai etc are popularly known to people of India from Kanyakumari, the southern tip of Indian sub-continental to the Himalaya, the most Norther belt. Along with this popularity, POSCO has begun its project to construct a steel mill in Orissa state with 12 billion dollars. With this kind of economic movement, the Korean economic wave has surpassed Japan, China, or any other Asian country in India. It may be concluded that the assessment of the Korean economic wave over the past decade has successfully made a dynamic impact in India. However, formation of the first Korean cultural wave has a long way to go. Though cultural exchange programmes have been developed unceasingly, they are merely part of a normal international relationship and a trivial introduction of Korean culture to 200 countries. How will this be a kind of a wave in India? How deeply did we enter in the Indian cultural ocean?

Culture is a design for living. The culture of Korean society is a way of life

of Korean people. Korean culture is a learned behaviour shared by and transmitted among Koreans. It has been diffused to East or South East Asian Countries like Japan, China, Taiwan, Vietnam, Thailand, Indonesia, Malaysia etc by various mediums like music, movies, dramas etc. However, it neither seems to shape the cultural stream, nor a general social phenomena yet in India or South Asian counties like Pakistan, Sri Lanka, Bangladesh etc. Conspicuously visible demarcation is made within the South Asian block. Thus, I'd like to share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ossibilities of Korean cultural waves in India.

Present Situation

For understanding the present situation of diffusion of Korean culture in India, Korea related cultural activities in India may be reviewed and a sign of regional development may be introduced, and an ultimate direction may be proposed.

Korean Cultural Activities in India (2006)

- 2006.1 Korean Modern painters Exhibition(New Delhi)
- 2006.1 Drama Team 'Mokhwa' performance(New Delhi)
- 2006.2 TV Korea show case(Mumbai)
- 2006.2 Katha Asia International Literature Night (New Delhi)
- 2006.3 Korean Food Festival(Taj Hotel, New Delhi)
- 2006.4 Korea Tourism Road Show (Mumbai, Delhi)
- 2006.4 Indian movie shot in Seoul 'Gangster-A Love Story'
- 2006.5 Korean Center for Information and Culture open
- 2006.5 Korean movie shows (Chennai)
- 2006.7 Asian Movies Festival(New Delhi)
- 2006.7 KBS Drama 'Emperor of the Sea(Haesin)' DD-TV Telecasting
- 2006.9 MBC Drama 'Jewel of the Palace(Deajangeum)' DD-TV Telecasting
- 2006.11 Lalit Kala Academy Korean movie Show
- 2006.11 Jeongdong Drama teamPerformance(New Delhi, Mumbai, Chennai)
- 2006.11 Goan Internationale Movie Show
- 2006.11 Korea Week, University of Delhi

Korean Drama “King Kim Suro and Queen Heo” by Indian Students
 Korean Calligraphy Demonstration and Participation

2006.12 Painter Jeong In-ja Exhibition(New Delhi)

2006.12 Chennai Korean Movie Show

Korean Dramas

Thus far, Indian governmental broadcasting company have broadcasted two Korean dramas KBS Drama ‘Emperor of the Sea(Haesin; 2006.7) and MBC Drama ‘Jewel of the Palace(Ghar Ka Chirag; Deajanggeum; 2006.9) Unlike East Asian or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y don’t make any impressive achievement in India.

A Viewing Rate of *Jewel of the Palace(Daejanggeum)*

	Dates	Average rate		D.D. National	D.D. Viewers Rate
8th	Dec 3	6.3	5 above popular	top 10	26.84
9th	Dec 10	5.89			27.55
10th	Dec 17	6.03		top 10	26.98
11th	Dec 24	5.39			22.38

Though telecasting is significant, and viewing rate of D.D. seems to be good, this program record is limited within Doordarshan programme, which is generally aired to unreachable regions like the agricultural area, remote places etc. by wireless waves. These regions lack the ability to aid in culture formation as well as lack class. Approximately 40 cable channels are popularly and powerfully viewed by culture creating classes. So far they didn’t include Korean programmes. This implies that Korean programmes are not considered as promising. Unlike other areas of India, the wave of globaliz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volution has been felt in Manipur, one of the North Eastern States of India, neighbouring Myanmar. The Manipuri society, through Korean satellite channels and movies has been experiencing Korean wave with more or less the same impact like other Asian societies and a new wave of youth culture has surfaced in recent years. Despite all this positive progress, evaluation on Korean cultural wave shouldn’t be in a hurry.

Rather, a few actual matters should be discussed since it has been limited

Kim Do-young

within regional barrier: why it is not popular, what are the hurdles and what are the best ways for Korean cultural wave etc.

No Cultural Proximity

The reason why Korean cultural wave does not create waves in India may be explained in light of no cultural proximity between two countries. Theoretically, media productions from culturally affiliated countries have greater reception than those from the culturally distanced countries. Cultural proximity is a characteristic that is predominately reflected in “nationally or locally produced material that is closer to and more reinforcing of traditional identities, based in regional, ethnic, dialect/language, religious, and other elements” (Straubhaar, 1991). For instance, in case of movies, Masala movies have never been popular in Korea due to the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 More than 1,000 such movies are released every year. However, it has been striking not only Nepal or Sri Lanka but even in Pakistan. So it shouldn't be understood as unilateral job. To what extent it may be accepted and absorbed is a matter of possibility for Korean cultural current. From their view, taking one or two movies or dramas is an invisible increase of their variety.

Indian Cultural Factors; Not Accepting Korean Cultural Wave

From the Korean point of view, diffusing Korea-originated culture may be considered as Korean wave creating concentric cultural circle mostly in the Asian region. Thus, the reason for the spread of Korean culture has become important. However, from Indians's view, one of recipients of Asian countries, Korean culture is another minor cultural add-on course on the various cultural exposure originated from various cultural differences. It may not be much inspiring to them at all.

Idiosyncratic cultural factors of India or South Asia which may be hindering the current should be studied and discussed. It includes certain communal natures. There are some distinctiv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India and Korea or between South Asia and East Asia which need to be scrutinized.

First of all, cultural factors are not considered seriously in introducing

Korean works. People in India are basically Aryan, Dravidian etc. They originally migrate from Central Asia and were nomads. They invaded the Dravidians and settled in India and converted to an agrarian livelihood. Thus, nomadic culture and agrarian culture were maintained simultaneously. Apart from this, geographical boundary formed certain common cultural features around Indian sub-continent. India sub-continent or South Asian countries share common ethos. They maintain common culture in various ways influenced by geopolitical, internal-international factors like Hindu ethos ruling area, British colonial area, religious conflicts, etc. which show conspicuous differences from East Asian countries. A few differences may be represented conspicuously .

Firstly, ruling class and the ruled have alienated each other because the races and religion of ruling class changed over the course of a thousand years. Thus they were less concerned about the rulers' story. A few examples of Korean movies or drama are not that popular as it was done in other Asian countries because of not matching with Indian ethos and present social acceptance.

Dajangguem is not striking nor popular. It comes with wave telecasting. People in India are not showing much interest. Why? First of all, blunt characters without any common cultural factors: Mongoloid flat noses and big faces, unattractive white color clothes which are different from Indian traditional clothes, too strongly colorful, stories dealing with the monarchy or aristocracy which they rarely bother etc. In Korea, palace life gave influence on people's life by the influence of the concept of confucianism; king's life, death, house, ethics etc. But In India, these do not really concern people. With the Arian rule, Hindu rule, Muslim rule, and the consequent British rule, culture was always distinguished. When it hurt the people, it became a serious issue. Indian ethos is such that they don't consider king's life and people as one. While it formed one cultural block in Korea, in India it can not form a cultural block.

In *Haesin'* s case, no better result is seen at all. It is nearly buried without any significance. Compared to this, Korean culture is united between the ruling and the ruled. This may be one of the reasons why the Jewel of the Palace is not drawing people's interest much in. One researcher reported about response of agricultural area that people didn't feel anything about the work the Jewel

of the Palace. Those who watched it were watching it because they didn't have any other choice.

Secondly, it is better to be more imaginative, which may give vicarious satisfaction to people. Indians enjoy unrealistic fantasy which is far from reality. 'Arahan' was shown in a cinema hall and telecasted through a cable. Its contents are another variation of imaginative martial arts. Unexpectedly, it was welcomed.

Thirdly, it should appeal to people's feeling, concluding with happy ending. Usually movies with tragic endings have rarely reaped success at the box office. Although dramas may be ending with happy ending, each serial may be tragic.

Second, the class of viewers is not targeted selectively. As mentioned above, the viewers are mostly rural area farmers because it is telecasted by air. Already cultural momentum of influential people has diminished and excluded in Indian society. Indeed, if it is not related with Ramayana or Mahabarata which is popularly known to most people in India, it may not be feasible to expect successful response from people by air. In India the open waves aired to reach poor farmers which may not be feasible for creating certain moves. In case of China, that of Korean currents are rich, influential, dynamic in age, wealth, etc.

Possibility

Asian Cultural Proximity

As cultural proximity is a hurdle to the expansion of the Korean cultural wave, it may be working as an assimilating factor of Korea in India. The Korean economic success story might show the possibility of cultural diffusion in Asian society.

Straubhaar shared 'cultural linguistic markets' (Straubhaar, Fuentes, Giraud & Campbell, 2002) or 'geocultural markets' (Straubhaar, 2002) as a premise for cultural proximity. Cultural linguistic markets "are unified by language. However, they go beyond language to include history, religion, ethnicity (in some cases) and culture in several senses: shared identity, gestures and nonverbal communication; what is considered funny or serious or even sacred; clothing styles; living patterns; climate influences and other relationships with the environment. Populations belonging to one market select television programs

that are able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is market.”

Keeping in view of the above theoretical framework, the cultural proximity between Indian and Korean societies can be discerned. Cultural assimilation are discovered in senior-junior concept, less gender contacts, buddhistic stream etc.

Socio-Cultural Changes

New youth culture; America was a dream for every youth in India before, but now is slowly shifting towards East Asian countries like Korea, Japan and China after 'Look East policy' was taken as economic policy. With the entry of Korean companies, its impact upon the youngsters has been spreading in a few ways. For example, watching the various Korean movies with CD has been increasing around the campuses. In universities, youngsters are aware of Korea, and learn Korean language and Korean manners. They have started using some common sentences used in the day to day life. For instance, "Ahn-nyong-ha-se-yo (hello), mat-jho (yes), neh (yes), ah-nee-oh (no), sil-le-hahm-ni-da (excuse me), o-tak-he (what to do),gahm-sah-hahm-ni-da (thank you)" etc. Some of them can even sing some of their favourite Korean singers' songs. It is easy to find people saying "I want to learn Korean so that I can know more about their culture". Some precedents from China or Japan are mostly fighting-related movies like Kungfu movies, Samurai or battle movies, which implies dynamic movements which draw actions and not much thinking demanded. Likewise, some Asiatic factors may be working for emotional assimilation.

Asian Emotion

First, 'sadness' or 'Han' may be similar to Koreans'.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hindu life and fatalism. This is similar to the feeling of Korean 'han'. Therefore in traditional music related with religious lyrics, more minors are used than majors. like Korean tunes.

Second, music and dances are important factors for assimilation. People love music and dances commonly.

Third, youth dynamic characters are important for assimilation for Koreans. As mentioned above, Indian youth are assimilated with American ethos in modern music, which used to be transformed to Korea.

Korea is acting as a filter for Western values making them more palatable to other Asians. From clothes to hair styles, music to television dramas, South Korea has been defining the tastes of many Asians for the past six years. Asian viewers describe Korean dramas as energetic and exciting while maintaining traditional values. The boom of Korean entertainment has increased demand for Korean products, and more people have become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and the language. However, its wave is too small and is yet to be created. What are popular things in India from Korea, which may be used as a psychological base in the society? The achievements of Korean conglomerates like LG, Samsung, Hyundai etc. can be attributed. Cultural combination between cultural products and commercial demand may be working as a good base as POSCO ad coming in 'Jewel in the Palace'.

Hallyu has shown its capability of "cultural creations" befitting Asian sentiment and values. Korean wave has also been expanding its tide in other parts of Asia. It is easy to conclude that despite certain hindrances, the Korean wave can be steadily but firmly implanted in Indian soil as well.

References

- Facts about Korea. 2003.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
- Korean Cultural Insights*. 2005. Korean Tourism Organization.
- Mapping Cultural Diffusion-A Case Study of 'Korean Wave' in North East India, Ningombam Victoria Chanu, Otojit Kshetrimayum, New Delhi, 2007
- Madhubani, Kishore. 2006. The Korean Enigma. *Korea Foundation Newsletter*, 15 (4), 4.
- Straubhaar, J. D. 1991. Beyond Media Imperialism: Assymetrical Interdependence and cultural proximity.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8, 39-59.
- Straubhaar, J. (2002). (Re)asserting national television and national identity against the global, regional and local levels of world television n J. M. Chan & B. T. McIntyre (Eds), *In search of boundaries. Communication, nation-States and cultural identities*. Westport, Connecticut: Ablex Publishing.
- Straubhaar, J., Fuentes, M., Giraud, C. & Campbell, C. 2002. Refocusing form global to regional homogenization of television: Production and programming in the Latino U.S. Market, Mexico and Venezuel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in Seoul, South Korea*.
- Cultural Performances in New Delhi,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6
- Viewing Rate, Doordarshan 2006,

<Possibility of the Korean Culture Wave in India>에 대한 토론

김 왕 식
(이화여자대학교)

김도영 교수의 논문은 인도에서 한국 경제 발전에 힘입어 한국 경제 바람은 거 세계 불고 있으나 “한류”라고 지칭되는 문화적 바람이 일기에는 아직 요원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즉 한국과 인도 간에는 문화적 차이(no cultural proximity)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인도와 한국 간에는 문화적 근접성 또한 발견되는데 이 점들이 한국 문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류가 동남아와는 달리 인도에서는 크게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를 밝히는 김 교수의 논지는 동남아에서 왜 “한류”가 성공적인가를 분석하는 것과 함께 한국적 문화의 세계화 가능성을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인들 전반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시각의 연구라는 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논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논지에는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된다. 우선 한류가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로 첫째, 한국 작품을 소개함에 있어 문화적 요인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인도인들은 지배자의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는데 인도에 소개된 드라마 “대장금”의 경우 인도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넓적한 코, 둥근 얼굴, 흰 옷 그리고 관심 없는 군주나 귀족 이야기 등이 주라는 것이다. 또한 인도인들은 비현실적인 환타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드라마의 내용이 보다 상상력이 풍부한 것이어야 하는데 소개된 드라마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를 선호하는데 소개된 “대장금”이나 “혜신” 등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드라마를 시청하는 인도인들이 주로 저소득층이며 농부들이기 때문에 드라마에 대한 반응도 낮고 한류에 대한 움직임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인도와 문화적 배경을 달리 하는 국가의 문화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를테면 지배계층이나 그들의 비극적 인생을 다룬 셰익스피어의 작품 역시 인도에서 주목을 받지 못할까? 별로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문화적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문화적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 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저자는 한류의 가능성으로 인도와 한국 사이에 문화적으로 근접해있는 요인으

로 “선후배 개념”, “상대적으로 적은 이성 간 접촉” 또는 “불교적 성향” 등을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문화적으로 근접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어떻게 한류를 불러 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서적 동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서 “恨”, “음악과 춤” 그리고 젊은이들의 다이내믹한 성격 등을 들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작용하여 한류를 일으킨다는 것인가? 그리고 “한”의 개념이 인도와 문화적으로 근접해 있다면 한국의 드라마가 어떻게 해피 엔딩을 좋아하는 인도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위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인도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자주 사용하고 한국문화를 알고자 한다면 이미 한류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한류가 인상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한국의 문화가 소개된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가?

고대 한류로서 복식 문화의 국제적 위상

朴仙姬
(상명대학교)

1. 고대 복식문화를 보는 주체적인 시각

우리 문화가 이웃나라에 영향을 준 것을 한류라고 일컫는다면, 역사적으로 한류는 지금 우리 시대에 비로소 나타난 일이 아니라 고조선시대부터 있었던 문화현상이었다. 고조선시대에 비롯되었던 한류 현상은 여러 나라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 이르면서 더욱 다양하게 확산되었다.

특히 고대 한민족의 복식분야는 재료에서부터 높은 수준을 이루어서 이웃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고조선은 가죽과 모피, 모직물, 실크, 마직물, 면직물 등의 복식 재료들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독자적으로 생산하여 복식문화의 우수성을 뒷받침했다.

고조선은 가죽에 대한 가공기술이 매우 높았고, 모직도 중국이나 북방 지역 보다 직조 시작연대가 앞설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의 수준도 높았다. 모직과 관련된 문헌자료에 罽·氈氍·毳毳·毳毳·障日 등이 보인다. 이들 자료로부터 복식사는 물론이고 일반사에서도 고대 한국에서 모직이 일찍부터 사용되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직물이 고대 한국에서 직접 생산했다고 긍정적으로 보려고도 했지만,¹⁾ 부정적인 견해²⁾ 역시 동반했다. 또 수입품이라고 하거나,³⁾ 한민족이 직접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은 외국으로부터 들여왔을 것이라는 견해⁴⁾도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문헌자료와 상황만을 근거로 추리한 것일 뿐 고고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학자들 모두가 고대 한국의 양잠기술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라고 믿어왔고, 지금도 그대로 믿고 있는 실정이다. 그

1)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pp.302-303.

2) 金東旭, 『百濟의 服飾』,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5, pp.14-16.

3) 杉本正年 著·문광희 譯, 『동양복장사논고』 고대편, 경춘사, 1995, p.355 ; 李龍範, 「海外貿易의 發展」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탐구당, 1981, pp.516-517 ; 李龍範,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 商人의 貿易品」, 李弘植博士回甲紀念 『韓國史 論叢』, 新丘文化社, 1969, pp.98-99 ; 鄭玩燮, 『織物의 起源과 交流』, 書景文化社, 1997, pp.113-124 ; 무함마드 간수, 『新羅 西域交流史』, 檀國大學校出版部, 1992, pp.252-256.

4) 朴南守, 『新羅手工業史』, 신서원, 1996, p.72 ; 関吉子, 「織物의 歷史」 『토포론』(Summer), 동양 나일론, 1993, p.27.

러나 고대 한국은 중국과 같은 시기인 서기 전 2700년경에 絲織物을 독자적으로 생산했고,⁵⁾ 이러한 사직물 생산은 그대로 이어져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사직물을 만들었다. 중국에서 사직물은 지배계층에서만 입었던 것과 달리 고대 한국에서는 신분에 큰 차별 없이 평민까지 입을 정도로 널리 대중화되었던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고는 고대 한국의 사직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가 없다.

고대 한국에서는 元에서 재배했던 목면과 품종이 다른 야생종 초면에서 뽑은 실로 짠 白蠶布(白蠶布)를 생산했다. 종래에는 일반사와 복식사 및 직물연구에서 蠶과 蠶을 같은 글자 또는 같은 뜻으로 파악하고 蠶을 모직물로 본 탓에,⁶⁾ 고대 한국에서는 면직물이 생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공민왕 12년에 문익점이 원에서 목화씨를 들여와 공민왕 14년 재배에 성공한 때부터 면직물이 생산되었다고 했다.

고대 한국에서는 고구려와 신라에서 白蠶布가 생산되었고, 신라는 白蠶布뿐만 아니라 白蠶과 絲를 합사한 綿紬布 또는 純綿紬布를 생산했으며, 고려도 白蠶布를 생산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직물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웃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의 방직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들 복식재료들은 품질이 우수하여 이웃나라와 중요한 교역상품 구실을 하였다.

이처럼 복식문화의 기본이 되는 의복재료에 관한 연구가 모두 중국이나 북방지역 등에서 왔다는 전례설에 종속되어있는데, 복식양식에 관한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복식양식 가운데 금관연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의 금관이 시베리아 사면의 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정설로 되어있다.

고대 한국의 금관에 대해서는 스키타이와 시베리아 유목민족이 사용한 관의 형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견해⁷⁾와 스키타이風의 북방적 성격과 불교 전래와 함께 菩薩의 立華飾冠帽의 인도적 성격이 합성된 위에 신라의 自生性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⁸⁾ 그리고 중앙아시아 Tillya-Tepe 유적에서 출토된 Bactria시대에 제작된 금관(서기 전 1-2세기)이 신라 금관보다 앞선 연대에 만들어 졌다하여 '신라 금관의 祖形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⁹⁾ 또한 고구려의

5) 조선기술발전사편찬위원회, 『조선기술발전사』 원시·고대편, 1997, p.171 ; 夏鼐, 「我國古代蠶·桑·絲·綢의歷史」, 『考古』 1972年 第2期, pp.12-14 ; 回顧, 『中國絲綢紋樣史』, 黑龍江美術出版社, 1990, p.14 참조.

6)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p.301;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p.122 ; 이은창, 『한국 복식의 역사』 - 고대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p.152 ; 북한학자들은 『三國史記』와 『高麗史』의 번역에서 白蠶布 혹은 白蠶布를 모두 모직물로 해석하고 있다.

7)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77, pp.180-181 ; 秦弘燮, 「百濟·新羅의 冠帽·冠飾에 關한 二三의 問題」, 『史學志』, 檀國史學會, 1973, pp.1-34 ; 金文子, 『韓國服飾文化的 源流』, 民族文化社, 1994, pp.78-96.

8) 앞의 책, 『朝鮮服飾考』, pp.218-219.

경우 광개토태왕릉에서 금관이 출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¹⁰⁾ 중국학자들의 잘못된 유물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고구려는 금관이 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금관의 속관인 절풍은 고대 한민족이 고조선시대부터 여러지역에서 널리 쓰왔던 모자이다. 또한 고대 한국에서 금이나 금동 등으로 만든 관식과 관에는 거의 대부분 원형 또는 복숭아 모양의 樹葉이 달려있고, 관을 구성하는 樹支의 끝부분은 거의 복숭아 모양으로 마무리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원형과 복숭아 모양의 장식 모습은 서기 전 25세기 경인 고조선 초기 유물에서 이미 보이기 시작하여 이후 줄곧 계승되어 고대 한국 예술품의 주된 양식으로 발전한다. 또한 뺨어 올라간 樹支의 모습을 나타내는 양식도 고조선 유적에서 출토된 銅劍鞘¹¹⁾이나 銅片¹²⁾ 등에서 나타난다. 금관이 만들어지기 이전 시기에는 이 같은 장식물들이 금이나 금동으로 만들어져 관식으로 사용되다가 이후 금관의 주요한 구성부분으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백제·신라·가야의 여러 나라들이 중국이나 북방 또는 인도 등의 외래적인 영향으로 각기 그 성격이 조금 변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고대 한국에서 금속으로 만든 관식이나 관들은 북방지역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라던가 북방적 성격과 인도적 성격이 복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대 한민족이 고조선시대부터 사용해왔던 관모를 분석하여 고대 한국의 관모와 관식의 고유 양식을 복원하고, 이후 이 요소들이 금관의 주요 양식으로 계승되어져가는 모습을 밝혀보고자 한다.

고조선의 무기에 관한 연구는 고조선의 다른 부분에 관한 연구보다 비교적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방어무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갑옷에 관한 연구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첫째, 고조선의 복식이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고조선에서 훌륭한 다양한 종류의 갑옷을 생산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갑옷은 사국시대에나 생산되었던 것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이전에는 고대 한민족이 북쪽의 대륙으로부터 문화를 수입해 발전했던 것으로 믿어왔다. 따라서 사국시대에 착용한 갑옷들은 고조선으로부터 계승된 것이 아니라, 그 원류가 북방 유목민의 무장형태에 있다거나¹³⁾ 중국계통의 무장방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것

9) 김병도,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1998, pp.39-41.

10)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著, 『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查報告, 文物出版社, 2004,

11) 李逸右, 「內蒙昭烏達盟出土的銅器調查」, 『考古』 1959年 第6期, pp.276-277.

12) 孫守道, 「西岔溝古墓群被發掘事件的教訓」, 『中國考古集成』 東北卷 秦漢之三國(二), pp.929-932 ; 孫守道, 「匈奴西岔溝文化'古墓群的發現」, 『文物』 1960年 8·9期, pp.25-35.

13) 石田英一郎·江上波夫·岡正雄·八幡一郎, 「朝鮮半島との關係」, 『日本民族の起源』, 平凡社, 1969, pp.104-116 ; 駒井和愛, 「スキタイの社會と文化-武器」, 『考古學概説』, 講談社, 1972, pp.380-381 ;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고대편, 교양국사총서, 1978, p.127 ; 전주농, 「고구려시기의 무기와 무장(II)」, 『문화유산 1』, 사회과학원출판사, 1959, pp.53-68.

으로 보았고¹⁴⁾ 북방계통의 무장모습을 기본으로 하고 중국계통의 무장방법을 들여와 복합적으로 형성시킨 것으로 보기도 했다.¹⁵⁾ 더구나 일본은 일본에서 출토된 甲冑뿐만 아니라 한반도 남부의 고분에서 출토된 甲冑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란 주장¹⁶⁾을 넘어 ‘任那日本府’설의 근거로 삼기도 하였다.¹⁷⁾

또한 학계에는 이미 한국과 중국의 문헌자료와 고고학적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고조선의 영역이 북경근처에 있는 灤河 유역과 碣石山지역을 중국과의 경계로 하여 지금의 하북성 동북부로부터 내몽고자치구 동부·요녕성 전부·길림성 전부·흑룡강성 전부 및 한반도 전부를 그 강역으로 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¹⁸⁾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 출토된 고조선의 갑옷 조각이나 투구 등의 유물들은 북방민족의 것 혹은 중국의 것으로 막연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고조선 갑옷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고조선 복식 가운데도 갑옷의 품질은 특히 우수하다. 이웃나라에 미친 갑옷의 영향은 오늘의 한류 못지않았다. 고조선의 갑옷은 여러 모로 우수하고 이웃나라에 비해 기술적으로 앞섰을 뿐 아니라,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고대 우리 민족 갑옷의 전형을 이루었다.

일반복식은 물론 특수복식인 갑옷도 가장 발전하였던 까닭에 중국과 북방지역 및 일본에까지 여러 모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복식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이야말로 고대의 한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조선으로부터 이어지는 고대 한민족 복식문화의 우수성을 밝히는 이 연구는 한국문화의 우수성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한 사례일 따름이다. 앞으로 복식문화 일반으로 확장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면, 복식문화와 더불어 고대문화 일반의 우수성과 그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의복재료가 이웃나라에 준 영향

(1) 가죽과 모직물

고조선에서 생산했던 가죽은 특수한 고급 가죽과 일반 가죽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특수한 고급 가죽들은 높은 수준의 가공 기술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들

14) 金榮珉, 「嶺南地域 板甲에 대한 一考察」, 『古文化』 第46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95, p.124.

15) 李殷昌, 「三國時代武具」, 『韓國의 考古學』, 河出書房, 1972, pp.229-237.

16) 末永雅雄, 『增補 日本上代の甲冑』, 創元社, 1981 ; 野上丈助, 「甲冑製作技法と系譜をめぐり問題點(上)」, 『考古學研究』 第21卷 第4號, 1975 ; 末永雅雄·伊東信雄, 『挂甲の系譜』, 雄山閣, 1979.

17) 穴澤和光·馬目順一, 「南部朝鮮出土の鐵製鋌留甲冑」, 『朝鮮學報』 第78輯, 1976.

18) 윤내현·박선희·하문식, 『고조선의 강역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5.

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희귀하여 중국과의 무역 상품이였다. 일반 가죽들도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이 풍부하여 일반 복식의 재료로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웃나라와의 무역상품도 여러 종류였다. 우선 특수한 고급 가죽의 종류와 중국과 거래된 무역 상품을 알아보자.

고조선에서 표범류에 속하는 貔 가죽¹⁹⁾과 붉은 표범·누린 말곰 가죽 등을 서주에 수출했다.²⁰⁾ 특히 지금의 遼西지역에 위치했던 고조선의 거수국인 發과 朝鮮의 빛깔이 화려한 무늬가 있고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범과 표범류의 가죽인 文皮²¹⁾는 중요 특산물이었다.²²⁾ 고대 중국인들은 斥山에서 뱃길을 통하여 지금의 灤河 하류 유역에 위치했던 고대의 遼東지역에 이르러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밭과 조선지역에서 생산되는 文皮 등을 수입했던 것이다.²³⁾ 당시 요동과 요서지역은 고조선의 강역이었다.²⁴⁾ 지금의 강원도 지역에 위치해 있던 東瀋의 지역에서 文皮가 생산되었고 바다에서는 班魚의 가죽이 특산물로 생산되어 중국에 수출되었다.²⁵⁾

19) 貔에 대해 『說文解字』에서는 “표범에 속하며 맥국에서 난다(豹屬出貉國)”고 했다.

20) 『詩經』, 「大雅」, “湯之什” ‘韓奕’. “孔樂韓土, 川澤訏訏, 魴鱖甫甫, 麀鹿訏訏, 有熊有羆, 有描有虎. …… 獻其貔皮, 赤豹黃羆(즐거운 韓侯의 땅이여, 냇물과 못물이 넘쳐흐르고, 방어와 연어가 큼직큼직하며, 암사슴 수사슴이 모여 우글거리고, 곰도 말곰도 있으며 샅쟁이도 범도 있다. …… 예물로 貔 가죽과 붉은 표범·누린 말곰 가죽 바치었도다).” 윤내현, 『고조선 연구』, 一志社, 1994, p.588. 윤내현은 “여기에 나오는 韓侯는 고조선의 최고 통치자인 壇君을 중국식으로 부른 것이다.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을 중국 천자의 제후로 생각하는 中華思想에 따라 고조선의 壇君을 韓侯라고 부르고 있으며, 壇君이 가지고 온 예물을 공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壇君은 중국의 제후가 아니었다”고 하여 이 물건들이 예물이 아니라 수출 상품의 성격도 지녔음을 밝히고 있다.

21) 『爾雅』, 「釋地」의 文皮에 대한 주석. “郭璞云, 虎豹之屬, 皮有縹緋者, 是文皮, 卽文豹之皮也.”

22) 『管子』 卷23 「揆道」 第78. “桓公問管子曰, 吾聞海內玉幣七筭, 可得而聞乎. 管子對曰, …… 陰山之礪石昏一筭也, 燕之紫山白金一筭也, 發·朝鮮之文皮一筭也, ……(환공이 관자에게 묻기를, 내가 海內에 玉幣로 일곱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관자가 대답하기를, …… 陰山の 礪石昏이 그 한 가지요, 紫山の 백옥이 그 한 가지이고, 發과 朝鮮의 文皮가 그 한 가지이고, 汝漢의 黃金이 그 한 가지고, 江陽의 珠가 그 한 가지이고, 秦明山の 曾靑이 그 한 가지’라고 했다.)”

23) 『爾雅』, 「釋地」의 斥山에 대해 『正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營州의 이익을 설명하는 것이다. 『隋書』, 「地理志」에 따르면, 東萊郡 文登縣에 斥山이 있다. 『太平實字記』에는 바로 『爾雅』의 斥山이라 기록하고 있다. 斥山은 지금의 登州府 榮成縣 남쪽 120리에 있다.

24) 윤내현·박선희·하문식, 『고조선의 강역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5.

25) 『後漢書』 卷85 「烏丸鮮卑東夷傳」 濊傳. “又多文豹, 有果下馬, 海出班魚, 使來皆獻之(무늬가 아름다운 표범의 가죽이 많고, 과하마가 있으며, 바다에는 班魚가 나는데, 사절이 올 때마다 이들을 바쳤다).”; 『爾雅』, 「釋魚」, ‘魴鰕’에 대해 주석으로 실린 『正義』에서 “魴은 鰕라고 한다(魴一名鰕). 『魏略』에 ‘濊나라에서 斑魚皮가 나며 漢 恒帝 때 그것을 바쳤다는 것이 이런 것 들이다.(『魏略』云 : 濊國出斑魚皮, 漢時恒獻之是其類也)라고 했다. 郭璞은 魴은 小鰕의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郭璞云, 魴小鰕別名)”고 한 내용으로 보아, 斑魚는 小鰕라 할

수출 상품과 예물로 쓰였던 아름답고 희귀한 짐승들 외에 일반적인 복식의 재료로는 어떠한 짐승들의 가죽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보자. 부여에서는 여우·貂²⁶⁾·담비가 많이 생산되었고, 좋은 말과 담비·豹²⁷⁾이 생산되어²⁸⁾ 갓옷의 재료가 되었다. 담비가죽은 숙신에서도 생산되었고²⁹⁾ 동옥저 사람들은 담비가죽으로 조세를 납부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옥저에서도 담비가죽이 많이 생산되었다.³⁰⁾ 고구려³¹⁾와 백제 지역³²⁾ 등에도 사슴이 매우 풍부했다. 담비가죽과 사슴가죽은 중국에서 선호하는 물품이었다. 담비 가운데 흰색 담비는 서양에서도 왕실이나 귀족의 의식에만 쓰일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최고급 모피이다.

한민족은 일찍이 우수한 모직옷을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까지 했음이 옛 문헌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管子』의 「輕重甲」篇에는 말과 조선이 그들의 특산물인 빛깔이 화려한 무늬가 있고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표범가죽과 새의 털로 만든 모직물 옷인 罽나 氈服³³⁾을 중국에 수출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보인다.³⁴⁾ 『관자』에 나오

수 있다. 鰓는 『爾雅』, 「釋魚」에 대한 주석으로 실린 「正義」에서 “큰 鰓를 鰓라 한다. 鰓魚는 鮎魚와 비슷한데 네 다리가 앞은 獼猴와 비슷하고 뒤는 개와 비슷하며 소리는 어린아이가 우는소리와 같고 큰 것은 길이가 8·9척이며 鰓라고 달리 부르기도 한다(鰓大者謂之鰓, 今鰓魚似鮎魚四脚前似獼猴似狗聲如小兒啼大者長八九尺 別名鰓)”고 했다.

26) 『說文解字』에서는 貂에 대해 “취에 속한다(鼠屬)”고 했고, 「倉頡篇」에서는 너구리 같다(貂似狸)고 했다.

27)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扶餘傳. “좋은 말과 붉은 구슬·담비·날이 생산된다(出名馬·赤玉·貂·豹).”;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傳. “(出名馬·赤玉·貂·豹·美珠).” 위의 기록에서 『後漢書』 “扶餘傳”에는 豹으로 기재되어 있고, 『三國志』 夫餘傳에는 貂로 기재되어 있다. 豹은 貂와 같은 글자인데 『爾雅』 「釋獸」에서 “貂은 앞발이 없다(貂無前足)고 하고, 『異物志』에서 “貂는 조선에서 나는데, 猩猩과 비슷하고 검푸른 색으로 앞의 두 발이 없으나 취를 잡을 수 있다(貂出朝鮮, 似猩猩, 蒼黑色, 無前兩足, 能捕鼠)”고 한 것으로 볼 때 豹과 貂가 다른 동물임을 알 수 있다.

28) 『三國志』 卷13 「烏丸鮮卑東夷傳」 扶餘傳. 참조.

29) 『晉書』 卷97 「東夷列傳」 肅慎 條. “魏나라 景元 말경에 楷나무로 만든 화살·돌화살촉·활과 갑옷·담비가죽 따위를 가지고 와서 바쳤다(魏景元末, 來貢楛矢·石弩·弓甲·貂皮之屬).”

30)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東沃沮傳. “조세로 담비가죽과 魚鹽을 징수했다(責其租稅, 貂布魚鹽).”

31)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 “(유리왕 21년) 國內城의 尉那岩에 이르러 그 곳 산수가 깊고 험하며 토양이 오곡을 심기에 적당함을 알았다. 또 순록과 물고기와 자라들의 생산이 많았다(至國內尉那岩, 見其山水深險, 地宜五穀, 又多麋鹿魚鼈之產).”

32)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고이왕 3년) 겨울 10월에 왕이 서해의 큰 섬에서 사냥을 하여 손수 40마리의 사슴을 쏘아 맞혔다(冬十月, 王獵西海大島, 手射四十鹿).”

33) 『漢書』 卷1下 「高帝紀」, pp.65-66. “상인들은 물감을 들인 오색실로 섞여 짠 사직에 수놓은 옷, 무늬가 있는 사직옷, 고운 베와 모시옷, 무늬 있는 모직물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賈人毋得衣錦繡·綺縠·絺·紵·罽).” 顏師古는 “罽는 털로 짠 것으로 지금의 (모직물의 종류인) 氈과 氈氈와 같은 종류이다(“罽, 織毛, 若今氈及氈氈之類也)”라고 했다. 『袁山松書』에서는 『後漢書』 卷51 「李恂列傳」의 “香罽之屬”에 대해, 罽는 “털로 짜서 포를 만든 것(織毛爲布者)”이라고 했다. 『後漢書』 卷86 「南蠻西南夷列傳」의 “輕毛毼雞”에 대해 郭璞은 “『山海經』

는 이 내용은 춘추시대의 상황을 말한 것이므로 고조선이 당시에 이러한 상품을 중국에 수출했음을 알게 해주는데, 그 품질이 아주 우수했을 것이다.

고조선 사람들의 이 같은 높은 수준의 모직물 직조 기술은 가죽 가공 기술과 함께 그 발달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사실은 출토된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서기 전 1000년기 초로 그 연대가 확인된 길림성 영길현 星星哨 유적 17호 돌널무덤에서는 시체의 얼굴을 덮었던, 양털실과 개털실을 섞어서 짠 모직물이 출토되었다.³⁵⁾ 성성초유적에서 출토된 모직은 오늘날 생산되는 다소 거친 모직에 가까운 것으로서 고조선에서는 무척 정교한 모직물을 생산했음을 알게 해준다. 고조선의 모직옷은 이후 춘추시기에 이르러 『관자』의 「경중갑」편에 나오는 내용에서와 같이 이미 중국의 수입 품목 가운데 중요한 한 품목이 되었던 것이다.

마한³⁶⁾과 부여³⁷⁾ 등에서도 罽를 생산했다. 이 같은 훌륭한 기술은 이후 신라와 백제에 이어져 신라에서는 罽뿐만 아니라 毼毼와 毼毼·毼毼이 생산되었고,³⁸⁾ 백제에서도 毼毼을 생산했다.³⁹⁾ 이 毼毼·毼毼·毼毼·毼毼은 모두 동물의 털에서 실을 뽑아 만든 모포로 담요나 깔개의 용도로 쓰였고,⁴⁰⁾ 이웃나라에서 선호하는 물품들이었다.

고대에 중국에서는 모직물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다. 즉 商代 후기에 속하는 하북성 藁城 臺西村 商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마직물에서 羊毛 한 오라기가 함께 나왔을 뿐 모직물이 발견된 예가 없다.⁴¹⁾ 漢시대에 이르기까지도 모직물이 발달되지

에, ‘毼毼은 꿩과 비슷하지만 크고 푸른색이며 머리에 털이 뿔모양을 이루고, 싸우면 적이 죽어야 멈춘다고 했다(『山海經』曰, 毼毼似雉而大, 青色, 有毛角, 鬪敵死乃止)’며 인용하고 있다. 『風俗通』에서 “털로 짠 깔개를 구유라고 한다(織毛褥謂之毼毼)”고 했다. 이를 종합하면 계는 공작류의 푸른 새털로 짠 것이라고 하겠다.

34) 『管子』 卷24 「輕重甲」 第80. “환공이 四夷가 불복하니 그 逆政이 천하에 퍼질 것을 걱정해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내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管子가 ‘오와 월이 내조하지 않으면 珠象을 교역의 화폐로 하고, 발과 조선이 내조하지 않으면 文皮와 毼服을 교역의 화폐로 청하십시오…한 장의 표범 가죽이 큰 값으로 계산된다면 8,000리나 떨어진 발과 조선도 내조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桓公曰, 四夷不服, 恐其逆政游於天下, 而傷寡人, 寡人之行爲此有道乎. 管子對曰, 吳·越不朝, 珠象而以爲幣乎. 發·朝鮮不朝, 請文皮毼服而以爲幣乎, … 一豹之皮容金也, 然後八千里之發·朝鮮可得而朝也.”

35) 吉林省博物館·永吉縣文化館, 「吉林永吉星星哨石棺墓第3次發掘」, 『考古學集刊』 3,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 p.120.

36)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韓傳. “(마한 사람들은) 금·보화·물들인 실로 짠 錦·푸른 새털로 짠 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며…不貴金寶錦罽.”

37)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傳. “…청색 빛깔의 모직옷을 즐겨 입고, 大人은 그 위에다 여우·猯·희거나 검은담비로 만든 가죽옷을 덧입었다.(…尚·罽, 大人加狐狸·猯·白黑貂之裘).”

38) 『三國遺事』 卷第3 「萬佛山條」; 『三國史記』 卷第33 「雜志」 器用 條 참조.

39)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5年條」 참조.

40) 『說文解字』 “毼毼毼毼皆毼絨之屬蓋方言也.”

못하여 널리 보급되지 않았고⁴²⁾ 그 수준이 낮았다. 그러했기 때문에 모직으로 만든 옷은 가난한 사람이 입는 옷으로 인식되었고, 고급 모직물은 한민족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⁴³⁾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물건에 의존했을 뿐이다.

(2) 마직물

지금까지 출토된 한반도와 만주 및 중국의 신석기시대 유물 중 마섬유와 관계된 자료를 비교해보면 고대 한국이 중국보다 마섬유의 생산기술이 매우 앞섰음이 확인된다. 織機의 경우 현재까지 출토된 유물로서는 한반도에서 출토된 직기가 중국보다 앞선 연대를 갖고 있다.⁴⁴⁾

한반도와 만주에 위치했던 고조선의 여러나라들은 신석기시대로부터의 기술을 이어 일찍부터 다양한 마직물을 생산하였다. 이 같은 고조선의 우수한 직물기술은 서기 전 1세기경에 고조선이 붕괴되고 여러나라시대가 되면서 더욱 그 기술이 발달되어 섬세한 여러 가지 종류의 布를 생산하여 줄곧 복식의 재료로 삼았던 것이다.

신라는 麻를 많이 재배했다.⁴⁵⁾ 그 결과 文武王 12년 40升布 6필과 30升布 60필을 唐나라에 예물로 보냈고,⁴⁶⁾ 이후 景文王 9년에는 40升 白氎布 40필과 30升 紵衫段 40필을 당나라에 예물로 보냈다.⁴⁷⁾ 또한 일본에 布를 예물로 보내기도 했다.⁴⁸⁾

41) 앞의 책, 『中國上古時期科學技術史話』, 中國環境科學出版社, 1990, p.122; 鄭若葵, 『中國遠古暨三代習俗史』, 人民出版社, 1994, pp.87-88.

42) 孫機, 『漢代物質文化資料圖說』, 文物出版社, 1991, pp.74-75.

43) 李肖冰, 『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 新疆人民出版社, 1995, pp.83-85.

44) 서포항유적 1기층(서기 전 6000년)에서는 수직식 직기의 씨실널기에 쓴 빠로된 갈구리가 출토되었다(조선기술발전사편찬위원회, 『조선기술발전사』 1-원시·고대편, p.62). 중국의 경우는 위에서 서술했듯이 長江 下流 浙江 餘姚縣의 河姆渡유적(서기 전 5010년)에서 나무로된 緯刀가 출토되었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水平式 ‘踞織機’라고 밝혔다(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p.19). 이로부터 중국의 河姆渡유적에서 출토된 목제 직기보다 서포항유적에서 나온 빠로된 수직식 직기가 훨씬 앞선 연대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45) 『南史』 卷79 「列傳」 新羅 條. “토지가 비옥하고 오곡과 상마를 많이 심어 겹포로 옷을 지어 입었다(土地肥美, 宜植五穀多桑麻作縑布服).”

46)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文武王 條. “(문무왕 12년)… 우황 120푼·금 120분·40승포 6필·30승포 60필을 바쳤다(…牛黃百二十分·金百二十分·四十升布六匹·三十升布六十四).”

47)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 景文王 條. “(9년) 가을 7월에 왕자 소판과 김운 등을 당에 보내어 은혜를 사례하고, 겸하여 말 2필·부금 100량·은 200량·우황 15량·인삼 100근·큰꽃무늬 어아금 10필·작은 꽃무늬 어아금 10 필·조하금 20필·40승 백첩포40필·30승 紵衫段 40필…을 보냈다(秋七月, 遣王子蘇判金胤等入唐謝恩, 兼進奉馬二匹, 麩金一百兩, 銀二百兩, 牛黃十五兩, 人蔘一百斤, 大花魚牙錦一十四, 小花魚牙錦一十四, 朝霞錦二十四, 四十升白氎布四十四, 三十升紵衫段四十四, …).”

48)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下」. “甲子에 신라에서… 조물은 금·은·철·정·금·견·포·

40升布의 모습은 『星湖僊說』에 기재된 ‘우리나라 北道에는 한 필 포가 밥그릇에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40升布이다’⁴⁹⁾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신라인들의 손끝에서 매만져 나온 40승포의 정교한 갓춤새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에 신라는 크고 작은 폭의 大小布와 毛施布 및 금실을 섞어 짠 金摠布를 생산하여⁵⁰⁾ 중국에 보내는 예물로 사용했다.

(3) 사직물

종래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학자들 모두가 고대 한국의 양잠기술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라고 믿어왔다. 이 같은 학문의 영향은 요즘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대 한국은 이미 중국에서 絲織物을 생산한 시기와 같은 시기인 서기 전 2700년경에 사직물을 독자적으로 생산했다. 그리고 중국의 것과 특성을 달리하는 다양한 사직물을 독자적으로 생산했으며, 중국에서는 사직물을 지배계층에서만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고대 한국에서는 계층과 신분에 큰 차별 없이 사직물이 널리 대중화 되어 있었다.

고대 한민족의 사직물 생산이 이웃나라에 준 영향도 다른 직물에 못지않다. 가야는 韓의 弁韓 지역에서 건국되어 韓의 사회수준을 계승한 나라이다. 가야의 사직물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는 梁山 夫婦塚에서 출토된 紗로 만든 冠帽 뿐이다.⁵¹⁾ 그러나 가야인들은 왜열도의 여러 곳에서 고구려·백제·신라와 더불어 가야(임나) 소국을 형성하여 활동했기 때문에 이 시기 왜열도에서는 한반도 가야의 것이거나 그 영향을 받은 유물들이 많이 출토된다.⁵²⁾ 그리고 『日本書紀』는 왜열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위주로 서술했지만 그 내용 가운데는 가야의 사직물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일본서기』에 왜열도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彌生文化시기(서기 전 3세기 경-서기 3세기 경)에 처음으로 양잠이 시작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⁵³⁾ 왜열도의 미생문화는 한반도의 문화가 전달되어 형성된 것인데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왜열도로 이주했다. 따라서 벼농사와 더불어 양잠기술이 한반

피·말·개·나귀·낙타의 10여종이었다(甲子新羅遣… 調物, 金銀鐵鼎錦, 錦絹布皮馬狗驃駱駝之類十餘種).”

49) 『星湖僊說』 卷6 「萬物門」. “우리나라 북도에는 한필 布가 밥그릇에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40승포의 종류이다(我國北道, 有入鉢布卽此類).”

50)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眞德女王 條. “(眞德女王 7년) 겨울 11월에 사신을 당에 보내 금층포를 바쳤다(七年冬十一月, 遣使大唐, 獻金才忽布).”

51) 朝鮮總督府, 「梁山夫婦及其遺物」, 『古蹟調査特別報告』 第5冊, 1927, pp.39-43.

52) 조희승, 『일본에서 조선소국의 형성과 발전』,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p.44; 西谷 正, 「加耶와 倭의 文物交流」, 『加耶史論』,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3, pp.123-156; 尹石曉, 「伽倻의 倭地進出에 대한 一研究」, 『百濟·新羅·伽倻史 研究』, 白山學會, 1995, p.302.

53) 『日本書紀』 卷1 「神代 上」. “…또 입속에서 누에고치를 물고 실을 뽑을 수 있었다. 이로부터 양잠의 길이 열렸다(…又口裏含繭, 便得抽絲. 自此始有養蠶之道焉).”

도에서 들어간 이주민에 의해 시작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사직물뿐만 아니라 옷을 만드는 기술도 늦게 발달되었다. 처음으로 양잠이 시작된 시기인 서기 전 3세기부터 서기 3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아직 옷 만드는 기술이 없어 옷을 잡아매어 바지모양으로 입기도 했다.⁵⁴⁾ 이후 서기 4세기에 와서야 왜는 백제에 재봉기술을 가진 工女를 요청하여 옷을 만드는 시조로 삼았다.⁵⁵⁾

고대 한민족이 생산한 사직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물감을 들인 오색실로 섞어 짠 사직물인 錦이다.⁵⁶⁾ 고대에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위치했던 고구려·부여·동옥저·한 등의 여러나라들에서는⁵⁷⁾ 일반적으로 錦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⁵⁸⁾ 고구려에서 錦의 생산은 점차 더욱 발달하여 고급직물인 雲布錦·五色錦·紫地纈文錦 등의 생산⁵⁹⁾을 가져왔다. 이들 직물들은 이웃나라에 예물로 보내졌다.

신라는 건국 초기부터 일반 백성들이 錦을 사용했다.⁶⁰⁾ 이후 眞興王 15년과 文武王 19년에는 좋은 錦을 일본에 보냈고⁶¹⁾ 眞德女王 4년에는 五言詩인 太平頌을 錦에 짜 넣어 唐나라에 보내기도 했다.⁶²⁾ 神文王 2년에는 霞錦을 일본에 보냈다.⁶³⁾ 이 같은 錦의 생산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大花魚牙錦·小花魚牙錦·朝霞錦⁶⁴⁾의 생산을 가져왔다.

신라와 백제⁶⁵⁾에서 중국에 예물로 錦을 보낸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한반도에서

54) 『日本書紀』卷1「神代上」條. “옷을 잡아매어 바지모양으로 하고, …(縛裳爲袴, …)”
 55) 『日本書紀』卷10「應神天皇 14年」條 참조.
 56) 『釋名』, 「釋采帛」. “錦은 金이다. 공을 들여 만들어 그 값이 금처럼 값지기 때문에 글자를 만드는데 帛과 金을 따랐다(錦, 金也. 作之用功, 重其價如金, 故其制字, 從帛與金也).”; 『渤海國志長編』卷17「食貨考」第四“錦綵”. “삼가 설문의 ‘錦은 물을 들어 무늬를 짠 것이다’라는 것을 살펴본다. 本草綱目에서, ‘錦은 오색실로 문양을 이루어 짠 것이다. 글자는 금을 따랐고, 諧聲이다. 또한 이것을 귀하게 여겼다’고 했다(謹案設文錦裏色織文也: 本草綱目云: 錦以五色絲織成文章, 字從金諧聲, 且貴之也).”
 57) 『後漢書』卷85「東夷列傳」高句麗傳; 『三國志』卷30「烏丸鮮卑東夷傳」夫餘傳; 『後漢書』卷85「東夷列傳」東沃沮傳; 『後漢書』卷115「東夷列傳」韓傳 참조.
 58) 『後漢書』卷85「東夷列傳」序. “동이는 거의 모두 토착민으로서, 술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좋아하고, 兪을 쓰고 錦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東夷率皆土著, 喜飲酒歌舞, 或冠弁衣錦).”
 59) 『翰苑』, 「蕃夷部」高(句)麗 條.
 60) 『三國史記』卷3「新羅本紀」炤知王 條 참조.
 61) 『日本書紀』卷19「欽明天皇」15年條; 『日本書紀』卷29「天武天皇」8年條 참조.
 62) 『三國史記』卷5「新羅本紀」眞德王 條. “(4년) 6월에 사신을 당에 보내 백제를 무너트린 것을 알렸다. 왕은 금을 짜 五言太平頌을 만들고, 김춘추의 아들 범민을 보내 당 황제에게 바쳤다(六月, 遣使大唐, 告破百濟之衆. 王織錦作五言太平頌, 遣春秋子法敏, 以獻唐皇帝).”
 63) 『日本書紀』卷29「天武天皇」. “(10년) 乙酉에 신라에서 沙喙一吉浪 金忠平과 大奈末 金壹世를 보내 예물을 주었다. 金·銀·鐵·錦·絹·鹿皮·細布의 종류마다 각각 여럿이었다(乙酉, 新羅遣沙喙一吉浪金忠平·大奈末金壹世貢調. 金銀銅鐵, 錦絹鹿皮·細布之類, 各有數. 別獻天皇·皇后·太子, 金銀霞錦, 幡皮之類, 各有數).”
 64) 『三國史記』卷11「新羅本紀」景文王 9年 條
 65) 『三國史記』卷25「百濟本紀」蓋鹵王 18年條. “바친 錦布와 해산물은 비록 모두 오지 않았으나 경의 지극한 마음은 잘 알았다(所獻錦布海物, 雖不悉達, 明卿至心).”

생산된 錦은 그 수준이 중국보다 앞섰거나 매우 특징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백제에서는 일찍이 絹을 생산하여, 서기 2세기경에는 五色綵絹을 일본에 선물로 하사 했고⁶⁶⁾ 4세기부터⁶⁷⁾ 5세기 초에는 많은 량이 일본에 보내졌으며, 五色纈絹으로 만들어져 중국과의 교역에도 사용되었다.⁶⁸⁾ 신라에서는 魚牙紬와 朝霞紬를 특산물로 생산하여 여러 차례 唐나라에 예물로 보내기도 했다.⁶⁹⁾

(4) 면직물

고대 한국에서는 고려시대 文益漸이 元나라에서 목면종자를 들여오기 이전 품질이 우수한 면직물을 이미 생산했다. 고대 한국에서는 元나라에서 재배한 木棉과 품종이 다른 면종자인 白疊으로 짠 우수한 품질의 白疊毛布(白疊布)를 생산했다.

고구려는 白疊布⁷⁰⁾를 생산했고, 신라는 白疊毛布⁷¹⁾ 뿐만이 아니라 白疊毛과 絲를 합성하여 짠 직물인 綿紬布 또는 純綿紬布를 생산했다. 백첩포는 중국에서 무척 선호하는 직물로서 魏의 文帝는 백첩포의 곱고 깨끗함은 어느 것도 따를 수 없다고 극찬했으며, 杜甫는 「大雲寺贊公房」이라는 시에서 백첩의 밝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光明白疊巾’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고대 한국에서 다양한 면직물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주변국보다 높은 수준의 직물생산 기술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고려에서도 문익점이 목화를 들여오기 이전인 惠宗 2년(서기 945년) 백첩포를 생산하여 晋나라에 예물로 보냈다.⁷²⁾ 한민족은 초면을 이용하여 동아시아에서 가장 섬세한 면직물을 생산하여 이웃나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66) 『日本書紀』卷9「神功皇后」攝政46年條。“ 이때 백제의 肖古王은 매우 기뻐하여 대접을 후하게 하고, 오색 綵와 絹 각 한필과 角弓箭 및 철 화살촉 40매를 爾波移에게 주었다(時百濟肖古王深之歡喜 而厚遇焉, 仍以五色綵絹各一匹 及角弓箭 并鐵鋌冊枚, 幣爾波移).”

67) 『日本書紀』卷9「仲哀天皇」9年條。“ 신라왕 波沙 寐錦은 곧 微叱已知 波珍干岐를 인질로 하고, 금·은·채색 및 綾·羅·縑·絹을 80척의 배에 실어 보내며, 官軍에 따르도록 했다(爰新羅王波沙寐錦, 卽以微叱已知波珍干岐爲質, 仍齎金銀彩色及綾·羅·縑·絹, 載于八十艘船, 令從官軍).”

68) 『諸蕃志』卷上「新羅國」.“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반드시 날을 가린 뒤에 예를 갖추어 조서를 받으며… 商船이 정박하면 오색으로 絹을 엮고 한자로 널리 교역했다(中國使至必涓吉而后具禮受詔, … 商船用五色纈絹及建本文字博易).”

69) 『三國史記』卷8「新羅本紀」聖德王條; 『三國史記』卷9「新羅本紀」惠恭王條 참조.

70) 『翰苑』, 「蕃夷部」.“ 高句麗記에서 말하길 (고구려) 사람 또한 금을 만들었으며 紫地纈文錦이란 것이 맨 위이고, 다음이 五色錦, 그 다음이 雲布錦이다. 또 白疊布와 청포를 만들었으니 특히 아름답다…(高麗(高句麗)記云, 其人亦造錦紫地纈文者, 爲上次有五色錦, 次有雲布錦, 又造白疊布青布而尤佳…).”

71) 『三國史記』卷11「新羅本紀」景文王 9年條 참조.

72) 『高麗史』卷2「世家」惠宗條.“ 2년 晉나라가 范匡政과 張季凝 등을 보내어 왕을 책봉했을 때 혜종은 사은품으로 세저포 100필, 白疊毛布 200필……등을 주었다(二年晉遣范匡政張季凝來冊王, 勅曰…… 又勅高麗國王…… 細苧布一百匹·白疊毛布二百匹……).

3. 의복양식이 이웃나라에 준 영향

고대 한민족이 선사시대부터 사용해왔던 관모와 관식의 고유 양식을 복원하고, 이후 이 요소들이 금관의 주요 양식으로 계승되어져가는 모습을 밝혀보고자 한다. 고대 한국에서 금속으로 만든 관이나 관식들이 북방지역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라던가 북방적 성격과 인도적 성격이 복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옳지 않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고대 한민족은 고조선시대 초기부터 변과 책 및 절풍을 한반도와 만주의 모든 지역에서 널리 사용했다. 고구려 大臣들의 관은 벼슬의 순서에 따라 높은 자는 청색의 羅로 만들고, 그 다음은 붉은 색의 羅로 만드는데, 절풍이나 책에 새 깃 두 개를 꽂고 금테(금단추)와 은테(은단추)를 섞어 장식했다.⁷³⁾ 붉은색 羅冠에 테두리를 하고 단추 장식을 한 모습은 개마총의 세움장식을 꽂은 관(그림 1)에서 그 화려함을 볼 수 있다. 백제의 관리들은 羅冠에 銀花로 장식했다.⁷⁴⁾

위의 내용들을 확인 시켜줄 수 있는 절풍과 책에 꽂았던 금과 은으로 만든 새 깃 장식·사슴 귀장식과 함께 금과 은으로 만든 절풍이 출토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왕실과 귀족 지배층에서는 절풍을 금이나 은으로도 만들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절풍은 백화수피나 가죽 또는 그 위에 사직물을 붙여 만들었기 때문에 부패되고 세움장식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金花와 金장식단추는 같은 의미로 그 양식이 원형과 복숭아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장식 단추는 고조선보다 앞선 서기 전 25세기 경 부터 출현한다. 원형의 경우 가장 연대가 앞서는 것은 평양부근 강동군 룡곡리 4호 고인돌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서기 전 25세기에 해당한다.⁷⁵⁾ 복숭아 모양의 경우는 평양시 강동군 순창리에 위치한 글바위 2호와 5호 무덤에서 출토된 금동 귀걸이의 끝부분에 달린 장식으로 서기 전 25-24세기에 해당한다.⁷⁶⁾ 이해보아 고조선에서 사용되었던 원형과 복숭아 모양의 장식은 적어도 서기 전 25세기 이전에 출현했음

73) 『舊唐書』 卷199 「列傳」 高(句)麗傳. “벼슬이 높은 자는 청색 羅로 만든 관을 쓰고 그 다음은 붉은 羅로 만든 관을 쓰는데, 새 깃 두 개를 꽂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다(官之貴者, 則靑羅爲冠, 次以緋羅, 插二鳥羽, 及金銀爲飾).”

74) 『舊唐書』 卷199 「列傳」 百濟傳. “官人들은 다 붉은색 옷을 입고 銀花로 冠을 장식한다(官人盡緋爲衣, 銀花飾冠).”

75) 강승남, 「고조선시기의 청동 및 철 가공기술」, 『조선고고연구』, 1995년 2기, pp.21-22 ; 김교경, 「평양일대의 단군 및 고조선 유적유물에 대한 연대 측정」, 『조선고고연구』, 1995년 제1호, 사회과학원출판사, p.30.

76) 한인호, 「고조선초기의 금제품에 대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1995년 제1호, 사회과학원출판사, pp.22-26 ; 「강동군 순창리와 송석리에서 발굴된 금제품들은 모두 사람뼈와 함께 나왔다. 사람뼈에 대한 절대연대 측정치는 글바위 2호 무덤의 것은 4376±239년이고 글바위 5호 무덤의 것은 4425±158년이다.”

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출토된 복숭아 모양의 주물틀로서 가장 이른 연대의 것은 고조선의 영역이었던 요녕성 敖漢旗에서 출토된 石范이다. 발굴자들은 이 석범을 西周(약 서기 전 11세기-서기 전 841년) 혹은 그보다 이른 시기에 속할 것으로 보았다. 청동장식단추를 만들었을 이 석범⁷⁷⁾은 고조선 장식단추의 특징인 복숭아 모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러한 내용들은 고조선 초기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복숭아 모양과 원형의 장식단추의 양식이 한민족의 고유 양식으로서 복식 등에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게 한다.

이후 이 같은 원형과 복숭아 모양의 장식단추로 만든 보다 발달된 金製의 꽃가지모양의 관식과 여러 장식품이 서기 3-4세기에 걸치는 시기 고구려 영역의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었다. 아래에서는 출토된 관식과 함께 출토된 여러 유물을 분석하여 고구려의 유물임을 밝히고, 이러한 양식이 이웃나라에 준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요녕성 북표현 房身村에서 금관식(그림 2)등이 출토되었다. 金으로 만든 장식만 출토된 것으로 보아 관은 백라관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부패되어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 관식이 출토된 2호 무덤에서는 금으로 만든 유물들이 주로 출토된 것⁷⁸⁾이 큰 특징이다. 발굴자들은 이 무덤이 晋代(서기 266-419년)에 속한다고 했는데 이 무덤이 위치한 지역인 요녕성 북표현 방신촌에는 이 시기 고구려가 위치하고 있던 지역으로 고구려의 유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자들은 이 유물들이 晋代 鮮卑귀족의 墓葬일 가능성을 이야기 하면서, 한편으로는 ‘制法與高句麗族의 金飾品類似’하다고 하여⁷⁹⁾ 고구려의 유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2건의 花樹狀 金飾은 基部는 장방형으로 만들어지고 雲紋이 투조되어 있으며 기부 주변은 점선무늬로 이어졌다. 위에는 복숭아 모양의 나뭇잎이 줄기를 타고 화려하게 장식되어었는데 발굴자들은 이를 관식일 것으로 보고 있다. 관식일 가능성은 이와 함께 출토된 또 다른 유물인 花蔓狀 金飾에서 분명해지는데 발굴자들은 花蔓狀 金飾이 긴 나무가지형 金片으로 되었는데 모두 4편이 발굴되었다고 했다.

요녕성 조양현 十二台鄉 袁台子村에 위치한 王子墳山墓群의 台 M8713 : 1 묘에서 房身村에서와 거의 같은 모습의 금으로 만든 관식이 출토되었다(그림 3). 金飾

77) 邵國田, 「內蒙古昭烏達盟敖漢旗李家營子出土的石范」, 『中國考古集成』 東北卷 青銅時代(一), 北京出版社, pp.801-802.

78) 陳大爲, 「遼寧北票房身村晋墓發掘簡報」, 『考古』, 1960年 1期, pp.401-403.

79) 앞의 글, 「遼寧北票房身村晋墓發掘簡報」, pp.401-402. 필자가 분석하기에 이 유물에서 출토된 銅鏡은 잔줄무늬의 고조선 동경의 특징을 그대로 하고 있고, 金鈴이 21개나 발굴되었는데 이 같은 鈴이 발굴되는 것은 고조선시대부터의 한민족이 갖는 유물의 특징이다. 鈴의 형태 또한 고조선 鈴의 특징을 그대로 하고 있어 이 유적은 고구려의 유적으로 해석된다.

의 基部는 장방형으로 되었고 雲紋이 투조되어 있으며 6가지로 뺏어나간 나무줄기에는 한 줄에 3개씩의 복숭아 모양 樹葉이 붙어 있다. 발굴자들은 이 유물이 서기 3세기-서기 4세기에 속하는 선비족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유물과 함께 출토된 金泡飾, 긴고리 모양 帶鉤, 鐵馬胄, 갑옷과 투구 및 경갑 등은 고조선으로부터 이어온 고구려유물의 특징으로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요녕성 朝陽 田草溝에서 위의 것과 유사한 金飾이 2개 출토되었다(그림 4).⁸⁰⁾ 발굴자들은 이 유물이 서기 3-4세기에 속할 것으로 보았다. 金飾은 둘 다 위의 것과 같은 雲紋을 투조한 장방형의 기부를 하고 있고, 긴 가지에 원형과 복숭아 모양의 樹葉이 3-5개 정도 달려있다. 특히 金泡飾이 신발부위에서 135개가 출토되었는데 그 양식은 역시 고조선의 청동장식단추 양식과 같다. 또한 이 유적에서 출토된 질그릇은 새김무늬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이 같은 유물들이 갖는 고조선의 특징은 이 유적과 금관식을 고구려의 것으로 해석하게 한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고구려 초기 금관의 구성물들은 羅冠이나 절풍 및 金飾으로 크게 구분되고 金飾은 다시 나뭇잎모양과 줄기부분 모양으로 나누이게 될 것이 임이 추정되며, 신라와 백제의 금관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을 것이다. 신라와 백제 금관에서 보이는 금으로 만든 관식과 절풍·원형과 복숭아 모양의 樹葉·樹枝형식·복숭아 모양의 끝마무리 장식·곡옥과 새장식⁸¹⁾ 등은 고조선을 계승한 고구려의 금관 양식인 것이다.

고구려의 금관식은 주변민족들에게도 영향을 크게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요녕성 북표현 西官營子에 위치한 北燕 馮素弗墓에서 출토된 금관식과 내몽고자치구 達茂旗에서 출토된 금관식이다.

요녕성 북표현 西官營子에 위치한 石槨墓를 北燕의 馮素弗의 墓⁸²⁾라고 밝혔다. 馮素弗은 十六國시대 後燕의 慕容雲을 이어 왕위에 오른 天王 馮跋의 동생이다.⁸³⁾ 광개토태왕 17년에 고구려는 사신을 보내 後燕 王 慕容雲에게 종족의 예를 베풀어 화친을 맺었다.⁸⁴⁾ 慕容雲은 원래 고구려의 사람으로 姓이 高氏였는데, 慕容垂의 아들 慕容寶가 태자로 있을 때 그를 양자로 삼아 慕容氏 姓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에서는 그를 종족의 예로 대했던 것인데 慕容雲은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 같은 後燕이 갖는 고구려 혈통의 내용과 馮素弗墓가 위치한 지역

8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朝陽縣文物管理所, 「遼寧朝陽田草溝晋墓」, 『文物』1997年 第11期, pp.33-41.

81) 曲玉과 새장식은 고대 한국의 한반도와 만주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부터 널리 보이고 있어 이 장식들이 외부로부터의 영향이라는 종래의 견해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다른 글에서 다루고자 한다.

82) 黎瑤渤, 「遼寧北票縣西官營子北燕馮素弗墓」, 『文物』1973年 第3期, pp.2-28.

83) 『晋書』卷125 「馮跋傳」.

84)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 “廣開土王”條. “十七年, 春三月, 遣使北燕, 且紱宗族, 北燕王雲, 遣侍御史李拔, 報之.”

이 고조선의 영역이었다는 점은 풍소불묘에서 출토된 여러 유물들이 한민족의 문화적 성격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발굴자들도 풍소불묘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철갑편과 鐵馬甲片 및 馬鎧의 경우는 그 형태가 중국의 것과 달라 중국의 유물로 편입시키지 못하고 있다.⁸⁵⁾ 철갑편은 형태로 보아 긴 장방형과 아래가 둥근 장방형을 주된 양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양식은 고조선과 이를 계승한 여러나라시대 갑옷의 고유 양식이다. 또한 말갑옷은 한민족이 중국이나 북방지역보다 약 2세기 정도 앞섰기 때문에 이는 고구려의 것이다. 철투구와 馬鎧도 고구려 고유의 양식을 갖는다.

이상의 분석된 내용들은 복연의 문화는 고구려의 영향을 매우 깊게 받았거나 고구려의 것을 수입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금관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풍소불묘에서 출토된 복숭아 모양의 樹葉이 달린 금관식은 고구려의 것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 서술한 요녕성 北票縣 房身村에서 출토된 金製의 花樹모양의 장식과 유사한 관식이 내몽고자치구 達茂旗에서 출토되었다(그림 5). 이 관식은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牛頭위에 뿔 처럼 뻗어나간 줄기의 끝에 복숭아 모양의 수엽이 줄기 끝에 장식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鹿頭위에 鹿角이 뻗어나가고 鹿角의 끝에 복숭아 모양의 수엽이 장식되어 있다. 발굴자들은 이 유물이 北朝시대(서기 420-588년)에 속하는 선비족의 것이라고 했다.⁸⁶⁾ 이 유물은 北票縣 房身村에서 출토된 관식과 유사한 형식을 갖고 있어 선비족이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았거나 고구려가 만들었을 것임을 생각하게 한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복숭아 모양의 수엽을 생산하고 사용한 연대는 고조선시대부터이며, 중국이나 북방지역에서는 장식단추나 원형 또는 복숭아 모양의 장식을 거의 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비족에게 갑자기 출현한 이 같은 관식은 고구려로 부터의 영향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고구려의 관식은 나무줄기를 표현했으나 이 達茂旗의 관식은 소와 사슴의 뿔을 묘사한 모습이며 복숭아 모양의 수엽도 모두 위로 향해 있는 등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선비족의 양식을 보여준다. 선비족은 고구려 초기에는 중국에 의한 互市⁸⁷⁾나 고구려와 선비족과의 우호적인 관계⁸⁸⁾를 통하여 고구려와 접촉이 비교

85) 위의 글, 『遼寧北票縣西官營子北燕馮素弗墓』, pp.416-417.

86) 陸思賢·陳棠棟, 『達茂旗出土的古代北方民族金飾件』, 『文物』1984年 第1期, pp.81-83.

87) 『後漢書』 「烏桓鮮卑東夷傳」에 따르면, 東漢 光武帝 建武 25년(서기 49년) 이후 明帝(서기 57년)·章帝(서기 76년)·和帝(서기 89-104년)시기에 烏桓과 鮮卑族은 장기적으로 寧城에서 互市를 했다(『後漢書』 卷90 「烏丸鮮卑列傳」. “(光武) 25년, … 於是始復置校尉於上谷寧城, 開營府, 并領鮮卑, 賞賜質子, 歲時互市焉. … 安帝永初中, … 令止烏丸校尉所居寧城下, 通胡市.” 이 ‘寧’에 대한 주석에서 “寧城, 縣名. 『前(漢)書』寧縣作‘寧’, 『史記』寧城亦作‘寧’, 寧寧兩字通也.” 했다). 이 寧城은 上谷에 위치하는데 上谷은 지금의 河北省 宣化 서북쪽으로 漢 시대에 幽州에 속하는 지역이다. 이를 확인시켜주는 실제 예로 達茂旗에 근접한 내몽고자치구 和林格爾縣에 위치한 東漢 고분벽화의 ‘寧城圖’에 ‘寧市中’이라는 榜題가 보이는데(內蒙古文物工作

적 활발했다. 이후 서기 3세기 말경에 이르러 중국의 정권 내부가 혼란한 틈을 타서 중국 동북 지역에 거주하던 선비가 성장하여 줄곧 고구려를 침략하거나 和盟을 맺기도 했다. 이 같은 끊임 없는 고구려와 선비와의 접촉과 충돌은 선비가 고구려의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이기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을 것이다.

따라서 내몽고자치구 달무기에서 출토된 금관식은 기부는 선비족의 양식을 보여주나 윗부분은 고구려의 고유 양식인 복숭아 모양의 수업을 장식한 모습을 보여주는 고구려의 영향으로부터 만들어진 관식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내몽고자치구 達茂旗에서 출토된 금관식과 北燕의 馮素弗의 묘에서 출토된 금관식은 모두 연대가 약 서기 5-6세기에 걸쳐있다. 그러나 고구려의 금관식인 요녕성 북표현 房身村 출토 금관식·요녕성 조양현 십이태향 袁台子村 출토 금관식·요녕성 조양 전초구 출토 금관식은 이보다 약 1-2세기 정도 앞서 출현한 것으로 보아 달무기와 풍소불묘에서 출토된 금관식에 시간적으로 충분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갑옷과 말갑옷이 이웃나라에 준 영향

(1) 고조선의 갑옷이 중국에 준 영향

고조선의 유적들 곳곳에서 청동이나 철로 만든 여러 종류의 공격무기와 방패 및 투구 등과 같은 방어무기와 함께 뼈나 청동 또는 철로 만든 갑옷조각 등이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유물들은 고조선이 발달된 무기와 방어 장비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갑옷은 뼈와 가죽으로 만든 것이 가장 먼저 생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고조선의 영역에서 출토된 骨甲片 가운데 가장 이른 연대의 것은 신석기시대 후기유적들인 흑룡강성 조원현의 望海屯유적⁸⁹⁾과 영안현의 大牡丹屯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⁹⁰⁾ 그 형태는 장방형(그림 6)이다. 고고발굴에 의해, 한반도와 만주에는 구석기시대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석기시대

隊·內蒙古博物館, 「和林格爾發現一座重要的東漢壁畫墓」, 『文物』, 1974年 第1期, pp.8-23) 이는 東漢이 寧城에 ‘胡市’를 설치하고 북방민족들과의 무역과 왕래의 장소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고구려는 고조선의 옛땅을 수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慕本王 때부터 美川王 때까지 줄곧 지금의 요서지역에 진출했는데, 東漢 光武帝에서 和帝에 이르는 시기 幽州지역에 여러 차례 진출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고구려가 遼東太守와 화친을 하여 국경을 정상화 시키거나 遼東太守에게 패하는 등 東漢이 寧城에 胡市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했던 시기로 互市를 통하여 중국과 선비족과 고구려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었다.

88) 太祖王 69년(서기 122년)에 고구려는 鮮卑의 군사 8000여명을 데리고 중국의 요동지역을 공격하는 등 우호적인 접촉을 갖았다(『三國史記』 卷15 「高句麗本紀」 太祖大王 條).

89) 丹化沙, 「黑龍江肇源望海屯新石器時代遺址」, 『考古』, 1961年 第10期, pp.544-545.

90) 黑龍江省博物館, 「黑龍江寧安大牡丹屯發掘報告」, 『考古』, 1961年 第10期, pp.549-550.

나 청동기시대의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부터 이주해왔다는 견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⁹¹⁾ 따라서 흑룡강성 지역은 한민족의 오랜 거주지였다고 하겠다. 한반도와 만주지역에서는 지금으로부터 8000년경에 신석기시대가, 서기 전 2500년경에 청동기시대가 시작되었다.⁹²⁾ 신석기 후기에 속하는 위의 두 유적은 한민족이 적어도 서기 전 25세기보다 훨씬 앞서 뼈로 만든 갑옷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뼈갑옷은 이후 고조선의 대부분 지역에서 계속해서 생산되었음을 다음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조선의 서기 전 2000년기 후반기 유적에 속하는 함경북도 무산 범의구석유적 40호 집자리에서는 동물의 뼈를 얇게 갈아 장방형으로 만든 두 쪽의 뼈갑편이 발굴되었다(그림 7).⁹³⁾ 문헌자료로는, 고조선의 영역에 있던 肅愼에서 가죽과 뼈로 갑옷을 만들었다는 것⁹⁴⁾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91) 李鮮馥, 「신석기·청동기시대 주민교체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韓國古代史論叢』 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1, pp.41-66.

92) 청동기시대 시작연대를 이보다 늦게 잡는 학자들이 있지만, 필자는 이 연대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택한다; 윤내현, 『고조선연구』, 一志社, 1994, p.29. “만주지역에서 가장 이른 청동기문화는 요서지역의 하가점하층문화이다. 내몽고자치구赤峰市 蜘蛛山 유적은 그 연대가 서기 전 2015±90년(3965±90 B.P.) 이고 교정 연대는 서기 전 2410±140년(4360±140 B.P.)으로, 이 연대는 지금까지 확인된 하가점하층문화 연대보다 다소 앞설 것이므로 서기 전 2500년경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가점하층문화유적은 길림성 서부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다. 한반도에서도 서기 전 25세기로 올라가는 청동기유적이 두 곳이나 발굴되었다. 하나는 문화재관리국 발굴단에 의해 발굴된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의 고인돌유적이다. 다섯기의 고인돌이 발굴된 이 유적에서 채집한 숯에 대한 방사성탄소 측정 결과는 서기 전 1950±200년으로 나왔는데, 교정 연대는 서기 전 2325년경이 된다. 이 유적에서 청동기물은 출토되지 않았으나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유물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므로 이 연대를 청동기시대 연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목포대학 박물관에 의해 발굴된 전남 영암군 장천리 주거지 유적이다. 이 청동기시대 유적은 수집된 숯에 대한 방사성탄소 측정결과 그 연대는 서기 전 2190±120년(4140±120 B.P.)과 1980±120년(3930±120 B.P.)으로 나왔는데, 교정연대는 서기 전 2630년과 2365년경이 된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中國考古學中碳十四年代數據集』, 文物出版社, 1983·1992, p.27·p.55; Chan Kirl Park and Kyung Rin Yang, “KAERI Radiocarbon Measurements III”, Radiocarbon, vol. 16, no. 2, 1974, p.197; 李浩官·趙由典, 「楊平郡兩水里支石墓發掘報告」, 『八堂·昭陽泔水沒地區遺蹟發掘綜合調查報告』, 文化財管理局, 1974, p.295; 崔盛洛, 「靈巖 長川里 住居址」 2, 木浦大學博物館, 1986, p.46); 신수경, 「한국 신석기-청동기시대의 전환과정에 대하여-문화발달과정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제언」, 『전환기의 고고학 1』, 학연문화사, 2002, pp.15-44. “...남한지방의 탄소자료들과 요동지방의 것들을 참고할 때 북한에서 주장하는 기원전 2000년 기의 청동기문화라는 것이 ‘제 형식의 무문토기’의 발생을 의미한다면 그다지 무리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다.”

93) 황기덕, 「무산범의구석유적 발굴보고」, 『고고민속론문집 6』, 사회과학원출판사, 1975, p.165; 조선 유적 유물 도감 편찬 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고조선·진국·부여편, p.203.

94) 『晉書』 卷97 「東夷列傳」 肅愼氏傳. “(숙신에는) 소와 양은 없고 돼지를 많이 길러, 그 고기는 먹고 가죽은 옷을 만들며 털은 짜서 布를 만들었다. 石硯와 가죽과 뼈로 만든 갑옷이 있고, 檀弓은 3자 5치이며, 楛矢의 길이는 1자가 조금 넘었다(無牛羊, 多畜豬, 食其肉, 衣其

숙신의 유적지로 추정되는 요녕성 접경인 내몽고자치구 적봉시의 하가점상층유적에서는 2개의 장방형 뼈갑편이 출토되었다(그림 8).⁹⁵⁾ 이 뼈갑편이 출토된 하가점상층유적은 고조선문화의 특징인 비파형동검문화에 속한다. 그리고 서기 전 2500년경-서기 전 1500년경에 속하는 고조선 초기 청동기문화인 하가점하층문화를 계승하고 있다.⁹⁶⁾ 한창균은 한반도와 만주에서 발굴된 고고학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하가점상층문화기를 서기 전 1500년 무렵에서 철기시대 이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⁹⁷⁾ 철기시대로 진입한 고조선의 유적들에서는 항상 청동기와 철기가 함께 출토되었으며, 후기로 갈수록 철기의 비율이 차츰 높아지는 특징을 갖는다. 뼈갑편이 출토된 하가점상층유적에서는 철기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이 유적이 서주초기에서 춘추 시기에 속한다고 보지 않는다. 고조선 철기문화는 중국보다 앞서 서기 전 12세기 이전으로⁹⁸⁾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하가점상층유적은 서기 전 12세기보다 앞설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숙신이 뼈갑옷을 생산한 시대는 하가점상층문화보다도 앞설 것이다.

흑룡강성 빈현 慶華유적에서 장방형의 뼈갑편 4점이 출토되었다(그림 9).⁹⁹⁾ 이 유적은 전국초기에서 서한 말기(서기 전 9-3세기)에 속한다. 흑룡강성지역은 고조선이 붕괴된 후 요서지역에 있었던 북부여가 서기 전 59년 지금의 길림성 부여현

皮, 積毛以爲布… 有石弩, 皮骨之甲, 檀弓三尺五寸, 楛矢長尺有咫.”

95)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赤峰藥王廟·夏家店遺址試掘報告」, 『中國考古集成』東北卷 青銅時代(一), p.688의 圖版壹肆.

96) 한창균, 「고조선의 성립배경과 발전단계 시론」, 『國史館論叢』第33輯, 國史編纂委員會, 1992, p.10; 林炳泰, 「考古學上으로 본 濊貊」, 『韓國古代史論叢』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1, pp.81-95.

97) 앞의 글, 「고조선의 성립배경과 발전단계 시론」, pp.29-31.

98) 중국은 철기의 시작 연대를 대략 서기 전 8-6세기경으로 보고 있다. 金元龍은 한국의 철기시대 시작 연대를 서기 전 3세기로 보고 있으나(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第3版, 一志社, 1986, pp.101-103), 황기덕과 김섭연은 길림성 驪達溝유적 돌곽무덤에서 출토된 철기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서기 전 8-7세기 또는 그 이전으로 소급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황기덕·김섭연, 「우리나라 고대 야금기술」, 『고고민속논문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172). 윤내현은 중국의 戰國시대에 해당하는 요령성지역의 유적에서 보편적으로 출토되는 철기의 제조 기술 수준이 황하 중류유역과 동등하고 철제 농구가 많이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철기가 보편화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황하 중류유역과 기술 수준이 동등하다면 그 시작 연대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한국의 철기 시작 연대는 서기 전 8세기보다 앞설 것으로 보고 있다(앞의 책, 『고조선연구』, p.108). 이 같은 주장들을 보다 확실히 해줄 수 있는 유물이 서기 전 12세기경의 무덤인 강동군 송석리 문선당 1호 돌곽무덤에서 출토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순도가 높은 철로 만든 쇠거울이 출토되었는데 그것의 절대연대는 서기 전 3104년 이어서(앞의 책, 『조선기술발전사』, pp.42-43; 강승남, 「고조선시기의 청동 및 철 가공기술」, p.24) 한국의 철기 시작 연대가 서기 전 12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입증해주었다. 이 유적의 발굴 결과는 윤내현·황기덕·김섭연의 주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고조선의 철기 시작 연대가 중국보다 무려 4-6세기 정도나 앞섰음을 알게 해준다.

99)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黑龍江賓縣慶華遺址發掘簡報」, 『考古』, 1988年 第7期, pp.596-598.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동부여라는 새로운 국명을 사용하여 정착했던 곳이다.¹⁰⁰⁾

고조선문화권의 뼈갑편은 장방형을 특징으로 했다. 이와 달리 중국에서는 뼈갑옷을 생산했다는 문헌 기록이 없고 아직까지 유물이 출토된 적도 없다. 따라서 이곳에서 발굴된 뼈갑편은 고조선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고조선은 건국초기부터 여러 지역에서 뼈 갑옷을 만들었으며, 붕괴될 때까지 줄곧 생산했던 것이다.

이제 가죽갑옷에 대해서 살펴보자. 숙신은 서주 초와 曹魏 때에도 가죽 갑옷을 생산했다.¹⁰¹⁾ 이는 비교적 후대의 기록이다. 그러나 숙신은 중국의 동북쪽에 거주했던 종족 가운데 가장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를 가졌다. 『竹書紀年』에 따르면, 중국의 帝舜 25년(서기 전 2209년)에 숙신의 사신이 중국을 방문했다.¹⁰²⁾ 그 후 서주 武王이 상나라를 멸망시키자(서기 전 12-11세기 경) 숙신의 사신이 서주를 방문하면서 楛나무로 만든 화살과 돌화살촉을 가져갔는데, 武王은 그의 딸이 虞胡公과 결혼할 때 그 화살에 ‘숙신이 보낸 화살’이라는 글을 새겨 기념으로 준 바 있다.¹⁰³⁾ 이는 숙신이 만든 화살과 돌화살촉이 우수한 품질을 갖추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생산연대는 서기 전 11세기경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무기들과 함께 생산한 가죽갑옷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숙신에서 생산한 뼈갑옷의 생산시기가 신석기 후기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가죽갑옷의 생산시기도 매우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경우 가장 이른 연대의 것은 안양 후가장 西北岡 1004호 상왕조의 묘에서 출토된 가죽갑옷이다. 1004호묘가 만들어진 시기는 서기 전 1300년경이며, 묘주는 武丁의 아들로 추정된다.¹⁰⁴⁾ 가죽갑옷의 모습은 앞가슴과 등 부분이 큰 조각의 두터운 가죽으로 만들어졌고(그림 10),¹⁰⁵⁾ 어깨와 허리부분은 활동에 편리하도록 비교적 작은 장방형의 갑편을 연결하여 만들었다. 중국의 경우 왕실의 무덤에서만 이 같은 갑옷이 발견되는 점과 가죽갑편의 형태가 고조선 뼈갑옷의 갑편 형태와 같은 장방형인 점에서, 이는 일찍부터 뼈와 가죽갑옷을 생산했던 고조선의 영향이거나 고조선으로부터의 수입품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상대 가죽갑

100) 윤내현, 『열국사연구』, 지식산업사, 1998, pp.271-296.

101) 『晉書』 卷97 「列傳」 肅慎傳. “주무왕때 그 고시(楛矢)와 석노를 바쳤다.…위 경원 말경에 고시·석노·궁·갑·초피(貂皮) 등을 바쳤다(周武王時, 獻其楛矢·石弩.…魏景元末, 來貢楛矢·石弩·弓·甲·貂皮之屬).”

102) 『竹書紀年』 「五帝本紀」 帝舜有虞氏 條.

103) 『國語』 卷5 「魯語」 下. “…그런 까닭에 그 호목에 ‘肅慎氏가 바친 화살’이라고 새겨 太姬에게 나누어주고 虞胡公과 결혼시켜 陳에 봉했다(…故銘其楛曰肅慎氏貢矢, 以分太姬, 配虞胡公而封諸陳).”

104) 張光直지음·尹乃鉉옮김, 『商文明(Shang Civilization)』, 民音社, 1989, pp.152-167; Kwang-chih Chang, 『The Archaeology of Ancient China』, Yale University, Fourth edition 1986, pp.152-167 · pp.322-331.

105) 楊 泓, 「中國古代的甲冑」 上篇, 『考古學報』, 1976年 1期, pp.20-21.

옷의 문양과 고조선의 고유한 문양특징을 비교해보면 분명해진다.

갑옷은 복식의 일부이므로 商시대 복식에 나타나는 문양과 비교해보자. 상왕조 복식의 문양은 斜回紋·方勝紋·獸面紋·饕餮紋·龍紋·窈曲紋·星紋을 특징으로 한다.¹⁰⁶⁾ 상왕조는 청동기에서도 주로 수면문과 虎頭紋 및 용문으로 장식했고, 그 외에 鱗紋·環帶紋·雲雷紋 등을 특징으로 한다.¹⁰⁷⁾ 그러나 이와 달리 서북강 1004호 상왕조의 묘에서 출토된 가죽갑옷은 잔줄무늬와 구름무늬로 장식되었는데 이 같은 문양은 고조선의 영역이었던 한반도와 만주지역의 출토되는 복식, 청동기, 질그릇 등의 유물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양의 특징과 같다. 이 같은 사실과 서북강 1004호 상왕조의 묘에서 출토된 가죽갑옷이 부분적으로 장방형의 갑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것은 일찍부터 장방형의 갑편으로 구성된 갑옷을 생산했던 고조선의 영향이거나 고조선으로 부터의 수입품일 가능성이 크다.

고조선의 장방형 갑편 형태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갑편 양식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춘추후기에 속하는 호남성 장사 瀏城橋 1호 무덤에서는 가죽갑옷을 구성하는 주된 가죽갑편이 장방형을 나타낸다. 전국후기에서 서한초기로 구분되는 호북성 장사 左家公山 54·長·左 15호묘에서 출토된 가죽갑편은 정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이었다.¹⁰⁸⁾ 그러나 이후에 생산된 서한시대에 속하는 호북성 장사시 남교 侯家塘에서 출토된 가죽갑편은 비교적 크기가 작은 장방형과 方圓形 및 타원형을 띠게 된다.¹⁰⁹⁾ 이는 아래 철갑부분에서 밝히지만 중국보다 앞서 철갑편을 생산한 고조선 철갑편의 양식으로서 고조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조선의 가죽갑편으로 만들어진 가죽갑옷은 고조선이 붕괴된 서기 전 1세기 이후에도 계속 생산되었으며 중국이 선호하는 귀중품이었다. 그 예로 숙신은 魏나라 景元 말 경(서기 260-263년)에도 楛矢·石弩·弓과 함께 갑옷을 중국에 예물로 보냈고, 大明 3년(서기 459년)에는 고구려가 중국에 숙신씨의 고시와 석노를 예물로 보내기도 했다. 이는 고조선시대에 숙신이 생산한 무기와 방어 장비들이 그 뒤 오랫동안 계승되었으며 품질이 우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한민족이

106) 李濟, 「跪坐蹲居與箕踞」, 『李濟考古學論文集 上』, 聯經出版事業公司, 臺北, 1977, pp.563-588; 李學勤, 「論‘婦好’墓的年代及有關問題」, 『文物』, 1977年 第11期, pp.32-37; 黃能馥·陳娟娟, 『中華服飾藝術源流』, 高等教育出版社, 1994, p.45; 李濟, 「民國十八年秋季發掘殷墟之經過及其重要發現」, 『安陽發掘報告』 第2期, pp.249-250; 陳仁濤, 『金匱論古初集』, 香港亞洲石印局印, 1952 참조.

107) 上海博物館青銅器研究組編, 『商周青銅器紋飾』, 文物出版社, 1984.

108) 楊泓, 「甲和鎧」, 『文物』, 1978年 第5期, p.77; 荊州地區博物館, 「湖北江陵藤店一號墓發掘簡報」, 『文物』, 1973年 第9期, pp.7-17; 湖南省文物管理委員會, 「長沙出土的三座大型木槨墓」, 『考古學報』, 1957年 第1期, pp.93-102.

109) 湖南省文物管理委員會, 「被盜掘過的古墓葬, 是否還值得清理?—記 55, 長, 侯, 中 M018號墓發掘」, 『文物參考資料』, 1956年 10期, pp.37-41; 앞의 글, 「中國古代的甲冑」 上篇, p.23.

오랜 기간 동안 무기와 방어 장비들을 중국에 계속해서 수출하거나 예물로 보냈던 사실로 보아 중국의 무기와 갑옷생산에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조선은 언제부터 청동을 갑옷의 재료로 이용했을까? 1970년대 중국학자들은 서주시대 말기의 서기 전 9세기경 衛國의 유적인 준현 신촌 衛墓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크고 작은 청동장식단추를 방어용 갑옷에 달아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 이를 중국 청동 갑옷의 기원으로 보았다.¹¹⁰⁾ 그러나 이후 이보다 앞선 商代 후기의 유적으로 밝혀진 하남성 안양 곽장촌유적,¹¹¹⁾ 산둥성 보덕현유적,¹¹²⁾ 하남성 안양 곽가장 상대 차마갱유적¹¹³⁾ 등에서 청동장식단추가 출토되었다. 이보다 후기에 속하는 여러 유적에서도 청동장식단추들이 출토되었다. 이들 청동장식단추의 모습은 원형과 ‘⊥’형이었다. 발굴자들은 이를 銅泡¹¹⁴⁾로 지칭했고, 이후 중국학자들은 이를 甲泡로 분류했다.¹¹⁵⁾ 이러한 출토 상황으로 보아 중국에서의 청동장식단추의 생산은 그 상한 연대를 상대 후기인 서기 전 11세기경으로 잡을 수 있다.

고조선의 영역에서 발굴된 청동장식단추로 가장 연대가 앞서는 것은 서기 전 25세기에 해당하는, 평양부근 강동군 룡곡리 4호 고인돌유적에서 출토된 것이다.¹¹⁶⁾ 같은 청동기 초기에 속하는 길림성 대안현 大架山유적에서도 청동장식단추가 출토되었다.¹¹⁷⁾ 이보다 늦은 것으로 서기 전 20세기 후반기에 해당하는 황해북도 봉산군 신흥동유적¹¹⁸⁾과 서기 전 16세기에 해당하는¹¹⁹⁾ 요녕성 대련시 우가촌 상충유적에서도 원형과 ‘⊥’형 모양의 청동장식단추가 출토되었다. 고조선의 청동

110) 郭宝鈞, 「濬縣辛村古殘墓之清理」, 『田野考古報告』 第1冊, p.188; 郭宝鈞, 「殷周的青銅武器」, 『考古』, 1961年 第2期, p.117; 內蒙古自治區文物工作隊, 「呼和浩特市二十家子古城出土的西漢鐵甲」, 『中國考古集成』 東北卷 秦漢至三國(一), p.197.

111) 安陽市文物工作隊, 「河南安陽郭莊村北發現一座殷墓」, 『考古』, 1991年 第10期, pp.902-909.

112) 吳振錄, 「保德縣新發現的殷代青銅器」, 『文物』, 1972年 第4期, pp.62-64.

11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 「安陽郭家庄西南的殷代馬車坑」, 『考古』, 1988年 第10期, pp.882-893.

114) 銅泡라는 명칭은 중국 고고학자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며, 서양학자들은 이것을 단추와 비슷하다고 하여 청동단추(bronze button)라 부른다. 저자는 고조선의 경우 이를 옷·신발·활집·투구·마구 등 여러 곳에 장식용으로 사용했으므로 청동장식단추로 분류하고자 한다.

115) 楊泓, 「戰車與車戰—中國古代軍事裝備禮記之一」, 『文物』, 1977年 第5期, pp.82-90.

116) 강승남, 「고조선시기의 청동 및 철 가공기술」, 『조선고고연구』, 1995년 2기, 사회과학원출판사, pp.21-22; 김교경, 「평양일대의 단군 및 고조선 유적유물에 대한 연대 측정」, 『조선고고연구』, 1995년 제1호, 사회과학원출판사, p.30.

117) 吉林省文物工作隊, 「吉林大安縣洮兒河下游右岸新石器時代遺址調查」, 『考古』, 1984年 第8期, pp.692-693.

118) 김용간, 「금단리 원시 유적 발굴 보고」, 『유적발굴보고』 제10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p.38.

11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實驗室, 「放射性碳素測定年代報告 (七)」, 『考古』, 1980年 第4期, p.373; 京大學歷史系考古專業碳十四實驗室, 「碳十四年代測定報告 (三)」, 『文物』, 1979年 第12期, p.78.

장식단추 생산연대는 중국보다 적어도 14세기 정도 앞선다. 이로보아 중국의 청동 장식단추는 고조선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국 商시대의 청동기가 고조선 초기의 문화인 하가점하층문화¹²⁰⁾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 하가점하층문화에 대해 張光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商에 인접한 최초의 금속사용 문화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商의 가장 중요한 혁신 가운데 하나[청동기 주조]의 최초 기원을 동부해안 쪽에서 찾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¹²¹⁾

청동기 문화는 황하유역에서 서기 전 2200년경에 시작되었고, 고조선지역과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베리아의 카라수크문화는 서기 전 1200년경에 시작되었으며, 고조선은 서기 전 2500년경에 시작되었다.¹²²⁾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고조선이 가장 이른다. 이는 중국의 청동단추 생산이 고조선의 영향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고조선 청동장식단추가 갖는 고유한 양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동장식단추(그림 11)는 고조선에서 의복뿐만 아니라 모자나 신발 또는 활집 등 복식의 여러 부분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¹²³⁾ 특히 濊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입는 옷웃인 曲領에 청동장식단추와 비슷한 형태의 약 5cm 이상이나 되는 銀花를 꿰매어 장식했다.¹²⁴⁾ 이는 화려한 장식이 가능했던 고조선만이 갖는 복식의 특징으로 중국이나 胡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여러나라시대와 삼국시대로 이어진다(그림 12, 13).¹²⁵⁾

고조선의 경우 청동장식단추가 복식의 여러 부분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점과

120) 앞의 책, 『고조선연구』, p.29·p.34·p.72;한창균, 「고조선의 성립배경과 발전단계 시론」, 『國史館論叢』 第33輯, 國史編纂委員會, 1992, pp.7-20;임병태, 「考古學上으로 본 濊貊」, 『韓國古代史論叢』 1, 駕洛國史蹟開發研究員, 1991, pp.81-95 참조.

121) 張光直 지음·尹乃鉉 옮김, 『商文明』, 民音社, 1988, p.435.

122) 주 11과 같음.

123)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赤峰葯王廟·夏家店遺址試掘報告」, 『中國考古集成』 東北卷 青銅時代(一), pp.678-680;앞의 책, 『조선유적유물도감』 1-고조선·진국·부여편, 외국문중합출판사, 1989, p.70;박진욱, 『조선고고학전서』,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p.50·pp.57-58.

124)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濊傳. “男女皆衣著曲領, 男子繫銀花廣數寸以爲飾.” 1寸은 10분의 1尺이다.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는 『睡虎地秦墓竹簡』 倉律에서 1尺을 지금의 약 0.23cm로 보고 있어 이를 따르면 1寸은 2.3cm가 된다. 그러므로 濊에서 넓이가 數寸이 되는 銀花를 달았다는 것은 적어도 2寸 이상일 것으로 5cm 정도 이상 되는 銀花를 달았음을 알 수 있다.

125) 청동장식단추의 사용은 5세기경으로 추정되는 고구려 馬曹塚의 수렵도에 보이는 騎士의 복식과 안악 3호 고분 주인공도와 부인도 및 의장기수도, 그리고 서기 7세기에 그려진 ‘王會圖’에 보이는 고구려와 백제사신의 복식에도 보이고 있어 고조선 복식의 특징이 오랜 기간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예의 곡령의 경우를 보면 청동 단추는 종래의 일반화된 분류처럼 장식품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꼼꼼히 살펴보면 청동장식단추가 소량일 때는 청동구슬 등과 함께 장식용으로 사용되었겠으나 그 수량이 많을 때는 방어용 戰衣의 구성물로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한국은 중국보다 앞서 청동장식단추로 장식된 복식을 착용하기 시작하여 이후 갑옷과 투구에 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베리아의 청동기문화는 서기 전 1800년경에 시작되므로, 중국과 북방민족들보다 앞서 고조선이 가장 이른 시기에 청동장식단추로 장식한 갑옷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철갑의 경우도 고조선의 철갑생산연대가 중국보다 훨씬 앞서 중국 철갑생산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고조선시대에 韓의 진한과 변한 지역에서는 철이 생산되어 예와 마한 및 倭 등에서 이것을 사갔으며, 모든 무역에서 철을 화폐로 사용했다.¹²⁶⁾ 이는 한에서 철의 생산이 풍부했음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풍부한 철의 생산은 철제의 무기와 갑옷의 생산을 보다 활발하게 했을 것이다.

실제로 서기 전 3세기경 고조선 후기유적으로 추정되는 평양시 낙랑구역 정백동 1호묘¹²⁷⁾에서 찰갑이 출토되었다. 이 찰갑은 기본적으로 장방형이지만, 그 아래쪽을 둥글린 것 등도 있으며, 물고기비늘과 같은 鱗甲이었다(그림 14).¹²⁸⁾ 이를 통해 고조선에서는 적어도 서기 전 3세기 이전부터 철갑옷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춘추시대까지 철갑을 생산하지 못했다. 중국에서 철갑의 출현은 『呂氏春秋』 「貴卒編」에 철로 만든 팔과 정강이를 보호하는 옷이라는 철갑에 관한 기록¹²⁹⁾에 따라 서기 전 4세기경의 전국 말년으로 추정하고 있다.¹³⁰⁾ 실제로 전국 후기에

126)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韓傳. “(辰韓)에서는 철이 나고, 예·왜·마한이 모두 와서 사갔다. 무역은 모두 철을 화폐로 했다(國出鐵, 濊·倭·馬韓並從市之. 凡諸(貨)貿易, 皆以鐵爲貨.)”

127) 정백동 1호무덤에서 ‘夫租藏君’이라고 새겨진 銀印이 출토되었다. 김정학은 이 銀印을 漢이 준 것으로 보고, 이 무덤의 연대를 서기 전 2세기 또는 서기 전 1세기경으로 추정했고(金廷鶴, 「青銅器의 展開」, 『韓國史論』 13, 國史編纂委員會, 1983, p.133), 尹乃鉉은 고조선이나 위만조선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며 그 상한 연대를 서기 전 3세기 정도로 보았다(尹乃鉉, 『韓國古代史新論』, 一志社, 1993, pp.305-343). 초기 甌단검문화의 하한연대를 서기 전 4세기로 본 북한의 박진옥은 정백동 1호무덤에서 출토된 좁은 甌단검 검집의 형태 변화와 함께 출토된 청동기와 철기로 만들어진 수장품들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 점을 들어 그 상한연대를 좁은 甌단검 후기로 진입되는 서기 전 3세기경으로 보았다(박진옥, 『조선고고학전서』 고대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pp.147-168 참조).

128) 앞의 책, 『조선유적유물도감』 1-고조선·진국·부여편, p.112; 사회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고조선의 무기」, 『고고민속』,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년 1기, p.39.

129) 『呂氏春秋』 卷21 「貴卒編」. “越氏攻中山. 中山之人多力者曰吾丘鳩, 衣鐵甲操鐵杖以戰, 所擊無不碎, 所冲無不陷.”

130) 楊泓, 「關於鐵甲·馬鎧和馬鎧問題」, 『考古』, 1961年 第12期, pp.693-696; 『戰國策』 卷26 “當敵則斬甲盾鞮鍍鐵幕也.”; 『史記』 卷69 「蘇秦列傳」의 鐵幕에 대해 劉玄은 “謂以鐵爲臂脛之衣, 言其劍利, 能斬之也”라고 했다. 蘇秦이 韓王에게 대책을 말했던 때는 서기 전 332-서기 전 312년 사이이다.

속하는 하북성 이현 燕下都 44호묘에서 圓角長方形의 철갑편을 이어서 만든 투구가 출토되어¹³¹⁾ 전국시대에 철갑편을 사용했고 청동갑편의 양식을 그대로 계승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철갑의 사용이 일반화된 것은 아니었다. 秦帝國시대의 철갑 실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생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섬서성 임동 출토의 秦兵馬俑에 나타난 진제국시대의 갑옷(그림 15)의 갑편은 모두가 가죽으로 만들어 졌으며, 부분적으로 금속을 상감하였다.¹³²⁾ 이 같은 秦俑에서 보이는 갑옷은 주로 앞가슴과 등 뒤부분 및 어깨만을 덮는 것이다.

중국은 철갑이 西漢에 와서야 보급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서한 초기인 武帝이전까지의 군대는 여전히 보병이 위주였으며 철갑이 크게 보급되지 못했다. 철갑의 형태도 여전히 진제국의 양식을 따라 앞가슴과 등부분을 주로 덮는 부분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무제 때에 이르러 흉노와의 전쟁으로 기병이 크게 증가했으며, 동시에 부분적인 갑옷을 벗어나 철제의 鎧甲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죽갑옷이 철갑옷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실제로 서한시대에 속하는 섬서성 함양시 양가만 1호묘¹³³⁾와 서한 제왕 유양묘¹³⁴⁾ 및 서한 남월왕묘에서 발굴된 철갑편들의 형태¹³⁵⁾는 평양시 낙랑구역 정백동 1호묘에서 발견된 고조선 철갑편의 형태와 거의 비슷하다. 중국은 무제시기에 와서 군대에서 철갑의 기병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또한 찰갑편의 형태도 고조선의 것과 같이 비교적 세밀하게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고조선이 붕괴되어가는 시기로서 이 같은 무제시기 군대장비의 변화는 위만조선과 고조선을 붕괴시킨 한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고구려 말갑옷이 중국과 북방지역에 준 영향

고구려의 갑옷에 대하여 『周書』 「열전」 고(구)려전과 에서는, “병기는 갑옷·쇠뇌·활·화살·戟·稍·矛·鎧이 있다.”¹³⁶⁾고 했고, 『梁書』 「동이열전」 고구려전에 서는, “고구려의 말은 모두 작아 산에 오르기 편리하다. 나라 사람들은 기력을 승

131) 上海市戲曲學校中國服裝史研究組編著, 周迅·高春明撰文, 『中國服飾五千年』,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4, p.28.

132) 孫機, 『漢代物質文化資料圖說』, 文物出版社, 1991, pp.146-147; 앞의 책, 『中國服飾五千年』, pp.47-51.

133) 陝西省文管會·博物館·咸陽市博物館 楊家灣漢墓發掘小組, 「咸陽楊家灣漢墓發掘簡報」, 『文物』, 1977年 第10期, pp.10-21; 楊泓, 「騎兵和甲騎具裝」—中國古代軍事裝備禮記之二, 『文物』, 1977年 第10期, pp.27-32.

134) 山東省淄博市博物館·臨淄區文管所·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技術室, 「西漢齊王鐵甲冑的復原」, 『考古』, 1987年 第11期, pp.1032-1046.

13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技術室·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 「廣州西漢南越王墓出土鐵鎧甲的復原」, 『考古』, 1987年 第9期, pp.853-859.

136) 『周書』 卷49 「列傳」 高(句)麗傳. “兵器有甲弩弓箭戟稍矛鎧.”

상 하여 활·화살·칼·창을 잘 다루었고, 철갑옷을 입고 전투를 익혀, 옥저·동예가 모두 복속했다.”¹³⁷⁾고 하여, 고구려인들이 여러 무기와 함께 철갑옷을 입고 싸웠음을 말하고 있다. 고구려가 철갑옷을 입은 것은 옥저와 동예를 복속시켰을 때이다. 고구려는 태조대왕4년(서기 56년)에 동옥저를 복속시켰다.¹³⁸⁾ 고구려가 건국된 것은 서기 전 37년의 일이므로, 이는 100여년도 지나지 않은 건국초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가 철갑옷을 입은 시점은 건국이전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고구려지역의 거주민들이 철갑옷을 만들었음을 말해준다. 즉, 이들은 고조선의 갑옷을 이어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는 건국하면서 부터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전쟁을 계속해나갔다. 이 전쟁 과정에서 고구려는 고조선에 속해있던 주변의 소국들을 병합해 나갔다. 또한 선비 및 王莽이 세운 新의 고구려 현을 병합하거나 東漢의 요동태수를 물리쳤다.¹³⁹⁾ 이 같은 사실들로 보아 고구려는 고조선에서 사용하던 무기와 갑옷 등의 방어 장비를 더욱 발전시켜 사용했을 것이다. 그 예로 고구려 동천왕은 재위 20년에 철기 5천명을 거느리고 위나라의 관구검과 싸웠다.¹⁴⁰⁾ 이 철기는 바로 병사와 말이 모두 갑옷을 착용한 군사를 말하는 것이다. 고조선시대에는 병사들만 입던 철제 찰갑옷이 여러나라시대로 오면서 전쟁이 빈번해지자 말에게도 입혀진 것으로, 그 갑옷의 우수성은 물론 생산력이 활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학자 柳涵은 중국에서 가장 이른 개마의 형상을 4세기 중엽에 속하는 안악 3호 고분벽화 행렬도에 보이는 기병(그림 16)과 북조초기에 속하는 草場坡 1호 고분에서 출토된 鎧馬騎俑으로 보고 있다.¹⁴¹⁾ 안악 3호 고분은 유함을 비롯하여 중국의 학자들이 중국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그 묘주에 대하여 국내외 학계에서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다. 필자는 안악 3호 고분벽화에 보이는 복식의 내용을 분석하여 안악 3호분이 고구려 복식의 특징을 보여주는 왕릉이라는 견해를 제출한 바 있다.¹⁴²⁾ 안악 3호분에 보이는 고구려 갑옷의 고유한 특징은 복식방면에서 안악 3호분이 고구려의 왕릉임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는 아래에 서술할 개마의 생산연대와 개마복식의 양식에서도 설명 될 것이다.

고구려의 개마는 중국이나 북방지역보다 앞서 생산되었다. 서기 4세기 중엽에 속하는 고구려의 안악 3호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개마는 중국의 북조 초기에 속하

137) 『梁書』卷54「列傳」高句麗傳. “其馬皆小, 便登山. 國人尙氣力, 便弓矢刀矛. 有鎧甲, 習戰鬪, 沃沮·東穢皆屬焉.”

138) 『三國史記』卷14「高句麗本紀」太祖大王 4年 條. “秋七月, 伐東沃沮, 取其土地爲城邑, 拓境東至滄海, 南至薩水.”

139) 『三國史記』卷13「高句麗本紀」·『後漢書』卷85「東夷列傳」·『漢書』卷99「王莽傳」 참조.

140) 『三國史記』卷17「高句麗本紀」東川王 20年 條 참조.

141) 앞의 글, 「北朝的鎧馬騎俑」, p.100.

142) 朴仙姬, 「고대 한국 복식의 衽形」, 『韓國民俗學 30』, 民俗學會, 1998; 朴仙姬, 「복식의 비교 연구에 의한 안악 3호 고분 묘주의 국적」, 『白山學報』第 76號, 白山學會, 2006 참조.

는 초장과 1호 고분의 陶甕에서 보이는 개마보다 그 연대가 훨씬 앞선 것이다. 그런데 안악 3호분보다 앞선 서기 3세기경에 속하는 강원도 철령유적에서 개마모형(그림 17)들이 출토되었다. 이 개마모형들은 고구려 개마가 보여주는 모습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에서 개마의 출현시기가 3세기 이전으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케 한다. 이는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된다.

왕이 모든 장수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魏나라의 많은 군사가 도리어 우리의 적은 군사만 같지 못하다. 卍丘儉은 위나라의 명장이지마는 오늘에는 그의 목숨이 나의 손에 있구나’하고 곧 철기 5천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쳤다.¹⁴³⁾

위의 기록으로부터 東川王 20년(서기 246년) 갑옷을 입은 개마기병이 5천이었음을 알 수 있고, 서기 3세기 이전 개마가 출현했을 것임을 추정케 한다. 서기 3세기 이전에 개마가 출현했다는 사실은 잘잡으로 된 갑옷의 출현이 이보다 훨씬 앞섰을 것임을 알려준다.

개마복식의 양식을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개마와 중국 및 북방지역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개마의 모습에서 비교해보자. 물론 앞선 생산연대를 갖는 고구려의 개마가 중국이나 북방지역보다 훨씬 발달된 모습을 보여준다. 고구려 개마의 형태를 보여주는 실물자료로는 황해남도 신원군에 있는 장수산성의 고구려유적에서 나온 3세기경의 개마모형¹⁴⁴⁾을 들 수 있고, 또한 3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편년되는¹⁴⁵⁾ 강원도 회양군 철령의 고구려유적에서 나온 많은 량의 개마모형들과 갑옷을 입힌 개마들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안악 3호 고분벽화, 개마총 벽화(그림 18), 약수리 고분벽화, 삼실총 벽화, 쌍영총 벽화, 덕흥리 고분벽화(그림 19)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장수산성유적과 철령유적에서 출토된 개마모형들 가운데는 간혹 鏡子가 보이고 있어, 고구려의 등자 생산연대가 주변국보다 앞선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 개마는 크게 말갑옷과 말투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말투구의 경우 귀막이의 부분이 꽃잎모양으로 된 것과 둥근 모양으로 된 것의 두 가지이다. 철령유적에서 나온 개마모형들과 삼실총, 쌍영총, 개마총의 고분벽화에 보이는 귀막이는 꽃잎모양으로,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안악 3호분과 약수리 고분벽화 및 朝陽의 십이대영자 향전력 88M1에서 출토된 말투구¹⁴⁶⁾(그림 20)는 둥근

143)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 東川王 20年 條. “王謂諸將曰 ‘魏之大兵, 反不如我之小兵. 卍丘儉者魏之名將, 今日命在我掌握之中乎’ 乃領鐵騎五千, 進而擊之.”

144) 안병찬, 「장수산일대의 고구려유적유물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년 제2호, pp.7-11.

145) 리순진, 「강원도 철령유적에서 발굴된 고구려개마모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4년 제2호, pp.2-6.

146)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 「朝陽十二臺鄉磚歷88M1發掘簡報」, 『文物』, 1977年 第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고구려의 개마와 5세기 혹은 6세기경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중국 및 북방의 개마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갖는다.

첫째로, 고구려의 개마는 모두 말투구를 했다. 그러나 함양 底張灣 北周墓(서기 6세기 경)의 개마기용¹⁴⁷과 서안 草場坡 1호묘(서기 5세기경)의 개마기용¹⁴⁸ 및 北朝시대인 서기 5세기-6세기경에 속하는 하남성 鄧縣 彩繪畫磚圖象¹⁴⁹에서 보이는 개마들은 모두 말투구가 씌워져 있지 않다. 북방지역의 西魏 大統 5년(서기 539년)에 그려진 돈황 285굴 서위벽화(그림 21)¹⁵⁰에 보이는 개마의 경우는 말의 앞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철갑으로 감싸고 있다. 이 말갑옷은 비교적 자유롭지 않게 보이며 고구려의 말투구에 보이는 귀막이와 볼 보호용 구조면이 없다. 고구려의 말투구는 아래턱이 자유스럽게 된 금속판으로 만들어졌는데, 귀막이와 볼보호용 구조면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북방지역의 돈황 285굴 서위벽화에 보이는 말투구는 말의 앞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철갑으로 감싸고 있어 비교적 자유롭지 않게 보이고 고구려의 말투구에서 보이는 귀막이와 볼보호용 구조면이 없다. 麥積山 麥察 127굴 北魏벽화(서기 5세기-6세기경)에 보이는 말투구는 전체를 철갑으로 씌웠는데, 입이나 코부분이 자유롭지 못하게 보이며 역시 귀막이와 볼보호용 구조면이 없다.

둘째로, 고구려의 말갑옷으로 서기 4세기경의 고분들인 태성리 1호 고분과 약수리 고분벽화에 그려진 개마들을 보면, 아랫부분이 타원형인 철갑편을 연결한 갑옷이 입혀져 있으며, 나머지는 장방형의 철갑편을 연결한 갑옷을 길게 드리우고 말잔등에는 갑옷을 덧씌운 모습이다. 그러나 맥적산 맥찰 127굴 북위벽화에 보이는 개마는 가죽 갑옷에 철편을 드문드문 박아 넣은 것이다. 함양 저장만 북주묘의 개마기용은 6각형의 찰갑을 연결하여 만든 것으로, 말의 몸만을 가리고 있어 말의 다리부분은 크게 드러난다. 서안 초장과 1호묘 개마기용은 말의 몸부분만 갑옷을 씌우고 말머리와 말의 목부분은 그대로 드러난 모습을 보여준다.

이상의 여러 가지 비교로부터 중국이나 북방지역 개마의 형태가 고구려 개마의 형태보다 훨씬 미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구려 개마의 생산시기가 중국이나 북방지역보다 약 2세기 정도 앞선다는 것이 실물에서 증명되었다. 따라서 중국이나 북방지역의 개마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되며, 고대 한국의 말갑옷이 북방지역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견해는¹⁵¹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11期, pp.19-32.

147) 앞의 글, 「北朝的鎧馬騎俑」, p.97 圖2의 1.

148) 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 「西安全郊草廣坡村北朝墓的發掘」, 『考古』1959年 第6期, pp.285-287.

149) 陳大章, 「河南鄧縣發現北朝七色彩繪畫象磚墓」, 『文物』1958年 第6期, p.55.

150) 黃能馥·陳娟娟, 『中華服飾藝術源流』, 高等教育出版社, 1994, p.160.

151) 앞의 글, 「고구려시기의 무기와 무장 II」-고분 벽화 자료를 주로 하여, p.66.

(3) 백제 갑옷이 중국에 준 영향

백제 왕실의 혈통은 부여계이므로 고조선의 갑옷을 계승하여, 갑편은 고조선 갑편의 특징인 장방형을 위주로 하고 魚鱗갑편은 좁고 긴 장방형과 아래쪽이 둥근 장방형으로 된 갑옷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백제초기의 유적으로 알려진 몽촌토성에서 장방형의 뼈로 만든 어린갑의 뼈갑편(그림 22)¹⁵²⁾들이 다량 출토되었고, 백제의 영역이었던 남원에서 좁고 긴 장방형의 철갑편이 발견되었다.¹⁵³⁾ 이 갑편들은 그 양식으로 보아 고조선 갑편의 양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는 고이왕때 국가의 경제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서기 246년경부터는 지금의 북경과 천진지역에 진출하고 이후 그 영역을 남쪽으로 확장하여 하북성·산동성·강소성·절강성 등지의 동부해안지역에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여 隋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직전까지 중국 동부 해안지역을 지배해왔다. 시기에 따라 영역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 지배가 威德王 때까지 계속되다가 서기 581년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함으로써 마감되었다.¹⁵⁴⁾ 앞에서 서술했듯이 중국은 동한시기에 철개가 발달하기 시작하여 삼국시대에 오면 箭袖鎧가 개갑의 주요 양식이 되고 馬鎧가 등장한다. 그러나 당시 군대에서 마개를 착용한 기병의 수는 아주 적고 귀한 것이었다.¹⁵⁵⁾ 이후 東晉시대와 남북조시대에 와서야 兩當鎧와 함께 마개가 군대에서 보편적인 장비가 된다. 그러므로 백제가 魏나라의 후방인 북경과 천진지역에 진출한 이 시기 위나라의 군대에는 개마가 매우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앞에서 밝혔듯이 고구려 개마의 생산 시기는 중국이나 북방지역보다 약 2세기 정도 앞섰기 때문에, 백제 역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군대에서의 개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같은 군대장비의 우월성은 백제의 중국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백제는 무왕 27년 당나라에 明光鎧를 예물로 보냈고¹⁵⁶⁾ 무왕 38년에는 철갑을¹⁵⁷⁾ 무왕 40년에는 金甲을 예물로 보냈다.¹⁵⁸⁾ 또한 의자왕 6년에는 고구려에 金髹鎧를 예물로 보내고 玄金으로 文鎧도 만들어 보내와 병사들이 입게 했다.¹⁵⁹⁾ 이

152)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발굴 유물도록』, 1977, p.270.
153) 金榮來, 『南原·月山里古墳發掘調査報告』, 全州, 1983.
154) 앞의 책, 『한국열국사연구』, pp.381-418.
155) 『太平御覽』 卷356 「魏武軍策令」. “(袁)本初馬鎧三百具, 吾不能有十具.” ; 『晉書』 卷44 「列傳」 盧欽傳. “御府人馬鎧.”
156)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 武王 條. “27년(서기 627년)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명광개를 예물로 보냈다(遣使入唐, 獻明光鎧).”
157)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 “遣使入唐, 獻鐵甲雕斧.”
158)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 “又遣使於唐, 獻金甲雕斧.”
159) 『新唐書』 卷220 「列傳」 高麗傳. “이 때 百濟가 金髹鎧를 바치고, 또 玄金으로 山五文鎧를 만들어(보내와), 士卒들이 (그것을) 입고 從軍했다. 太宗과 (李)勣의 (군사가) 모이자 갑옷이 햇빛에 번쩍거렸다(時百濟上金髹鎧, 又以玄金爲山五文鎧, 士被以從).”

상의 자료로 보아 고구려와 백제는 명광개를 생산했고, 백제가 생산한 갑옷으로는 명광개 외에도 철갑·금갑·금휴개·문개가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갑옷을 생산한 백제의 갑옷생산기술은 중국의 동부지역 진출과 함께 중국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들은 어떠한 갑옷들이었을까?

중국은 남북조시대에 와서 명광개를 착용하기 시작했는데, 학자들이 분류한 北魏의 명광개의 모습과 北齊의 명광개의 모습(그림 23, 24)¹⁶⁰⁾ 모두 서역갑옷의 특징을 보인다. 즉, 가슴 좌우부분에 魚鱗狀 타원형의 호심원을 짜넣은 양당개의 모습에서 호심원만을 찢김이 아닌 철판으로 크게 확대시킨 모습이고, 다른 부분도 찢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문헌자료에는 명광개라는 명칭에 대한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학자들은 다만 가슴에 둥글게 한 부분이 태양광선에 반사되어 빛나기 때문에 명광개라고 불렀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¹⁶¹⁾

『周書』「蔡祐傳」에 남북조시대 北齊와 北周의 군대가 邙山에서 전쟁을 할 때 북주의 장군인 채우가 명광개를 입어 북제의 군사들은 그를 鐵猛獸라고 부르면서 모두 당황하여 이를 피했다는 내용¹⁶²⁾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중국에서 명광개는 군대의 통솔자만이 입었던 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신당서』「고(구)려전」에는 보장왕 4년 고구려와 당의 전쟁에서 당나라 군사가 고구려의 명광개를 1만 벌씩이나 노획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¹⁶³⁾ 고구려는 명광개를 매우 많이 생산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백제에서 당나라에 명광개를 예물로 보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중국에서는 명광개가 매우 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구려벽화에서 중국학자들이 명광개로 분류한 가슴에 둥근원의 모습을 넣은 갑옷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周書』와 『新唐書』에 기재된 명광개는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어린갑옷의 한 종류일 가능성이 크다. 『신당서』가 쓰여진 宋代와 『주서』가 쓰여진 唐代에는 중국에서도 몸 전체를 덮는 어린갑으로 된 갑옷과 말갑옷이 크게 보급된 시기이기 때문에, 호심원을 짜넣은 양당개와 고구려에서 생산한 어린갑옷류를 구분치 못하여 동일하게 명광개라고 했을 리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중국학자들이 호심원이 있는 양당개를 명광개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백제에서 생산한 금휴개는 금빛 나는 칠을 한 갑옷이라 해석되는데, 이 金漆에 대한 『通典』의 다음내용을 볼 때 금휴개는 철갑편 위에 黃漆樹의 樹液인 금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160) 楊泓, 「中國古代的甲冑」 下篇, 『考古學報』, 1976年 2期, pp.69-71.

161) 앞의 글, 「中國古代的甲冑」 下篇, p.69; 앞의 책, 『中國服飾五千年』, p.70.

162) 『周書』卷27 「列傳」 蔡祐傳. “祐時著明光鎧, 所向無前. 敵人咸曰, 此是鐵猛獸也, 皆遽避之.”

163) 『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 寶臧王4年 條. “… 靺鞨사람 3,300명을 붙잡아서 전부 산채로 물어 버렸다. 말 5만 필, 소 5만 두, 명광갑옷 1만벌을 노획했고 기타 기재들도 이만큼 되었다(收靺鞨三千三百人悉坑之. 獲馬五萬匹·牛五萬頭·明光鎧萬領, 它器械稱是).”

서남쪽으로 바다 가운데 세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황칠수가 난다. 그 나무는 小椶樹와 비슷하나 크다. 6월에 즙을 받아 기물에 칠을 하면 황금과 같이 그 광채가 눈이 부셨다.¹⁶⁴⁾

여기서 기재한 황칠금이 나는 섬은 『海東繹史』에서는 莞島로¹⁶⁵⁾ 『星湖僿說』에서는 제주도¹⁶⁶⁾로 설명하고 있다. 금휴개는 금빛 나는 칠을 한 갑옷이라 해석되므로 이러한 칠을 한 갑옷을 금휴개라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서는 이 금칠이 생산되지 않으므로 금휴개는 당연히 수입품이거나 예물로 받은 귀한 물건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면 文鑑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문개는 玄金으로 만들어 졌다¹⁶⁷⁾고 한다. 玄甲은 철갑이라¹⁶⁸⁾하여 철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현금은 철이나 금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갑옷으로 설명할 수 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신라 사람들은 鎡石이라 불리우는 황금 같은 빛이 나는 黃銅을¹⁶⁹⁾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백제의 경우도 유석을 철과 함께 사용하여 문개를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사기』에서 문개가 현금(玄金)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金甲도 유석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금휴개나 명광개를 단순히 도금한 쇠찰갑으로 보거나,¹⁷⁰⁾ 백제의 명광개를 황칠을 한 금휴개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¹⁷¹⁾ 잘못이다.

漢·魏의 문학작품에는 현갑에 대한 내용이 자주 보이는데 班固의 「封燕山銘」에는 ‘玄甲耀日’¹⁷²⁾이라 표현되어있고, 『삼국지』에는 曹丕가 黃初 6년 廣陵에서 병사들을 바라보며 지은 시구절 가운데 ‘玄甲耀日光’의¹⁷³⁾ 내용으로 현갑의 빛나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있다. 백제의 금휴개와 문개의 모습에 대하여 『삼국사기』에

164) 『通傳』 卷185. “西南海中有三島, 出黃漆樹似小椶樹而大, 六月取汁漆器物, 若黃金其光奪目.”; 『新唐書』 卷220 「列傳」, 百濟傳. “有三島, 生黃漆, 六月刺取瀋, 色若金.”

165) 『海東繹史』 卷26. “謹按, 黃漆金產於唐津加里浦島, 古所謂莞島也, 我邦一域, 惟此島產黃漆.”

166) 『星湖僿說』 卷21 「經史門」, 徐市. “통전에서 말하길 백제는 바다 가운데 세 섬이 있어 황칠수가 나는데, 6월에 그 즙을 내어서 그릇에다 칠하면 황금빛과 같다고 했다. 이는 지금의 황칠이란 것인데, 오직 제주에서만 생산된다(通典云, 百濟海中有三島, 出黃漆樹, 六月取沬漆器物, 若黃金, 此乃今之黃漆, 而惟濟州產).”

167)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 寶臧王4年 條. “이 때 백제가 금휴개를 바치고, 또 현금으로 만든 문개를 군사들에게 입혀 종군했다(時, 百濟上金髹鎧, 又以玄金爲文鎧, 士被以從).”

168) 『史記』 卷111 「衛將軍驃騎列傳」에 ‘玄甲’에 대한 주석으로 실린 正義에서 “玄甲, 鐵甲也”라 했다.

169) 『演繁露』. “黃銀者, 果何物也. 世有鎡石者, 質實爲銅, 而色如黃金, 特差淡耳, 黃銀殆鎡石也. 鎡金屬也, 而附石爲字者, 爲其不皆天然自生, 亦有用盧甘石煮鍊而成者, 故兼舉兩物而合爲之名也.”; 『本草綱目』 「金石部」. “赤銅下李時珍曰, ‘赤銅爲用最多, 人以爐甘石鍊爲黃銅, 其色如金.’”

170) 고고학연구소, 『고고민속론문집 2』, 사회과학원출판사, 1970, pp.59-60.

171) 이도학,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p.529.

172) 『六臣注文選』 卷56 「四部叢刊」, 第28冊 封燕山銘.

173) 『三國志』 卷2 「魏書」, 文帝紀.

서 ‘甲光炫日’이라 하여 중국의 현갑보다 더욱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¹⁷⁴⁾ 금휴개와 문개의 우수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백제와 고구려의 명광개가 중국 갑옷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백제의 금휴개와 문개 및 금갑 역시 마찬가지로였음을 알 수 있다.

(4) 신라와 가야 갑옷이 일본에 준 영향

신라는 한의 진한지역에서 건국되었고, 가야는 한의 변한지역에서 건국되었으므로 신라와 가야는 모두 한의 사회수준을 계승한 나라였는데, 한은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서 상당히 발달한 국가단계의 사회였다. 이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라와 가야의 갑옷은 고조선의 갑옷 생산양식을 거의 그대로 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韓의 진한과 마한 및 변한은 큰 방패를 잘 사용했는데¹⁷⁵⁾ 고조선의 그것을 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진한과 변한에서는 철의 생산이 풍부하여 갑옷과 무기생산을 보다 활발하게 했을 것이다.

신라는 진골·6두품·5두품·4두품뿐만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車騎와 기물 및 가옥에 이르기 까지 금·은·유석·철·동·납 등을 사용한 것으로¹⁷⁶⁾ 보아 철뿐만이 아니라 금·은·유석·동·납의 생산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옷의 경우에도 철과 유석 및 동 등을 자유롭게 재료로 사용했을 것이다. 신라 사람들이 즐겨 사용한 유석은 바로 금과 같은 색이 나는 黃銅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구려와 백제가 만든 명광개 혹은 금갑이 바로 이 황동으로 만든 갑옷으로 금빛을 띠었던 것이다. 『삼국사기』의 기재에 유석이 금과 은 다음으로 나열되고 동이나 철 및 납보다 앞에 나열된 것으로 보아, 신라인들은 유석을 귀중한 금속재료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신라 고분들¹⁷⁷⁾에서 철과 유석으로 만든 갑편이 출토되었는데, 출토된 찰갑들이 장방형인 점으로 보아 고조선 갑옷의 양식을 그대로 계승했음을 알 수 있다.

가야에서 갑옷과 투구를 생산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삼국유사』의 「駕洛國記」¹⁷⁸⁾

174) 『說文解字』에 의하면 炫은 ‘耀耀也’라 했고, 耀는 ‘照也’라 했다. 照는 ‘明也’라 하여 炫과 耀는 같은 의미이나 위의 해석으로 보아 炫이 耀보다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75) 『晉書』卷97「列傳」馬韓. “활·방패·창·큰 방패를 잘 쓰며,……(善用弓楯矛楯).”; 『晉書』卷97「列傳」辰韓. “그 풍속은 마한과 비슷하며, 병기도 역시 마한과 비슷하다(其風俗可類馬韓, 兵器亦與之同).”

176) 『三國史記』卷33「雜志」車騎 條 참조.

177) 齋藤忠, 「慶州皇南里第109號墳」, 『昭和9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冊, 1937; 李熙潛, 「慶州 皇南洞 第 109號墳의 構造再檢討」,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1987; 濱田耕作·梅原末治, 「慶州金冠塚と其遺物」, 『古蹟調査報告』第3冊, 1924; 朝鮮總督府, 「慶州金冠塚と其遺寶」, 『古蹟調査特別報告 第3冊』, 似玉堂, 1924; 有光教一, 「皇吾里第54號墳甲塚」, 『古蹟調査概報 慶州古墳昭和八年』, 1934; 齋藤忠, 「慶州皇南里第109號墳皇吾里第14號墳調査報告」, 『昭和9年度古蹟調査報告 1』, 1937.

에 보인다. 이를 실제 출토유물에서 확인해보자. 김해지역 출토의 개마무인상 토기에 보이는 말은 마갑으로 무장되어 있고 기사는 단갑과 투구로 무장했으며 방패로 앞을 보호했다.¹⁷⁹⁾ 개마무인상 토기에 보이는 투구는 경주 금령총¹⁸⁰⁾의 기마 인물상 토기의 무장모습에서 보는 것과 같은 철제 弁帽형 투구이다. 이는 중국의 남북조시대 단갑의 양식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고조선 갑옷의 양식을 그대로 계승하여 보다 발전시킨 모습이라 하겠다. 또한 서기 4세기경에 속하는 김해 예안리 150호 고분¹⁸¹⁾에서도 철제투구를 구성했던 긴 장방형 혹은 윗면이 둥근 장방형의 철갑편들이 출토되었다.¹⁸²⁾ 같은 서기 4세기경에 속하는 김해 퇴래리에서는 판갑옷이 출토되었고(그림 25), 김해 대성동 39호묘에서는 경갑(그림 26)이 출토되었다.

이로보아 가야에서는 철제 변모형 투구와 찰갑편을 연결하여 만든 투구 및 판갑옷 등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찰갑편을 연결하여 만든 투구양식은 안악 2호 고분벽화에 보이는 무사가 쓰고 있는데 그 실제 유물이 요녕성 무순시 고이산성유적(그림 27)¹⁸³⁾과 조양시 十二台鄉 磚歷 88M1묘에서 경갑과 함께 출토되었다.¹⁸⁴⁾ 이러한 내용들은 한반도와 만주에 위치한 여러나라들이 모두 고조선의 갑옷양식을 그대로 이었음을 알게 한다.

서기 5세기 중엽에 속하는 동래구 복천동 10호와 11호 고분에서 출토된 투구와 경갑 및 단갑(그림 28, 28-1),¹⁸⁵⁾ 서기 5세기 후반기에 속하는 고령 지산동 32호 고분에서 출토된 투구,¹⁸⁶⁾ 부산시 시립박물관에 소장된 단갑은 찰갑편의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긴 장방형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동래·고령·부산은 가야가 차지했던 영역으로서 가야의 유물이므로 단갑의 전체적인 형태가 같은 특징을 갖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경상남도 의창군 동면의 서기 전 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茶戶里유적에서는 漆器 찰갑편이 출토되었다.¹⁸⁷⁾ 이는 신라에 못지않게 가야

178) 『三國遺事』 卷2 「駕洛國記」. “그들이 처음 왔을 때는 몸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활에 화살을 당긴 한 용사가 사당안에서 나오더니…(初之來也, 有躬擐甲冑, 張弓挾矢, 猛士一人, 從廟中出…)”

179) 李殷昌, 「新羅馬刻土製品과 伽倻鎧馬武人像土器」, 『新羅伽倻文化』 11, pp.8-11.

180) 梅原末治,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1932年.

181) 가야는 서기 42년에 독립국으로 출범하여 서기 400년경까지는 지금의 김해지역에 있었던 금관가야가 대가야로서 가야 전체를 통치했다. 따라서 예안리 150호 고분은 금관가야의 유물이라 할 수 있다.

182) 申敬澈, 「金海禮安里古墳群第4次發掘調査報告」, 『韓國考古學年報』 8, 1980, pp.154-162.

183) 徐家國·孫力, 「遼寧撫順高爾山城發掘簡報」, 『中國考古集成』 東北卷 兩晉至隋唐(二), 1992, pp.298-310.

18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 「朝陽十二台鄉磚歷88M1發掘簡報」, 『文物』, 1977年 第11期, pp.19-32.

185) 申敬澈, 「釜山市福泉洞古墳群遺跡一次發掘調査概要와 意義」, 『釜山直轄市立博物館年報』 第三輯, 1981; 鄭澄元·申敬澈, 「東萊福泉洞古墳群I」, 『釜山大學校博物館遺跡調査報告』 第5輯, 1983.

186) 金鐘徹, 「高靈池山洞古墳群」, 『啓明大學校博物館遺跡調査報告』 第一輯, 1982.

의 갑옷생산이 가야의 건국 이전부터 매우 발달한 기초위에서 다양하게 이어져왔음을 알게 해준다.

서기 5세기 후반에 속하는 부산시 연산동 고분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철투구(그림 29)¹⁸⁸⁾와 출토지 미상인 승전대학교 박물관 소장 철투구(그림 30) 및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철투구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들은 모두 챙이 있고 투구를 구성한 찰갑의 형태가 모두 장방형의 모습이며, 위에 서술한 단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구의 찰갑과 찰갑의 연결부분에 작고 둥근 장식단추형 철징을 이용하여 장식효과도 함께 하고 있다. 이들 철투구가 한반도의 남부에서 발견되었다는 점과 그 형태로 볼 때 신라나 가야의 유물로 추정된다. 또한 서기 5세기 중엽에 속하는 동래구 복천동 10호·11호 고분에서 출토된 투구와¹⁸⁹⁾서기 5세기 후기에 속하는 경상북도 고령 지산동 32호 고분에서 출토된 투구(그림 31)¹⁹⁰⁾의 경우 그 모습이 긴 장방형의 찰갑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투구들보다 비교적 긴 형태이며 윗부분을 둥글게 마무리 했다. 이 둥근 꼭대기 부분의 鐵製伏鉢을 북방적인 요소로 보고¹⁹¹⁾ 蒙古鉢形 투구라 부르면서, 고구려가 몽골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¹⁹²⁾

그러나 북방지역에서는 둥근 꼭대기부분의 철제복발을 하거나 긴 장방형의 찰갑을 연결하여 만든 투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날 일부 학자들이 고구려의 갑옷과 투구가 북방지역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결론인 것이다. 오히려 신라나 가야의 투구는 고구려 투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꼭대기 부분의 마무리 모습에서 변형을 보일 뿐이다.

경주 인왕동 고분에서 馬甲을 덮은 馬刻畫 토제품이 출토되고¹⁹³⁾ 함천 옥전 고분군에서 마갑이 출토됨으로써¹⁹⁴⁾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찰갑 기마 무장이 낙동강 유역의 신라와 가야 지역에도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남쪽

187) 李建茂 등,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I)」, 『考古學誌』 第1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89, pp.5-174 ;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II)」, 『考古學誌』 第3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81, pp.5-111 ;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III)」, 『考古學誌』 第5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4, pp.5-113.

188) 穴澤和光·馬目順一, 「南部朝鮮出土의 鐵製鎡留甲冑」, 『朝鮮學報』 第七六輯, 1975.

189) 申敬澈, 「釜山市福泉洞古墳群遺跡一次發掘調查概要와 意義」, 『釜山直轄市立博物館年報』 第三輯, 1981 ; 鄭澄元·申敬澈, 「東萊福泉洞古墳群」, 『釜山大學校博物館遺跡調查報告』 第5輯, 1983.

190) 金鐘徹, 「高靈池山洞古墳群」, 『啓明大學校博物館遺跡調查報告』 第一輯, 1982.

191) 앞의 글, 「古代 韓國甲冑斷想」, p.282.

192) 末永雅雄, 『日本上代の甲冑』, 創元社, 1944.

193) 앞의 책, 『한국 복식의 역사』-고대편, p.137.

194) 경상대학교 박물관, 「함천 옥전고분 1차 발굴조사개보」, 1986; 「함천 옥전고분군Ⅰ-목곽묘」, 1988; 「함천 옥전고분군Ⅱ-M3호분」, 1990; 「함천 옥전고분군Ⅲ-M1·M2호분」, 1992; 「함천 옥전고분군Ⅳ-M4·M6·M7호분」, 1993.

지역에서 출토된 갑옷편과 그 부속물들은 그 구성 찰갑의 형태가 고조선의 장방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고 전체 모습에서 고구려 갑옷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조선의 양식을 계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한반도의 갑옷생산기술은 일본의 초기 갑옷생산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일본에서 서기 4세기¹⁹⁵⁾와 5세기경에 만들어진 철갑옷과 철투구들은 신라와 가야의 갑옷과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학자들은 도래한 대륙 工人의 제작기술을 응용하여,¹⁹⁶⁾ 또는 도래한 대륙의 공인과 한반도 남부에서 귀화해온 기술자들과의 기술교류에 의하여,¹⁹⁷⁾ 또는 일본의 공인과 조선과 중국에서 도래한 공인을 통합한 공인조직에 의하여¹⁹⁸⁾ 모두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혹은 연산동과 상백리에서 출토된 갑옷과 투구를 일본의 것으로 단정하고,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경영했다는 방증자료로 삼기도 한다.¹⁹⁹⁾ 중국학자들은 서기 4-5세기 일본 갑옷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반도의 기술을 이은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⁰⁰⁾ 그러나 이 갑옷들은 중국의 갑옷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고조선 갑옷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고분에서는 고조선의 유적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청동제 갑옷은 출토되지 않는다. 1872년 오사카(大阪)에 위치한 仁德陵이라 전하는 다이센고분(大山古墳)에서 금과 같은 청동으로 만든 단갑이 발굴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매장되고 모습만을 그림으로 남겼다.²⁰¹⁾ 중국학자 楊泓은 이 인덕릉에서 출토된 갑옷의 형태와 화려한 미관으로 볼때 일본이 철갑옷을 사용하기 이전 단계에 생산된 청동갑옷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²⁰²⁾ 이 같은 일본의 갑옷 생산 상황은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서기 전 2600-2500년경에 청동기 문화가 출현했고 서기 전 12세기경에 철기문화가 출현했으나, 일본열도에는 서기 전 300년경에 그간 한민족이 이루어놓은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가 한꺼번에 전달되었다. 위와 같은 일본의 갑옷 생산은 이러한 문화 이식현상에 기인하는 것이다.

왜열도에는 이 야요이문화(彌生文化)의 뒤를 이어 서기 4세기경에 고분문화가 출현하는데, 이 문화는 한반도의 가야지역에서 건너간 것이었다. 서기 4세기부터

195) 小野山節, 「古墳時代の裝身具と武器」, 『日本原始美術大系 5』, 講談社, 1978, 81-82, 圖35.
196) 北野耕平, 「中期古墳の副葬品とその技術史的意義」-鐵製甲冑における新技術の出現, 『武具』, 學生社, 1991, pp.75-95.
197) 野上仗助, 「古墳時代における甲冑の變遷とその技術史的意義」, 『武具』, 學生社, 1991, pp.97-137.
198) 小林謙一, 「甲冑製作技術の變遷と工人の系統」, 『武具』, 學生社, 1991, pp.149-198.
199) 穴澤和光・馬目順一, 「南部朝鮮出土の鐵製鋌留甲冑」, 『朝鮮學報』 第七六輯, 『武具』, 1975, pp.235-269.
200) 楊泓, 「日本古墳時代甲冑及其和中國甲冑的關係」, 『考古』 1985年 第1期, pp.61-77;楊泓, 「中國古代馬具的發展和對外影響」, 『文物』, 1984年 第9期, pp.45-54.
201) 末永雅雄, 「增補 日本上代の甲冑」, 木耳社, 1981, pp.81-82, 圖35.
202) 楊泓, 「日本古墳時代甲冑及其和中國甲冑的關係」, 『考古』, 1985年 第1期, p.61.

鐵鋌이 가야지역에서 왜열도로 전달되어, 일본에서도 이를 이용한 본격적인 철기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서기 5세기 전반기에 철제 마구류 등이 만들어졌고 서기 5세기 후반에 철제의 갑옷과 투구가 제조되었는데, 이 같은 제조기술 역시 한반도의 가야지역에서 건너간 것이었다.²⁰³⁾ 그러므로 인덕릉에서 발견된 단갑의 재질이 금과 같은 청동이라 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신라 사람들이 즐겨 사용한 유석, 즉 황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신라나 가야로부터의 수입품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나라현(奈良縣) 고조시(五條市) 猫塚 고분 출토 철투구(그림 32), 치바현(千葉縣) 기사라주시(木更津市) 출토 철투구(그림 33), 시가현(滋賀縣), 신카이(新開)고분, 오사카부(大阪府)의 七觀고분,²⁰⁴⁾ 사이마다현(埼玉縣) 고라마초이(兒玉町) 쿠노산(生野山)고분에서 출토된 단갑(그림 34) 등은 가야의 유적인 동래 복천동 10호와 11호 고분의 유물과 거의 일치하며, 나라(奈良)지방의 초기고분은 입지조건·내부구조·장법 등에서 한반도의 가야 고분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²⁰⁵⁾ 이 같은 사실들은 이 유적과 유물의 주인공들이 한반도의 가야계였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일본에서 출토되는 갑옷과 투구들은 한반도로부터의 수입품이거나 한반도에서 왜열도로 이주한 가야인들이 한민족의 발달한 문화를 그곳에 전달했던 결과라고 생각된다.

5. 고대복식 문화의 국제적 위상 재인식

고대 한국과 주변국의 복식문화 비교연구를 통해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복식 재료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대 한국 복식의 기본이 되는 의복의 재료로는 가죽과 모직물, 마직물, 사직물, 면직물 등이 있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이 재료들이 대부분 중국이나 북방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그러나 고조선의 가죽과 모직물 및 마직물의 경우 중국이나 북방 지역보다 그 가공과 직조의 시작 연대가 앞설 뿐만 아니라 그 기술 수준도 높아 중국에 수출하는 교역상품이었다.

종래의 연구에서 한국과 중국 및 일본 학자들은 한결같이 고대 한국의 양잠 기술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라고 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같은 시기인 서기 전 2700년경에 실크 섬유를 독자적으로 생산하였고 이러

203) 앞의 책, 『열국사연구』, pp.453-497 참조.

204) 網干善教, 『五條猫塚古墳』, 奈良縣史跡名勝天然記念物調査報告, 1962; 西田弘·鈴木博司·金關恕, 『新開古墳』, 滋賀縣史跡調査報告 第12冊, 1961; 樋口隆康·岡崎敬·宮川徒, 『和泉國七觀古蹟調査報告』, 『古代學研究』 27, 1961.

205) 尹石曉, 『伽倻의 倭地進出에 대한 一研究』, 『百濟·新羅·伽倻史 研究』, 白山資料院, 1995, p.302.

한 실크 섬유 생산은 그 후 계속 이어져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품들이 생산되어 대중화되었다. 그 결과 이웃나라에 수출하는 교역상품이었으며, 특히 일본의 사직물 생산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한반도에서 면직물이 짜여진 것은 고려 공민왕 때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목면 종자를 들여온 것이 그 시작이라고 보아왔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달리 삼국시대 이전부터 문익점이 원나라로부터 들여온 것과 다른 품종인 초면으로 면직물을 생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가장 섬세한 면직물을 이 초면으로 생산하여 중국에 예물로 보내기도 하였다.

고대 한국 복식 가운데 관식에 대한 내용을 보면, 종래에는 관식의 원류를 스키타이계로 보았고 금관도 스키타이와 시베리아 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관모와 금관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고대에 한민족이 널리 사용하던 관모의 변화 위에 고조선 초기부터 사용되어온 한민족 고유의 장식이 계승되어진 것이었다. 특히 고구려의 관식은 이웃나라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그간 고조선의 무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갑옷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고조선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갑옷이 생산되지 않았으리라는 선입관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선입관으로 우리나라에서 갑옷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사국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생산되었던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사국시대에 착용한 갑옷들을 고조선으로부터 계승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류를 북방 민족의 무장형태에서 찾거나 중국 계통의 무장 방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는가 하면, 북방 계통의 무장 모습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중국 계통의 무장 방법을 들여와 복합적으로 형성시켰을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조선은 뼈, 가죽, 청동, 철 등을 재료로 하여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독자적으로 다양한 갑옷을 생산하였다.

고조선의 영역이었던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보이는 갑옷재료와 갑옷양식에서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동질성은 신석기시대부터 이어지는 고조선 지역의 토착문화로서, 황하유역이나 시베리아지역의 갑옷 재료 및 양식과 구별된다. 따라서 갑옷만을 주목하더라도 고조선 시기의 한민족은 독자적 성격의 문화권을 형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고찰한 고조선의 갑옷양식과, 그 전통을 이어받은 여러나라 시대의 갑옷양식들은 고대 한민족에 의한 자생적 토착문화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고조선은 뼈갑옷·가죽갑옷·청동갑옷·철갑옷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생산한 나라일 뿐 아니라, 중국 갑옷에 영향을 준 나라이다. 여러나라시대의 갑옷과 말갑옷은 고조선의 갑옷양식을 계승하여 나라마다 다소 특징적으로 발전했으며 같은 시기의 중국이나 북방지역의 갑옷보다 훨씬 우수하였다. 따라서 중국과 북방지

역은 물론 일본의 갑옷 생산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여러나라시대 동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의 대외활동은 주변국보다 뛰어난 무구와 무력의 우월성이 그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마디로 갑옷을 비롯한 복식문화는 모두 고조선 문화에서 확산된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갑옷을 중심으로 복식사를 검토할 때, 고조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민족의 고대문화가 일정한 한류를 형성하며 동아시아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된다.

<고대 한류로서 복식문화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토론

임 재 해
(안동대학교)

비교민속학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 민족과 문화가 기원한 곳이 한반도가 아닌 중국이나 북방지역이라고 보는 주장을 만날 때마다 당혹스럽다. 특히 북방민족 이주설이나 북방문화전래설을 주장하는 연구성과를 보면,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면밀하지 못하고 방법론적 체계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교사학이나 비교문화이론에 따라 비교대상이 되는 두 나라의 문헌자료와 고고학의 출토자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 고찰하는 작업을 통해서 역사적 선후와 지리적 계속성, 양적 연관성, 상징의 동질성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다음에, 신중하게 전래설이나 영향론을 펼쳐야 마땅하다. 그런데, 북방전래설의 선입견을 전제로 자료를 찾고 해석하는 까닭에 논리에 맞지 않는 엉뚱한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비교연구를 제대로 해보면, 그동안 중국이나 북방민족의 영향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진 문화현상들이 기존 주장과 달리 우리 민족 스스로 창조해낸 독자적 문화라는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이러한 비교연구 성과는 기존연구와 대립되는 결론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학계에서는 중국이나 북방문화전래설의 고정관념 때문에 논쟁적 연구로 발전시키지 않은 채 학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학문공간에서 소외시킴으로써 문제를 덮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식민사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까닭도 있지만, 그동안 식민사관에 따라 동어반복 작업에 머물렀던 자신의 연구결과를 고수하며 학문적 기득권을 지켜나가려는 이유도 크다.

그러나 학문의 성장은 잘못된 학문권력을 계속 수용할 수 없다. 구석기시대조차 인정하지 않던 고고학계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뒤집어지고 있다. 구석기 유물이 계속 발굴되고 있으니 어쩔 도리 없이 구석기시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기원이 시베리아나 내몽골의 오르도스 지역이라는 것이 고고학계의 정설이었다. 그러나 만주지역 유적조사가 축적될수록 한반도 청동기문화는 만주와 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멀리 시베리아와 오르도스 지역과 연관성이나 교류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물론 만주지역은 과거 고조선의 중심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전파론을 극복하고 청동기문화의 주체적 독창성이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 이 논문의 발표자는 이미 『한국 고대 복식-그 원형과 정체』(지식산업사, 2002)를 통해 우리 민족의 복식과 관모의 독창성을 다각적으로 연구한 성과를 내서 복식학계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고대 복식문화의 선

진성을 통해서 이웃나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고대 복식의 한류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다.

중심 내용은 비교연구의 방법으로 고대의 복식문화 가운데 복식재료와 복식 양식 및 갑옷과 말갑옷이 주변나라에 준 영향을 자세하게 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헌 자료와 고고학적 자료를 폭넓게 구사하면서 북방전래설에 의존하고 있는 복식학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우리 민족의 사회생활사에 관한 새로운 내용들을 밝혀주고 있다. 중국이나 북방지역의 복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기존의 통설임을 생각할 때, 이번 발표에서 제시된 견해는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발표는 복식학 연구사에서 한 분기점을 그을 수 있는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표 내용들이 더 설득력을 지니려면, 이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제시된 우리나라 청동기 시작연대와 철기 시작연대 등이 중국이나 북방지역보다 앞선다는 사실에 대한 연구가 더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고대사 연구의 전반적인 상황과 연관되어 있어서 쉽사리 결론을 이끌어내기 어렵지만, 기존연구의 동향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의 격차를 줄이는 논거를 더 풍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고학 자료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고조선의 지리적 강역과 시간적 범위가 확정되어야 한다. 고조선의 강역과 시작 연대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지, 고조선의 시공간적 범위를 합의하는 일부터 탄탄하게 해두어야 더 진전된 논의를 설득력 있게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포함하여 몇 가지 내용에 대한 질문을 통해, 발표 내용을 더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한반도와 만주지역의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의 시작연대가 중국이나 북방지역보다 앞섰다고 보는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둘째, 일반적으로 고조선의 영역은 요서지역 일부나 평양지역 일부로 비정되는데, 한반도와 만주 전 지역으로 고조선의 강역을 획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셋째, 고조선의 갑옷을 계승한 고구려의 갑옷과 말갑옷이 중국이나 북방지역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영향을 받았는데도 왜 이 지역의 갑옷양식은 고구려의 것과 차이가 나는가?



주제 발표 1분과
지역별 한류 문화

사 회: 박종한 (카톨릭대)

발표 1: Sergey O. Kurbanov
(러시아 The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2: Hasegawa Yukiko (일본
Kyushu Sangyo University)

3: Le Dang Hoan (베트남
Hanoi National University)

토론 1: 전태현 (한국외대)

2: 최권진 (경희대)

3: Ly Kinh Hien (베트남
Hochiminh National University)

Korean Wave in Russia: Reality or Just Dream

-Focused on St. Petersburg realities-

Sergey. O. Kurbanov
(The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1. Introduction. Transformation of interest to Korea in Russia

Modern South Korean society and South Korean Government are concerned about spread of Korean of so called “Korean Wave” for Korean culture will be largely known as well as Chinese or Japanese culture.

The aim pointed above is very good because Korean culture has many features worth to be known and accepted throughout the world. (Korean philosophy of 16-19 centuries, Korean Literature of 20th century etc.).

The question of spread of Korean culture in East Asian or Central Asian countries and in European countries is different. Asian countries, inspired by economical achievements of South Korea can show some natural interest to Korean culture as “the same Asians” (hoping to achieve the same economic results with the help of culture).

The European and Russian cases are different.

Europe has shown deep interest to Far Eastern countries in 17-19th centuries. This interest was especially focused to more developed China and Japan. The peak of this kind of interest took place in 19 century. Unfortunately for Korea, it was the time of policy of its self isolation, when Korea was ruled by such weak kings as Sunjong, Hyejong and Choljong. So it was natural that at that time Korean culture was not attractive for European audience, including Russia.

Only at the end of 19th century, especially after beginning of Russian Korean rapprochement in 1896, the word “Korea” began to appear in Russian popular literature. Russian diplomats, like the first Russian Ambassador to Korea K.I. Vaeber, began to gather artifacts of Korean culture and books. Later all these were brought to St. Petersburg, the capital of Russian Empire.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1910-1945) has turned off the World’s

attention to Korean culture.

The period of the World division into socialist and capitalist camps (1945-1991) helped in no way in growth of popularity of Korean culture in Russia. North Korean culture attracted little attention of ordinary soviet people tired from cult of I.V. Stalin and not wishing to return to any cult in anyway. So the figure of Kim Ilsung played role of bugbear not allowing Russian people to get closer to original Korean culture. South Korea was an enemy country of strong dictatorship, so no positive information about Republic of Korea could be got at that time.

Since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viet Union (Russia) and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culture has got an opportunity to get known in Russia. But collapse of Soviet Union in 1991 and the following economic crisis has led to temporary cultural decline. Korean businessmen who began their activities in Russia in 1990s paid little attention to spread of Korean culture in Russia. So in 1990s Korea was still little known by broad Russian audience.

At the beginning of 2000s Korean authorities has demonstrated more interest to the problem of spread of Korean culture in Russia. Situation in Russia also gave some hope for future perspectives of Korean culture there. But reality turned to be not so encouraging as the hope was.

2. Boom of Korean language tutorials. Quantity with no accessibility.

At the end of 1990s-beginning of 2000s Russian book market demonstrated a surprising “boom” of Korean language tutorials. I have already described some of them at the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2002¹⁾. The middle of 2000s was remarkable by a new portion of Korean language tutorials published. A large portion of these tutorials have appeared in Moscow in a private publishing house “Muravey” (“Ant”). Another large portion of Korean language tutorials was published in Russian Far East-in Vladivostok.

The table below shows most representative tutorials.

1) Serguei Kourbanov. 러시아 대학교의 한국어 교유과 교수법 페테르부르크 중심으로. 외국어 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의 현재와 미래.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2차 국제학술대회. 서울, 2002, 91-99쪽.

Table 1. Some of Russian Korean language tutorials published at the beginning of 2000s²⁾

No	Authors	Russian Title	English Translation of Title	Year and Place of Publishing
1.	Trofimenko O.A.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Домашнее чтение. Начальный этап.	Korean language. Home reading. For beginners.	Moscow, 2002. 1500 copies
2.	Trofimenko O.A.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Домашнее чтение. Продвинутый этап.	Korean language. Home reading. For advanced learners.	Moscow, 2002. 1500 copies
3.	Ivashchenko I.V.	Учебник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чальный курс. Сборник упражнений и контрольных заданий. Базовый учебник	Korean language manual. For beginners. Collection of exercises and tests. Basic tutorial.	Moscow, 2004
4.	Novikova T.A., Ivashchenko I.V.	Учебник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чальный курс. Базовый учебник.	Korean language manual. For beginners. Basic tutorial.	Moscow, 2004
5.	Chalaya E.V., Li N.V., Zdorovenko E.G.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по практике речи.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Korean language. A manual for speech practice. For beginners.	Moscow, 2004
6.	Rakulova Ya. Ye.	Учебник по иероглифике для изучающи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Chinese characters manual for students studying Korean language.	Moscow, 2005. 2000 copies.
7.	Ivashchenko I.V.	Иероглифические прописи для изучающи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Chinese characters samples collection for students studying Korean language. A tutorial.	Moscow, 2004
8.	Ivanov A.Yu.	Корея.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ение. Часть 1.	Korea. Lingvo-area studies.	Moscow, 2006
9.	Mazur. Y.N.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орфологи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 Теоретический курс.	Korean language grammar. Morphology. Word-formation. A theory course.	Moscow, 2004
10.	Kasatkina I.L., Chon In Sun, Pentyuhova V.E.	Учебник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Базовый курс.	Korean language manual. Basic course.	Moscow, 2004. (2000 copies).

2) The table does not contain the full list of Korean language tutorials appeared at the beginning of 2000s

No	Authors	Russian Title	English Translation of Title	Year and Place of Publishing
11.	Kaplan T.Yu., Jung Eun Sang.	Читаем и переводим корейскую газету.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시사 한국어).	Reading and translating Korean newspaper. A tutorial.	Moscow, 2004
12.	Lim Su	Иероглифика. Учебник для студентов-корейцев 1-2 курсов.	Chinese characters. Tutorial for 1-2nd Year Korean Studies Students.	St.Petersburg, 2006. (500 copies)
13.	Voronina L.A.	Учимся читать и писать по-корейски.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Learn to write and read Korean.	St.Petersburg, Moscow, Krasnodar 2004. (1500 copies).
14.	Kaplan T.Yu., Deryugina T.S.	Речевой этикет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для студентов 4-го курса.	Speech Ethics of Modern Korean language. Manual for 4th Year Students.	Vladivostok, 2003. (1000 copies).
15.	Kaplan T.Yu., Jung Eun Sang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для делового общения.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для старших курсов.	Business Korean for Senior Students.	Vladivostok, 2004. (1000 copies)
16.	Kaplan T.Yu., Verkholyak V.V., and others	Учебник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студентов невостоковедны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	Manual course of Korean for Students of Non-Oriental Specialties.	Vladivostok, 2004. (1000 copies)

As one can see in the table above, most of tutorials were published to be used by beginners. The only Russian Far East has demonstrated some progress in making tutorials for advanced learners. The number of copies of tutorials is not so big, varying from 500 up to 2000 copies.

Notwithstanding a comparatively large number of titles of Korean language tutorials, it is not so easy to buy them in an ordinary shop. The only university specialized bookstores can offer up to 8 Korean language tutorials simultaneously, while ordinary shops have hardly 3 or 4 titles of Korean language manuals. The same ordinary bookstores sells more than 8-10 titles of Japanese or Chinese language tutorials, because Japanese or Chinese are traditionally more popular than Korean.

Another peculiarity of the situation with Korean language tutorials is locality of their use. Korean language university instructors never use tutorials published in other universities or educational centers. Thus Korean language teachers of Moscow State University use only manuals developed by themselves and never by others. The same situation is in St. Petersburg, Vladivostok and

other big Korean Studies centers of Russia.

St. Petersburg is the 2nd city of Russian Federation (5 millions of population), but it has only one public school, where ordinary people can learn Korean. This is a so called “Korean cultural youth center” organized at a middle school No 151. The other educational centers offering Korean language courses are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and St. Petersburg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and they are closed for ordinary public³⁾.

Beginning from 2002 up to 2006 I was in charge to organize annually Tests on Proficiency in Korean language (TOPIK; 한국어능력시험) in St. Petersburg. Since 2002 the number of people applied for TOPIK were constant and never exceeded number of 50-60 people. So one can say that popularity of Korean language during last 5 years has not grown in anyway.

What are the reasons for that?

The main reason is impossibility of practical use of Korean language in European part of Russia. There are no Korean books sold in St. Petersburg. There are not so many offices of South Korean companies (LG, Samsung Electronics) there. And these offices prefer to hire Russian personnel ignorant in Korean and knowing only English.

As to the tourism industry, Korean visitors prefer to have Korean guides (Korean students, living and studying in Russia) and they never want to have a native Russian guide. (The situation with Japanese or Chinese tourists is absolutely different. It is just impossible to see a Japanese guide with Japanese tourists; in most cases it will be a Russian Japanese speaking guide).

That is why Korean language is little spread in Russia, especially in its European part. (The situation in Russian Far East is slightly different).

There is no “Korean Wave”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in Russia now.

3. Cultural events. No mind for effect

Since the 1990s-beginning of 2000s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private organizations began to show some efforts for organizing cultural events in Russia, including St. Petersburg.

The first significant Korean cultural event that took place in St. Petersburg

3) Since beginning of 2000s a strict university pass system was introduced in most Russian universities, so nobody can enter a territory of a university without special pass.

was an Exhibition of traditional Korean ceramics devoted to 100 Anniversary of establishing of Korean department in St. Petersburg University. The Exhibition took place on October 6-12, 1997. The exhibits were displayed at the Museum of Ethnography in the downtown of St. Petersburg and supported by Daewoo corporation (which still had a joint venture enterprise with local electronic plant, which became bankrupt at the end of 1990s). The Exhibition presented around 70 pieces of handicraft and had good resonance among St. Petersburg citizens, though the time of exhibition was very short⁴).

The reason of it was a good time selected for the Exhibition.

Russian cultural life has a traditional yearly rhythm which should be taken in mind when organizing any cultural event. Every year all the theatres in Russia open in late September and close in early May. The Summer time is used as time for vacations and time for international tours. Schools and universities in Russia are closed since the end of June until the end of August. The most popular time for vacations in Russia is also summer. In summer time most of the people make efforts to leave their native towns and to go to the southern parts of Russia or abroad. At the summer time the cultural life is traditionally frozen. Even booksellers experience a huge reduction of book sales until beginning of September.

So if one is intending to organize any cultural event in Russia, he should avoid summer.

Japanese are always concerned about this traditional Russian cultural rhythm and organize their events in deep autumn or early spring. Every spring for more than several dozens of years Japanese General Consulate in St. Petersburg organizes a cultural festival called "Japanese Spring" and every autumn they organize "Festivals of Japanese Films" It is necessary to say that citizens have to buy tickets to see Japanese films and it is always very difficult to get tickets.

The opposite example is the Korean case. In summer (!!!) of 2002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gether with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decided to organize a Korean culture festival devoted to arrival to St. Petersburg of so called "Train of Friendship" which started from Vladivostok, crossed Siberia and arrived to St. Petersburg at the end of July.

All the action was devoted to 150 anniversary of Lee Beomjin (이범진 초대

4) See: 러시아韓傳陶磁展示會 카탈로. 서울, 1997.

공사) who lived, worked and died in St. Petersburg in January of 1911. The program of “festival” included scientific conference (July 29 – 30), performance of Samulnori by Kim Deoksu, “Korean film festival”. “Korean film festival” was organized in a film hall of the Faculty of Philology of the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The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is an educational organization closed for ordinary people. Besides, July is the time when just no regular students can be found. As the result, some 15-20 spectators were hardly seen at a cinema show... Korean Embassy was able to make a report of a film festival in St. Petersburg but real impact of it was close to zero. The same could be said about impact of the whole “festival” in general. The number of participants was huge, but most of them were Koreans.

From all of event I have got an impression, that it was organized mostly not for local citizens and had no aim to make Korean culture better known in Russia, but mostly for Koreans themselves, so they were able to spend exciting summer vacations by trip through all the Russia and to see beautiful St. Petersburg of its best period of white nights.

In 2004 there was a little exhibition of a Korean calligrapher Ko Imsoon (고임순) who is not so famous in the Republic of Korea but whose works are worth to be seen. The exhibition took place in September 20-24 in a Meeting hall of artists union of St. Petersburg, which not so well known among local citizens. The opening ceremony attracted some 100 of visitors but during following days the number of visitors was much little.

The same situation was in 2006 with the exhibition of Korean photographer Cho Seiho named as “Sounds of Wind”. The exhibition took place on November 16-26 at the Youth Educational Center of the State Hermitage Museum. Though the time for exhibition was chosen quite well, the place was not so good. I am a native citizen of St. Petersburg, but I have hardly found the place. Besides, it is not opened for broad audience and usually the access to the exhibition hall is not allowed without a special pass.

Perhaps, in the future, after establishing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06 the situation can be improved. On November 8 2006, the Consulate General has organized a concert devoted to the opening of the Consulate General. But... all the first part of the concert was European classical music and only the second part introduced such Korean masterpieces as a dance Hwagwanmu (화관무), dance with fans (부채춤) etc.

Korean culture is still very far from being well known in Russia. And “Korean Wave” still has not reached European part of Russia, and just nobody has heard about this phenomenon there.

4. Korean Restaurants as a part of “cultural wave”. Fully washout

Food (national cuisine) can become a mean for spreading culture largely abroad. For example, spreading of hamburger culture results in appearance of restaurants with interiors filled with American images. Thus, visiting McDonalds’ restaurants people automatically become closer to American culture in someway.

Theoretically Korean food restaurants can also play role of a mean of spreading of Korean culture abroad.

What is going on with Korean restaurants in Russia?

Private Korean food restaurants became to appear in Russia after settl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 1990⁵⁾. In the middle of 1990th in St. Petersburg there were 3 Korean restaurants: “Seoul Garden” (서울가든) founded in a prestige international hotel “Pribaltiyskaya” by businessmen from South Korea, Korean House (한국관), founded by local Russian Koreans together with South Korean citizens, and an ‘Arirang’ (아리랑) by South Koreans.

At that time there were around 5 Chinese restaurants and no Japanese.

In 2007 the situation changed greatly. There are around more than 70 Chinese restaurants, more than 50 Japanese restaurants and only 5 Korean. One of Korean restaurants is a newly opened “small size” Korean House (한국관). Besides there is a declining “Arirang” (아리랑) restaurant with no Russian or even Korean visitors (except karaoke rooms), a “Hodori” (호도리) managed by local Russian Koreans, a “Shilla” (신라) serving mostly for South Koreans and unpopular “Koreana” (코레아나).

That means, that while Chinese or Japanese food culture (and together with it-ordinary culture) became better known and more popular among ordinary Russian people, Korean culture is still unknown and attracts little attention of native citizens. What are the reasons of such situation?

5) There was one North Korean restaurants in Moscow before 1990, but it was not popular among ordinary Russian public.

If to compare Chinese, Japanese and Korean restaurants existing in St. Petersburg, the following difference can be found:

- 1) Chinese and especially Japanese restaurants usually have an excellent national interior design, while all Korean restaurants has near to no special interior except paper windows and few low level paintings.

It is a very important “detail” because Russians go to restaurants not simply to eat tasty, but for having experience of “time and space travel”. More peculiar is interior of a restaurant, more popular it is.

- 2) Chinese and Japanese restaurants’ waiters usually wear special national colored uniforms while waiters of Korean restaurants have no uniforms.

The uniform is also a part of cultural attribute and makes restaurant atmosphere more leveled. From this point of view Korean restaurants in St. Petersburg are low level and nationally colorless.

- 3) Chinese and Japanese food taste is suitable or adjusted to tastes of Russian people, so they can eat it with pleasure. Korean food is too spicy for Russians. But Korean restaurants owners make no efforts to make it suitable for Russian guests. The only thing to attract Russians is an enlarged menu with Chinese or Japanese food. But in this case are they really Korean restaurants or “Korean” only by name, selling Chinese or Japanese food instead?

But if Korean restaurants are so unpopular among native Korean guests, how can they earn money? The answer is quite simple: through serving Korean (!!!) team tourists visiting St. Petersburg in summer time. Koreans have accustomed to “ordinary” restaurants (일반음식점) with no interiors and no high quality service. They are satisfied with only taste and want nothing except rice and kimchi chhigye (김치 찌개).

Thus, Korean restaurants in St. Petersburg are opened and working mostly not for native Russians people, but for Koreans themselves living or passing by this northern Russian city.

Thus, in the case of “spreading” Korean food culture in Russia we witness the same reality as in the case of cultural events: Koreans are orientated for themselves, closed for themselves and make nor efforts to study an “outside” world (Russia) to make Korean culture more adaptable by native Russian people. Korean food businessmen are not concerned by idea of spreading Korean culture in a country they are

working at a moment. Only they do to attract more native visitors-just offer Chinese and Japanese cuisine (!!!) in addition to unpopular Korean food.

Conclusion. There is no “Korean Wave” in the field of Korean food or Korean restaurants in Russia.

5. What to do? Study local traditions as basis for cultural activities

Thus, we have examined the situation in the field of popularity / unpopularity of Korean language, culture and even food in European part of Russian Federation. The conclusion is not so encouraging. Korean culture is still little known in Russia, especially at its European part. Ordinary people have no distinct interest to Korean culture as they have to Japanese or Chinese.

The popularity of Korean departments at Russian universities is not only growing up, but, in opposite, is constantly declining. For example, on March 31, 2007 the Faculty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of the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the second large and prestigious university in Russia after Moscow State University) has organized so called “day of open doors” what means a day of free access for university entrants so they can get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future entering examinations. This day more than 150 people have come to listen to introductory notes of the Faculty authorities. In 2007 the Faculty opens 12 departments. Among them are “Chinese philology”, “History of Japan”, “History of Korea” etc. And among 150 Faculty visitors only 2 (!!!) schoolgirls showed interest to Korea and expressed their wish to specialize in major of “History of Korea”. Only 2 persons from 150! This is a really stressing example of unpopularity of Korea among Russians. A yearly University admission fee for Korean department is 1500\$ cheaper than for Chinese or Japanese. Nothing else can be added as a comment for this striking figure.

In 2001 in a Conference devoted to 10th Anniversary of the Korea Foundation (which took place in Seoul) I have already presented a paper about perception of Korea in Russian books and periodicals⁶⁾. During my presentation I have expressed an idea that if Korean authorities want Korean culture to be

6) Serguei O. Kourbanov. Reflection of Russis FirstContact with Korea in Books and Periodicals // 한국과 세계의 만남. 서울, 지문당, 2002, 17 33 쪽.

more popular in European countries, they should undertake a “field research” in Europe to get known which elements of Korean culture could be potentially attractive to Europeans. And then the Korean authorities can make some steps in introducing those elements of Korean culture which were determined through this “field research”. Notwithstanding a huge number of audience at the Conference, my appeal was not heard and until now, as I know, no research of this kind was ever made by Koreans in Russia.

On the contrary, South Koreans living in St. Petersburg say with self confidence about non existing “Beginning of Korean Wave in Russia”. They decide to organize “Korean culture festivals” having no contacts with local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such kind of events. They think, if some Korean performance team comes to Russia, Russian audience will eagerly come and see performance⁷⁾. But it is not so. Until present time most performances of Korean art teams were “provided” with spectators by 1) lack of admission fee 2) direct requests of Korean diplomatic authorities to “bring to performance students and their relatives”. So it was possible to make an illusion of “popularity” of Korean culture for single occasions only.

On the other hand, Russia has traditional organizations designed for realizing international cultural events. For example, there exists a “Russian Japanese friendship society” which together with the Japanese General Consulate organizes “Japanese Spring Festivals” and other events mentioned above.

In early 2005 “Russian Korean friendship society” was re established. This society for several times has appealed for the General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organize together Korean film festivals and other events. But all these appeals were left without response.

I have an impression that Korea still lives in an époque of self isolation of Taewongun (대원군 쇄국 정책). Even acting abroad Korean cultural organizations still remain closed, deciding everything by themselves and never allowing foreigners to consult them what to do.

Before any *real* “Korean Wave” will be able to appear in Russia, Korean authorit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should make a “field research” aimed to know which aspect of Korean culture could be attractive for Russians, and then to invest in spreading Korean culture in Russia. Otherwise “Korean Wave” has doubtful perspectives.

7) St. Petersburg Korean Journal Dabai Korea. 14 March 2007 // 러시아에도 한류 시작된다.

<‘러시아의 한류: 현실인가 한낱 일장춘몽인가?: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전 태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표자께서 단언하신 대로 최근 한국 내 관민(官民)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소위 한류(Korean Wave)의 전파는 이문화간 접촉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각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각국의 한류 열풍 분위기가 유럽 및 러시아의 경우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발표자의 관점에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 과거사 속에서 조명된 당시 한국 문화의 지위와 외부의 관심도에 관한 평가는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면, 1) 유럽 여러 나라들이 17-19 세기에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이 한국의 문화는 취약한 왕권과 고립 정책으로 인해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여러 나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었다는 점. 2) 한국(Korea)이란 이름이 러시아인들에게 알려 지기 시작한 것은 1896년 이후이며, 러시아 공사를 지낸 웨베르(Karl Ivanovich Waeber)의 손을 거쳐 한국의 문물들이 당시 러시아 제국의 심장부 상트 페테르부르크(세인트 피터스부르크)에 전달되었다는 사실. 3) 일본 식민 지배 기간(1910-1945)을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계기로 간주한 점. 4) 1945-1991년 사이 러시아인들의 한국 문화접근에 영향을 끼친 북한 정권의 성격. 5) 소비에트연방의 붕괴와 경제 위기로 인한 러시아 내 한국 문화 소개의 침체기 등에 관한 정리는 러시아인의 관점에서 본 일목요연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실제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발행과 활용에 관한 제문제, 최근 5년 가까이 한국어 능력 시험의 응시생 수가 50-60명 내외에 머물고 있는 원인에 관한 분석, 한국 문화 소개를 위한 보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현지 상황에 걸맞은 시기적절한 문화 행사 준비에 관한 충고, 한국 식당 경영진의 안일한 자세로 인한 한국 음식의 인기 추락과 한류의 위기에 관한 신랄한 지적들로 점철되어 본문을 읽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현황을 통해 본 발표자의 평가대로라면 러시아에는 사실상 한류(Korean Wave)가 존재하지 않는다(There is no ‘Korean Wave’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in Russia now…….Korean culture is still very far from being well known in Russia. And ‘Korean wave’ still has not reached European part of Russia, and just nobody has heard about this phenomenon there…….There is no ‘Korean Wave’” in the field of Korean

food or Korean restaurants in Russia.)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에 당혹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류란 실체가 아닌 추상적인 현상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한류의 존재 여부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문화 전파를 위한 인위적인 정책의 입안자나 집행부 그리고 소위 한류라는 현상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거나 이에 편승하고 있는 모든 이가 상기 발표자의 지적과 비판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발표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한류를 둘러싼 한국과 러시아간 문화의 쌍방 교류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발표자가 제시한 지난 날 양국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 한국어 교재의 종류와 숫자, 한국어 능력 시험의 응시생의 수, 한국 식당의 상황 등은 물론 양국 문화 교류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촌의 문화 교류는 인적-물적인 자연스런 접촉과 고도로 발달된 통신수단을 통해 얻는 서로 간의 “얹”이 문화 전파의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에 관한 수량적 자료의 제시가 본 발표문에서 빠진 것이 몹시 아쉽습니다.

2005년 출입국관리통계연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표 1. 행선국별 국민 출국자

유 럽 주	589,293	6.2	108.4
독 일	144,132	1.5	99.4
영 국	117,392	1.2	103.9
프 랑 스	96,936	1.0	105.5
러 시 아	55,373	0.6	104.0
이 탈 리 아	49,029	0.5	113.6
네 텔 란 드	39,895	0.4	150.2
기 타	86,533	0.9	122.0

<http://www.immigration.go.kr/> 자료실

상기 내용은 유럽주로 출국한 한국민들의 통계 숫자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러시아로 출국한 한국인의 수가 2005년 한 해에만 55,373(이중에서 1644명이 한국인 유학생)명으로 같은 해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러시아로 여행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통계 숫자는 여행자들의 복잡한 여행 경로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로 출국한 한국인들의 최종 목적지를 러시아 내로 단순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다음은 같은 해 러시아인들이 한국으로 입국한 내용입니다.

표 2. 국적 및 체류자격별 러시아인 입국자 수

국적	성별	관광통과(B-2)	단기 종합 및 상용(C-2, C-3)	유학(D-2)	기타
러시아(연방) (59,618)	남(35,642)	10,777	21,567	142	3,156
	여(23,976)	5,075	15,107	323	3,471
한국계 러시아인 (2,187)	남(966)	100	827	3	36
	여(1,221)	42	1,092	4	83

<http://www.immigration.go.kr/> 자료실

상기 표의 내용과 관련하여 러시아 인들은 한국에 관한 “앓”의 과정에 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상기 도표에 나타난 수 만 명의 러시아인들은 어떻게 한국을 알고 찾아오는 것일까요?

같은 해 러시아로 출국한 한국민들의 수는 2005년 한 해 동안 55,373(이중에서 1644명이 유학생)명으로 이 숫자는 독일,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많습니다(<http://www.immigration.go.kr/> 자료실). 이 숫자는 한국인들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여행한 숫자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왜 한국인들은 러시아로 가는 걸까요? 혹시 한국에 러시아류(Russian Wave) 열풍이 부는 것인가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현재 러시아인들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한국(의 문화)에 관해 알게 됩니까? 한국 관계 당국의 인위적인 노력만이 러시아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소위 한류(Korean Wave)를 한류(Cold Current)로 바꾸지 않는 유일한 길일까요?

발표자께서 느끼고 계신 답답한 심정을 공감하고 있던 터에 반가운 동지를 만난 것 같아 시원스런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일본의 한류: 한류가 남긴 것

하세가와 유키코
(규슈산업대학)

1. 머리말

2003년 봄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2004년에 절정을 이루었던 일본의 한류 붐이 요즘은 언론의 화제에 오르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일본 대학 등에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 수도 2005년경을 피크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¹⁾. 한때 뜨겁게 달구어졌던 일본의 한류 열기가 이미 상당히 진정되었음은 분명하다.

한편 한류 붐이 너무나도 격렬했던 만큼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 붐의 열기가 고조되자 인터넷상에서 반한류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각종 여론 조사에 보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은 최근 조금씩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²⁾.

그렇다면 한류는 다 지나가고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일까? 오히려 나쁜 영향을 남기고 간 것일까? 아니면 이러한 숫자에 나타나지 않는 어떤 내면적 질적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본 발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일본의 한류의 특징을 살펴보고,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 다음, 일본에서 한류가 받아들여진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일본 사회에 한류가 남긴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일본 한류의 특징

일본의 한류는 다른 동아시아 각국의 한류와 약간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해서 먼저 대만에서 불이 붙기 시작한 한류는 얼마 후에는 중국

-
- 1) 도시사대학에서는 2003년 이후 매년 50%씩 증가하던 것이 2006년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수강생이 줄었으며, 동경대학에서도 2004년에 104명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70명으로 줄었다고 한다.(일본 매일신문 2006.6.10)
 - 2) 일본 내각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느낀다', '느끼는 편이다'라고 회답한 사람은 2003년 55.0%, 2004년 56.7%, 2005년 51.1%, 2006년 48.5%로 2004년을 정점으로 최근 감소 추세에 있다.

본토와 태국 월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번져갔으며, 각 나라마다 그 유행 아이템에 특징 차이는 있겠으나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던 드라마와 대중가요를 각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즐기고, 젊은 배우와 가수들에게 열을 올린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겨울연가’가 아니었다라면 한류는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이 드라마가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이 드라마와 그 주인공들에게 열광했던 팬들은 대부분 중장년 여성들이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대중가요나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있긴 하지만 언론이 주목할 정도의 압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또한 ‘겨울연가’ 이전에도 민영방송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고 ‘겨울연가’ 이후에도 ‘올인’, ‘아름다운 날들’, ‘다모’ 등 한국 드라마의 히트작들이 NHK 위성채널에서 방영되었고 또 다른 전국규모 민영방송사에서도 한국드라마에 특별 시간대를 배정하여 인기 드라마를 속속 방영했으나 그저 나름대로의 화제와 인기를 얻은 데 그쳤다³⁾.

다만 ‘대장금’⁴⁾만큼은 ‘겨울연가’와 같은 열광적인 것은 아니나 또 다른 잔잔하고도 의미있는 흐름은 낳게 된 것 같다. ‘대장금’은 시청률로 볼 때는 ‘겨울연가’를 능가했다고 하며, 그 시청자 층도 중장년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과 젊은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⁵⁾, 이는 ‘겨울연가’를 계기로 한국 드라마의 매력을 알게 된 여성들이 자신의 아이들과 남편들까지 끌어들이게 된 것으로 추측이 된다. 본 발표자 주변에도 그러한 사례가 수두룩하였고, 어떤 사람은 중학생인 딸이 ‘대장금’을 보면서 자기도 앞으로 의녀(여성 한의사)가 되겠다고 선언했다고 하여 놀라워했다. 한국 음식은 예전부터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지만 ‘대장금’을 통해 건강상의 효능이나 요리의 깊은 의미까지 거론되게 되어 한국 음식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가치 부여가 이루어졌다.

한류는 이와 같은 드라마를 계기로 일본 국내에 하나의 행동 양식이 형성되어, 각 드라마 주인공들의 팬클럽이 속속 생기고 드라마를 주제로 한 관광여행이 성황을 이루기도 하고 한국 음식과 생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올 봄부터는 NHK 위성채널의 한국드라마 특별 틀은 없어지고 다른 일반 외국 드라마와 같은 취급이 된다고 한다. 즉 특별 취급은 끝난 것이다. 몇몇 유선방송이나 지역방송에서는 지금도 한국 드라마를 정기적으로 방영하고 있으나

3) 이들 민영방송사에 한국 드라마 특별 시간대 배정은 2004년 가을부터 2005년 가을까지로 1년만에 끝났다.

4) 2004년 후반부터 2007년 전반에 걸쳐 NHK 위성방송에서 2번 공중파에서 1번 ‘宮廷女官チャングムの誓い(궁정 여관 장금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다.

5) 동아일보 2005년 7월 5일 기사.

2006년 이후로는 눈에 띄게 저조해졌으며, 한류 관련 아이템들이 언론의 화제에 오르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물론 상황이 이렇다 하여 그때 팬이 된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떠나간 것은 아닐 것이고,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는 팬클럽과 팬 사이트들도 많다. 우후죽순 격으로 나오던 한류 관련 잡지와 서적들은 뜸해지고 한류코너도 많이 축소되었지만 비디오점에는 꽤 큰 한국 영화와 드라마 코너가 유지되어 있으며, 편의점이나 할인점에서 다양한 한국 식품을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한류라는 붐은 저조해졌지만 한국에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일상적이고 흔한 것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류가 절정을 이루던 2004년경부터 인터넷의 자유게시판 '2채널6'을 중심으로 한류를 공격하거나 비꼬거나 냉소하는 글들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대표하듯이 2005년 '만화 혐(嫌)한류'라는 책이 출판되었다. 사실 한국에 대한 반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며, 특히 2002년 월드컵을 전후한 시기에 상당히 고조되었으나, 그것이 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만화책으로 꾸며져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만만치 않음이 짐작된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 특히 젊은 세대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 감소 추세에 어쩌면 이 만화책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류에 관한 설문조사

언론 보도와 인터넷 사이트 기사를 보면 일본의 한류는 이미 끝났다고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며, 여론 조사에도 한류로 인해 조성되었던 호의적인 분위기가 많이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대학생들은 한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조사는 2007년 2월 9일 오사카외국어대학에서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1년 동안 공부한 초급반 학생들(학년과 전공은 다양함) 62명(A그룹으로 한다)과 복구 언어 전공 3학년 학생 25명(B그룹으로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A그룹 학생들은 다른 언어를 전공하고는 있지만 한국어에도 관심이 있다거나, 특별한 관심은 없고 오직 학점을 위해 선택했지만 한국어 학습을 통해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한 접촉과 이해가 이루어진 학생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B그룹 학생들은 개인적인 취미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6) 1999년 한 개인이 개설하여 2006년 현재 글을 올리는 이용자만 700만 명을 넘는다는 거대 게시판. 누가 올린 글에 댓글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익명성이 높아 테마에 따라서는 욕설이나 무책임한 발언, 인권을 무시한 폭언들이 물리는 경우도 있다.

나 일상적인 접촉은 별로 없는 학생들이다.

3.1 한류는 끝났는가?

상기 학생들에게 ‘①한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한 결과, ‘아직 일부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A:59.7% B:72.0%). ‘한류는 이미 끝났다’고 답한 학생은 오히려 소수였으며(A:6.4% B:12.0%), ‘지금도 그 기세는 여전하다’라고 답한 학생도 있었다(A:21.0% B:4.0%).

‘②당신은 한류붐의 영향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는 ‘한류는 자신의 관심 밖의 일’이라고 회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B:54.8%, B:76.0%), ‘다소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있었으나(A:30.6%, B:20.0%), ‘많이 받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A:6.5%, B:0%).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한류붐의 영향은 좀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설문 ①과 ②의 결과를 합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류의 영향을 특별히 많이 받지 않았으나 아직까지 한류의 영향력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다음 질문에 대한 회답에 찾을 수 있다.

‘③당신 주변에 한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있다고 답한 사람(A:45.2%, B:28.0%)이 꽤 많았고, 그 사람이 가족이라는 사람(A:29.0%, B:24.0%)이 전체 회답자의 4명에 1명 꼴이나 되었다. 특히 어머니가 제일 많고(A:24.2%, B:12.0%), 할머니라는 회답도 있었다(A:9.7%, B:4.0%).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역시 한류는 일본의 젊은 사람들을 크게 매혹하지 않았으나 중장년 여성에 대한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A그룹 즉 한국어 선택자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비선택자보다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변 환경이 언어 선택의 한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2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상기 설문 ② 및 ③에서 자신 또는 주변 사람이 한류의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기술적으로 회답을 요구했다. 그 결과, 자신과 관련해서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었거나 좋아하게 되었다고 답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A:95.7%, B:40.0%).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거나 알고 싶어졌다는 사람(A:8.6%)이나 한국 가요를 듣게 되었거나 좋아하게 되었다고 답한 사람(A:4.8%)도 소수나마 있었다. 역시 한국어 선택자가 한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음이 확인된다.

한편 주변 사람과 관련해서는, 한류 스타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회답(A:71.5%,

B:57.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되었거나 좋아하게 되었다는 회답이 많았다(A:49.6%, B:57.1%). 대학생들 스스로는 한류 스타를 좋아하게 되지 않았지만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다. 연령층에 따라 한류가 끼친 영향이 꽤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④한류 붐이 있기 전과 후에 한국에 대한 본인의 인식에 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묻은 결과, 한국의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회답(A:38.7%, B:4.0%)과, '한국을 다소 의식하게 되었다'는 회답(A:29.0%, B:52.0%)이 많았다. 한국을 많이 좋아하게 되었다는 회답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A:8.1%, B:0.0%), 한국의 좋지 않은 부분을 알게 되었다는 회답은 없었다.

학생들은 한류 붐이라고 해서 특별히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으나 한국에 대해 다소나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결과이다.

3.3 '혐한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혐한류'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

'⑤혐한류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택일식으로 물어본 결과, '혐한류 책이나 사이트를 보고 공감을 가졌다'는 회답(A:1.6%)이나, '혐한류 책이나 사이트를 보고 흥미롭게 느꼈다'는 회답(A:6.5%)은 얼마 되지 않았다. 오히려 '혐한류를 전혀 모른다'는 사람(A:71.0%, B:84.0%)이 압도적이었으며, '알고는 있지만 관심이 없다'는 사람(A:16.1%, B:12.0%)이 관심이 있는 사람보다 많았다. 한때 일본의 한국어 교사들 사이에 혐한류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적어도 이 학생들에게는 이렇다 할 영향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3.4 일본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렇다면 일본 사회 전체에 대한 영향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역시 택일식으로 물어본 결과, '비교적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회답이 가장 많았고(A:51.6%, B:68.0%), '매우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회답도 꽤 있어(A:21.0%, B:8.0%), 합치면 70-80%는 넘는 사람들이 한류가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회답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회답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으며,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는 회답이었다.

이 질문에 영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기술식으로 회답을 요구한 결과,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생겼거나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A:29.0%, B:24.0%), 그 외에 '상호간의 인적,

물적 교류, 정보 교류가 늘어났다'(A:21.0%, B:12.0%), '한국이라는 나라나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A:16.1%, B:4.0%),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A:9.7%, B:8.0%), '경제 효과를 낳았다'(A:3.2%, B:4.0%) 등의 회답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대학생들은 한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받지는 않았으나 주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으며, 한류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친근감, 또는 이해가 어느 정도 증진되어 결과적으로 한류는 비교적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설문조사는 상기 여론조사 결과와 판이한 결론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기 여론조사는 한류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와 야스쿠니신사 문제 등 한류 이후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 전체적인 인상을 묻은 것이며, 본 설문조사는 오직 한류에 대해서만 묻은 것이며, 한국 자체를 좋아하는지의 여부를 묻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같은 사람이 질문을 받더라도, 한류가 대체로 좋은 영향을 주기는 했으나 그 후의 여러 가지 기분이 좋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가깝게 느끼게 된 다음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오히려 배신감과 같은 것을 느껴 더 싫어하게 되었다고 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 논의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만큼 문제도 많고 서로의 다양한 면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따라서 하나의 현상을 보는 데도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관여하여 단순한 가치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4. 일본 한류의 배경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자들이 논의해 왔지만, 한류가 받아들여지기에 이르는 최근 수십 년 간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치밀하고 명쾌하게 분석한 것이 오구라(2005)이다. 그에 따르면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⁷⁾ 동안에 일본이 경제적 정치·외교적 문화적 침체 상태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주체화'⁸⁾를 모색하고 있던 1990년대 말, 그동안에 놀라운 변화를 거쳐 이들 많은 분야에서 배울 만한 것을 갖추게 된 한국을 일본 사람들이 유심히 쳐다보게 되는 데, 이를 '룩 코리아'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상 세 번째 룩 코리아로, 첫 번째는 5, 6세기의 정치 체제와 학문 문화의 도입시기에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16, 17세기의 주자학적 정치체제 도입시기에 이루어졌으며, 20세기 말에서 21세에

7) 일본에서 1990년대 초에 버블경제가 붕괴되어 그로부터 약 10년 동안 장기 불경기와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른다.

8) '주체화'는 오구라(2005)의 키워드로, 70년대 후반 일본 종래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그후 맞이하게 된 포스트모던 사회는 이미 퇴색하였으며, 20세기 말을 즈음하여 일본이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

결쳐 일어난 세 번째 록 코리아의 문맥 속에서 일본의 한류는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세가와(2006)에서는 2000년대 초에 한국어 학습자의 폭발적인 증가 요인을 분석하면서, 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한국 붐 등을 계기로, 90년대에 들어서 한일간의 지역간 및 민간 교류의 활성화, 같은 시기 경제적 침체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일본과 IMF 관리체제를 급속히 극복해 갔던 한국의 대조를 통한 한국의 위상 향상, 그리고 월드컵을 전후하여 한일교류 행사의 활성화가 이어지면서 일본인의 한국에 관한 지식·정보·체험의 축적이 증진되어, 그 결과 80년대 전반까지의 한국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인 가치관이 대역전을 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한류는 일본 사회에 한국 대중문화 및 가치관이 수용될 소지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워낙 지정학적으로 꿇을래야 꿇을 수 없는 가까운 관계이다 보니,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어떤 긍정적 요소로 해소된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다른 요소 때문에 되살아나기도 하는 예민한 관계이기도 한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일관계의 시계추가 한류 이후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 좋지 않은 쪽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한류는 이를 좋은 쪽으로 크게 흔들게 만들었던 중요한 요소였고 결코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5. 마무리

본 발표자가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지 30여 년, 한국어 교육에 종사한 지 20년이 되지만 좋은 의미로건 나쁜 의미로건 일본사람들이 지금만큼 한국에 대해 알고 의식하게 된 시기는 없었다. 한국에 관한 것들은 몇 년 전과 비교해도 놀랄 만큼 흔해져서, 누구나 자기 주변을 둘러보면 한국에 관한 것이 사람이건 음식이건 글이건 간에 하나쯤은 금방 눈에 띄게 되었고, 그것이 어찌다 한 번씩은 재미있거나 맛있거나 멋있다고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붐으로서의 한류는 이미 화제가 되지도 않게 되었지만 무엇이든 흔하고 당연한 것은 화제가 되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언론들은 ‘한류는 끝났다’는 식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한류의 잉여적이고 지나치던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고 알맹이는 정착되고 일상화된 것이다. 많이 그리고 깊이 알게 됨으로써 싫은 부분도 눈에 띄게 되었지만 어쨌거나 일본사람들이 한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옛날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한국에 대해 은근히 싫은 기색을 보이거나 내놓고 욕을 하곤 했다. 그

러한 가정 내의 분위기와 언동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재생산하고 있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어떤 여대생이 대학의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려고 했더니 부모가 결사 반대를 하여 결국 한국어 이수를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가정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어떨 때는 동경 어린 눈까지 갖게 됨으로써, 가정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재생산은 끊긴 셈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가가 심혈을 기울여 이루려고 했던 한일 간의 우호 촉진을 '겨울연가'라는 한 편의 드라마가 이루고 말았다고 말했다지만 한일 간의 이해와 우호 촉진은 한류를 통해 틀림없이 증진되었으며, 각종 현안 문제들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싶은 점도 눈에 띄게 되었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관한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한일 간에는 여러 모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으나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나라를 서로 더 가깝게 만든 것이 바로 한류가 남긴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하세가와 유키코(2006), '일본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한국 대학과의 연계성', "한국어 교육연구" 제1호, pp.75-101,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연구소.
- 小倉紀藏(2005), "韓流インパクト ルック코리아と日本の主體化", 講談社.
- 城西國際大學 젠더女性學研究所 編(2006), "ジェンダーで讀む<韓流>文化の現在", 現代書館.
- 山野車輪(2005), "マンガ嫌韓流", 晋遊舎.

<일본의 한류: 한류가 남긴 것>에 대한 토론

최 권 진
(경희대학교)

이 발표문은 일본에서의 한류의 발생 배경과 진행 상황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저에게 간결하면서 함축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이 제시하고 있듯이, 발표자께서는 일본에서 한류가 절정의 단계를 이미 넘어선 상태에서 그 한류가 현재 일본 사회에 남긴 영향과 그 존재 양상에 대해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일본의 한류 붐은 NHK에서 방영된 '겨울 연가'로 촉발되어 중년층 주부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어서 방영된 '대장금'을 통해 한류를 즐기는 대상자가 온 가족으로 그 층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한류는 일본이 경제적, 정치·외교적, 문화적 침체 상태에 있을 때 한국을 보고 활력을 찾으려고 하는 '룩 코리아(Look Korea)'현상의 연속으로, 20세기 말에서 21세에 걸쳐 일어난 세 번째 룩 코리아의 문맥 속에서 현재의 한류가 이해되고 설명되어야 한다는 데는 한국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그렇다면 제4, 제5의 '룩 코리아'가 장래 일본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한국 사회가 일본 사람과 사회에 무언가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창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류의 붐에 대한 역작용으로 혐한류의 존재도 언급하셨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은 사회의 발전 과정에 전개되는 당연한 현상으로 부정적인 시각은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의 발전에 자극이 되는 것으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혐한류의 존재가 한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류에 대한 의식 조사를 통해서도 일본 대학생들의 주체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류의 붐으로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는 보지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단순히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일본의 본류(정신)는 지키면서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전형적인 일본 방식의 연장선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본을 포함하여 외국에서 지속적으로 한류의 열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산물을 꾸준히 생산하여 신선한 아이디어와 심미감을 외국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꾸준히 구축하는 것이 한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어,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동기를 유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한류에 대한 유익한 발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트남에서 한류의 영향력과 미래

Le Dang Hoan
(Hanoi National University)

I. 머리말

“한국”이란 이름이 베트남사람에게 알려진 것은 1992년에 베트남과 한국이 정식 수교 관계를 설립한 후의 일이다. 그 전에는 베트남 사람에게 한국은 “남조선”(Nam trieu tien)이라고 알았다. 지금까지 15년 이 지나면서 베트남 전국에서 “한국”이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베트남과 한국 친선 관계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희한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원인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두 나라의 민족적 특성이다. 여기서는 국가 역사 유사성, 전통 문화 공통점, 사고의 비슷한 방식 등이다. 그렇지만 유사점 이외에 두 나라사이에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민족성도 있다. 그것이 바로 매 민족의 존재한 무형과 유형 재산이라고 본다. 그에서 벗어나면 민족의 자기 존재도 힘들다고 한다.

“한류”라는 현상이 베트남에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할 사람도 있긴 있지만 아직 총괄적인 결론이 없다고 본다. 한류는 드라마로 본 사람이 1997년부터 베트남에서 “내사랑 유미”라는 드라마를 반영할 때부터 시작했다는 사람이 있다. 어느 사람이 “베트남의 한류와 정약용”에서 호치민이 살아 있을때 시작되었던 한류 도 주장했다. 이는 호치민-베트남의 주석이 “그의 머리말에 언제나 한권의 책을 두고 읽고 있었다”고 했고 그 책이 바로 다산 정약용이 쓰신 ‘목민심서’ 책이라고 한다. 그의 관점에는 “베트남의 한류는 어느 특정 현대 코리안 탈렌트에 의해서 시작된것이 아니라 ‘목민심서’에서 한국문화와 전통의 그 깊고 심원한 한류의 흐름을 읽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호치민 주석이 ‘목민심서’를 읽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아직 없지만 베트남 한류에대한 그런 관점이 있다는 참고로 할수 있다.

또한 투자 진출기업 LG드봉에서 ‘모델’의 주인공인 김남주를 모델로 사용하여 장동건과 함께 LG 드봉은 한때 화장품 시장 점유율 70%를 기록하기도 해서 세계적인 한류의 물결은 베트남에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보면 “베트남의 한류”라는 관념이 아직 매 사람이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한가지 결국 말할 수 있는 것이 베트남에서 한류 열풍이 흐르고 있다. 이 흐름을 잘 키우고 발전시키면 양국의 문화뿐이 아니라 각 관계 협력 분야에서 촉진 되고 경제- 사회 발전에서 큰 기여로 된다.

2. 베트남에서 한류에대한 침입과 발전

여기서 한류이란 개념을 정해야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류의 정의에서는 “한류란, 한국문화와 문화 상품의 글로벌 진출”이라고 한다. 이에따라 한류는 한국 드라마도 아니라 문화 상품의 글로벌진출인 현상만을 보면 안된다. 드라마는 한류의 이전 방식으로 보야한다. 그외에는 한국 음악, 유행, 관광 game online..등이 한류의 이전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정의에 보면 한류는 문화 사업 (전통적인 예술과 문화 공동체 성격을 띤 문화의 사업)과 문화 산업(문화를 상품화 하여 소비자에게 생산.유통을 하는 소비재)을 포함한다.

2.1 한국 드라마로 이전된 한류

드라마로 보면 베트남에서 한류 열풍이 1997년부터 흐려왔다. 첫 물꼬를 튼 건 KSB의 “느낌”, 한국대사관이 베트남 현지 방송국에 한국 문화 소개 차원에서 무상 제공했다. 그뒤에 “내 사랑 유미”, “금전화”, “의가형제”, “대장금”, “유리구두” ...수 많은 드라마와 영화로 한류 열풍이 날이 갈수록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 현재 베트남에서는 중앙방송국, 하노이 방송국, 호치민 방송국과 각지방의 방송국.. 등을 통해서 매일 수십이상의 한국 드라마 반영되고 영화극장에서 한국 영화도 매일 반영되고 있다. 현대까지 한국드라마가 얼마 소개 했는지 조사 안 했지만 조사해도 힘든것같아서 가장 대표적인 드라마만 선택하면 다음표에 나타난다.

표. 베트남에서 지난 동안 방영된 대표적인 한국 드라마 이름

순번	국문	현지어
1	가을동화	Trái tim mùa thu
2	겨울연가	Bản tình ca mùa đông
4	낭랑 18세	Cô dâu nhỏ xinh
5	내 이름은 김삼순	Tên tôi là Kim Sam Sun
6	다모	Nữ kiếm khách
7	대장금	Nàng De Jang Kum
8	두번째 프로포즈	Lời cầu hôn thứ hai
9	명랑소녀 성공기	Cô gái trong sáng
10	명성황후	Hoang hau cuoi cung

순번	국문	현지어
11	변호사들	Luật sư
12	불새	Chim lửa
13	사랑이 뭐길래	Tình yêu là gì
14	상두야 학교가자	Sangdo à, đến trường thôi
15	아름다운 날들	Những ngày đẹp
16	여름향기	Hương mùa hè
17	유리구두	Giày thủy tinh
18	이브의 모든 것	Tình yêu trong sáng
19	인어아가씨	Nàng tiên cá
20	저 푸른 초원 위에	Thảo nguyên xanh
21	질투	Ghen
22	천국의 계단	Nấc thang lên thiên đàng
23	첫사랑	Mối tình đầu
24	파리의 연인	Chuyện tình Paris
25	패션 70's	Thời trang thập niên 70
26	폴하우스	Ngôi nhà hạnh phúc
27	해신	Hải thần
28	허준	Thần y Hur Joon
29	호텔리어	Khách sạn
30	황진이	Nàng Hwang Jin I
31	원더풀 라이프	Mối tình đầu
32	궁	Hoàng cung
33	백만송이 장미	Triệu đóa hồng
34	미안하다 사랑한다.	Xin lỗi anh yêu em
35	노란 손수건	Chiếc khăn tay màu vàng

그런 상황으로 베트남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보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사람이 한국영화와 한국 드라마를 매우 좋아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 드라마는 베트남 드라마에 없는 반전이 있고 순식간에 드라마 흐름을 바꿔버리는 반전을 통해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흥분하게 만든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드라마 내용에는 가족을 중시하고 유교적 가치관을 존중하는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사고방식이 비슷하다.또 베트남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이 아름답도 한국인이 예쁘고, 한국인의 생활 양식이 베트남과 똑 같다. 이외에는 한국드라마 주인공의 외모가 세련되고 배경 음악과 연출이 조화된다.

베트남 드라마와 비교하면 베트남 드라마 내용이 아직 간단하고 대개 농촌물이 아니면 전쟁 역사물이어서 현대 생활에 어울리지 못하고 연기자들의 연기력이 부족하고 제작 기술도 아직 현대적이 아니다.

2.2 한국 음악, 체육과 예술 공연 방식으로 한류열풍 이전

한국 음악은 1998년부터 아시아 나라에서 널리 알려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국 음악 시장이 중국 음악 시장 뒤에만 위치를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음악 팀 “Rain”, “BoA”, “Seven”,...유명하고 이외에 한국에 있는 RAP,HIP Hop, Rock, R&B 음악 흐름도 발달하고 있다.

이런 음악 흐름이 한류 열풍 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한국체육 - 운동도 한류 방식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유명한 Taekwondo는 세계 운동으로 되고 전 세계의50국가에 잇는 50.000.000명이 이 운동에 참석하고 있다.

2002년 한국에 진행된 축구 wordcup는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한 층 더 올랐다.

베트남에서는 한국 음악, 예술단이 한-베트남 수교 1주년, 5주년, 10주년, 12주, 14주 등 맞아 베트남을 방문하고 체육, 예술 행사가 열렸다. 베트남 예술단과 문화 단도 한국에 가서 공연하거나 문화 festival에 참석했다.

한국의 미술 작품이 베트남에서 수차례 전시되었고 자매 연결을 맺고 있고 ,한국과 베트남 문학 협회가 서로 방문하고 문학 선전에 대한 활동을 벌리고 있다.

2.3 관광 활동

한류와 관광은 서로 친족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류 열풍의 효과로 관광이 발전 되고 반대로 관광은 한류 이전의 방식이 된다.

한국 관광-문화부의 조사 결과에의하면 2004년에 한국에 국제 관광객이 5.820.000 명이고 (2003년보다 22.4% 증가) 주로 일본, 중국, 대만, 미국... 등 사람이다. 증가 이유는 바로 한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다. 그대신에 한국손님이 베트남에 년간 수 십 만명이 관광으로 와서 베트남 사람에게 한국 문화, 경제, 생활 습관...을 선전하고 한류 열풍이 더 활발하게 된다. 현재 베트남에 여행 온 세계 관광 손님중에서 한국 관광손님이 5등으로 되고 매년 평균 30% 증가한다.

3. 베트남에서 한류열풍의 작용

3.1 베트남 사람의 한국에대한 이해 증가

1992년전이나 1995년까지 베트남 사람의 눈에는 한국과 한국 사람이 지금과 같이 친선한 마음이 아니다 . 이유는 한국 군대는 베트남 전쟁 시기에 미국의 편에서서 참전했고 한국이 사회주의 나라가 아니고 베트남에 있는 한국 투자 기업에

서 지도자와 근로자간의 이해관계가 좋지 않고 지도자가 근로자를 욕하고 때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이유로 베트남이 한국사람에 대한 감정이 그리 좋지않는 점이 존재 했다 .

현재 한국과 베트남 사이 관계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양국의 외교, 문화, 경제,사회 관계는 세계적인 모범 관계로 볼 수 있다. 베트남 사람이 현재 한국에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아지고 한국사람을 만나면 웃음으로 인사하고 친근한 친구나 오래 보고 싶은 친구로 본다.

현재 어느 베트남 사람에게 ‘한국과 한국사람에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질문을 내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수 있다 : “한국은 아시아중에서 경제 발전한 나라(아시아의 용이라고도 한다)이고 김치와 예쁜 여예인과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는 나라이다”. 또한 전쟁에 참전한 한국사람에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답변이 다음과 같다 : “과거이면 과거이고 한국사람도 참전하고 싶지않고 현재 서로 도와주고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 전 참전과 그 과정에서 잘 못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말하셨고 한국 정부과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에서 일부분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양국 정부과 국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같은 마음으로 협력관계를 세운다.

그중에서 한류열풍의 역할이 작지않다고 본다. 바로 한국의 드라마, 영화, 문화산품을 통해서 한국 나라와 한국 사람의 마음과 사고 방식을 이해하고 동감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사람이나 국가간의 서로 이해하고 동감성이 있다면 어느 장애 벽도 극복 할 수 있다.

3.2 한류 열풍의 경제에 대한 관점:

여기에 경제이란 개념이 간접적인 경제 효과이다 . 즉 한류열풍이 각종 한국 제품의 판매,수출에 지대한 도움을 주어서 드라마나 영화 주인공들을 모방하는 헤어스타일이 유행할 뿐만아니라 의류 신변 잡화, 전자 제품, 음식, 약품까지 등...잘 팔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류열풍의 방식인 드라마 자체 팔매력도 높아지고 가격도 높아진다.

몇가지만 예를 들어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에서의 한류와 더불어 남한 LG 그룹의 에어컨과 화장품이 베트남에서 시장점유율이 1위를 달리고 있고 LG는 “대장금”의 여주인공 이영애씨를 내세워 판매를 더욱 늘릴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년 LG 상품 팔매는 6-7%씩 급성장하고 LG는 한류 판매 전략 확대를 통해서 1위등 판매 자리를 유지하고 베트남에서

이미 거대기업으로 유명하다. 이 기업은 2005년에 베트남 시장 매출은 1억5천만 달러였고 2006년에 2억 달러 금년에(2007년)3억 달러로 늘어날것으로 기대하고 2010년에 5억달러를 달성할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S폰이라는 새로운 손전화를 출범시킨 남한의 SKT가 가입자 50만명을 돌파한 기념식을 마련했다. 기념식을 한국-베트남 인기가수 공연대회로 진행했다. 이 공연이 한류의 열풍이 어떻게 매력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공연 시작 45시간 전 오후 2시부터 운동장앞에 나와 한 장에 50만 동(약 3만원)이나 암표를 구매하려고해도 못하고 운동장으로 통하는 도로가 막혀 인근 공항으로 가는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주최측이 1000여명의 사설경비원과 경찰을 동원해 사고 없이 공연을 마쳤다.

베트남 사람이 동약을 매우 좋아한다. 한국에 간 기회가 있으면 인삼 제품과 영지 버섯 제품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 간 사람이 사는것뿐만 아니라 가 지않는 사람도 사달라고 한다. "대장금", "허준"을 베트남 TV에 반영한후에 인삼과 영지 버섯 제품외에 한국제 "동충하초", "유황원"... 등 한국 한약을 더 좋아 한다. 그러므로 베트남 사람에대해서 "동대문 시장", "경동 시장", "남대문 시장"이 매우 유명된다.

베트남에서 한국산 "웰빙"상품, 즉 삶의 질을 높이는 고급상품이 인기를 끌며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현지에서 개최 된 베트남 엑스포에서 홍삼비노,숯배개 등 한국산 웰빙 제품 수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엑스포에는 한국 기업63개사가 참가해1천7백 만

달러의 수출 계약 실적을 올렸다. 주된 계약 상품이 홍삼 제품 외에 산양삼,다이어트용 생식품 등이 비교적 값이 비싼 웰빙 제품들다. 이 제품이 인기를 누린것은 역시 한류 영향이라고 한다.

3.3 베트남 문화에대한 한류 영향

한국과 베트남이 중국문화 권 구역으로 문화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베트남이 한국과 다른 것이 100여년 동안 불란스 식민지로서 구라파 문화 영향도 적지 않다.

-한류열풍으로 한국에있는 풍습, 예절, 습관이 다라마로 이전되고 베트남 사람에게서 사라질뿐한 좋은 예절 ,풍습이 다시 생각이 난다. 예를 들어면 부모님 ,어른 앞에 큰 소리를 치지못하는 예절 어른에게 인사 방식

-베트남 청소년에 나타나는 외모 문화 영향:

이는 한류열풍이 흘러올때부터 베트남 아가씨들이 한국 연예인의 의복이나 헤어스타일이나 화장 사용 습관이 변화되었다. 즉 한국 연예인을 본떠 여성들은

염색과 파마로 머리를 치장했고 남성들은 짧게 자른 머리에 무스를 바르기 시작했다.

이 전에는 “한복”이란 단어는 아직 모르지만 요즘에 “대장금”을 보고 사진관에서 “한복”을 마련해서 한복으로 사진을 찍은 사람이 늘어 난다. 특히 녀 소년(인민학교 학생)들이 “어린 대장금”, “한복”을 입고 싶어서 기회가 있으면 부모님께 사달라고 요구 한다.

-시장 경제 경쟁 문화에대한 관점 변화:

사회주의인 베트남에는 시장 경쟁이라는 개념이 1995년 전에 거의 없었다.

요즘에 시장 경제에 넘어가고 시장경쟁이란 개념이 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는 “사회주의 경쟁”이라는 명칭으로 한국과 같이 모든 수단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경제-시장경쟁에 대한 개념이 더 인식해서 “한국 시장경제 경쟁이 그렇다”해서 나쁜 경쟁 방법을 피하고 좋은 경쟁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

3.4 한류 영향으로 베트남 국제결혼과 한국어 관심

최근에 베트남 녀자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현상이 바로 베트남의 한류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1년에 134건에 불과했던 베트남 녀성 한국 남성과의 결혼은 2005년에는 5,800여건이 정식적인 수치이고 수세가 더 급하게 증가할다고 본다.

그리고 요즘에 한류에 의해서 한국어 미지가 높아지고 베트남에서 한국어 관심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사람과 접촉해서 이야기하거나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가서 근로자로 가고 유학도 희망한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한 결과와 공부한 지속성이 있는지 아직 조사 못하지만 현상만 보면 그 현상도 한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 베트남에서 한류열풍에 대한 평가

이상 내용이 한류열풍의 발전과 좋은 영향을 보여주었고 한국사람이라 베트남 사람이 한류열풍에 대해서 “전통적인 예술과 문화 공동체” 성격을 띤 문화의 사업)과 문화 산업(문화를 상품화 하여 소비자에게 생산, 유통을 하는 소비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한국 드라마만 보도 “전통적인 예술 문화...”만 아니라 현대 서구에서 한국에 수입 문화까지도 나타난다.

“한복”, “김치”, “한약”, “민족 음악, 가곡”...는 전통문화로 볼 수 있지만 요즘

에 한국 가수나 연예인의 의복과 화장 방법이 전통 문화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류에서 나타난 문화 내용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1 한국 전통 문화의 한류

베트남 사람이 한국과 한국 사람으로부터 유사한 문화에 대해서 자기의 문화로 받아 즐긴다.

한국 드라마에 있는 베트남 전통문화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면 : “아, 한국이 베트남과 같다”, “우리는 한국보다 전통문화를 못지킨다”, “베트남 젊은이들이 한국 젊은이 과같이 옛날의 예절을 지켜 야한다”

예를 들면 한국드라마에서 나온 아들이 부모님을 보러 고향에 갈때 부모님앞에 몸을 꾸부림으로 인사한 모습, 대가족 생활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서로 관심하는 습관 친사람이나 이웃 사람이 병이 있거나 입원할때 서로 문안하고 도와주는 생활 모습..등이 베트남사람에게 감동을 시키고 동감을 시킨다.

즉 한국전통문화는 베트남사람에게 보여주면 베트남 사람이 자기의 전통문화를 생각하고 그 좋은 전통을 지켜야한 마음을 일여키고 발전한다.

4.2 서구에서 수입한 한국문화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문화중에서 적지 않는 내용이 한국 전통문화가 아니라 서구문화에서 수입한문화이다.

지금 한국 아까씨의 헤어스타일과 화장 방식이 한국 전통 문화부터 헤어스틸인지 서구에서 수입 산품인지, 혹은 생산자들이 광고 하기 위한 스타일이 구분하기가 힘들것 같다. 그러나 그런 “문화”가 젊은이들에게 빨리 배우주고 있다. 오늘 밤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새로운 의복이나 헤어스타일이 있으면 내일 하노이 거리에서 같은 모양으로 “copy”이 있다.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나온 내용이 “mafia”나 “우두 면마”(머리는 물소이지만 얼굴이 말이다_ 위험한 사람) dITek 크롭 과 “강도”크롭이 한국사회에서 혼란하게 행동하고 있다. 실재는 실재이지만 어느 경우에 너무 하면 하국 사회 안전성에 대한 믿음성이 감소된다. 이런 문화도 한국 전통문화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상 말한바와같이 시장경제-자본경제에는 경쟁이 매우 심해서 “큰 고기는 적은 고기를 먹는 다”이라는 현상이 많은 한국 다라마에서 나온다. 한 회사가 장성기위해서 다른회사를 파손할 수있도록 경쟁한 문화가 아마 한국의 고전 문화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한국에서 “공업문화”이란 운동이 오래부터 시작했고 한국경제 발

전에서 서로 협력한 문화도 매우 발전하고 국가적인 입장도 좋은 “문화”이라고 인정한다.

이런 한류의 내용을 통해서 시장경제가 얼마 동안 시작된 베트남이 한국의 경험을 배워서 “공업문화”를 격려했고 건전한 경제 경쟁을 수립해야한다.

4.3 남녀 사랑에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하지않으면 부족하다는 것이 한국 드라마에서 남녀 사랑이다.

어느 나라 사람이나 남녀사랑이라는 주제가 무궁무한이다.

사랑이란 두사람만 만들수있는것이다.

한국 다라마에서 나온 남녀 사랑은 일반적으로 보면 재미있고 인문성이 많다고 한다. “일부일처”제도인 베트남 사람이 충성하고 손직하고 순정한 여성적인 한국 남녀 사랑에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과 달리 남녀 사랑에서 한국 아까씨가 베트남 아까시보다 더 주동적이고 이녀-일남이나 반대한 “겹 사랑”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그런 상황에 일-일로 해결 하기위해서 세 명 중에서 한 사람이 암병이나, 교통사고나 뜻박에 일어난 일로 죽는다. 이는 한 번만 드라마에 있으면 이해할 수있지만 많은 드라마에서 반복해서 귀찮는 인상도 가져온다.

베트남 영화나 드라마에는 남녀 사랑 내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 같은 상황이지만 베트남영화는 한국영화보다 상황이 아직 간단하고 연예인의 표현도 아직 자연스럽게 못한다. 그리고 베트남 남녀 사랑 배경이 농촌, 전쟁이나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사랑만 다양성이없고 반대로 한국 남녀사랑이 거의 공업 화 사회에서 일어나기때문에 복잡성과 매력성이 더 높고 흥미가 많다고 본다.

5. 한류는 베트남에서 결과와 전망

한국 사람이 한류의 목적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가에 대해서 먼저 보야한다. 이 사항에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제기했는데 기본적인 정리한 목적이 다음과 같다:

- 한류를 통해서 한국 이미지를 증상시킨것,
- 한류를 통해서 세계 각나라간의 “진정한 문화교류와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교류하는 진정한 인간끼리의 교류를 발전 할것”
- 한류는 하나의 유행이아니라 상업주의에 연결시키는것도 바람직하지않는것이다. 이는 한류열풍으로 대중문화를 정착하면 경제적인 효과는 저절로 따라 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한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한가지 긍정할 수 있는 것은 한류 열풍으로 흘러오는 한국 전통문화는 베트남 문화에 일정한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두가지 이다 .첫째로 베트남 전통문화와 한국 전통문화가 유사한 내용에대해서 한류열풍으로 서로 이해하고 그 문화를 지킬수있도록 지원한다는것이고 둘째는 베트남에 아직 없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점차적으로 흡수할것인데 이는 예를 들어면 음식 문화,특히 “김치 문화”에대해서 베트남 사람에게 많이 알려지고 “김치”, “인삼”...이란 말은 거의 다 알고 있다. 화장 문화나 의복 문화에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외에는 현재 베트남에서 최근 한국과의 드라마 제작에 협력 방안을 하고 있다. 2005년 9월에 하노이와 하롱바이에서 진행된 SBS “하노이 신부” 제작팀의 짧은 컷의 드라마 촬영과정을 미치 영화를 제작하듯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프로다운 모습으로 촬영 과정을 보여준 제작 현장역시 “한국 드라마 제작 방식”에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상 결과를 보면 한류 열풍이 베트남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한류에대한 영향을 과언로 평가하면 오해가 될수 있다.

어느 기자가 “요즘은 한국소식이 없면 잡지도 안 팔린 정도이다” 또 “한류가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미친 영향은 젊은이들의 와모뿐만아니다. 유교적 기치관과 공산주의 특유의 폐쇄성에 갇잡해하던 베트남 청년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접한 자유로운 사고 방식과 생활양식에 해방감을 느끼기까지 한다.”(여기서 자유란 개념이 “한국 보통 여성들이 술도 자유롭게 마시고 담배도 피우느냐”)라고 한 평가는 과언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평가는 바로 베트남 사람과 베트남 문화를 아직 잘 연구하지않고 자기의 좁은 견해에의한 평가이다.

여기서는 호치민시에 있는 45년동안 방송사업을 하고있는 회사의 기자의 인터뷰 답변(호치민 TV를 통해서)의 내용을 보면 이해 할 수 있다 :

“베트남에서 장동건씨를 출발점으로 ,김남주씨,안재욱씨,그리고 최근에 소지섭, 김현주씨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한국 스타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사람 이외에도 일본과 대만,홍콩,헐리우드의 스타 들 또한 좋아합니다. 최근 들어 한국 스타들의 인기가 더욱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베트남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류는 일본류,홍콩류,헐리우드류와 더불어 여러 “류“중의 하나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한류가 좀 썩긴 하지만요..”

“한류라고 부를 만 한 어떤 흐름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과대포장되어서 곤란하고 뽀니다”..

이상 글을 보면 알수있지만 정말 베트남의 “류”역사에는 1990년전에 “소련 류”를 비롯한 사회주의 “류”,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류”는 베트남에 많이 흘러왔다.

그러나 사회주의 세계가 변경한후에 강한 “소련류”라도 약해지고 있다.

1990년전에 베트남 학생이라면 로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수 있지만 현재는 로어를 영어로 대신하고 있다.

그러면 한류 열풍을 베트남에서 지속 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기된다

- 한류 열풍 방식인 드라마나 영화나 다른 수단 목적을 잘 선정해서 그 방식의 내용을 잘 선택해야 한다. 한국 드라마는 베트남에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한국 문화-관광부나 한국정부의 전략적인 대책으로 선택해서 진행하고 있는가 혹은 각 회사가 자기 회사의 목적으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있는것대로 베트남에 수출하는가에대해서 정리해야 한다. 여기서 량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량이 많아서 질이 나쁘면 한류에 반대 효과를 가져온다.
- 한류열풍을 유지하기위해서 TV에나 극장에만 드라마,영화만 하는것이 아직 부족하다. 베트남-한국 드라마-영화 협력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정부-기업- 민간 열결을 확립해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 할 것이 필요하다.
- 베트남에대한 한류 열풍을 위지하기위해서 경제적인 목적만 생각 말고 가격까지 적당하게 해서 함부로 선전하지말고 베트남에 있는 선전 자격이 있는 중요한 문화 기관을 통해서 해야한다. 중간 기간을 통하면 오래가 생길 수 있다.
- 베트남 사람이 한국 축구팀을 좋아하는것 만큼 한국 여예인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한국 여예인이 베트남 팬을 만난 기회를 마련할 것도 좋은 활동이라고 본다.

6. 결론

한 민족의 문화가 다른 민족 문화에 흡수하는 것은 그 문화의 본질에 의존한다.

“진정한 한류는 천천히 외국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즐거움이란 코트로 다가가 그들의 문화로 다시금 태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다.그렇다면 한국의 아름다움과 진정한 멋이 그들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향상되며 있는것이고 그들은 어릴때부터 한국의 상품이나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수 있는것이다.”(조성룡) 여기서 “ 자연 스럽게”이라는 방식을 강조해야한다. 문화이라는 것이 오래동안 걸려야 형성된 것이다 . 몇 년동안만 가지고 “신 문화를 형성 됐다” 하면 함부한 결론이다.

그러므로 한류 열풍이 베트남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얼마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한류의 본질에 의존한다. 그리고 한류의 목적이 한국문화를 다른 나라에 수출한 것보다 한국 문화에대한 이해와 그 나라에 한국문화가 적당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흡수될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야한다.

우리는 외국에 가면 그 나라 사람이 우리에게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문화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지도 관심한다. 베트남 사람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기본과제는 그 관심을 유지하고 한국-베트남 친선 관계를 지속 적으로 발전하고 양국이 서로 경제-사회, 문화-과학, 정치-외교 관계 등..에서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한다.

베트남에서 한류 열풍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위해서 이상 언급된 한국 전략적인 프로그램에 맞게 진행해야하고 량보다 드라마 질을 향상시켜야하고 베트남-한국 문화 교류 협력을 형성시키고 연예인과 베트남 팬 교류를 정기 조직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이장군 -“세계로 부는 한류 열풍” 주간 기획 (2005-05-15)
- 2/허원모/LG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 한류 마케팅/ 한류, 이제는 마케팅에 활용하자.
- 3/박용준 (하노이 기자) -“아시아 한류열풍 “코리안키드“베트남 변화를 주도다”
- 4/Ha Ngoc Thuy “ 요즘 밤마다 대장금에 열광 다양한 한국문화 알고 싶다”
- 5/ 최명용 :“LG전자 “베트남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기업”
- 6/ 권형태 :“패션유행.방송시간”이 베트남에서 한류가 인기있...
- 7/권형태 :“베트남,드라마제작서도 한국 배우기 열풍”
- 8/ Thieu Ngan : “연합 인터뷰”(베트남의 한류열풍)
- 9/http://www.knnews.co.kr : “무질서한 베트남 국제결혼..”한류에 찬물“우려
- 10/ NAVER 블로그 (Internet) : “베트남의 한류와 정약용”(2004-1-15)
“베트남의 한류”(2006-5-30)
“베트남의 한류 따라잡기” (2005-12-5)
“한류의 실태와 방향 ”(2005-11-17)
- 11/Nguyen Thi Thu Hoa : “Hallyu”(Viet Nam- Han Quoc: Moi quan he doi tac toan dien trong the ky) Hanoi 2005-12.
- 12/ Nguyen Hoang Linh : “Han Quoc nang dong- lan song Han Quoc (”)
- 13/ Tu Thanh Phong : “ Lan song Han Quoc ,su lan toa va cong huong tu phim truyen hinh.
- 14/Nguyen Huong Tra : “Lan song Han Quoc, Hien tuong van hoa nhung nam dau the ky 21.
- 15/ Pham Thi Tuyet : “ Dien anh Han Quoc voi Hallyu o Vietnam
- 16/ tran Dinh Chien : “Han Quoc nang dong va trao luu lan song Han Quoc (”)

<베트남에서 한류의 영향력과 미래>에 대한 토론

Ly Kinh Hien

(Hochiminh National University)

Le Dang Hoan박사님의 발표문은 내용이 풍부하고 한류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고찰, 분석 및 평가를 하셨다. 물론 오차가 좀 많지만 발표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제 생각에는 한류란 주로 영화, 드라마, 음악이 포함되고 경제나 관광 같은 분야는 한류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류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시작했을까?

한류(韓流)란 맨 처음에 중국에서 나왔는데 한국 대중 문화 요소들을 좋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실 처음에 이 말은 20세기의 90년대 중엽에 중국과 대만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중국 인민일보의 한 기자가 이런 현상에 대한 글에서도 한류뿐만 아니라 “한풍”(韓風)이라는 말도 사용했다.

이후 한류이란 말은 대체적으로 한국 문화의 팽창을 보편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그 이외는 이 말은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각국과 영토에서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한국민요(Korea Pop), 게임, 패션 등 다른 한국 문화 요소들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아마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1998년 여름부터 베트남에 있는 영화 신문이나 잡지들에 한국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연예인이나 감독(연출)에 대한 대부분의 글을 써 주었다. 그래서 제가 한류가 베트남에서 시작한 시점을 실감했다.

1. 베트남에서 한류의 형성과 발전 과정

처음으로 베트남에 유입하고 발전해 오던 한국 대중문화 요소는 바로 한국 드라마다. 1997년에 KBS의 “느낌”(Xuc cam)은 한 달 동안(1주일에 2번씩) 호치민시 방송국(HTV)에서 방영되었는데 그때 시청자의 주목을 거의 못 받았다. 그 다음엔 SBS의 “금잔화”(Hoa cuc vang)는 1997년에도 베트남 공중에게 소개되었다. 1998년에 들어와서 “내 사랑 유미”(Yumi-Tinh yeu cua toi), “아들과 딸”(Con trai & con gai), “의가형제”(Anh em nha bac si) 등은 베트남 중앙 방송국(VTV)을 통해서 전국으로 방영되었다.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베트남 시청자의 열렬한 인기 따라 1998년부터 1999년까지 계속적으로 “첫사랑”(Moi tinh dau), “별은 내 가슴에”(Uoc mo vuon toi ngoi sao), “형제”(Anh em), “에스터이데이”(Ngay hom

qua) 등이 방영되었다. 통계에 따라 1997년말부터 1999년 5월까지 베트남에서 소개한 한국 드라마 수는 14편 정도였다.

그 중에는 MBC의 “의가형제”는 가장 인기있는 영화였다. HTV에서 처음으로 방영된 다음에 Ha Noi방송국, Da Nang방송국 그리고 VTV3에서도 방영되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장동건 씨와 이영애 씨는 베트남에서 폭발처럼 인기 많았다. 특히 남주인공인 장동건 씨는 베트남 여성의 특별한 선호를 받아서 “대중의 배우”(dien vien cua cong chung)라고 불렸다. 게다가 장동건 씨가 미남이라서 베트남 여성이 아주 좋아한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때 장동건 씨는 한국에서 아직 모른 사람이 많았지만 베트남에서 삼시간에 인기있는 스타(star)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정말 보기 드물다고 생각한다. 1999년에 장동건 씨가 미국 Unilever의 후원으로 HTV의 초청을 받고 베트남 호치민시에 와서 공연했다. 이 공연이 한국 연예인의 처음 것이어서 대성공을 얻었다고 한다.

그 다음엔 “모델”(Nguoi mau)이 1999년말부터 2000년초까지 HTV에서 방영되었는데 여주인공인 김남주 씨가 인기 많았다. 그녀는 2000년 6월에 베트남 호치민시에 와서 “사이공(Saigon)밤의 색깔” 공연에 참가했다. 그때 그녀는 베트남의 유명한 남가수인 Lam Truong씨과 같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애호가한테 특별한 친근감을 주었다.

“별은 내 가슴에”(Uoc mo vuon toi ngoi sao)의 남주인공인 안재욱 씨도 베트남에서 인기가 적지 않았다. 사실은 이 드라마는 처음에 불법으로 수입되었고 시청자들이 주로 video VCD가게에 가서 빌려다 봤다. 그 다음엔 시청자의 요구에 응해 지방에 있는 Dong Nai, Kien Giang, Ba Ria Vung Tau방송국들이 1998년에 방영했다. 그때부터 안재욱 씨는 인기가 더 많아졌다. 안재욱 씨는 이 드라마에서 부른 노래인 “Forever”가 베트남 젊은이들이 매우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가사를 외우고 따라 불렀다. 안재욱 씨가 2004년에 베트남에 와서 공연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공연 장소 문제가 생겨서 드디어 그 공연이 취소되었다.

1999년 여름부터 “순수”(Ngay tho), “해바라기”(Hoa huong duong), “웨딩드레스”(Ao cuoi), “종합병원”(Benh vien da khoa), “장미와 콩나물”(Hoa hong co gai), “모델”(Nguoi mau), “토마토”(Ca chua), “황금시대” (Thoi hoang kim), “보고 또 보고”(Gap roi lai gap), “미스터 Q”(Mr. Q), “모래시계”(Dong ho cat), “가을동화”(Trai tim mua thu), “불꽃”(Hoa lua), “안녕, 내 사랑”(Tam biet tinh yeu cua toi) 등 수 많은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1999년 5월부터 2000말까지 베트남에서 약 30편의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의 방영 밀도가 그 전보다 못하지만 중앙 방송국에서나 지방방송국에서 끊임없이 방영되었다. VTV, HTV에서 “완벽한 사랑”(Tinh yeu hoan hao), “유리구두”(Giay thuy tinh), “천년지애”(Chuyen tinh

vuot thoi gian), “파리의 연인”(Chuyen tinh Paris), “하버드의 연인”(Chuyen tinh Havard), “그녀에 집”(O nha co ay), “노란 손수건”(Khan tay vang), “폴하우스”(Ngoi nha hanh phuc), “애정의 조건”(Loi song sai lam), “한강서 타랑가랑”(Tieng hat ben song Han) 등이 방송되었다. 특히 “유리구두”는 2004년에 1주일 3번씩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방송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봐서 거리에 사람이 한산했다고 한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소지섭 씨가 2004년 9월에 베트남에 와서 호치민시 인문 사회과학대학교 학생들과 교류할 때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베트남에서의 한국 드라마의 발전에 따라 한국 영화도 애호가들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일찍부터 수입되고 전국으로 상영했다. 지난 동안 베트남에서 소개된 대표적인 영화는 “8월 그리스마스”(Giang sinh thang tam), “연풍연가”(Gio thoi khuc tinh yeu), “주노명 베이커리”(Tiem banh Ju No Myeong), “겨울연가”(Ban tinh ca mua dong), “편지”(Buc thu), “짬”(Jjim), “해가 서쪽에 뜬다면”(Neu mat troi moc phia tay), “엽기적인 여자”(Co nang ngon ngao), “동갑과외”(Gia su dong tuoi), “그녀를 믿지 마세요”(Dung tin co ay)··· 그 중에는 “짬”(주인공: 안재욱)은 10,000명의 시청자 그리고 “엽기적인 여자”(주인공: 전지현)은 15,000명의 시청자를 극장에 끌어왔다.

한국 음악도 2000년 전후에 베트남에 유입했다. 베트남 젊은이들이 인기있는 드라마에서 나온 노래뿐만 아니라 한국 Ballad, 특히 K pop도 아주 좋아한다. 베트남에 인기있는 가수나 음악 밴드는 비(Bi, 정지현), 강타(Kangta), 베이비박스(Babybox), JTL, 이정현(Lee Jeong Hyeon), 코요테(Koyote), 구장모(Ku Jang Mo) 등이다. 비는 2005년 S Fone의 지원으로 베트남 호치민시에 와서 공연했고 2006년 초에 Asia tour 동안 또 한번 호치민시에서 공연했다. 비는 모든 노래를 영어로 불러서 많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Quan khu 7 운동장가 애호가로 꼭 차 있었다.

그 밖에는 예술단, 가무단도 매년 베트남에 와서 공연했다. 대표적인 공연은 난타(Nanta), Jewelry 등이 있다.

2. 베트남에서 한류의 영향력

한류란 현상은 각국에 각별한 특징이 있다. 베트남에는 한국 음악이 다소 적극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음악에 대한 한류”라고 부를 수 없다. 베트남 문화 생활에 가장 뚜렷하게 영향주고 있는 것은 드라마와 영화다. 그래서 여기서 베트남에 적극 및 소극적인 영향을 끼친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겠다.

① 적극적인 영향

국민의 문화 예술 감상 수요에 응하기 위해 좋은 작품들은 많이 소개되었다.

최근 10년 동안 베트남 경제가 매년 7% 정도 성장해 왔다. 경제가 발전하는데 따라 국민의 생활질이 예전보다 상당히 개선되었고 entertainment, 문화 예술 감상 수요도 늘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당연히 집에서 감상할 수 있는 entertainment 형식을 선호한다. 그것은 텔레비전 보기다.

베트남 시청자의 드라마 감상 수요가 늘어나고 있던 배경에는 베트남 제작자들이 드라마나 영화 개발 방향을 아직 찾을 수 없는 사이에 한국 드라마가 계속 유입되고 남녀노소 시청자들의 수요에 빨리 응할 수 있었다. 한국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형식상 아주 뚜렷하고 내용이 풍부한 데다가 젊고 예쁜 배우들의 연출이 잘하고 자연스럽다고 한다.

통계에 따라 베트남 전국으로 40개 방송국들이(VTV, HTV이외 수 많은 지방 방송국) 하루에 평균 20회의 한국 드라마를 주로 오전6시와 12시, 오후 6시와 9시에 방영해 왔다. 저녁은 국민들이 근무 완료 후 휴식하고 오락하기에 필요한 시간이다. 특히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의 방영 시간은 베트남에서 “Gio vang”(golden time)이라고 불린다. 베트남에서 소개된 한국 드라마는 주로 가벼운 감정과 유머가 섞인 드라마이니까 시청자들의 entertainment 수요에 잘 응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드라마를 본 다음에 많이 추측하거나 생각하기 필요없다고 한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는 도덕상의 교훈이 포함되고 진(眞)·선(善)·미(美)에 향한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인간의 아름다운 가치를 제고하고 진 선 미에 가벼우면서 깊이 향한다고 생각한다. 베트남처럼 유교문화와 불교문화의 영향을 오래 받던 한국은 가족 생활, 충성, 가족이나 사회 안의 질서를 중시하고 예의와 인간의 인애심을 제고한다. 한국 제작자들은 이런 도덕 가치를 드라마나 영화 내용에 잘 섞고 교훈을 너무 강조하지 않아서 시청자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가족생활을 주제로 한 드라마에는 한국 제작자들이 일상생활 문제(애정의 조건, 한강서 타랑가랑)들을 잘 그리고 남녀유별의 생각,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모순(아들과 딸, 사랑이 뭐길래)을 잘 반영했다. 시청자들은 인물의 인생을 통해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젊은이의 유치한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이나 친척의 정(情)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시청자는 인물 안에서 자신의 어느 닮은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뚜렷한 장점이 많아서 베트남 제작자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여러가지 배울 수 있고 제작 기술과 작품 내용을 향상시키고 베트남

드라마나 영화의 질을 점차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것을 반영한 드라마에 대한 예를 들면 HTV의 “Vong xoay tinh yeu”가 있고 이 드라마의 내용은 신데렐라와 비슷하고 HTV7에서 방영하는 동안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한국측과 베트남측은 합작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공동 제작하는 방안은 전망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SBS와 베트남측이 같이 만든 “하노이 신부”에는 베트남 여학생과 한국 봉사활동의사 사이의 사랑을 그려서 시청자의 환영을 받았다. HTV의 TFS(Television Film System)가 sitcom식으로 “Lang hoa tinh yeu”(극본: 신동익 + Ho Dieu Huong)를 만들고 주목을 받았다.특히 FNC & CJ는 베트남 제작 회사와 합작한 미니시리즈 “Mui ngo gai”가 지금도 방영되고 있고 인기 많다고 한다. 한국 Golden Bridge의 이상준(베트남 이씨의 후예) 회장님도 한국과 베트남 국민이 전쟁 때 경험한 과거 슬픔에 대한 드라마를 만들 계획이 있다.

적극적인 영향이 적지 않지만 소극적인 영향도 있다고 본다.

② 소극적인 영향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베트남 문화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베트남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는 내용이 낭만적인 사랑들이 적지 않다. 사치적이고 실제에서 벗어나는 생활은 베트남 젊은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다음과 같은 드라마나 영화 안에 있는 장면은 서로 막 싸우는 것, 여자가 실연해서 술 많이 마시는 것, 술에 취해서 자살하는 것, 상급이 직원을 때리는 것, 선생이 학생을 때리는 것 등이 베트남 사람의 사고방식에 알맞지 않고 한국에 대한 나쁜 인상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몇 편의 한국 드라마는 내용보다 화장품, 전자제품, 일용품 등 같은 상품에 대한 광고를 너무 집중했다.

내용상 무리한 상황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는 새로운 내용을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베트남 사람의 많은 의견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선택없이 베트남에 자유롭게 수입되었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한국 회사들은 베트남 방송국에 드라마를 공짜로 제공하고 그 대신에 베트남 방송국은 방영 전후 그 회사의 상품을 공짜로 광고를 해 주기 때문이다.

끝으로 Le Dang Hoan 교수님의 본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다.

한류에 미래에 관해서 언급을 하려면 베트남에서 한류를 수용하는 수용자층의 반응 조사가 필수인데 혹시 조사한 바가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Ly Kinh Hien

한류를 접한 베트남 국민들의 반응에서, 한류의 미래를 점친다면 베트남류 탄생을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한류를 통한 청소년들의 생활형태 변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듣고 싶습니다.

한류가 왜 베트남에서 크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를 묻고 싶고, 또 한류가 미치는 안 좋은 영향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주제 발표 2분과
한류의 분야별
현황

사 회: 서혁 (이화여대)

발표 5: Prajuab Yinsen

(태국 Songkla University)

6: German Kim, Ibrayeva

Zhanna (카자흐스탄 Kazakh

National University)

토론 5: 최윤곤 (동국대)

6: 이지영 (상명대)

태국에서의 한류 현상

빠릿 윙타나센

(태국 국립 송클라대학교)

1. 들어가기

한국과 태국은 오래전부터 외교관계를 맺어 왔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고려 말기 때의 공양왕(1389-1392) 때부터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 최초로 사신을 파견하고 전통 물품을 고려로 보냈다고 전해진다. 그 후에 조선왕조 때인 1393년에 태국으로부터 두 번째 사신이 조선을 방문했으며 1394년에는 역사상 최초로 조선의 사절단이 태국을 방문한 바 있다. 그러나 1397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다 (김홍구 2004:6).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에 태국은 12,000 여명의 군인을 파견하였고 1958년에는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이처럼 한국과 태국은 오래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왔으나 최근까지도 태국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단지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태국 군인이 참전한 나라라고 생각하여 왔다. 또한, 삼성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과 많지 않은 한국 중소기업들은 진출하였으나 태국 사람에게 한국을 그렇게 깊이 알려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2000년에 드라마 '이브의 모든 것'이 최초로 공중파에 방송되고, 2001년에 '가을동화'가 방영된 후부터 태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드라마의 방영은 태국에서 한류가 자리잡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에 지속적으로 방영된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영향으로 태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재 태국 내에 한류 열풍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다. 태국 내 구석구석마다 한국 드라마, 영화 그리고 상품들이 눈에 띄고 있다. 특히 미디어 상품, 예를 들면, 드라마 CD, 연예인 및 가수 포스터 그리고 음반 등은 어느 가게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태국에서 한류 열풍은 먼저 한류가 시작된 인근의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태국에서의 한류 형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한류 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즉, 태국 내에서 한류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한류의 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태국 사람은 지금 한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류가 일어난 후에 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국과 태국 양 국가 간의 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난후에

끝으로 인터뷰를 통해 현재 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2. 태국에서의 한류

2.1 한류형성 원인¹¹⁾ 김홍구(2004)는 한류현상의 원인을 1. 문화적 친화성 2. 외국인과의 외국문화에 대한 호의적 태도 3. 한국 대중문화의 우수성 그리고 4. 접촉매체의 다양화라고 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태국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맺어 왔으나 한류라는 현상은 최근에 일어난 것이다. 2000년 경부터 한국 드라마가 처음으로 방영되었고 그 때부터 한류가 태국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다. 태국에서의 한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중문화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전에는 한국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지 않았으나 드라마 또는 음악이 들어오면서 한국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원인을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22) 한유석(2005)에 의하면 태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여러 형태의 대중문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중문화를 제외한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라고 지적하였다.)

첫째는 한류 열풍이 들어오기 전에 태국 사람들은 한국이란 나라가 단지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한국 전쟁때 태국 군인 참전한 나라, 그리고 88 올림픽 대회 개최국이란 나라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드라마 또는 영화를 통하여 한국 사회 그리고 문화를 어느 정도 알게되면서부터 한국에 대한 새로운 모습 그리고 색다른 느낌을 갖게 되고 태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둘째, 드라마 통하여 본 한국 문화와 태국 문화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과 태국은 궁중 문화와 불교문화 그리고 유교 문화 등에서 어느정도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³³⁾ 한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유교문화권에 속하고 있으나 태국은 불교 문화 국가이면서 한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현재까지 태국 사람들은 중국문화 및 일본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가 한국 문화가 상대적으로 새로운 문화이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빨리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한국 문화는 빠른 속도로 태국 사회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젊은 층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류 중에서 특히 한국 드라마가 태국 사람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한국 드라마 또는 영화가 태국의 것과 내용이 매우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한국 드라마 내용은 일상 생활과 매우 가깝다고 느낄 수 있으나 태국 드라마는 그렇지 않다. 또는 한국 드라마는 내용 진행 과정이 태국 드라마보다 더 빠르다. 또한, 한국 드라마의 배경은 낭만적이고 남녀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만 태국 드라마는 많은 인물은 등장한다. 그리고 중간에 갈등을 만들어놓고 결말에 그러한 갈등이 풀어진다. 모든 장면들을 함축을 하는 것은 한국 드라마의 매력 중의 하나이다. 또하나는 한국 드라마의 특징은 등장인물들의 삶에 대한 노력,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생활방식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등인데 이러한 점은 한국드라마의 중요한 매력이라고 볼 수 있다. 44) 김홍구(2004:9)에 따르면 대부분의 태국 드라마의 내용은 한 성공한 남자를 놓고 벌이는 두 여자의 치열한 경쟁이나, 남자를 통해 신분상승 등을 노리는 내용이 주가 되는 지극히 통속적인 것이다.)

둘째, 한국 드라마를 통하여 한국 사회 및 문화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장금, 허준 그리고 궁등에서 많은 한국의 사회상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한국의 전통 사회와 문화의 배경이 태국과는 다르게 때문에 태국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갖게한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한국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이 일반 태국 사람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가을 동화'에서 나타나는 '원빈'은 잘생기고 성격이 남자답다고 해서 태국 여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김홍구(2004:9)에서는 일반적으로 태국사람들은 한국 연예인들이 얼굴색이 희고, 귀엽고, 잘 생겼으며, 키가 크고, 화장을 세련되게 하고 옷을 잘 입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드라마는 태국에서의 한류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태국 내에서 방영된 드라마의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태국내 드라마 방영 현황

년도	드라마 제목
2002	가을동화, 호텔리어, 맛있는 청혼
2003	러브레터, 로망스, 순수의 시대, 별을 쏘다, 겨울연가, 꼭지, 이브의 모든것
2004	겨울연가, 인어아가씨, Loving you, 위풍당당 그녀, 옥탑방고양이
2005	불새, 보디가드, 별을 쏘다, 풀하우스, 사랑한다 말할 때
2006	파리의 연인, 대장금, 허준, 김삼순, 궁
현재	아이컬, 서동요, 파리의 연인(재방송)

3. 한류의 영향

3.1 한국어교육

현재 태국 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한류 열풍이 들어오기 전에도 한국어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으나 한류 뒤에 급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⁵⁵⁾ 1986년에 국립송클라대학교에서 한국어과를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1988년에는 수언두셋교육대학(Suandusit Teacher's College)에서 야간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였고 그 뒤를 이어 1989년 때 왕립쭈라롱껀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에서 교양과정으로 하였다. 1995년에는 부라파(Burapha University)에서 선택 과목으로 하였다 (이병도 2006:1-2). 한유석(2005)에 의하면 한류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한국어가 개설된 대학이 있었으며, 취업이 유리하다는 이점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최근 한류 붐이 일면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통해 한국문화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한류로 인하여 한국어에 대한 열기가 더욱 가속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방콕과 같은 대도시에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한국어 학원에 가장 많이 다닌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자 하기 위하여 다니고 있다. 태국 내에서 현재까지 한국어 교육을 개설한 대학교는 송클라대학교, 부라파대학교, 쭈라롱껀대학교, 탐마삿대학교, 마하사라캄대학교, 실라바껀대학교, 랏차팻치앙마이대학교, 탁신대학교, 컨캔대학교, 씨나카린위롯대학교, 카셋삿대학교, 람캄행대학교, 랏차팻나컨파툼대학교, 랏차팻치앙라이대학교, 찐카셈대학교, 수언두셋대학교 그리고 랏차팻푸켓대학교 등 모두 17개 대학이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17대학교 중에서 전공으로 개설한 대학교는 5군데이고 나머지는 부전공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강의하고 있다. 또한 탐마삿대학교와 카셋삿대학교에서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태국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담당 선생님과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은 왜 한국어를 공부하느냐'고 물었더니 상당수의 학생들이 한국 연예인 그리고 가수를 매우 좋아해서 공부한다고 대답하였고 또, 일부 학생들은 요즘 k-pop이기 때문에 꼭 배워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태국의 중고등학생은 대부분 한류 때문에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 동아리를 만드는 학교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앞으로 한국어 교육은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⁶⁶⁾ 필자의 생각에는 앞으로 한국어 과목이 중고등학교에서 개설되면 태국 내에 한국어 교육의 효과는 더욱더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송클라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에서 어떤 학생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나서 동 대학교의 한국어과를 들어와 한국어를 공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국어 교육에 있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느꼈다.) 결론적으로 태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계기 중에서 한류 열풍은 그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77) 한유석(2005:57은 한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하나는 경제적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한류에 대한 관심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타 이유로는 한국에 대한 호감 및 호기심, 성적이 안 되어서, 특별한 관심이 없었지만 일단 들어온 경우 등이라고 하였다.)

대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의 어학원에서조차 한국어 학습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88) 현재 방콕 시내에 한국어학원이 모두5 군데가 있다. 곧, China Youth Education Service Center, Youth Diplomat School, Korean Education Language Center, Tong-in Language School 그리고 World Sillapasart Language School이다.) 한국어 학원 강사와 인터뷰했을 때 어학원에서의 학습자가 주로 중고등학생이고 한국 드라마를 비롯한 대중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주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을 인터뷰를 하면서 수집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Natnarun Teangkliang (여 15세)

한국어를 공부하는 계기는 사실은 처음에 제가 한국 드라마 그리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한국 연예인을 많이 좋아하였고 드라마 그리고 영화의 배경은 잘 정리되어 있고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노래를 좋아하고 한국 가수를 매우 멋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연예인 그리고 가수에 대한 뉴스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제가 드라마 그리고 영화 속에 나온 대화를 이해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한국 연예인과 함께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지금 태국에서 한국어는 인기가 높다고 평가되었으며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면 나중에 취직에 대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Kewara (여 15 세)

처음에는 한국 연예인을 너무 좋아하고 그 연예인들은 대화할 때 어떤 내용을 궁금해서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한국 연예인을 좋아해서 공부하는데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한국어가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태국에서 한국어를 아직까지 알려주는 언어가 아니며 한국 드라마, 영화 그리고 노래를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한국어는 인기가 높습니다. 사실은 저하고 친구 몇 명은 한국 배우를 좋아해서 공부합니다.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보면 현재태국에서 한류는 매우 중요한 한국어 학습동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수가 궁급하여 학원 교사에게 물어보았더니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학원에서 주로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

는 한국 연예인이라고 한다. 현재는 학생의 숙제를 검사할 때 문장에서 보면 주로 연예인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 있다. 문장을 쓸 때 주어 또는 목적어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예인 이름은 원빈, 전지현, 장동건, 송혜교, 비 순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러한 연예인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사는 예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잘생겼다 등은 긍정적 어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앞으로 한국어 교육은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개설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면 태국 내에 한국어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3. 각 대학교의 한국어 학습자 수

대학교	선택 과목		전공 과목		부전공 과목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Prince of Songkla Univ. (Pattani Campus)	20	20	120	49	128	107
Prince of Songkla Univ. (Had Yai Campus)	-	44	-	-	-	-
Prince of Songkla Univ. (Phuket Campus)	44	40	-	-	-	-
Chulalongkorn Univ.	-	20	44	10	-	-
Burapha Univ.	-	-	69	65	99	113
Ramkhamhaeng Univ.	90	90	-	-	-	-
Maharakam Univ.	149	1,500	30	30	-	50
Khonkaen Univ.	125	78	-	-	-	-
Naresuan Univ.	149	712	-	91	-	-
Srinakarinwirot Univ.	90	-	20	60	5	31
Silpakorn Univ.	-	92	22	28	69	94
Thammasat Univ.	70	193	-	-	-	-
Kasetsart Univ.	-	-	-	-	-	-
Rajabhat Chiang Mai Univ	48	68	-	-	-	-
Rajabhat Phuket	-	124	-	-	-	-
Rajabhat Nakhonpatom	38	38	-	-	-	-
Taksin Univ.	80	135	-	-	-	-
Total	803	3,019	305	333	395	-

3.2 경제적 영향

현재 태국 내에 수많은 한국 상품이 수입되고 있다. 특히, 문화상품은 빠른 속도로 수입이 늘고 있다. 예를 들면,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가수들의 취입 음반, 온라인 게임 등이다. 2002년에 드라가 한 두 편만 방영되었으나 현재는 각 방송국마다 거의 다 한국 드라마를 방영한다. 그리고 현재 태국의 여러 방송국은 한국 방송국과 계약을 하고 있다. 태국 내에서는 지금은 구석구석마다 한국 상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제는 ‘한국 껌까지 살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 표현을 통해

서 지금 태국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한국 상품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제는 한국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고 한국상품을 사용하여야 신세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 김홍구(2004)에 의하면 '엽기적인 그녀' 영화가 개봉한 뒤에 6주간 약 12만 8천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12만 7천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 사랑 싸가지' 영화는 6만 3천 달러에 팔렸다고 한다. 또한, 온라인 게임의 태국인 소비자는 약 60-70만 명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한류를 통하여 태국경제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태국에서 한국은 태국의 8번째 수입국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식당도 태국 내에서 매우 급증하였다. 드라마를 통해서 지금 한국 음식을 느끼고자하는 태국인이 매우 많다. 예전에는 한국 음식점에 가는 사람은 한국인 아니면 외국인이지만 지금은 80%가 태국인이며 20%는 외국인이다. 태국인들에게 익숙한 한국 음식은 김치, 불고기 그리고 김밥 등이다. 특히 불고기는 태국 내에서 많이 알아주는 대표적인 한국음식이다. 태국에서 '느아양커리'라고 부르는데 수 십 년부터 들어왔다. 불고기를 먹는 방법은 태국인에게 큰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태국 사람들중에는 한국의 불고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태국인들은 한국 음식을 즐겨 먹는다. 한국 음식점을 찾는 태국 사람이 적지 않다. 방콕에 위치하고 있는 쑤쿰핏 2가는 코리안 타운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자리에 한국 음식점뿐만 아니라 매우 많은 한국 상품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 음식 재료점 등이다. 예전에 코리안 프라자 건물은 빈 자리였으나 한국인들이 들어와서 점점 한국 음식점도 생기고 또 여러가지 가게도 생기게 되었다. 현재는 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이 약 15,000 여명에 이른다. 또한 태국의 많은 호텔에 한국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예를 들면 파툼완호텔에서 공주 식당이라는 한국 음식점은 태국에서 최초로 호텔에 입점한 한국 음식점이다.

한편, 드라마를 보고 한국으로 여행하는 태국인이 적지 않다. 현재 한국으로 여행하는 태국인 관광객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태국지사의 통계를 보면 전년에 태국관광객은 10,2239명이던 것이 2006년 10월에는 12,427명이다. 따라서 전년대비 21.8% 증가하였다. 태국인들은 한국으로 여행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자기가 시청한 드라마 또는 영화를 느끼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대장금, 궁 그리고 가을동화 등이다. 태국인들은 방한할 때 대장금에 나온 음식을 느끼고자 한다. 또한, 대장금 촬영지에서도 태국인 여행객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99) 한국관광공사(2006)에 의하면 태국인이 한국에 가는 이유는 첫째,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저렴한 가격 둘째, 직장인 월급수준 가지고 방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셋째, 여행사의 패키지 방한상품의 장기 할부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적으로 조금 무리가 되더라고 갈 수 있으며 넷째, 날씨(겨울-눈) 다섯째, 한국음식(불고기), 눈(용평리조트) 경험, 한류스타(배용준 등) 등을 접하고 싶어서 등이다.)

앞으로도 한국으로 여행하는 태국인이 계속 증가할것으로 보고 있다.110) 김홍구(2004:11)에 의하면 2003년 일본, 미국, 홍콩 등에서 온 관광객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태국은 오히려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한류드라마 촬영장소 관광상품 출시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같은 기간 중 대만의 관광객들이 50% 증가하고 말레이시아 관광객들이 1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확실한 한류의 효과라고 말하기는 성급한 감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0) 따라서 한류를 통하여 한국 관광 산업도 많이 발전하고 다른 분야의 경제도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태국인은 쇼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면 연예인의 CD앨범, 사진 그리고 인삼 등을 장만한다. 태국인들은 많이 구입하는 물품은 '김, 인삼, 옷, 악세사리, 전통 기념품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국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태국인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게평가되고 있다. 몇 년 전에 어떠한 태국인 관광객은 입국도 못하고 강제출국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면 이 부분에대해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3 사회적 영향

한류로 인하여 현재 청소년들은 한국 청소년을 따라 하고있는 형태이다. 드라마를 통하여 태국인 청소년들은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성격 그리고 옷차림을 모방하고 있는 상태이다. 드라마 속에 한국 여성의 역할 그리고 성격이 태국 여성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드라마에서 나온 한국인 여성의 성격은 자신감이 높고 강한 스타일이다. 이로 인하여 여성 청소년들은 강한 모습으로 보여 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또한, 사회 생활 측면을 보면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옷차림과 화장에 신경을 많이 써서 스타일을 다양하게 한다. 이런 영향을 받아 요즘태국인도 옷차림과 화장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 다르다. 요즘 태국인 중에는 한국 옷을 입는 사람은 많다. 그리고 화장품도 한국 화장품을 쓰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앞에서 누차 발한 바와같이 한류 열풍 들어오기 전에 태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단지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었고 좀더 지나면서 한국은 IT 산업이 발전한 나라 등의 몇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일부 태국인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 2003년경까지도 어떤 공무원은

한국으로 출장갈 때 한국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어서 태국음식과 쌀 등을 준비하고 갔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 다녀와서는 한국은 매우 발전한 나라이고 깨끗하고 질서 있는 나라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다는 일화가 있다. 그러나 한류 열풍이 들어온 후에 많은 태국인들은 한국의 사회와 문화적 배경에 대해 잘 알게 되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고 싶은 나라로 한국을 꼽고 있다. 필자가 한국 회사에 다니는 어떤 여직원에게 한국 사람이 어떠한지 질문한 적이 있다. 그러자, 한국인은 동정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무뎡뎡하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는 등의 여러 가지의 부정적 대답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이 태국인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말을 너무 자주하고 이야기할 때,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후에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한국 사람을 이해한다고 고백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류의 영향으로 양 국민간의 관계는 더욱 친밀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류가 들어오고 태국인은 한국을 더잘 이해하고 서로 교류가 많아져 민간차원에서 우호관계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3.4 문화적 영향

한류가 태국에 들어오기 전에 태국인은 중국 문화 그리고 일본 문화에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한류가 들어오면서 한국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다. 예를 들면, 태국 방송에서의 MC 그리고 연예인들은 한국 패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옷 가게에 가면 옷 디자인의 상당수가 한국식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요새 한국 패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어디에 서나 볼 수 있다. 머리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한국식으로 하고 다닌다. 미장원에서 이제 한국 머리 스타일 잡지를 어디에서나 거의 다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한국산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국 상품은 악세사리인 것 같다.

중고등학생들은 40 대의 중장년층들보다 한국 물품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필자가 아는 어떤 사람은 생활용품은 무조건 한국상품만 사용한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을 많이 좋아하고 게다가 한국 연예인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엇을 가장 좋아하냐고 물어보았더니 영화, 드라마 그리고 가수를 매우 좋아한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중문화는 태국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어떤 학생은 자기 습관, 그리고 생활 방식을 바꾸고 한국식으로 생활하기도 한다.

한국 문화 중에서 식사 문화는 태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두드러지게 독특한 부분은 가족 또는동료 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삼겹살을 먹을 때 구우면서 먹고 또,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서로 친교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식습관은 이제 태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따라하고 있다.

3.5 언어적 영향

언어적 측면에서는 대장금 때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언어적 영향의 예를 보면 한국어를 이용하여 태국식 어휘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뜻은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다른 뜻이 된다. 또한 일부 청소년들은 한국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를 이용하여 태국식 어휘를 만들어 사용하는 예

- 대장금 ----- 떼-장-감 (너 너무 새까맣다)
- 대장감 (너 너무 새까맣다)
- 떡-장-■ (너, 너무 많이 먹는다)
- 당-장-깨 (넌, 인기가 많다)

둘째, 청소년이 사용하는 한국어 표현의 예

- 문장 표현 : 사랑해, 예빠요
- 호칭어 : 상궁, 마마, 오빠, 언니
- 음식명 : 김치, 불고기, 라면, 삼계탕, 김 등
- 신조어 : 얼짱, 몸짱, 꽃미남

셋째, 한국노래를 이용하여 태국 노래 만드는 예
사랑인가요 , I Believe 등

4. 마무리

한국문화가 태국 사회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전쟁에 태국군이 참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후에 1970년대에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로서 텔레비전, 전자제품 그리고 자동차 등을 앞세워 태국으로 진출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태국인들에게 한국은 발전한 나라, 그리고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등,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2001년부터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 대중문화를 들어오는 바람에 전반적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태국인들에게 새롭게 인식되었다.

한류에 관심을 갖는 대상자는 10대 중고등학생부터 30대 초반이 가장 많다. 물론 40대 이상의 중장년층도 있으나 청소년처럼 많이 빠져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한류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류는 이제 태국사회에서 교육과 경제 그리고 사회와 문화, 언어 등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한류 열풍이 불고 나서 한국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류 열풍이 들어오기 전에도 일부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미 개설되었으나 한류가 들어온 후에 한국어 교육을 개설하는 교육 기관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를 학습하는 태국인이 그리 많지 않았으나 한류 열풍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일부의 학습자는 한류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현재 태국 내에 한국상품이 수입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류의 열풍에 힘입어 문화 상품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 태국인들은 급격히 늘어난 한국음식점에서 한국 음식을 즐겨 먹을 수 있다. 특히 방콕에 가면 한국 음식점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쭈콤윗가에는 곳곳에서 한국 음식점을 볼 수 있다. 음식점 뿐 아니라 노래방, 화장품 가게, 옷 가게, 잡화 가게, 여행사 등도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한류를 통하여 한국으로 여행하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태국 관광객들은 특히 드라마 촬영지를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류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효과는 민간차원에서 더욱 친밀하고 교류와 협력 분야에서는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는 예전과는 매우 달라졌다. 이제는 태국사람이 한국에 갈 사람은 굳이 태국음식이나 생활 용품 등을 챙겨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에 다녀온 태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한국은 깨끗한 나라라는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현재 태국 사회에서 특히 청소년들이 한국 패션을 많이 빠져들고 있다. 태국 드라마 속에서도 한국 패션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헤어스타일도 청소년들은 한국 스타일을 많이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적 측면에서는 이제 태국사회에서 한국어가 많이 이숙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태국의 청소년들은 한국 어휘를 즐겨 사용하고 있고 한국어를 통해서 태국 어휘를 만들어내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태국에서 이제는 한류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태국인에게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며 한국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생활방식 등이 태국인에게 호감의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는 태국에서의 한류는 최고의 정점에 와 있는 상태로 보인다. 한류로 인하여 한국과 태국의 교류증진이 이루어졌음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일본과 중국 문화가 태국에 들어와 식상하게 되었을 때 한국은 새롭고 신선한 문화로 태국인들의 관심을 샀다. 한류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제 한류의 정점에 서있는 지금 한류의 지속 방안과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이병도(2004), 태국의 한류 현상 - 한국학 연구를 중심으로-. 국제학술대회 발표지.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유석(2006), 한국어 학습과정을 매기로 한 한류의 재생산 과정 - 태국의 한국어 학습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 김홍구(2004b), 태국의 한류현상 : 분석과 평가. 한국동남아연구소 2004년도 제 4차 월례발표회 발표문.
- Surangsri Tonsiengsom(2006), From “Aridang” to “I Think I” : The influence of “Korean Wave” in 21st century Thailand. Korean Association of Thai Studies, Korea.
- Wichien Intasi(2000), The status of relationship of Kore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January-june 2000 Vol. 11 No.1 pp.76-88.
- Ubonrat Siryuvasak & Shin Hyunjoon. Mainstreaming Asian Pop : Thai Youth and K-pop Consumption, Paper presented at the 4th Inter-Asia Cultural Studies (IACS) Conference, 22-25 July 2005,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Seoul Korea.

<태국에서의 한류 현상>에 대한 토론

최 윤 곤
(동국대학교)

국내에서 방송을 통해서 듣던 한류 문화의 피상적인 내용을 빠릿 윙타나센 선생님께서 태국 현지의 생생한 모습을 발표해 주셔서 그 동안 몰랐던 한류 문화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우선 한류 문화의 대표격인 ‘한국어’에 대한 태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1개에 불과한 한국어전공 개설 대학이 이제는 6개 대학으로 증가하였으며, 한국어 강좌의 수도 600%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5개의 대학에서 한국학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04년부터 부라과 대학에서 주최하는 태국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2007년부터 실시하는 마하싸라캄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에세이 콘테스트(글쓰기)는 태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열기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빠릿 윙타나센 선생님처럼 훌륭한 한국어 선생님 이 있었기에 한국어교육은 이제 태국에서 성장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한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에서 한류에 의한 문화 현상이 한 지역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를 잡느냐, 아니면 한때의 유행으로 곧 사라지느냐는 문화 콘텐츠가 그 지역 정서에 적합한지, 그리고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류 문화의 위기에 대해서 항상 거론 하는 것이 바로 홍콩 영화의 흥망성쇠(興亡盛衰)입니다. 80년대 초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약 10년간 홍콩 영화의 유행은 지금의 한류 못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홍콩 영화의 전성기도 홍콩 반환이후 급격히 쇠퇴하여 지금은 그 명맥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제는 한류 문화도 드라마, 영화 등의 한국의 유명 남녀 배우 중심에서 벗어나 댄스, 게임, 음식, 화장품 등으로 다양화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발표문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서 한류 문화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문 중에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한류 문화에 바탕으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등급별 문화 교육 내용 및 문화 항목이 아직 체계화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관련해서 태국 현지 실정에 맞는 문화 교육에 대한 구상이나 개인적인 견해가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십시오.

최 윤 곤

2. 한류 문화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反한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태국에서는 아직 그런 징조가 없다고 하던데, 反한류 정서를 막기 위해서는 한류 문화를 질적 양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자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태국에서 한류 문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3. 태국의 한류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한국어교육이 기여하는 바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외에 추가하실 사항이나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개인적인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의 3가지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카자흐스탄의 한국학과 한류

김 게르만 · 잔나 이브라에바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학교)

5년이 넘는 시간동안 카자흐스탄 채널들이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다. 드물게 방영되기는 하였지만 2005년 이후 독창적인 소재와 함께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대표적인 예로 “올인”, “가을동화”, “불새”, “대장금” 등등이 방영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민족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다. 2000년대 초 카자흐스탄 방송국 “하바르”, “카자흐스탄”의 대표들은 카자흐스탄을 찾은 한국인들과 협상을 벌인 끝에 무료방영권을 획득하며 카자흐스탄에 한국의 이미지를 정착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한류” 현상에 관하여 많은 학자들과 사회 전문가들이 매력 있는 주제로 인식하며 많은 연구 활동과 다수의 서적들도 출간되고 있는 상황이며, 신문의 관심 있는 주제거리로 등장되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많은 유수의 세계적인 대학 내에 한국학 및 관련 학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1]. 하지만 현재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한류에 관한 전문적인 서적이나 논문, 수준에 이를만한 샘플이 희귀한 상태이다. 위의 내용은 다시 말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의 나라들에게 초보적인 영향만 주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는 대표적 인터넷 검색엔진 Google에서 한글로 “한류”를 검색했을 때, 4,390,000건에 육박하는 많은 정보를 발견할 수 있으며, [2]. 영어로 “hallyu”를 검색할 수 135,000건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들을 조회할 수 있지만 러시아어로 “한류” (халлыу)를 검색하면 총 381건의 자료들만 검색될 뿐이다. 더욱 분명한 것은 단지 한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수두룩하여, 논문이나 전문적인 자료, 신문기사, PDF형식 파일의 활용 자료들은 186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족 별로는 고려인, 까작인, 러시아인, 아제르바이잔인이며 연령대별로는 15~21세 (34명중 여성-24, 남성-10 / 고려인-21, 까작인-10, 러시아인-2, 아제르바이잔인-1), 21~30세 (21명중 여성-14, 남성-7 / 고려인-9, 까작인-6, 러시아인-6; 대부분의 참여자는 까주구 대학 학생들로 구성), 30~40세 (10명중 여성, 남성-5명씩 / 고려인-8, 까작인-2), 40~50세 (10명중 여성-5, 남성-5/ 고려인-3, 까작인-6, 러시아인-1)50~60세(18명중 여성-15, 남성-3/ 고려인-14, 까작인-4), 60세 이상 (7명 중 여성-6, 남성-1 / 고려인-7)으로 각 민족별, 각 연령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 결과가 조사가 특별한 곳에 이루어짐에 관련 한다. 나중에 조사 대상으로 알마티 시 온 시민들을 할 예정이다.[4].

이에 앞으로 알마티 도시 전역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시청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질의응답 계획이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질의 내용 중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00중 74명이 “네”라는 긍정적인 답을 주었다. 다시 말해 카자흐스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드라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령별 결과에서는 이상한 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특히 15~21세에 이르는 집합군에서는 단 30%의 수치만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다고 답변한데 반해, 50세 이상의 그룹에서는 단지 1명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다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30~40세 연령별 집합군에서는 가장 열정적이며 비중 있는 관심 분야로 67%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시청을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관심 있는 질문 내용으로는 얼마나 자주 한국 드라마를 시청 하느냐는 내용이었다.

시청자 비율 73% 중, 다시 말해 35명 중 매일 한국 드라마를 시청을 하며, 34명은 자주 시청하고 있으며, 나머지 4명은 1주일에 1번 정도를 시청한다고 한다. 위 결과 카자흐스탄의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일상생활 중 한국 드라마 시청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쓰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한국 드라마를 더욱 더 시청하기를 희망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위의 결과를 토대로 재차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59명은 “네”라고 답하였으며, 12명은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며 2명은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아마도 이것은 시청자(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루에 종류가 다른 2가지 이상의 드라마를 접하다 보면 다소의 혼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라 생각되는 부분이다. 위의 내용을 기초로 할 때, 다수의 압도적인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에 대해 재차 시청에 관한 욕구 표현에 공고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응답자의 45%는 한국 드라마를 1년 넘게 지속적으로 보아왔다는 응답을 보여주었다. 11%의 응답자는 1년 동안, 18%의 응답자는 6개월을 보아왔다고 답하였다. 위 18%의 응답자 집합군의 3/4의 응답자들은 평균 24회분의 드라마를 시청 1주일에 1번 정도는 시청해왔다고 한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어떠한 장르를 시청하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중복허용)에 33명-코메디, 26명-로맨틱 코메디, 24명-드라마, 23명-역사물, 4명 - 공상과학, 5명 - 공포물, 4명 - 액션물등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많은 장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는 특히 역사물을 선호했던 배경으로는 한국의 역사, 풍습, 생활지식, 규범 등을 간접 체험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었다. 젊은 연령층에서는 특히 액션물을 선호했다. 이것은 단순히 드라마의 전개 내용, 도덕 관례 보

다는 1차적인 행동으로 인한 미적인 부분을 넓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 안에는 이미 “올인”, “불새”, “대장금(現 방영 중)”, “가을동화”, “달빛 소나타”, “진실”, “행복이 가득한 집”, “미안하다 사랑한다”, “진실한 사랑”, “별은 내 가슴에”, “이브의 모든 것”, “나의 신부”, “젊음”, “빈집”, “바람의 아들”, “불멸의 사랑” 등이 방영 되었다. 위 드라마 중 “올인”은 응답자들이 23%라는 지지율 속에 1위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19%를 기록한 “불새”, 지금 현재 방영중인 “대장금”은 11%를 기록하고 있다. “가을동화”와 “달빛 소나타”는 각각 9% 씩을 기록했다.

많은 응답자들 중 63%의 응답자들은 한국의 대부분의 연기자들의 연기를 만족한다고 답했다. 허나 5%의 응답자들은 연기자들의 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연기자에 대한 설문 부문에서 85%의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한국 연기자에 대해 호감을 나타냈으며, 65명은 연기자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였으며, 5명은 연기자에 대한 관심 여부가 없다고 답했다.

카자흐스탄의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에 나오는 협찬품 및 광고물에 대한 호감은 많지만 구매, 의뢰는 미비하여 38명만이 구매 또는 구매 의뢰를 비추었다.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의 이름을 아십니까”라는 질문에 27명만이 안다고 답했으며 46명은 모른다고 답했다.

카자흐스탄의 시청자들은 연기자의 이름을 발음상의 이유와 청각적인 대조로 인해 한국 배우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한국 드라마가 카자흐스탄에 날마다 방영됨으로써 카자흐스탄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배우를 통해 자신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인공에 도취되어 드라마 속 인생을 사는데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 시대에 이르러서 시장경제주의 속 경쟁, 소비의 문화가 브라운관을 통해 제 2의 삶을 대신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구 소련시대 문화 중 공동의회, 공동적 의견을 나누었던 것이 생활화 되었던 카자흐스탄 시청자들, 응답자 중 73%는 드라마를 시청할 때 온 가족이 모여서 보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 증거로 응답자 73% 집합군에 속해있는 60명은 드라마 시청 시 가족들이 드라마에 대한 토론을 한다고 답했다. 일부 카자흐스탄 가정의 가정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문화 중 일부인 웃어른 공경, 가정간의 화목, 가정 내 질서를 가족들에게 드라마를 통해 가르치고 있다.

“한국 드라마가 카자흐스탄에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70%의 응답자가 “네”라고 답했으며, 6%는 “아니오”, 24%는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67%의 응답자들이 “네”라고 답했으며, 20%는 “아니요”라고 답했으

며, 13%는 “모른다”고 답했다. 위의 답변에 대한 예상 결과는 15세에서 21세까지의 집합군의 설문 내용에 의거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위 그룹 34명의 응답자 중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15명이 위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9명이 “아니요”, 10명이 “모른다”고 답해 응답 비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어린 집합군의 응답자들이 질문 내용에 대한 확실한 인지를 못한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응답자 중 45명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인들과의 내적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민족별로는 고려인 64%, 카자흐인 29%, 러시아인 7%로 구분되었다.

36명은 아무런 유사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민족별로는 고려인 67%, 카자흐인 19%, 러시아인 11%, 아제르바이잔인 3%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19명은 “모른다”고 답했으며 민족별로는 고려인 47%, 카자흐인 42%, 러시아인 11%로 구분되었다.

이어 외적인 유사성 또한 발견했다는 답변에 77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민족별로는 고려인 64%, 카자흐인 31%, 러시아인 5%로 구분되었다. 반면 외적인 유사성을 발견하지 못한 인원은 14명으로 구분되었으며 민족별로는 고려인 50%, 카자흐인 21%, 러시아인 29%으로 구분되었으며 “모른다”고 답한 인원수는 9명에 민족별로는 고려인 55%, 카자흐인 15%, 러시아인 15%, 아제르바이잔인 15%로 구분되었다.

위의 내용에 약간 덧붙이는 내용으로 고려인들은 강제이주 된지 70여 년이라는 세월동안 다른 곳(카자흐스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 사고방식, 철학, 에티켓, 도덕뿐만 아니라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에 처음 방문할 때 고려인과 카자흐인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도 종종 눈에 띄곤 한다.

설문에 참여한 100명중 49명은 한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다고 한다.

특히 15세에서 21세까지의 집합군에서는 이미 28명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 소재 대학의 어학당에서 한국어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0세에서 40세까지 이르는 집합군에서는 단 2명만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해 큰 대조적인 차이를 이루고 있다.

100명의 설문 응답자 중 27명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답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일관성 있는 답변으로 한국 드라마를 꺼리는 것은 아니며, 업무 관계로 시간이 허락지 않아 시청할 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그 외 3명은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답했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응답자의 50%이상은 드라마 시청시간대가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28%의 응답자들은 시간대가 부적절하다고 해 아쉬움이 남아 있다. 하지만 방영 시간대가 더욱 편안한 시간대로 옮겨진다면 고정적인 시청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연도 함께 실려 있다.

카자흐스탄 방송채널 “TAN” 방송의 경우 한국 드라마를 방영한 직후 시청률이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5].

“한국 드라마와 카자흐스탄의 시청자들”이라는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카자흐스탄 안에서 한류가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 짐작할 수 있다. 부적절한 조건 때문에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한류가 크게 빛나고 있지는 않지만 시나브로 카자흐스탄에 한류가 스며들고 있다. 한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카자흐스탄을 포함하는 중앙아시아에 메커니즘을 선사했다. 한류에 의해 미래의 카자흐스탄도 태국, 필리핀, 일본처럼 한국 제품에 대해 그들과 같은 연쇄반응으로 한국 제품들이 타국 제품보다 보다 많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지 않을까? 또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의 수준도, 비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카자흐 국립대학교 한국어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마지막 문제에 대한 조사를 했다. 조사에 학생 60명이 참가했고 그 중에 1학년-18명, 2학년-14명, 3학년-19명하고 4학년-9명이었다. 한국어 학과에서 학생들 85명하고 석사 대학원 학생들 5명이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에 총 학생수의 75%가 참가하여 그 중에 반은 1-2학년 학생들이고 다른 반은 3-4학년 학생들이었다.

“당신이 한국 드라마를 보십니까?”라는 첫번째 질문에 학생 60명 중 54명이 긍정적 대답을 하며 총 참가자수의 90%가 되고 나머지 10%는 부정적 대답을 했다.

한국 드라마가 카자흐스탄에서 학생들 대부분이 입학 전에 상영되기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며 학생 중 41명(68%)이 한국 드라마를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 본 것이 당연하다. 전체 응답자 중 작은 부분이, 즉 40%는 한국 드라마가 한국어 공부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참가자들이 한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함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이다.

다음 질문들은 학생들이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보여 준다.

당신은 인터넷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정보를 찾는 일이 있습니까?

“예”-18명/30%

“아니오”-42명/70%

당신이 잡지, 신문에서 나오는 한국 드라마, 한국 배우들에 대한 기사를 읽습니까?

“예”-34명/57%

“아니오”-26명/43%

요즘 카자흐스탄에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보통 정보를 대중매체에서 받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 차이는 2배가 되었다. 지금 카자흐스탄이 인터넷 보급 및 정규적 사용자수로 아시아와 유럽 국가에서 뒤떨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 및 러시아에서 정규적 사용은 1달에 3번 이용하는 것이다). 요즘 카자흐스탄에서 인터넷 사용자수는 늘었지만 국가 총 인구의 5%도 안 된다. 카자흐스탄인의 10%는 인터넷을 사용할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다. 카자흐스탄에서 인터넷은 중요 2도시에만 개발되고 있다: 옛 수도 알마티 시 하고 현재의 수도 아스타나 시이다.

문화에 대한 지식-39명/65%
한국 역사에 대한 지식-11명/18%
한국인의 생활 양식-33명/55%
다른 것: 사고방식-2명/3%

“한국 드라마를 통해 어떤 지식을 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참가자들은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생활 양식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고 하고 참가자 18%만이 한국역사에 대해 알았다고 한다. “다른 것”이라는 항에 아무도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지식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학생들의 대부분이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다.

역사-12명
문화-22명
성격 및 사고방식-41명
언어-32명
다른 것: 젊은이들의 생활

다음 질문들은 한국 드라마는 학생들의 한국어 듣기 및 쓰기 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에 관한다. 참가자 절반이 드라마를 볼 때 한국어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결과는 평균 결과이고 그 중에 초급학생들보다 고급학생수가 많다는 것이 틀림없다.

다른 절반이 한국 드라마를 볼 때 듣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대부분이-51명(85%)은 한국 드라마를 통역 없이 보고 싶다고 했다. 그런 대답을 보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한국어 듣기 준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드라마를 볼 때 말을 못 알아들어도 장면을 보고, 주인공과 다른 등장 인물들의 손짓이나 몸짓, 표정을 통

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 자막이 어떤 언어로 나오면 좋습니까?”라는 질문 대답이 다음이었다.

한국어-51명
 러시아어-3명
 카자흐어-1명
 영어-3명

참가자 대부분이-85%는 자막이 한국어로 나오는 것을 원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한국어 자막을 보면 정확하고 빠른 읽기 능력과 듣기 능력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드라마 같은 경우 언어의 문장 구조, 문법을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냥 본문을 보고 언어의 음조, 속도, 템포를 느낄 수 없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국 드라마를 통역 없이 자막을 읽으면서 보는 것이다.

“한국 드라마를 본 후에 모르는 단어를 사전이나 특별 문의에 의해 찾습니까?”라는 질문에 38명이, 즉 63%는 긍정적 대답을 한다. 학생들의 85%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표현을 기억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이런 대답에 나오는 결론은 다음이다. 한국 드라마는 볼 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런 관점은 중요하고 강의나 세미나 후 학생들의 자립적 작업과 똑같은 결과를 나오게 한다. 학생들의 68%는 드라마를 본 후 단어학습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참가자의 75%는 한국 드라마를 한국어 능력을 발전하기 위해 본다고 하고 97%는 한국 드라마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질문들은 드라마 보기 조건과 관련하여 본 주제의 주변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큰 역할을 한다.

“당신은 마음에 든 드라마나 영화를 다시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77%는 긍정적 대답을 했다. 옛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repeticia est mater studeorum”-복습은 공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95%는 가능하면 한국 드라마 DVD를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어 공부에 도움을 주신 기관들, 그 중에 Korea Foundation, Korean Research Foundation, Academy of Korean Studies, Overseas Korea Foundation 등이 그런 DVD를 여기서 판매하면 좋겠다고 한다.

참가자 60명 중에는 38명은 기숙사에서 살고 있고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시청 시설을 갖고 있지 않다. 학생 60명 중에 10명만 드라마를 집에서 볼 수 있다.

12명은 대학교에서 본다. 그리고 학생 44명이, 즉 73%는 한국 드라마를 보통 한국어 수업 중에 본다고 했다. 또는 참가자 중 98%는 드라마를 수업 중이나 수업 후에 보는 것이 한국어 능력 발전에 많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학생 중 97%는 한국 드라마를 한국어 보충 수업에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조사의 마지막 질문은 “한국 드라마를 보기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 질문 대답은 다음이었다.

시간 없음-36명, 기술적 시설 없음-17명, 관심 없음-4명, 다른 것-5명

요즘 시간 부족은 한국 드라마 보기뿐만 아니라 그냥 쉬는 것에도 큰 방해가 된다. 또는 요즘 알마티에서 한국어 통번역원들이 모자라고 많은 학생들은 한가한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 중에 고학년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본 질문들의 결과를 결론하면 다음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한국 드라마로 나오는 한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 능력을 발전하기 위해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에 방해되는 것들을 같이 해결해야 한다. 그 중에 교재문제도 있다. 한국 쪽이 한국드라마 CD 하고 DVD를 공급하면 우리 선생들은 드라마와 관련된 교재를 만들 수 있다. 이 교재는 드라마 내용, 대본, 각 회에 대한 중요 질문, 등장 인물들에 대한 설명, 중요 단어 그리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배우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되어야 한다. 또는 한국어 학과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보충 수업을 준비하고 거기서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참고문헌

1. 강철근. 한류 이야기: 한류의 근원에서 미래까지 / 서울. 2006; 김수이. 한류와 21세기 문화비전. 서울. 2005; 백원담. 동아시아의 문화선택 한류. 서울 2005; 지은이: 조한혜정, 황상민, 이와부치고이치, 이동후, 김현미.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서울 2006; 지은이: 유상철, 안혜리, 정현목, 김준술, 정강현. 한류의 비밀. 서울 2005 - 보기
2. 2007년3월23일, 알마티 시간 23.55 정보.
3. 조사는 34개 질문을 포함 된다.
4. 조사는 음력설날 때 한국어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이루었다. 2007년2월7일
5. 방송채널 “TAN” 2006년 6월

<카자흐스탄의 한국학과 한류>에 대한 토론

이 지 영
(상명대학교)

이 논문에서는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있다. 곧, 카자흐스탄의 한류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한국 드라마와 카자흐스탄의 시청자'란 제목으로 서면 질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류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 드라마 시청에 관한 다양한 질문과 분석을 제시하고 한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앞으로 카자흐스탄의 한류 전망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민족과 연령층의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한류와 연결 지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생각을 비롯하여 한국 드라마의 방영 현실과 그에 대한 요구, 나아가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류 현상을 한국 드라마로 제한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류의 정의와 범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카자흐스탄에 한국 드라마가 소개된 것은 약 5년이 넘었지만 특히 2005년 이후 많은 드라마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한국 드라마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드라마가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듣고 싶다. 드라마를 통하여 내적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있는데 내적 유사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만 조사했는데 카자흐스탄에 드라마나 영화 이외의 다른 장르에 대해서는 소개된 적이 없는지, 혹시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러한 장르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혹시 이러한 반응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셋째, 앞으로 카자흐스탄에서 한류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바람직한 진행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할 때 민족과 연령을 구분하였는데 민족과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보

이 지 영

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한류의 중심이 되는 민족과 연령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끝으로, 한류 현상이 카자흐스탄의 한국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곧, 한류로 인하여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한류로 인하여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카자흐스탄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주제 발표 3분과
‘한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 연구

사 회: 이유기 (동국대)

발표 7: 방성원 (경희사이버대)

8: Hye-Jin KIM

(일본 Kurume University)

Ui-Jin KIM(일본 Tohoku-
Gakuin University)

9: Hye-Sook Wang

(미국 Brown University)

토론 7: 정혜경 (세종대)

8: 선홍남 (동국대)

9: Eun-Hee Shin

(미국 Simpson College)

‘한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 연구

방 성 원
(경희사이버대학교)

1. 서론

한류의 실체는 무엇인가? 한류는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 ‘한류’를 해외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유행하는 현상 또는 그와 유사한 종류라는 의미로 정의한다면 (신윤환·이한우 외 2006:15), 한국인 개개인의 한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007년 현재 한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외연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류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매우 복잡하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가 하면 배타적 민족주의의 경향에 대한 자기비판이 있고, 꾸준히 지속·확산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가 하면 화려했던 홍콩 영화의 인기가 어느 날 폭 가라앉은 것처럼 한류의 열기도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함께 존재한다.

본 연구는 점차 그 외연을 확대해 가는 ‘한류’의 언어적 의미, 그리고 그 확대된 외연을 생산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한국인들의 인식을 탐구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되었다. 문제의 탐구를 위해 기본적으로 언어 사용의 양상에 당대 언어 사용자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몇 가지 방법으로 언어 사용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범위, 연구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류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 변화에 대한 탐구이다. 최근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한류에 대한 인기 혹은 사회적 관심은 줄어들고 있는가? 예컨대 ‘드라마, 영화’의 급등락하는 수출 곡선처럼 한류에 대한 관심이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를 조사하기 위해 2001년에서 2006년까지 네 개 언론사의 한류에 대한 분기별 기사 수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논의한다.

둘째, 한류의 실체에 대한 탐구이다. 한류의 전형적인 의미 범주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한류의 외연은 확대되고 있는가? 어떠한 범주로 확대되고 있는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 2001년과 2006년의 언론 기사 중 한류 관련 기사의 주제 범주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한류의 기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기사 문 내에 포함된 ‘한류’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조사하였다. 이

는 3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셋째, '한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 이 연구에서는 '한류'라는 단어의 결합 관계 분석을 통해 한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추론할 수 있다고 보고, 2001년과 2006년에 '한류'가 포함된 문장 내의 결합 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유형화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변화 추이, 한류의 의미 범주 변화, 한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향후 한류의 지속 가능성,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한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변화 추이

연구자의 조사에 의하면 '한류'라는 단어가 국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0년 1월이다.¹⁾ 문화관광부에서 중국 등 해외음반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 톱 가수들이 참여한 외국어 버전 프로젝트 음반 3종을 제작했다는 내용의 중앙일보 2000년 1월 8일자 기사로서 그 중 중국어 버전인 <한류-송 프롬 코리아>에 '한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한류 열풍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²⁾, 이러한 국내에서의 관심은 한국 드라마, 가요, 영화에 대한 해외 수요자의 갑작스러운 관심 증대, 수출량 증가와 맞물려 있다. 또한 최근 한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 역시 한국 드라마, 영화의 수출량 감소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2장에서는 먼저 한국 드라마, 영화의 수출량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한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1 한국 드라마, 영화에 대한 관심의 변화 추이

한류가 일어난 지역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설문 조사에 의하면 드라마야말로 한류 열풍을 주도해 온 장르임이 분명하다. 조혜영(2003:218)에서 한국 체류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 의하면 한류 열풍 주도 분야는 '드라마(58.1%) > 일부 스타(11.9%) > 대중가요(10.6%) > 전자제품(6.6%) > 영화

1) '한류'의 첫 등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지만, 적어도 어원적으로는 1980년대에 중국 대중 문화의 큰 유행을 주도했던 일본 문화가 밀려들어오는 현상을 '日流'라는 말로 사용한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조혜영 2003:213).

2) 조한혜정(2002:8)에서는 2001년 2월부터 국내에서 한류 열풍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5.3%)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강승혜(2005:1)에서 일본인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드라마(73.1%) > 영화(9.4%) > 가요 (9.2%)’의 순서로 역시 드라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 그러나 한류 발생과 함께 급격히 증가해 온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수출액이 2006년 처음으로 감소함으로써 한류에 대한 불안감,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드라마, 영화의 수출액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도별 드라마 수출액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6) ※단위: 1,000달러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액	7,945	16,398	28,342	57,714	101,620	85,891

그림 1. 2001-2006년 드라마 수출액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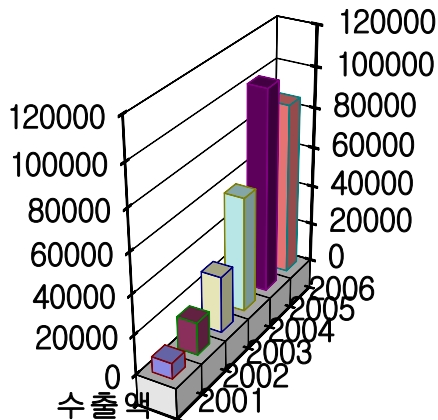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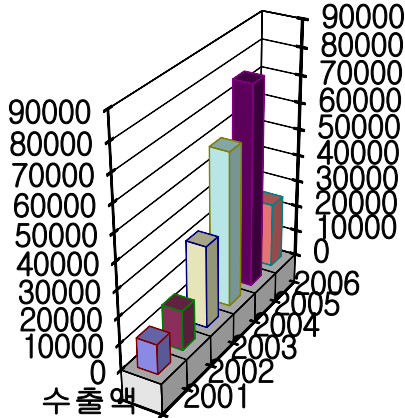


표 2. 연도별 영화 수출액 (한국영화연감 2006) ※단위: 1,000달러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액	11,250	14,950	30,980	58,280	75,990	24,510

3) Munkhjargal(2005:32-33)에 의하면 몽골에서는 ‘영화 > 미용 > 드라마 > 일부 스타 / 의류 > 대중가요’의 순서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위 글에서도 몽골 대부분의 응답자가 장편 드라마를 영화로 생각하는 점으로 추론할 때 TV 드라마가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분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그림 2. 2001-2006년 영화 수출액 변화 추이



2.2 사회적 관심의 변화 추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 드라마, 영화의 수출액 변화 추이를 보면 2005년까지 가파른 상승을 보이다가 2005년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영화의 경우 2006년 하락 폭이 매우 커서 한류의 위기론이 등장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드라마의 경우에는 영화에 비해 비교적 완만한 감소 곡선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류에 대한 사회 일반의 관심은 어떠한가? 이 연구에서는 네 개 언론 매체(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YTN)의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분기별 한류 관련 기사 수를 조사함으로써 한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언론사의 분기별 한류 관련 기사 수는 다음과 같다.4)

4)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연도에 따라 기사 제공 방식, 데이터의 범위가 다양해졌다. 이에 두 언론사에 대해서는 연도별 데이터 비교를 동등한 기준으로 하기 위해 잡지류, 인터넷 보도 등은 제외하고 신문 기사(PDF)만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단 동아일보는 PDF에 동아일보(연합)까지 포함되어 있고 분리 검색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다른 두 언론사에 비해 기사 수가 더 많다. YTN은 기사 수가 많지 않으므로 모든 범위로 검색한 결과로 비교하였다.

표 3. 2001-2006년 분기별 한류 관련 기사 수(조선일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3	1	65	51	25	44	21	15	16	10	10	27	23	43	45	122	123	71	128	74	99	66	62	76

표 4. 2001-2006년 분기별 한류 관련 기사 수(중앙일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5	46	18	20	24	19	29	12	19	24	21	30	43	100	111	62	81	105	114	77	73	72

표 5. 2001-2006년 분기별 한류 관련 기사 수(동아일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0	15	62	81	33	45	27	19	26	29	33	45	45	67	107	254	274	177	189	196	178	145	156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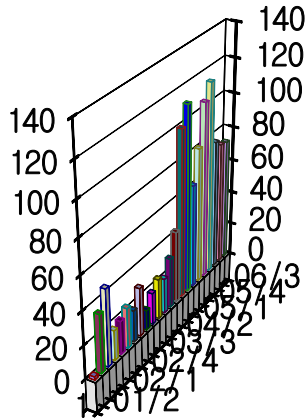
표 6. 2001-2006년 분기별 한류 관련 기사 수(YTN)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0	9	11	9	8	2	2	2	0	1	5	8	29	23	140	133	68	62	86	74	56	37	63

조사 결과 언론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2004년 4분기(10월~12월), 2005년 1분기(1월~3월)에 한류 관련 기사 수가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며, 연도별로는 2005년에 가장 기사 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⁵⁾. 그리고 2005년 2분기 이후로 약간의 하락 폭을 보인다. 조선일보의 연도/분기별 한류 관련 기사 수를 분석한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2004년은 일본에서 <겨울연가>가 NHK-TV 지상파 방송을 시작한 해로서 ‘윤사마’ 열풍이 정점에 달했던 해이고, 2005년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한류 관광의 해’로 선포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잇따라 제기된 해이다(백원담 2005:390-302 참조).

<그림 3> 한류 관련 기사 수의 변화 추이(조선일보)



<그림 3>의 그래프는 분기별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연도별로 표시했던 드라마, 영화의 수출액 변화 추이(그림 1, 그림 2)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장르인 ‘드라마’의 등락 곡선과 유사한 모양을 띠고 있다.

요컨대 한류에 대한 국내의 사회적 관심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중에서는 2004년도 하반기, 2005년도 상반기에 정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한류의 의미 범주

‘한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영역은 점차 매우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초기의 한류에 대한 논의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위시하여 대만, 홍콩, 베트남 등의 주민,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가요, 드라마, 패션, 관광, 영화 등 한국 대중문화를 향유/소비하는 경향”(조한혜정 2002:4)과 같이 향유 지역 중심의 현상, 즉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소비 경향’으로 한류를 정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의에서 사실상 한류는 ‘대중문화’와 ‘소비’ 현상 즉, ‘대중문화’와 ‘경제’의 범주로 이해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점차 한류에 대해 한국의 세계 진출 전략과 맞물려 그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서 한류는 향유 지역 중심의 용어일 뿐만 아니라 생산 지역 중심의 용어로도 혼용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박기수 2005:95 참조). 그 결과 현재의 한류는 ‘대중문화’와 ‘경제’의 의미 범주뿐만 아니라, 한류 생산의 주요한 주체인 한국인의 기대와 바람이 포함되어 더욱 다양한 범위에서 논의되고 결과적으로 그 외연의 확대가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한류의 논의 범주 확대, 혹은 외연 확대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하거나 해석을 내리기보다는 한류의 기본 의미와 확대된 의미 범주를 확인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1년 한류 관련 기사 106건과 2006년 한류 관련 기사 152건을 대상으로 하여 각 기사의 주제 영역을 분석하였다⁶⁾. 구체적으로 3.1에서는 ‘한류’로 검색된 기사의 주제 영역을 살펴보고, 3.2에서는 각 기사 내에서 ‘한류’라는 어휘가 갖는 기본 의미를 분석하기로 한다.

3.1 논의 영역의 확대

주제 분류의 일관성을 위해 주제의 영역을 크게 대주제로 구분하고, 다시 하위 주제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2001년 하반기 한류 관련 기사 106건, 2006년 하반기 한류 관련 기사 152건의 주제 범주는 각각 다음 <표 7>,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표 7. 2001년 하반기 한류 관련 기사의 주제 범주

순위	대주제	하위 주제
1	경제(47)	서비스업(16) {게임(3), 금융(2), 레저(1), 엔터테인먼트산업(1), 운송(5), 유통(3), 제약(1)}, IT 산업(10), 경제일반(8), 홍보·마케팅(6), 관광(5), 제조업(1), 건설(1)
2	대중문화(33)	대중음악(11), 스타(10), 영화(3), 방송(3), 드라마(2), 뮤지컬(2), 연극(2)
3	사회(11)	한류 인식(5), 한류 분석(4), 의료(1), 중국 열풍(1)
4	스포츠(6)	축구(5), 바둑(1)
5	외교(2)	문화 교류(1), 정상회의(1)
6	정치(3)	정책(3)
7	전통문화(1)	공예(1)
	책(1)	스타(1)
	음식(1)	주류(1)
	한국어(1)	한국어교육(1)

※ () 안의 숫자는 해당 주제의 기사 수

6) 분석 대상 기사는 중앙일보 2001년 하반기(7-12월) 106건, 2006년 하반기(7-12월) 152건으로 한정하였다. <표 4>의 기사 수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표 4>에서는 PDF 기사 수를 검색했으나, 3장에서는 기사 내부 검색의 용이성을 위해 데이터가 그대로 제공되는 기사(2001년은 조인스 뉴스, 2006년은 중앙일보 뉴스)로 검색했기 때문이다.

표 8. 2006년 하반기 한류 관련 기사의 주제 범주

순위	대주제	하위 주제
1	경제(32)	서비스업(16) {엔터테인먼트산업(7), 운송(2), 요식업(2), 게임(1), 금융(1), 부동산(1), 스포츠산업(1), 패션산업(1)}, 경제일반(5), 관광(4), 제조업(3), 홍보·마케팅(3), IT산업(1)
2	대중문화(39)	문화행사(10), 영화(7), 대중음악(6), 드라마(4), 스타(4), 뮤지컬(3), 비보이(3), 방송(1), 만화(1)
3	사회(21)	사회·문화현상(6), 민간문화교류(3), 복지(3), 한류분석(2), 법(2), 사건(2), 사회운동(1), 한류취재(1), 군사(1)
4	교육(14)	교육(5), 대학(7), 연수(2)
5	스포츠(12)	야구(6), 축구(2), 골프(2), 바둑(1), 핸드볼(1)
6	전통문화(7)	민속(3), 역사(4)
7	외교(6)	외교적 인물(5), 문화 교류(1)
	정치(6)	정책(3), 정치인(2), 정치 일반(1)
	책(6)	한류관련(3), 경제일반(1), 관광(1), 인물(1)
10	한국어(3)	한국어(1), 한국어교육(1), 한글 패션(1)
11	패션(2)	패션쇼(1), 해외패션(1)
	미용(2)	화장품(2)
13	과학기술(1)	위성(1)
	미술(1)	화가(1)

※ () 안의 숫자는 해당 주제의 기사 수

2001년과 2006년의 주제 분류를 비교해 보면 10개의 대주제에서 14개의 대주제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세부 주제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다양하게 주제의 영역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01년의 한류 논의에서 '경제'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에 비해 2006년에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고, 다양한 주제 영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교육', '전통 문화' 영역의 한류 기사 수 증가는 해당 주제 영역에서 한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끌어 내려는 한국인들의 의식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자료는 한류가 논의되는 영역의 확대를 증명해 주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그 외연의 확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2 한류의 기본 의미

3.1에서 보았듯이 초창기의 한류가 주로 경제 영역과 대중문화 영역의 의미 범주로 집중되어 사용되었다면 2006년에는 비교적 그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한류의 기본 의미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앞서 3.1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2001년, 2006년의 기사 내에서 '한류'라는

어휘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예컨대 다음 기사는 ‘관광업계의 스타 마케팅’에 대한 것으로 주제 범주는 ‘경제(하위 주제: 관광 마케팅)’로 분석될 수 있지만 기사 내에서 한류가 사용된 맥락을 살펴보면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의 유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우리가 한류에 대해 인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대만, 베트남등지에서 일고 있는 한류(韓流) 열풍에 힘입어 국내 관광업계가 선보이고 있는 ‘스타마케팅’ 전략이 동아시아관광객 유치에 한 몫을 하고 있다……

- 중앙일보 2001년 8월 8일자 기사 중

흥미로운 것은 ‘한류’의 의미가 ‘한국 대중문화’의 범주를 넘어 ‘특정 분야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한류(韓流)’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액토즈소프트는 최근 현지 동시 사용자 처리 능력을 3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늘렸다……

- 중앙일보 2001년 11월 19일자 기사 중

즉 ‘한류’가 ‘한국’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이러한 경향은 2006년 기사를 분석해보면 ‘특정 분야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것’의 의미를 갖는 경향으로도 나타난다.

“나처럼 한국에 다녀온 뒤 한국의 발전상에 반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류 전도사’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2006년 10월 25일 기사 중

이와 같이 한류 관련 기사 중 ‘한류’라는 어휘가 사용된 맥락 속의 의미를 기본 의미로 인정한다면 ‘한류’의 기본 의미는 크게 ‘한국 대중문화의 유행’이라는 의미를 갖는 경우(이하 ‘대중문화’로 칭함)와 ‘특정 분야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 또는 ‘한국적인 것’의 의미를 갖는 경우(두 가지의 의미는 이하 ‘한국’으로 통칭함)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한 구분에 따라 2001년, 2006년 하반기의 한류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기본 의미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9. '한류'의 기본 의미

의미	연도	2001년	2006년
	대중문화		97건(91.5%)
한 국		9건(8.5%)	37건(24.3%)
계		106건(100%)	152건(100%)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한류'의 기본 의미 자체가 '대중문화'에서 '한국'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2001년 8.5%에서 2006년 24.3%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2001년 기사에서 '한류'가 '한국'이라는 기본 의미를 갖는 경우는 모두 '특정 분야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에 해당하지만, 2006년 기사에서는 '특정 분야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29건, '한국적인 것'이 8건으로 나타나 그 기본 의미 자체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의미 속성의 확대는 한류의 외연이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4. '한류'의 결합 관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 이 장에서는 '한류'라는 단어의 결합 관계 분석을 통해 한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추론할 수 있다고 보고, 3장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2001년과 2006년의 한류 관련 기사에서 키워드 '한류'가 포함된 문장을 추출하여 '한류'라는 단어의 전후로 특정한 결합 관계를 보이는 구조, 한국인의 특정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결합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으로 삼았던 의미 특성을 각각 하나의 코드(code)로 정하여 분류한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각 코드에 해당하는 결합 관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7)

- ① [무표]8): 한류의 인기, 한류 잡지, 한류 스타, 한류 현장, 한류 드라마, 한류 영화, ……
- ② [상품] : 한류 상품, 한류 산업, 한류 마케팅, ……
- ③ [한국 주도 분야] : 디지털 한류, 공연 한류, 핸드볼 한류, 야구 한류, J리그

7) 2006년의 자료에서 훨씬 다양한 결합 관계가 나타나므로 코드별 예시는 2006년 기사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8) 특정한 의미를 찾기 어렵거나 가장 기본적인 의미, 즉 '한국 대중문화의 유행'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특정한 결합 구조를 맺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무표]로 분석하였다.

한류, 바둑 한류, LPGA 한류, 교육 한류, 담배 한류, 미술 한류, 뮤지컬 한류, ……

- ④ [바람] : 한류 붐, 한류 바람, 한류 열풍, 시들어가는 한류를 다시 데우다, 한류의 불길을 지피다, 한류가 불다, 한류를 일으키다, 한류를 몰고 오다, 한류에 편승하다, ……
- ⑤ [우려] : 반짝 한류, 지속 가능한 한류, 한류를 경계하다, 한류 역풍, 반한류, 주춤해진 한류, ……
- ⑥ [확산] : 한류가 퍼져가다,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다, 한류가 동남아를 휩쓸다, 한류를 확산하다, 한류의 세계화, 한류 전파, 한류 전도사, ……

위의 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하여 2001년 하반기 기사 중 한류를 키워드로 하는 106개의 문장, 2006년 기사의 152개 문장에 나타난 ‘한류’의 결합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한류’의 결합 관계 유형

연도 \ 결합 관계	2001년	2006년
[무표]	14 (13.2%)	68 (44.7%)
[상품]	5 (4.7%)	14 (9.2%)
[한국 주도 분야]	2 (1.9%)	14 (9.2%)
[바람]	78 (73.6%)	35 (23%)
[우려]	2 (1.9%)	7 (4.6%)
[확산]	5 (4.7%)	14 (9.2%)
계	106	152

2001년의 ‘한류’ 결합 관계 분석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류’가 ‘바람’ 또는 ‘열풍’ 등의 어휘와 결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바람’, ‘붐’, ‘열풍’, ‘불길’ 등의 결합 관계는 한류가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언젠가 소멸될 현상이라고 보는 인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001년의 담론들이 ‘한류’에 대한 인식 또는 ‘한류’를 소화하려는 논의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조한혜정 2002 참조), 한국인들 스스로 ‘한류’를 우연하게 발생한 일시적 [바람], 갑작스러운 열풍으로 인식하였던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6년에 이르면 ‘한류’를 [바람]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대폭 낮아지고, 한류에 대한 무표적 결합이 44.7%로 월등히 높아져 ‘한류’라는 표현의 제약 관계가 훨씬 줄어들고 표현의 생산성이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 그 대신 한류를 상품, 산업 등의 경제적 논리로 인

식하는 비율, '○○ 한류'와 같이 소위 한국 주도 분야를 일컫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한국 주도 분야'를 일컫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3.2의 분석과도 상통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인식,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확산]을 바라는 인식이 고르게 증가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한류'의 결합 관계 변화 양상은 서론에서 언급했던 바, 한류에 대한 한국인의 복잡한 인식의 변화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참고문헌

- 강승혜(2005), 한국어 학습자의 '한류'에 대한 인식-일본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중앙대 한류아카데미 주최 세미나 발표 자료
- 강철근(2006), 한류 이야기, 이체
- 박기수(2005), 한류의 지속 방안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 인문콘텐츠 6, 인문콘텐츠학회
- 방성원(2004), 생각의 결합 관계를 통해서 본 한국적 사유 방식 연구, 한국어학 23, 한국어학회
- 백원담(2005), 동아시아의 문화 선택 한류, 펜타그램
- 신원환·이한우 외(2006), 동아시아의 한류, 전예원
- 윤재식(2006), 마켓클리핑 06-09,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영화진흥위원회(2006), 한국영화연감,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안나(2006), 몽골에서의 한류와 발전 방안, 일본문화연구 20, 동아시아일본학회
- 조한혜정(2002), 동/서양 정체성의 해체와 재구성: 글로벌 지각 변동의 징후로 읽는 '한류 열풍', 한국문화인류학 35-1, 한국문화인류학회
- 조한혜정(2003),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연세대 출판부
- 조혜영(2003), 한국 체류 중국 유학생들의 한류와 한국 이미지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3-2, 한국교육사회학회
- 최민성(2005), 한류 지속의 동력으로서 한국 문화의 정체성, 인문콘텐츠 6, 인문콘텐츠학회
- Munkhjargal(2005), 몽골에서의 한류 현상의 배경과 그 성격, 서울대 국제학과 석사논문
- 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 YTN 홈페이지

<‘한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 연구>에 대한 토론

정혜경
(세종대학교)

위 논문은 ‘한류’에 대하여 2001년과 2006년의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인식변화를

1. ‘한류의 의미 범주’와 2. ‘한류와 다른 단어와의 결합관계’를 조사한 결과로부터 분석, 고찰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북미, 유럽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한류에 대한 국내의 한국인의 인식변화에 대하여 탐색하고 고찰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필요한 연구라 생각된다. 단, 다음과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한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나 연구의 면밀함을 위해 몇 가지 의문 사안에 대하여 논의를 제안한다.

1) ‘한류’라는 단어가 국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0년 1월이라는 견해에 의거하여 기본적인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추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주 1의 내용의 ‘일류’라는 용어에서부터 ‘한류’를 막연히 추정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한류’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 변화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 ‘한류’라는 용어의 생성과정과 사용, 전파과정에 대한 원초적인 추적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에서의 언론 기사에 나타난 한국인의 ‘한류’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변화를 논문의 주테마로 삼고는 있으나 이 용어의 최초의 발생배경, 확산지인 중국의 상황 분석이 필연적이라 생각된다. 2001년은 이미 한국에서도 ‘한류’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류’로부터의 발생이라는 개념적 전개를 보이고 있는데 ‘일류’라는 것으로부터 ‘한류’라는 개념이 발생했는지, 과연 ‘한류’처럼 ‘일류’라는 용어가 제대로 성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지 등과 관련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매우 중요한 논점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2) 주 3에서 언급한 몽골에서 응답자가 장편 드라마를 영화로 생각하는 점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몽골에서는 한국의 CGV와 같은 종합 복합 영화 상영관이 한국인에 의해 세워져, 한국영화가 상이 다수 상영되고 있어 한국 영화의 인기가 대단하며 동시에 TV드라마도 역시 1997년 이래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3) p.3의 영화에 비해 드라마가 비교적 완만한 감소 곡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이해와 토론이 필요하다.
- 4) p.5의 '한류'라는 용어의 발생배경과 발생초기의 의미, 그리고 본격적인 한류 붐과 연계된 '한류'라는 용어의 의미 변화에 관한 해외에서의 전개과정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며 이는 국내의 '한류'라는 용어의 의미전개와는 별도의 시차적, 의미적 전개양상을 보이므로 비교대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한류'라는 용어가 언론기사에 대거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연구자의 관점대로 2001년부터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나 이것은 이미 본격화된 연도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
- 5) 표 4와 표 7의 2001년과 2006년의 기사건수의 차이는 검색하는 조사대상(중앙일보의 PDF의 기사와 조인스 뉴스, 중앙일보)이 각각 다른데서 비롯되고 있다. 데이터의 균질성확보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 6) p.6의 한류관련기사의 주제 범주에서 2006년에 '교육' '전통문화'영역의 기사건수가 증가되는 배경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라 생각되는가?
- 7) p.9 표 10에서 2001년 '한류'의 결합관계 유형에서 무표가 13.2%라는 것은 다소 이해가 안 된다. 이미 중국, 홍콩, 대만 등에서 한류스타, 한류 현장, 한류의 인기와 같은 '무표'의 의미로 대단히 확산이 많이 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2001년에 단지 '한류바람'이라는 결합구조가 73.6%라는 것은 아무래도 한류의 확산현상이 시차를 두고 늦게 나타난 국내의 실상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한정지어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2001년과 2006년 두 해의 기사만으로 "한류'의 의미결합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으나 2001년에서 2006년에 걸쳐 국내에서의 '한류'의 의미 결합의 구조는 매우 동적으로 활발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2001년에서 2006년까지, 또는 2001-2002, 2003-2004, 2005-2006과 같은 3기로 나누어 고찰해보는 것도 분기별로 타당성을 갖는 나눔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지 궁금하다. 국내외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상황과 연계해 볼 때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한류'와 관련하여서는 매우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2001년과 2006년만으로 크게 둘로 대별하여 고찰하는 것은 대략적인 고찰에 머무를 수가 있어 역동적인 변화의 실태를 면밀하게 포착, 분석한다는 면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자습 소프트웨어의 개발

김혜진 · 김의진

(Kurume University · Tohoku-Gakuin University)

1. 서론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의 중요한 4가지 기초 능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쓰기]는 학습자의 충분한 반복연습을 필요로 한다. [1]

한국어를 처음 접하게 되는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어디서부터 써야 하는지, 또 어떤 쓰기 순서에 의해 써야 하는지는 수업중 교사의 지도가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한국어교육의 초급단계에 있어서 [쓰기] 능력은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많은 반복훈련과 연습을 어느 정도 해야만 익힐 수 있는 기본적 학습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게다가 한글 자음의 경우 모음의 위치에 따라 자음의 형태가 조금씩 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글자 형태의 변형에 대해서도 아울러 교사의 지도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종래에 외국어 학습의 [쓰기]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여러가지 소프트웨어가 제안되었다. 예를들면, 펜 형태의 디바이스나 PDA를 이용하여 화면상에 문자를 써서 그 문자를 판단하는 것등이다. [1,2]

그러나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한자의 사용이 많은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다수이며, 개인 학습자의 경우 별도의 전용 외부장치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경제적인 부담도 큰 상황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초급단계에 있는 한국어 학습자의 한글 [쓰기]에 있어서 느끼는 이해의 어려움과 학습자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로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초급단계에 있는 개인 학습자의 한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초급자들이 자주 실수를 범하는 조사의 결합인 기본문법도 동시에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 자습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제안하기로 한다.

본고의 소프트웨어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소프트웨어의 개발에는 Java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한다. Java프로그램 언어는 컴퓨터에 이미 인스톨되어있는 다른 OS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사용범위가 높다.

이 소프트웨어가 갖는 기존의 소프트웨어와의 다른 특징으로는 학습자가 [한글 쓰기]를 연습할 때 별도의 외부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가정용으로 나오는 컴퓨터의 일반적 마우스를 이용하여 쓰기연습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초급단계의 학습자에게는 바로 자판기로 한글을 입력하는 방법보다는 연필감각으로 마우스를 움직여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한 획 한 획을 쓰면서 외우는 것이 한글의 쓰기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의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외부장치가 필요없는 가정용 컴퓨터에서 쉽고 간단하게 이용되어 학습자의 한글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한글의 데이터화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이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의 대응관계를 이해하면 학습자는 한국어의 규칙성을 빠르게 습득하게 되어 한글의 기본구조를 쉽게 익힐 수 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음과 모음을 한 눈에 구분할 수 있다.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한 음절이 되며, 단어는 1음절 이상으로 되어 있다. [3,4]

이러한 구조의 한글을 컴퓨터에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도록 단어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된다. 본 소프트웨어에서는 컴퓨터 화면에 쓰여지는 한국어를 특정의 데이터로 인식함으로써 높은 효율의 문자인식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1 정의

여기서는 본문 중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를 정의하기로 한다.

- **자소** : 자소는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다.
- **선분 코드** : 한국어는 4종류의 선분도형(원, 수평선분, 수직선분, 대각선분)으로 나타낸다. 원 이외의 선분도형에 방향을 넣어 수평선분은 1, 수직선분은 2, 대각선분은 좌우 두 개로 나뉘어 3과 4의 수치로 한다. 단 원은 0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값들을 선분 코드로 부른다.
- **스트록 코드** : 스트록이라는 것은 한국어를 쓸 때의 한 획으로, 8종류가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8종류의 스트록은 1개이상의 선분코드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또 8종류의 스트록에는 서로 다른 번호를 넣어 그 수치를 스트록 코드라고 부른다.
- **자소 코드** :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기본개수는 각각 14개와 10개이지만, 본

소프트웨어에서는 5개의 복합자음 (ㄱ, ㅋ, ㆁ, ㆁ, ㆁ)과 4개의 복합모음(ㅏ, ㅑ, ㅓ, ㅕ, ㅗ, ㅛ)을 기본자소에 추가한다. 이러한 자소는 1개이상의 스트로크에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모든 자소를 스트로크 코드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음(19개)과 모음(14개)와의 구별은 최하위 비트를 사용하여 1개 자소당 6 비트가 사용된다. 이 비트가 자소 코드이며 그 중의 일부분의 예를 <표2>에 나타내었다.

표 1. 스트로크 코드



선분코드	스트로크	스트로크 코드
0		10
1		11
2		12
1,2		13
1,4		14
2,1		15
3		16
4		17

표 2. 자소 코드의 예

스트로크 코드	자소	자소 코드
12,11	ㅏ	000000
12,11,11	ㅑ	000010
.....
12	ㅣ	010010
13	ㄱ	000001
.....
15	ㄴ	000011
.....
14,16	ㅈ	010001
.....

2.2 스트로크의 코드화

여기서는 문자의 스트로크에 포함되어 있는 선분도형을 선분코드로 추출하는 처리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 원 : 스트로크가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원이 된다.

(1) 스트로크내의 점($O_i, i=0,1,\dots,n$)에서 각 2점간의 거리총(L)은 식(1)를 만족시켜야

만 한다. 여기에서 $dist(O_i, O_{i+1})$ 은 2점간 (O_i, O_{i+1})의 유클리드 거리를 나타낸다.

$$L \left(= \sum_{i=0}^{n-1} dist(O_i, O_{i+1}) \right) > 80 \quad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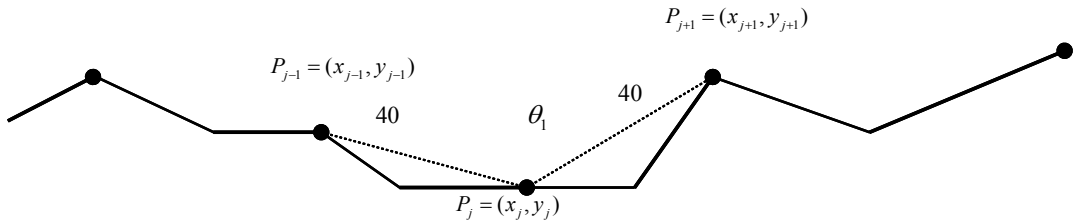
(2) 양 끝점 (O_0, O_n)사이의 거리(D)는 식(2)를 만족시켜야만 한다.

$$D (= dist(O_0, O_n)) \leq 20 \quad (2)$$

■ 수평선분, 수직선분, 오른쪽 대각선분, 왼쪽 대각선분: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스트록은 같은 거리간격(40)으로 분할되며, 그 분할점을 $P_j(j=0,1,\dots,n)$ 으로 한다. 세 개의 점 (P_{j-1}, P_j, P_{j+1})에서 얻어진 내적(θ_1)에서 식(3)이 가능하다면 굴절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점을 특징점 Q_k 로 해 둔다.

그림 1. 스트록상에서의 P_j 와 θ_1

$$\theta_1 \left(= \cos^{-1} \left(\frac{\overrightarrow{(P_j)(P_{j-1})} \cdot \overrightarrow{(P_j)(P_{j+1})}}{\| \overrightarrow{(P_j)(P_{j-1})} \| \cdot \| \overrightarrow{(P_j)(P_{j+1})} \|} \right) \right) \geq 45^\circ \quad (3)$$



$P_j(1 \leq j \leq n-1)$ 에 대해 이상의 처리를 하여 스트록의 양 끝점을 포함한 ($Q_k = (x_k, y_k); k=0,1,\dots,n$)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아래의 식(4)-(7)의 조건에 의해 스트록은 수평선분, 수직선분, 오른쪽 대각선분, 왼쪽 대각선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theta_2 = \tan^{-1} \left\{ \frac{(y_{k+1} - y_k)}{(x_{k+1} - x_k)} \right\} \text{이다.}$$

수평선분 : $-20^\circ \leq \theta_2 \leq 20^\circ$ (4)

수직선분 : $70^\circ \leq \theta_2 \leq 110^\circ$ (5)

오른쪽 대각선분 : $-20^\circ \leq \theta_2 \leq -70^\circ$ (6)

왼쪽 대각선분 : $-110^\circ \leq \theta_2 \leq -160^\circ$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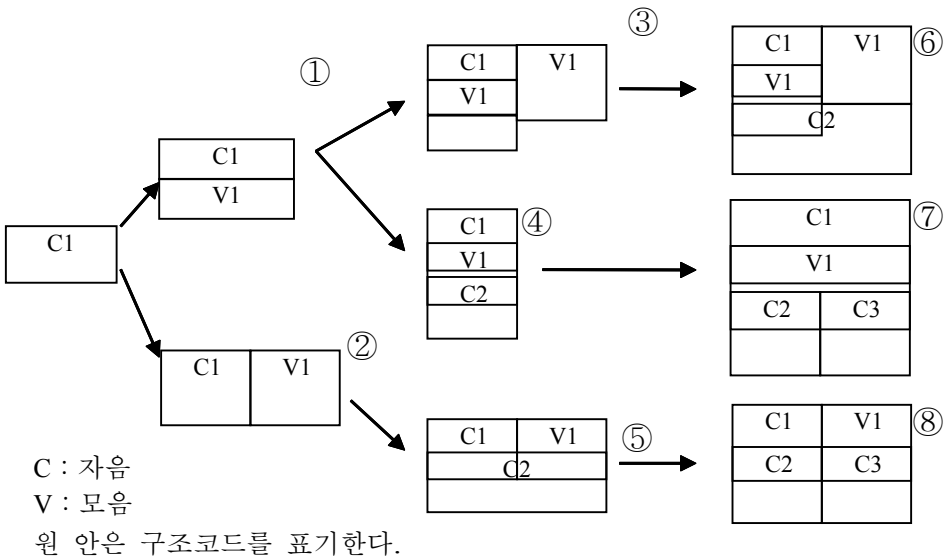
2.3 구조 코드와 문자 및 단어의 데이터화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의 문자는 그 문자를 구성하는 자음과 모음의 위치에 따라 8종류의 구조로 분류되는 특징을 가진다.[3]

본 소프트웨어에서는 구조 코드로서 8종류의 구조에 각기 다른 번호를 붙인다. 또 문자와 단어는 2.1장에서 정의된 코드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로 나타낸다. 문자는 2개이상의 자소 코드와 1개의 구조 코드 (이하 문자 데이터라고 부르기로 한다)로 표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단어도 1개이상의 문자 데이터(이하 단어 데이터라고 부르기로 한다)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단어는 데이터로 단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이 가능하다. 단어DB에는 단어 데이터와 그 단어의 일본어 해석도 포함한다. 본 소프트웨어의 단어DB에는 참고문헌[4]의 단어를 사용한다.

그림 2. 한국어의 구조



3. 한국어의 인식

2장에서 소개한 내용을 가지고 본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컴퓨터에 쓰여진 한국어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기로 한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본 소프트웨어의 실제 화면을 넣어 설명하겠다.

3.1 문자인식의 알고리즘

문자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문자에 포함된 문자데이터를 유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하의 설명은 구체적인 예와 함께 <그림 3>의 화면을 사용하겠다.

한국어의 지진은 “지”와 “진”의 2개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의 문자 [지]는 2개의 자소(자음(ㄷ)+모음(ㅣ))를 가진다. 학습자는 2개의 스트로크로 자소(ㄷ)를 쓴다. <표 1>에서 나타냈듯이 첫번째 스트로크의 선분코드는 1과 4, 스트로크코드는 14이다. 두번째의 스트로크도 같은 순서로 선분코드는 3, 스트로크코드는 16이다.

2개의 스트로크로 자소(ㄷ)의 쓰기가 끝나면 학습자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른다. 이 때에 자소가 가지는 두개의 스트로크코드에서 자소코드(010001)이 확정된다.<표 2>. 이 순서에는 학습자가 틀린 자소를 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경고를 나타내는 [학습지도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또 <그림 3>에서 보여지듯이 다음에 오게 되는 자소(모음)의 위치도 8종류의 구조에 근거하여 표시된다. 그 틀에 따라서 학습자가 두번째 자소인 (ㅣ)을 쓰면 앞 과정과 같은 순서로 스트로크가 코드화된다. 다음으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앞 과정과 같은 처리로 스트로크 코드에서 자소코드가 확정된다.

첫번째 음절의 쓰기가 끝나면 <그림 3>에 보여진 [한개의 문자확정]이라는 버튼을 누른다. 이 때 문자 [지]의 구조코드가 2로 확정된다.<그림 2>. 이 자소코드와 구조코드가 첫번째 음절 [지]의 데이터인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으로 두번째 음절인 [진]도 데이터로서 자소코드와 구조코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3.2 단어인식의 알고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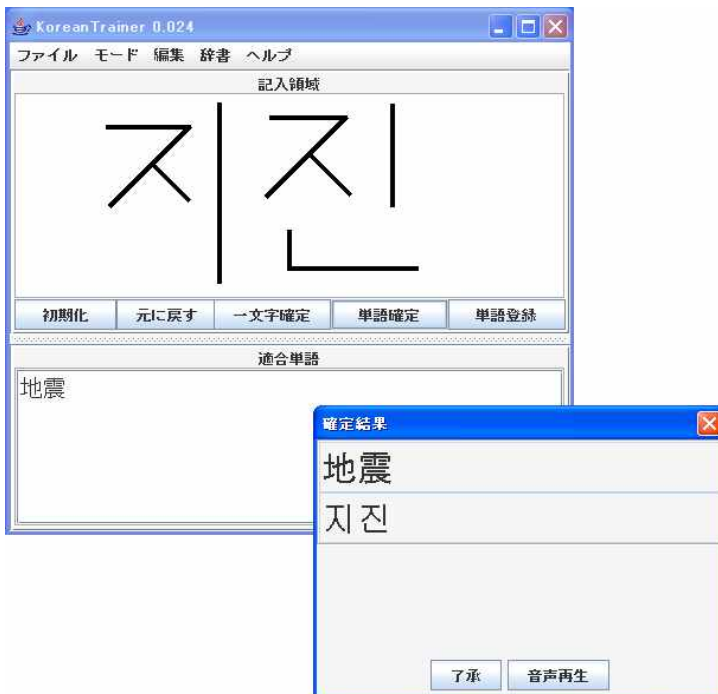
학습자가 단어를 쓴 후에 <그림 3>에 나타난 [단어확정버튼]을 누르면 단어의 인식처리가 행해진다. 인식처리후에 본 소프트웨어에서는 입력된 단어가 데이터로서 단어 DB에 등록되어 있는가를 판정한다.

입력된 한국어 단어에 대응하는 단어가 있으면 단어 DB에 있으면 그 단어의 일본어 해석이 별도의 윈도우창으로 표시된다. <그림 4>에는 일본어 해석이 나온 윈도우 창 의 예이다.

그림 3. 메인화면



그림 4. 단어확정버튼에 의해 나타난 윈도우창



4. 본 소프트웨어의 기능

이상으로 설명한 문자와 단어인식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필자는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교육학습기능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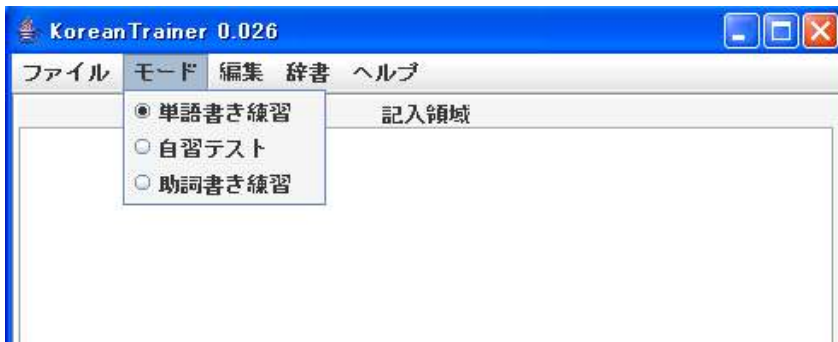
- 초급단계의 한국어 학습자가 한글을 쓸 때에 쓰기의 순서나 쓰는 장소를 정확하고 명확히 익히기 위한 쓰기지도기능
- 일본어 단어가 나오면 대응하는 한국어 단어를 스스로 써 보는 자습테스트기능
- 한국어의 단어가 자음으로 끝나는지, 모음으로 끝나는지에 따라 구분되어 결합되는 조사학습을 위한 조사의 쓰기학습 기능
- 단어장 기능
- 음성 기능

음성이나 단어장의 기능도 추가시킴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인식하여 각자 자신의 레벨에 맞는 한국어 쓰기연습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레벨에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위에서 열거한 여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메뉴바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5>에서 보여지듯이 메뉴바의 모드에서 단어쓰기연습, 자습테스트, 조사쓰기연습의 항목을 선택함으로써 각각의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와같이 본 소프트웨어는 초급단계의 한국어 학습자가 간단하고 쉽게 바로 쓰기연습을 할 수 있도록 기능면으로 고안한 소프트웨어인 것이다.

그림 5. 메뉴바의 모드에 의한 선택



4.1 단어의 쓰기 연습

본 소프트웨어에서는 모드의 초기수치로서 단어의 쓰기연습이 선택된다. 단어의

쓰기연습 모드는 초급단계의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자소를 확실히 외우기 위한 기능이다.

이 기능은 초급단계의 한국어 학습자가 아직 한국어의 자소 (자음과 모음)를 완전히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올바르게 쓰지 않은 쓰기순서로 자소를 썼을 경우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틀린 부분을 지적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자음 ㄱ 은 다음에 오는 모음의 위치에 따라 그 형태에 변화가 생긴다. 즉 “ㄱ”다음으로 세로로 된 모음의 “ㅏ,ㅑ,ㅓ,ㅕ…”가 오면 “가,가,거,겨…”로, 가로로 된 모음의 “ㅗ,ㅛ,ㅜ,ㅠ…”가 오면 “고,교,구,교…”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자음의 형태가 틀려진다.

이러한 자음 “ㄱ”의 모음 종류에 따른 외형의 변화는 초급 학습자가 실제로 직접 몇 번이고 써 보면서 익히기 전까지는 초급단계에서 자주 실수를 하게 된다. <그림 6>에 실수의 예를 나타내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한국어는 <그림 2>에서 나타내었듯이 독특한 8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구조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정해진 순서대로 쓰지 않으면 학습자에게 바로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틀린 점을 지적해주는 기능이 본 소프트웨어에 있으므로 한국어 학습자는 한 획 한 획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습득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면 3장에서 예로 든 [지진]이라는 단어는 “ㅈ”+“ㅣ”+“ㅈ”+“ㅣ”+“ㄴ”이라는 순서이다. 그러나 <그림 7>에서 나타나듯이 학습자가 4번째의 자소를 “ㄴ”으로 썼을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서 지도해 주는 기능이다.

4.2 자습 테스트 기능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스로 쓰기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았듯이 메뉴바의 모드 버튼에서 [자습연습]의 항목을 선택한다. 이 선택에 의하여 3장에서 설명한 [단어연습]의 기능에서 [자습연습]의 기능을 가진 화면으로 바뀌게 된다.

화면이 바뀌면서 단어 DB에서 랜덤으로 단어 문제를 화면에 제시하여 학습자가 그 문제를 푸는 기능이다.

<그림 8>에서는 미리 등록된 단어DB에서 랜덤으로 선택된 일본어 단어 「銀行」이 표시되어 있다. 또 기입영역에서는 「銀行」의 한국어 단어 [은행]이 학습자에 의해서 기입되어있다. 학습자는 한국어 단어를 쓴 다음에 [단어확정]의 버튼을 누르면 <그림 8>의 윈도우창이 나타나면서 정답임을 알려준다. 이 기능에 의해 학습자는 일본어 단어가 나오면 본인이 암기한 한국어를 상기하면서 글자 하나하나를 써 나갈 수 있다. 이 기능 역시 학습자의 한글쓰기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겠다.

그림 6. 틀린 자소를 썼을 경우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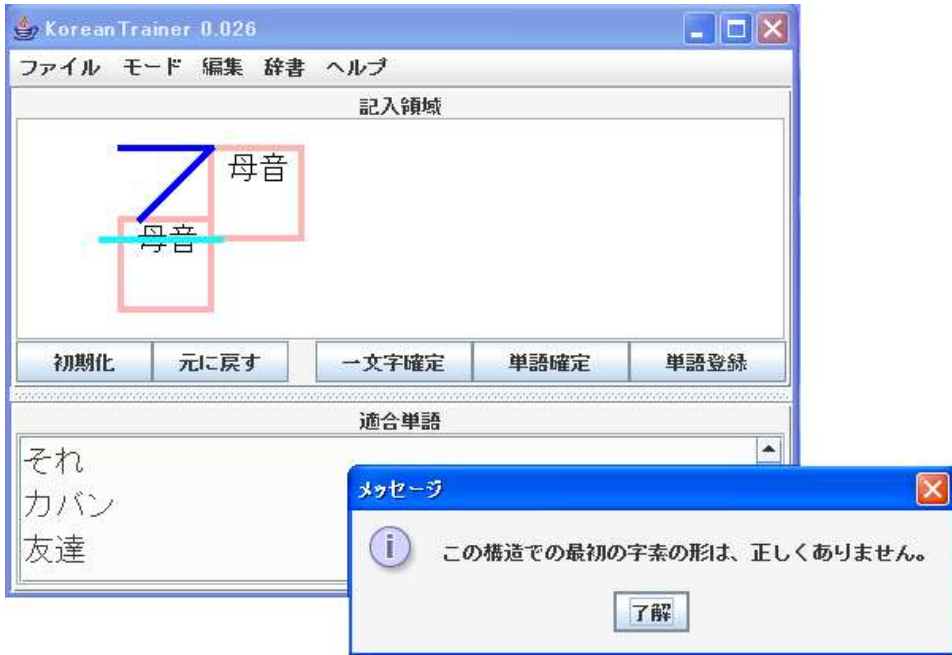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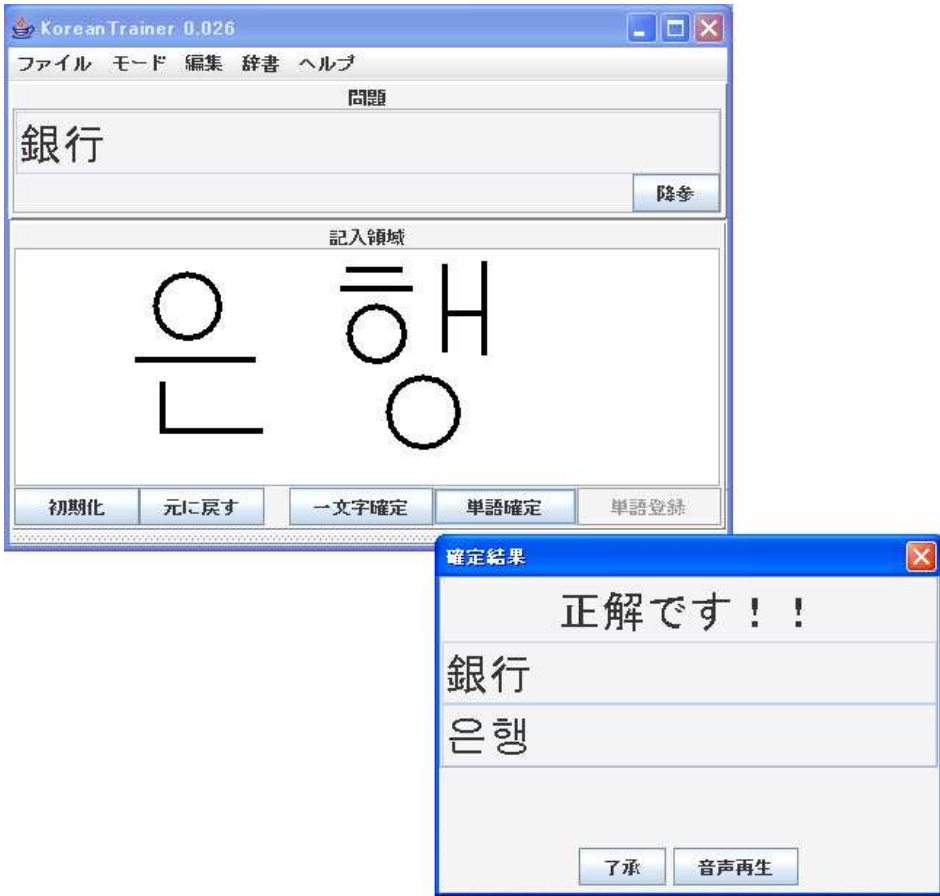


그림 7. 틀린 쓰기순서로 썼을 경우의 메시지



그림 8. 단어DB에서 랜덤으로 선택된 일본어 단어와 학습자가 쓴 한국어 단어



4.3 조사의 쓰기 학습

한국어의 조사는 앞에 자음이 있느냐, 모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합되는 형태가 틀려진다. 이러한 점에 외국인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초급단계에서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완전히 습득하여서 어떠한 단어가 와도 조사를 구분하여 결합시킬 수 있는 충분한 반복연습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소프트웨어에서는 초급자들 대상의 조사학습의 기능도 만들었다. [바다]라는 단어를 예로서 설명하겠다.

[바다]의 단어는 모음으로 끝났으므로 조사는 [와]가 와야하지만 만약 학습자가 [과]를 썼다면, 틀렸다는 메시지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자는 곧 자신이 무엇을 틀렸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림 9>에서는 실제로 어떤 부분이 틀렸다는 학습지도 기능의 메시지를 나타

내었다. 본 소프트웨어에는 초급단계에서도 기본조사인 [은/는, 이/가, 을/를, 와/과] 의 조사 활용을 등록하였다.

그림 9. 조사학습의 쓰기



4.4 그 외의 기능

단어DB에 있는 단어에는 각 단어의 음성 데이터도 같이 등록되어 있다. 이러한 음성데이터의 기능은 학습자가 한국어 단어의 발음을 동시에 바로 확인하면서 쓰기 능력 향상뿐만이 아니라 학습자의 [듣기] 능력까지도 향상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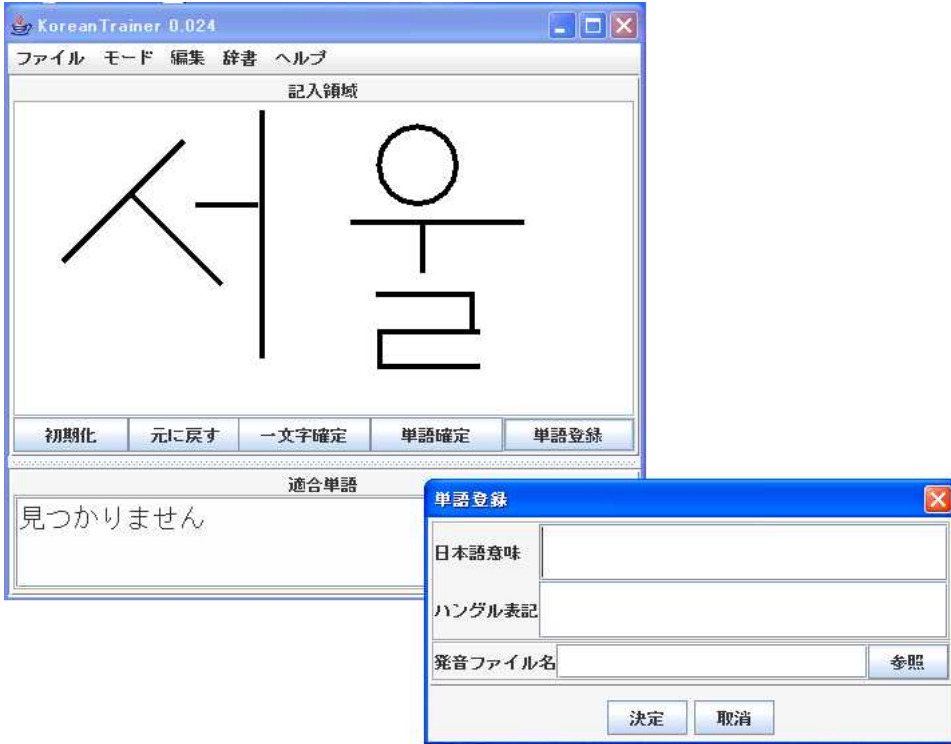
앞의 <그림4>를 보면 단어의 쓰기연습 모드에서 한국어의 단어를 쓴 후에 [단어확정]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결과 윈도우창에 [음성재생]버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음성재생]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있는 단어의 발음이 자동적으로 재생되어 학습자가 직접 단어의 발음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학습자는 단어DB안에 있는 단어이외에도 새로운 단어를 등록시킬 수가 있다. 이 기능의 장점은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이 알고 싶고, 외우고 싶은 단어를 등록시킴으로써 학습자 자신만의 단어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학습자 개인의 관심과 학습목표에 따라 서로 다른 단어들을 계속해서 등록시킴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지속시켜 꾸준한 한국어 학습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림10>에서와 같이 학습자가 「서울」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쓰고 그 아래의 [단어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일본어 의미를 입력할 수 있는 윈도우창이 뜬다.

이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학습자는 자신이 외우고 싶은 단어를 스스로 등록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자 자신의 학습의욕을 더욱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10. 새로운 단어를 등록하는 입력 윈도우



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초급단계에 있는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손으로 쓰는 [자습용 소프트웨어]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외부적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가정용 컴퓨터에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쉽고 간단하게 한글의 [쓰기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지원해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 소프트웨어는 학습자가 마우스로 컴퓨터 화면상에 쓰기 연습을 하면서 올바른 한글의 쓰는 방법을 배우고, 새로운 단어도 익혀가는 [자습용 소프트웨어]로,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려움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한글쓰기 순서를 상세하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전면적으로 한국어 학습자를 지

원하려고 한다. 아래에 향후의 과제를 정리해 보았다.

- 본 소프트웨어는 초급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급자가 이용할 경우에는 너무 쉽고 간단하다고 느낄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동사의 활용이나 표준발음변환기능등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중급 학습자에게도 이용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본 소프트웨어는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영어를 주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또는 중국인등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으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 현재 단어장 기능을 사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등록할 때에 windows XP의 한국어 입력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혹시 이러한 기능을 모르는 학습자가 사용하더라도 간단히 단어가 등록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또 단어등록시의 등록원도우창의 음성파일의 경우에는, 등록하고 싶은 새로운 단어의 발음을 학습자 스스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파일로 변환해야 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럴때 네이티브가 아닌 학습자한테는 표준발음의 음성파일 생성이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한글단어를 화면에 썼을때 자동적으로 표준발음으로 변환된 음성파일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능개선에 의해 한국어 학습의 지원은 물론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이 더욱 증명되고 앞으로 세계속에서 한국어의 지위도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石塚丈晴・堀田龍也・小川雅弘・山田智之(2005), “小學生を對象としたPDAを用いた漢字ドリル學習ソフトウェアの開発”, 日本教育工學論文誌, Vol.27, pp.225-228.
- 武居典子・持田桂介・末代誠仁・中川正樹(2005), “字形の評価箇所を指示できる手書き漢字學習ソフトウェア”, 情報處理學會研究報告, 2005-CE-78, pp.15-22.
- 高橋裕樹・金大祐・中嶋正之(2005), “韓國語の構造特徴を用いた情景畫像からの韓國語文字列領域抽出”, 信學論(D-II), Vol.J88-D-II, NO.9, pp.1808-1816.
- 金惠鎮(2005), “スタート!韓國語初級”, 白帝社.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자습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대한 토론

선 홍 남
(동국대학교)

쓰기는 문자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언어 표현 활동으로 글쓰기와 글씨 쓰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¹⁾, 처음 외국어를 접하는 학습자들에게 글씨 쓰기는 중요하면서도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자습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외국인 학습자들의 '쓰기'에 대한 학습 의욕을 고취시켜 줌과 동시에 예전의 일방적인 연습·훈련형 학습 활동에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컴퓨터가 생활의 일부분이 되면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첫 단계인 컴퓨터를 이용한 쓰기 학습 활동은 초급 단계에 있는 한국어 학습자가 갖는 쓰기에 대한 어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여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토론문은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자습 소프트웨어' 사용이 초급 단계에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좀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부족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활용상의 의문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급 단계에서 한국어 쓰기 학습은 한글의 자모 쓰기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쓰기에 대한 바른 필순 지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쓰기 프로그램은 자음과 모음의 위치에 따른 8종류의 구조에 의해 학습자가 자신이 쓴 자소의 위치나 순서가 맞는지 확인하면서 쓰기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에서는 처음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교사의 도움 없이 쓰기 학습 활동을 하는 경우, 학습자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모의 필순을 익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발표문에서는 학습자가 쓰는 순서를 익힐 수 있도록 시청각자료(동영상, 사진)의 제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이 쓰기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교사의 지도 없이 혼자 학습 활동을 하는 경우, 일부 자모의 쓰기 순서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본 프로그램에서는 [지진]이라는 단어에서 학습자가 4번째 자소를 “ㄴ”으로 썼

1) 한재영 외 (2005) : 한국어교수법 p. 247

을 때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서 오류를 수정해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외에 학습자들이 일으키는 또 다른 오류로, 학습자에 따라서는 필순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써야 함에도 그 순서를 반대(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쓰는 것과 같은 예)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쓰기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문제까지도 오류로 인정하고 지도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본 발표문에서는 단어 DB에 있는 단어에는 각 단어의 음성 데이터도 같이 등록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자가 단어를 쓰는 것과 동시에 바로 발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쓰기와 듣기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쓰기 능력 향상뿐 아니라 듣기 능력까지도 향상시켜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낱말 재인에는 의미와 함께 발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어의 정서법은 매우 복잡한데다 형태음소 표기라서 음운 규칙의 학습 없이 어휘 지식과 표기만을 이용한 학습 방식은 초급 학습자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국물/의 실제 발음이 [궁물]이라는 것과 /놓다/가 [노타]로 발음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초급 학습자에게 표기와 발음의 차이는 학습의 장애로 느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발표자께서는 자모를 배우는 기초 단계의 학습자에게 음운 규칙의 설명 없이 단어 표기와 그에 따른 발음의 차이를 어떻게 인지시키는 것이 좋은지, 이 쓰기 프로그램에 그에 대한 해결 방법도 제시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이 쓰기 프로그램에서는 /국물/의 음가인 [궁물], /놓다/의 음가인 [노타]를 발음과 동시에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보다 능률적인 쓰기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어 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발표자님의 노력에 존경을 표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쓰기 학습 시도가 앞으로 더욱 다양한 쓰기 활동의 유형을 제시해 주는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의 한국어어문화교육과 한류

왕 혜 숙
(브라운대학교)

1. 들어가기

‘한류’라는 단어를 인터넷 검색에서 찾아보면 이백 오십만개가 넘는 한류관련 아이템이 뜬다. 사실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난 몇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이 주제에 대해 쓰여진 걸로 짐작이 되는데 이 발표에서는 그 중의 아주 작은 부분, 미국에서의 한류, 특히 한국어어문화 교육과의 연관하에서 한류현상에 국한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미국은 한국과는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거리가 멀어 직접적인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심의 정도도 한류의 진원지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동아시아나 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여러 면에서 감지되고 있다. 미국미디어 (특히 신문)에서 ‘한류현상’에 대한 기사를 실고 있으며, 미국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인종배경이 다양해진 점, 특히 중국계 미국인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한 점, 등이 한류의 영향을 직접,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이 짧은 발표에서는 먼저 미국에서의 한류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 한류현상이 한국어어문화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 한국어어문화 수업에 연계, 접목시키는 방안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

2. 미국에서의 한류현황 (한류에 대한 인식)

먼저 미국이라는 나라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이 발표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미국의 상황 전반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미국에서의 한류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첫째, 미국 미디어의 한류 보도 현황, 둘째, 미국 대학생들의 한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셋째, 한류를 주제로 한 학술적, 비학술적 토론에 대해 간

단히 조사해 보았다.

1) 미국 미디어의 한류 보도 현황

미국미디어에 실린 '한류' 관련 기사를 찾아 본 결과 숫적으로 그리 많지 않았으며, 거의 대부분의 기사가 한인공동체가 비교적 큰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 또는 시카고에 소재한 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 알려진 New York Times나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Times, Newsweek등도 한류에 대한 기사를 실고는 있지만 주로 아시아판에 게재되었으므로 예상되는 영향력이나 기대효과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구체적인 기사의 내용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한류가 아시아에서 거센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미국에 상륙을 시작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그 중 몇가지 예를 들어본다.

San Francisco Chronicle 2005년 8월 28일자 기사는 미국에서도 한국 드라마의 열성팬들이 많이 생긴 사실을 보도하면서 <대장금>의 마지막회는 Bay Area에서만 10만명 이상이 시청했다고 쓰고 있다. Chronicle은 또, <대장금>이 같은 시간대 미국 채널의 인기 프로그램보다 더 높은 시청율을 기록했으며 Hispanic American들까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다고 보도했다. 2005년 10월 5일의 Wall Street Journal (한국의 성형수술이 아시아의 얼굴을 바꾼다) 에서는 한류열풍에 의한 성형수술의 인기에 대해 쓰고 있고, 비슷한 시기의 <타임>지 아시아판에서는 한류를 소개하면서 가수 '비'를 한류의 최고 item으로 평가했다.

몇몇 기사들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관심을 얻는 이유를 미국 드라마와 비교해서 분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물론 한국영화나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도 드라마 못지 않지만 영화나 음악의 경우는 한류현상과의 연계나 한류현상의 부분으로서 보다는 개별 영화에 대한 관심, 특히 국제영화제에서 주목을 받는 영화들, 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음악은 가수 '비'의 미국공연을 몇몇 신문에서 보도위주로 다루었다.

방송으로는 워싱턴에 소재한 Radio Free Asia (RFA)가 “세계로 부는 한류열풍”이라는 주간기획 프로그램을 2005년부터 꾸준히 방송하고 있다. 이 방송은 한국

대중문화의 동향과 한류와 관련된 단신뿐만 아니라 한류관련 인사들과의 인터뷰도 방송하고 있다.

RFA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KBS World가 미국의 대표적 케이블회사인 Echostar와 KBS World channel의 전 송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전역을 대상으로 24시간 정규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케이블 수신만 하면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인데 한국드라마에 대한 접근성 (accessibility)이 높아진 것은 한류붐 지속에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한 나라의 특정 문화가 대다수 주류 미국인의 삶에 파고 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또한, 한류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도 비아시아적 배경을 가진 미국인이기 보다는 아시안 어메리칸이 대다수여서 여전히 아시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 대학생들의 한류에 대한 인식

대학생들의 한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발표자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간단한 신상정보에다 한류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는지, 있으면 자신이 생각하고/알고 있는 한류가 무엇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 한류에 대해 듣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본 한국영화와 드라마가 몇 개 정도이며 알고 있는 한국가수가 몇 명 정도인지, 그리고 최근에 한국어 수업을 들었거나 현재 듣고 있을 경우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 수업 수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미쳤으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는 이 메일을 통해 실시되었는데 브라운대학교 한인학생회 (학부 교포학생들의 학내모임), 일본인 학생회, 중국인학생회, 그리고 한국어 수업을 들었거나 듣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의 큰 어려움 중의 하나로 예상했던 바와 같이 설문지 회수율이 높지 않아 설문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경향, 분위기를 파악할 수는 있었다. 응답 결과를 요약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응답자의 20% 정도는 한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일이 없는 반면, 80%는 한류에 대해 들어보았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한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한류에 대해 듣거나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한국 미디어를 통해서였다고

대답했고, 미국 미디어를 통해서였다는 대답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다. 다른 경로는, 한국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서, 또는 수업시간에 (한국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경우)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한국영화나 음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서는, 한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대부분이 스스로 한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very well or moderately well) 생각하고 있으며, 적어도 6편 이상의 한국영화를 보았거나 6명 이상의 한국 가수들을 안다고 대답해, 한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응답자와 분명한 대조를 보였다. 다시 말해, 한류를 잘 알고 있고, 한류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한국사람들 못지 않은 지식을 갖고 있는 반면, 반대의 경우는 거의 알지 못하는 일종의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 수업 수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한류 그 자체가 한국어 수업을 듣게 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했다고 대답한 응답자 (한국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설문지에 대한 대답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학생들의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 수업 수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전공필수 과목에 대한 부담, 전체적인 강의 스케줄, 한류에 대한 관심의 정도,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 등 여러가지 요인이 수강결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한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결정적인 작용을 했는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으며 더 알고 싶다는 학생들과, 지금까지 한국어 수업을 듣지는 않았지만 한국영화나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과목이 개설될 경우 심각하게 수강을 고려하겠다는 (definitely consider) 응답자가 대다수였다는 사실은 한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i) 한류에 대한 토론마당: 하바드 대학의 한류관련 패널

한국 미디어를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지난 2월 16일에 하바드대학에서는 “Hallyu (Korean Wave) in Asia: A Dialogue” 라는 제목의 패널 토론이 열렸다. 하바드대학 한국학연구소와 케네디 행정대학원 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에는 데이비드 레허니 위스콘신대 정치학과 교수, 아일린 차우 하바드대 동아시아학과 교수, 이언 콘드리 MIT 교수, 데이비드 맥켄 하버드대 동아시아학과 교수가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가수 박진영씨도 초청을 받아서 한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발표자는 그 때 불행히도 외국에 나가 있어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패널리

스트들과의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요점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내용을 몇가지 요약해 보면, 레허니 교수는 첫째, 대중문화는 우리가 누구인가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나라 대중문화의 해외에서의 역할이나 중요성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둘째, 한국 대중문화가 한국에서 갖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의미를 외국에서도 가질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사람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를 형성하는 복잡한 사회적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한편, 콘드리 교수는, 문화의 흐름은 메인스트림 (주류)뿐만 아니라 하위문화 (subcultural level)에서도 나타나며, 대중문화의 정치학은 그것을 극대화시키려는 정부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려는 대중들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한류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학문적이든, 비학문적이든 한류에 대한 이런 공개토론이 별로 없었다. 물론 발표자가 미국의 각 대학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대해 다 알고 있지 못하므로 확신할 수는 없음을 밝힌다. 그런 의미에서 하바드대학의 이번 패널은 한류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한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며 시의적절한 노력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초청학자들이 대체로 일본학 전문 교수들이었고 청중들도 아시아계 미국학생이 대다수였다는 사실은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3. 한류의 영향과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연관성

한류가 미국대학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앞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한류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나 인식경향은 한국적 배경에서 성장한 교포학생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비교포학생의 경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포학생들의 경우 비교포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주위환경이나 가정적 배경때문에 한국문화를 접하거나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경향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은 한국 관련 수업 수강생의 대다수를 차지해 온 교포 그룹과, 인종적인 배경과는 상관없이 다른 이유들때문에 (예,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 직업적 전망)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비교포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수강생의 절대 다수가 교포인 프로그램이

많아 한국어 수업은 한국교포만 듣는 수업이냐는 비난(?)이 있었고 한국어가 다른 외국어처럼 진정한 외국어가 되기 위해서는 비교포 그룹의 수강생 수가 늘어야 한다는 지적과 토론도 있어 왔다. 문제는 어떻게 늘리느냐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이다. 한류현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발표자가 동료 선생님들과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에 의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브라운대학을 포함한 동부 아이비대학들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에 비교포 학생이 소수그룹이 아닌 다수그룹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초급반의 경우 특히 두드러진다. 물론 이 비교포 그룹을 구성하는 학생들의 인종배경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백인종도 늘긴 했지만 아시아계 미국인, 특히 중국계 미국학생들의 수강생 수가 높아졌음은 주목할 만하다.

간단한 에피소드를 예를 들어 보겠다. 작년에 발표자의 초급반 학생 중에 중국계 미국인 학생이 세 명 있었는데 그 중 한명은 엄마가 <대장금>을 너무 열심히 보셔서 따라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문화를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 수업을 듣게 되었다고 했다. 발표자의 또 다른 백인 학생 한 명은 초급반 수업에 들어왔을 때 한국어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백인들의 경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한국사람인 경우가 흔한데 그것도 아니었다. 동기가 아주 궁금했던 발표자가 왜 어려운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학생은 어떤 계기로 <보아>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보아>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어에 관심이 생겼으며 말도 배우고 싶어 듣게 되었다고 했고, 실제로 힘들어 하면서도 어떤 학생보다도 열심히 공부했다. 절대적인 숫자는 여전히 많지 않지만 이렇게 문화에 대한 관심이 순수한 동기가 되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비교포학생들의 경우, 어떻게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관건이 된다고 본다. 일단 맛을 보아야 관심과 흥미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류 바람이 불기 이전부터도 소위 말하는 '한국영화의 밤' 같은 행사는 여러 캠퍼스에서 있었지만 사실 이 행사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발표자 역시 10여년 전 손님없는 잔치를 벌여놓고 썰렁한 행사장에서 축스럽고 속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영화 전반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데 자신있게 내놓을 만한 수준 높은 영화도 그리 많지 않았고, 학교에서의 재정지원이나 행사의 조직 등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부족했다. 물론 이런 행사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충분하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역시 한국영화 수업 개설이 아닐까 한다.

4. 한류의 한국어언어문화교육에의 접목

2006년 3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국립국어원에서 한류로 유명해진 드라마와 영화 15-20편을 선정해서 거기에 묘사된 한국문화와 한국어 표현 등의 학습요소를 전문가가 해설하는 방식의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 한류지역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교재개발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발표자가 아는 바가 없지만,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교수자료가 될 것임은 틀림없다. 이렇게 한류현상을 이용해 그에 맞는 좋은 자료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자료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사용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그에 못지 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한국을 알려서 한국에 대해 배우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문화, 특히 한국대중문화를 통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진흥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중의 하나로 발표자는 한국영화 수업을 영어로 개설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발표자의 비공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한국영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영화 수업 개설을 원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한국영화의 놀랄만한 질적 발전, 그리고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받은 관심과 수상경력, 그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 등으로 한국영화의 위상은 상당히 높아져 있고 필요한 홍보도 되어 있다. 더군다나 디지털 세대인 대학생들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대단하다.

물론 한국영화 수업 개설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도전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겠다. 첫째, 현재 한국학/한국어 프로그램이 큰 소수의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대학에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수업을 전담할 교수요원 확보이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반 이상의 대학에서 전임교수 또는 강사 한 명이 조교의 부분적인 도움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그런 도움도 없이 혼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설 강좌 역시 기본 언어 강좌 몇개에 국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 수업을 개설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다.

둘째, 언어장벽이라는 장애를 없애기 위해 한국영화 수업은 영어로 개설되어야 하는데 자격있는 강사를 어디서 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미국대학생들이 외국어를 배우게 되는 동기는 여러가지지만 문화와 언어의 깊은 상관관계를 생각할 때, 일단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와서 하루종일 한국어만 배우는 학생들과는 달리, 미국 대학생들은 한국어를 교과과정의 하나로 배우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특히 한국어 같이 배우기 어려

은 외국어는 쉽게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화수업을 영어로 개설하게 되면 언어습득에 대한 부담없이도 한국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은 있지만 망설여 온 학생들까지 유치할 수가 있다. 언어를 배우면서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를 이해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싶은 동기도 생기게 될 것이므로 이중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셋째, 실제로 강좌를 개설할 경우 부딪치게 될 여러가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다. 예를 들면, 어떤 영화를 어떤 기준에서 선택할 것인가? 수업진행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화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강사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사실 영화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대부분의 한국어 교수/강사 선생님들에게 영화 수업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첫번째 문제의 경우, 아무래도 열악한 상황에서 매년 강좌를 개설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클 것이므로 격년제로, 상황이 더 여의치 않으면 3년에 한번 개설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설장을 하는 것이다. 수업이 인기가 있고 수강생이 많아지면 강사초빙을 위해 학교와 '달'을 하는 데도 훨씬 유리해 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가 좋아 고정 강사를 얻게 되면 매년 정규 교과과정으로 개설할 수 있다. 물론 설장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최소한의 희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두번째 문제의 경우, 한국 대학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연구년을 맞는 적지 않은 한국 선생님들이 미국 대학에서 연구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선생님들과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상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은 그런 연계를 위한 채널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해외한국학 지원을 받고 있는 한중연이나 교류재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세번째 문제의 경우, 물론 발표자가 제안하는 이 영화수업은 영화학과에서 하는, 영화를 제작적인 관점에서 영화예술 그 자체로 분석하려는 접근과는 다르다. 이 수업에서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영화 속에 녹아있는 한국사회와 문화, 한국사람들의 삶의 방식 등의 사회문화적, 주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네트워킹'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는 1994년에 '全美 한국어 교수 협의회'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가 설립된 이후 매년 학회와 이 메일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화수업의 경우도 강좌를 이미 개설해서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의 조언도 듣고, 또 그 교안을 토대로 일종의 '모범교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언

미국의 경우, 특히 대학의 경우, 한국은 항상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이 요즘 유행어로 '한참 뜰때'는 일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모여 들었고, 또 중국이 뜨고 있는 지금은 중국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다. 일본 프로그램에 학생을 뺏기다가 이제는 중국 프로그램에 학생을 뺏기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얼마 전 이견희 회장의 언급과 관련해서 샌드위치 신세의 한국에 대해 다룬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비단 경제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한국은 원해서든 아니든 오랫동안 중국, 일본과 경쟁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아니 경쟁했다기 보다는 그냥 이쪽저쪽으로 떠밀려 다녔다고 하는 표현이 옳을 지 모른다. 사실,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아시아의 경우 지금까지 미국사람들은 '일류' (일본문화)에 훨씬 더 익숙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아시아 하면 일본,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한국 수업을 듣게 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고 맛보게 하느냐는 단기간에 변화시키기도, 쉽게 해답을 찾기도 어려운 과제이다.

한국이나 한국문화는 한국에서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에 잘 알려져 있거나 대단한 관심을 끌고 있지는 않다. 조그만 사실도 엄청난 일처럼 보도하는 한국미디어들의 보도 경향으로 인해 사실이 과장되거나 확대보도 되고 있는 것도 어느정도는 사실이다. 어느 신문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 핵문제와 LPGA 여자 골퍼들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주류 미국언론에서 자주 뉴스거리로 등장하는 북한문제와 공중과 방송에서 주말이면 늘 중계방송을 해 주는 골프경기에 익숙해 있는 미국사람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결국, 한국문화에 대해 알고 있는 미국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RE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로스엔젤레스 사무소의 신 항우 소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류가 미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주류사회에 진출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미국내 아시아권에서 관심을 얻고 있는 정도로 보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한류가 아시아권에 머물지 않고 주류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정부대로, 문화계는 문화계대로, 학자들은 학자들대로, 각 분야에서 적절한 역할과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하겠지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고 있는 우리들은 다양한 문화 관련 수업을 개설하고 관련 행사를 열어야 한다. 서부에 있는 대학들의 경우 (UC Berkeley나 UCLA)는 재미동포와 아시아계 미국인의 숫자가 많지만 중서부나 동부의 경우는 뉴욕이나 워싱턴, 시카고등 일부 한인커뮤니티가 큰 도시를 제외하면 여전히 한국수업 수강생 수가 많지 않다. 과거에 수강생의 대다수였던 교포학생들이 줄고 있는 반면 비교포학생들의 수는 크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존폐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학교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미국 동부에서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류전파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보스턴이 미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한류전파도 중심점이 있다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 하바드대학의 패널같은 토론의 장이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류가 어떻게 아시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그들에게 어필했던 한국 대중문화의 힘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배워야 할 것이다.

한류가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평을 넓히려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관심에 국한돼 있는 한계를 넘어야 한다. 물론 몇몇 기사에서 남미계 미국인들의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에 대해 쓰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얘기일 뿐이다. 문화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호교류여야 한다. 따라서 한류도 미국문화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6. 마치면서

한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겠지만, 많이 쓰이는 표현처럼 한류를 반짝했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유행이나 '트렌드'가 아니라 생명력이 긴, 지속적인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모두가 원하는 방향일 것이다. 그 방법으로 수많은 전문가, 비전문가들이 나름대로의 의견을 내고 있는데 대체로 인스타그램의 스타파워에만 의존하는 한류를 벗어나 '콘텐츠'가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다 동의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한국어언어문화 교육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발표자로서는 한류현상이 해외 한국학의 발전과 중흥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 좋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개발된 한류상품을 한국어언어문화 수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류현상을 어떻게 각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킬 것인가는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학회는 같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미국에서의 한국어언어문화교육과 한류>에 대한 토론

Eun-Hee Shin

(미국 Simpson College)

이 논문은 미국의 상황에서 한류의 현상을 진단하고 한류의 영향을 한국어언어문화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글이다. 아시아 지역과는 달리 한류 현상이 미국의 주류문화에는 제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한류의 역량을 증대시키며 동시에 그 파급효과로 한국어언어문화의 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이 주제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 '한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사실,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의 콘텐츠란 연예문화(entertainment)에 가깝다. 이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한류의 범위도 이러한 연예계 중심의 한류를 의미하고 있는가.

둘째, 한류가 미국의 주류문화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한류가 한국 연예중심의 대중문화라는 제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명한 한계성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아닐까. 연예문화란 어느 문화권에서나 존재하지만 각 문화의 전통과 고유성과 접합되지 못할 때 '변방의 문화'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류가 미국의 주류문화 속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류의 문화 콘텐츠를 더욱 고급화 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셋째, 한류의 문화 콘텐츠를 더욱 고급화 시키는 작업은 역시 학술적 혹은 교육적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문화 채널은 다양할 수 있다. 전통음식, 전통의상, 궁중문화, 고전문화와 문학, 유교적 삶의 가치관, 한국적 권선징악의 윤리관 등등 다차원적일 수 있다. 이러한 한류의 문화 콘텐츠를 언어문화차원과 연결시키기 위한 입체적인 교육적 분석과 활용이 중요하지 않을까.

넷째, 미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종합적 학문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처럼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에서 언어교육이란 단지 언어만 배우는 채널이 아니라 철학, 역사, 풍속, 가치관, 윤리관 등 고유문화를 종합적으로 습득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구심점이 된다. 따라서 교원의 연구영역도 언어와 문화의 깊이 있는 만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수법 창조와 인문학 영역 간 연구교육의 병행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한류문화가 미국의 주류문화 속에 영향력 있는 문화성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외동포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이민문화의 특성을 살려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속되는 미국 이민과 조기유학 열풍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미국 내 한국문화와의 연대를 통하여 이벤트적인 한류행사보다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사상을 알릴 수 있는 문화외교의 기능을 갖춰야 할 것이다. 한류가 연예문화로 제한되지 않고 한국의 고유한 문화성과 결합되어 독특한 정치성을 발휘하게 될 때 한류는 미국의 다문화 사회에서 파생된 '또 다른 주류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